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SEOGWIPO
CITY
PUBLIC ART
MUSEUM

2020.12.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사장 김 학 모

2020. 12

목 차

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수립의 체계 ····· 7

2장 제주도 일반현황 ····· 9

제1절 제주도 자연환경 ····· 11

1. 오름 ····· 11

2. 곶자왈 ····· 12

3. 국제보호지역 지정 자연자원 ····· 31

제2절 제주시·서귀포시 일반현황 ····· 91

1. 행정구역 ····· 91

2. 인구현황 ····· 92

3. 2019년~2020년 각종 사회지표 ····· 42

4. 유통과 소비환경 분석 ····· 62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현황·여건 분석 ····· 92

1. 제주도 관광지(관람지) 현황 ····· 92

2. 관광객 내도 현황 ····· 92

3. 관광업체 등록 현황 ····· 113

4. 관광객 수용 ····· 23

5.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 23

제4절 제주도 유동인구 이동경로 분석 ····· 53

1. 관광 트랜드의 변화 ····· 53

2. 제주 방문객 수 변화와 이동경로 ····· 63

제5절 UNWTO(세계관광기구) 향후 세계관광 전망 ····· 83

3장 문화예술향유실태 및 미술관 환경변화 ····· 14
제1절 국민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현황 ····· 34
1. 국민문화예술향유 현황 ····· 34
2. 전국·제주특별자치도 문화기반시설 현황 ····· 74
3. 서귀포시 지역주민 문화향유 활동 ····· 25
제2절 전국 미술관·박물관 현황 ····· 95
1. 전국 미술관·박물관 설립 추이 ····· 95
2. 전국 국·공·사립 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현황 ····· 26
3. 서귀포시 미술관·박물관 현황 및 분포도 ····· 27
4. 관광 패러다임 전환시대 지역미술관의 역할 ····· 57
제3절 미술관과 환경변화 ····· 67
1. 사회적 환경변화 ····· 67
2. 문화예술 환경변화 ····· 77
3. 미술관 패러다임의 변화 - 21세기 미술관 ····· 18

4장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현황 및 분석 ····· 78
제1절 조직 현황 ····· 98
제2절 미술관 3관 예산 및 관람객 추이·수익 현황 ····· 09
1. 예산 편성 규모 ····· 09
2. 미술관 3관 관람객 추이 및 수익 현황 ····· 49
제3절 각 미술관 현황 분석 ····· 79
1. 기당미술관 ····· 79
2. 이중섭미술관 ····· 03
3. 소암기념관 ····· 09
제4절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창작공간 덕판배 ····· 51
1.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51
2. 창작공간 덕판배 ····· 12

5장 국내·외 미술관 사례조사 및 분석 ····· 52
제1절 국내 타시도 미술관 사례 분석 ····· 72
1. 서울시립미술관 ····· 72
2. 포항시립미술관 ····· 83
3.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 103
4.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 114
제2절 해외미술관 사례 ····· 124
1. 지역과 상생하는 해외미술관 사례 ····· 124
2. 작가미술관(Single artist museum) 해외 사례 ····· 151

6장 지역주민 의식(설문) 조사 분석 ····· 95
제1절 조사개요 ····· 9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96
1.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 96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07
3.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 117

7장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비전 및 중장기 운영방향 ····· 119
제1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119
1. 관련 계획 검토 ····· 119
2. 관련 법규 검토 ····· 120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SWOT 분석 ····· 121
제3절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비전 및 정책목표 ····· 122
1. 비전 및 목표 ····· 122
2. 운영방향 ····· 122
3. 정책목표의 설정 ····· 122
4. 추진과제 ····· 122
제4절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중장기 추진과제(세부) ····· 122
1. 정책목표❶ 서귀포시공립 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 122
2. 정책목표❷ 전문 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 122
3. 정책목표❸ 통합(3관) 디지털미술관 활성화 ····· 122
4. 정책목표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네트워크 ····· 122
5. 정책목표❺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 122

8장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운영과 활성화 방안 ····· 332
제1절 공립미술관 운영체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532
1. 조직활성화 방안 ····· 25
2. 예산 편성 분석 ····· 31
3. 공간활용 효율화 방안 ····· 72
4. 미술관 3관 전시 특성화 방안 ····· 162
5.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562
6. 작품 수집 방향 및 소장품 확대 방안 ····· 762
7. 수장고 가용한계 및 확대 방안 ····· 962
8. 미술관 대외교류 활성화 방안 ····· 072
9. 홍보 마케팅 방안 ····· 271
10. 수익창출 방안 ····· 76
제2절 공립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각 미술관 특성화 전략 ····· 972
1. 지역연계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 972
2.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특성화 로드맵 ····· 082
제3절 '미술관도시' 구축 타당성 검토 및 도시 브랜드화 전략 ····· 182
1.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 182
2. 추진 근거·타당성 검토 ····· 52
3.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방향 ····· 682
제4절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2021년~2025년) ····· 092
1.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92
2. 5개년 단계별 추진 목표 ····· 192
3.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총괄) ····· 292
4. 연도별 투자 계획 ····· 9

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2

■ 참고문헌 ····· 37
■ 부 록 ····· 39
1. 연구보고회 개최 결과 ····· 13
2. 설문조사표 ····· 39
3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인터뷰(요약) ····· 853

■ 참여연구진 명단

2020. 12

표 목 차

<표1-1> 연구의 시간적 범위 ····· 4
<표1-2> 연구의 방법 ····· 6
<표1-3> 연구수립의 체계 ····· 7
<표2-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오름 분포 현황 ····· 11
<표2-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분포 현황 ····· 13
<표2-3> UNESCO 자연환경분야 인증 현황 ····· 15
<표2-4>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 ····· 18
<표2-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 19
<표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세대 및 인구 ····· 20
<표2-7>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세대 및 인구 ····· 21
<표2-8>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이동 ····· 21
<표2-9>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사유별 이동 ····· 22
<표2-10>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 23
<표2-1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사회지표 ····· 24
<표2-12> 연령별 인구비율 및 노령화 지수 ····· 26
<표2-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람지) 현황 ····· 29
<표2-14> 관광객 내도 현황 ····· 30
<표2-1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객 내도 현황 ····· 30
<표2-1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체 등록 현황 ····· 31
<표2-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수용 ····· 32
<표2-18> 관광개발사업 현황 ····· 33
<표2-19> 유원지개발사업 현황 ····· 33
<표2-20> 투자진흥지구 현황 ····· 34
<표2-21> 국가별 관광상품 유형 ····· 35
<표3-1>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유형과 정의 ····· 48
<표3-2> 전국 문화시설 현황 ····· 49
<표3-3> 제주도 문화시설 현황 ····· 49
<표3-4> 전국 미술관·박물관 수 ····· 59
<표3-5> 전국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분포 ····· 59
<표3-6> 전국 주요 미술관 현황 및 제주도 미술관 ····· 62
<표3-7> 전국 국·공립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 64
<표3-8> 전국 주요 작가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 66
<표3-9> 제주도 공·사립 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 68
<표3-10> 제주도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비교 ····· 69
<표3-11> 관람객 수로 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순위 비교 ····· 72
<표3-12>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 미술관·박물관 분포수 ····· 72
<표3-13> 서귀포시 관내 미술관·박물관 현황 ····· 74
<표3-14> 생활예술로의 패러다임 변화 ····· 78
<표4-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직제현황 ····· 89
<표4-2>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규모 ····· 90
<표4-3>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규모 ····· 90

<표4-4>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규모 ··· 90
<표4-5> 기당미술관 관람객 추이 ··· 94
<표4-6> 기당미술관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 94
<표4-7> 이중섭미술관 관람객 추이 ··· 95
<표4-8>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 95
<표4-9> 소암기념관 관람객 추이 ··· 96
<표4-10> 소암기념관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 96
<표4-11> 기당미술관 조직인력 현황 분석 ··· 98
<표4-12> 기당미술관 시설 현황 ··· 98
<표4-13> 기당미술관 소장품 현황 ··· 99
<표4-14> 기당미술관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 99
<표4-15> 기당미술관 연차별 운영 프로그램 ··· 100
<표4-16> 기당미술관 국내외 교류 현황 ··· 101
<표4-17> 기당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 101
<표4-18> 기당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 102
<표4-19> 이중섭미술관 조직인력 현황 분석 ··· 104
<표4-20> 이중섭미술관 시설 현황 ··· 104
<표4-21>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총괄 ··· 105
<표4-22> 이중섭미술관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 105
<표4-23> 이중섭미술관 연차별 운영프로그램 ··· 106
<표4-24> 이중섭미술관 국내외 교류 현황 ··· 107
<표4-25> 이중섭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 107
<표4-26> 이중섭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 108
<표4-27> 소암기념관 조직인력 현황 분석 ··· 110
<표4-28> 소암기념관 시설 현황 ··· 110
<표4-29> 소암기념관 소장품 현황 ··· 111
<표4-30> 소암기념관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 111
<표4-31> 소암기념관 연차별 운영 프로그램 ··· 112
<표4-32> 소암기념관 국내외 교류 현황 ··· 113
<표4-33> 소암기념관 시설물 대관 규정 ··· 113
<표4-34> 소암기념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 114
<표4-35> 창작스튜디오 시설 현황 ··· 116
<표4-36> 창작스튜디오 시설물 대관 현황 ··· 116
<표4-37> 창작스튜디오 역대 입주작가 현황 ··· 117
<표4-38> 창작스튜디오 역대 결과 보고전 ··· 117
<표4-39> 창작스튜디오 2017년 지역연계프로그램 ··· 118
<표4-40> 창작스튜디오 2018년 지역연계프로그램 ··· 118
<표4-41> 창작스튜디오 2019년 지역연계프로그램 ··· 118
<표5-1> 서울시립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체계 ··· 130
<표5-2> 서울시립미술관 인력 현황 ··· 131
<표5-3> 서울시립미술관 부서별 업무 ··· 131

<표5-4> 서울시립미술관 세입예산 ··· 132
<표5-5> 서울시립미술관 세출예산 현황 ··· 132
<표5-6> 서울시립미술관 관람객 현황 ··· 133
<표5-7>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 133
<표5-8> 포항시립미술관 조직도 및 인력 현황 ··· 136
<표5-9> 포항시립미술관 관람객 현황 ··· 136
<표5-10> 장욱진미술관 인력 현황 ··· 139
<표5-11> 장욱진미술관 한 해 운영 예산 ··· 139
<표5-12> 장욱진미술관 관람객 현황 ··· 139
<표5-13> 장욱진미술관 관람료 현황 ··· 140
<표5-14> 장욱진미술관 대관 현황 ··· 140
<표5-15> 박수근미술관 인력 현황 ··· 142
<표5-16> 박수근미술관 관람객 수 ··· 143
<표5-17>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조직도 ··· 147
<표5-18>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수입·지출 현황 ··· 147
<표5-19> 2018년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관람객 현황 ··· 148
<표7-1> 미술관 업무의 종류 및 인력 유형 ··· 223
<표7-2> 미술관 업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안) ··· 224
<표8-1> 전국 공립미술관 현황 ··· 235
<표8-2> 포항시립미술관 인력 현황 ··· 236
<표8-3>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인력 현황 ··· 236
<표8-4> 양주군립박수근미술관 인력 현황 ··· 237
<표8-5> 일본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조직도(2019년도) ··· 238
<표8-6>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립미술관 인력 현황 비교 ··· 239
<표8-7> 현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조직도 ··· 240
<표8-8>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안) ··· 243
<표8-9> 이중섭미술관 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 관장제 도입(안) ··· 244
<표8-10> 공립미술관 총괄운영 독립부서 신설(안) ··· 245
<표8-11> 미술관 운영팀장을 학예관장으로 변경(안) ··· 246
<표8-12> 조직개편 각 안별 장·단점 분석표 ··· 248
<표8-13> 공립미술관 총괄운영 독립부서 신설(안)-제3안 ··· 249
<표8-14> 제주도립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 251
<표8-15> 제주현대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 251
<표8-16> 김창열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6년~2020년) ··· 251
<표8-17> 서귀포시공립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 252
<표8-18> 서귀포시공립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 252
<표8-19> 서귀포시공립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 252
<표8-20> 2019년 제주 6개 공립미술관 관람객 대비 예산 편성 ··· 255
<표8-21> 기당미술관 아트상품 종류 및 판매액 ··· 276
<표8-22>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종류 및 판매액 ··· 276
<표8-23> 소암기념관 아트상품 종류 및 판매액 ··· 277

그 림 목 차

2020. 12

<그림1-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위치 ····· 5
<그림2-1>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분포 및 현황 ····· 12
<그림2-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분포도 ····· 13
<그림2-3> UNESCO 자연환경분야 인증 현황 ····· 15
<그림2-4>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 ····· 18
<그림2-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 19
<그림2-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20
<그림2-7> 연령별 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 27
<그림2-8>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비중 ····· 35
<그림2-9> 국내 관광객 제주도 주요 이동 거점 ····· 36
<그림2-10> 국내 관광객 서귀포 주요 이동 거점 ····· 37
<그림2-11> 2020년1월~3월 세계관광객 수 급락 지표 ····· 38
<그림2-12> 2000년~2020년 세계관광객 추이 ····· 39
<그림3-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 43
<그림3-2>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44
<그림3-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 44
<그림3-4> 성별·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45
<그림3-5>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45
<그림3-6> 문화예술행사 이용자 의견 ····· 46
<그림3-7> 문화예술행사 정보습득 경로 ····· 47
<그림3-8> 전국 박물관 분포도 ····· 60
<그림3-9> 전국 미술관 분포도 ····· 61
<그림3-10> 서귀포시 관내 미술관·박물관 분포도 ····· 73
<그림3-11>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 76
<그림3-12> 예술심리치료 영상 ····· 80
<그림3-13> 현대미술의 시대별 매체 수용 경향 ····· 82
<그림3-14> 뉴미디어 시대의 예술 ····· 84
<그림3-15> 뉴미디어 시대의 예술 ····· 85
<그림4-1>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추이 ····· 91
<그림4-2>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추이 ····· 92
<그림4-3>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추이 ····· 93
<그림4-4> 기당미술관 전경 ····· 97
<그림4-5> 이중섭미술관 전경 ····· 103
<그림4-6> 소암기념관 전경 ····· 109
<그림4-7> 이중섭거리 초입 창작스튜디오 전경 ····· 115
<그림4-8> 서귀포칠십리시공원 내 '창작공간 덕판배' 전경 ····· 121
<그림4-9> '창작공간 덕판배' 공간 구성 현황 ····· 122
<그림4-10> 덕판배 교실 운영 현황 ····· 123
<그림5-1>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비전과 전략 ····· 128
<그림5-2> 서울시립미술관 ····· 129

<그림5-3> 서울시립미술관 조직도 ··· 130
<그림5-4> 포항시립미술관 전경과 소개 ··· 134
<그림5-5> 포항시립미술관 전경과 소개 ··· 135
<그림5-6> 장욱진미술관 항공 VR 캡처 ··· 137
<그림5-7> 장욱진미술관 시설 현황 ··· 138
<그림5-8> 박수근미술관 건축물 구성 ··· 142
<그림5-9> 소장품 및 각종 이벤트 소개 코너 ··· 146
<그림5-10> 예술아카이브 카드 작성 및 공개 ··· 146
<그림5-11> 버밍엄 이콘갤러리 위치 ··· 149
<그림5-12> 버밍엄 이콘갤러리 홈페이지 코로나 휴관 안내 ··· 151
<그림5-13> 무라카미산토기념관 시설 현황 ··· 152
<그림5-14> 무라카미산토기념관 '전시관' 건물 구성 ··· 152
<그림5-15> 무라카미산토기념관 '제1전시관' 내부 ··· 153
<그림5-16> 반 고흐 미술관 전경 ··· 154
<그림5-17> 반 고흐 미술관 배치도 ··· 156
<그림5-18> 숫자로 보는 2018년 반 고흐 미술관 현황 ··· 157
<그림7-1> 제주미래비전 체계 ··· 201
<그림7-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 204
<그림7-3>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3대 가치 ··· 205
<그림7-4>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5개 범주·10대 추진과제 ··· 206
<그림7-5>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가치와 목표 ··· 207
<그림7-6>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핵심과제 ··· 208
<그림7-7>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의 목적 ··· 210
<그림7-8>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 228
<그림7-9>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안내 ··· 229
<그림7-10>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 ··· 230
<그림8-1> 제주도 6개 공립미술관 예산 편성 분석(2015년~2020년) ··· 253
<그림8-2> 박수근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출시한 '박수근마을 쌀' ··· 278
<그림8-3> 지역연계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 279
<그림8-4> 서귀포시 지역과 예술이 어우러진 미술관도시 기본 구상 ··· 283
<그림8-5> 생활권별 개발 전략 ··· 285
<그림8-6> 제주관광의 비전과 목표 ··· 286
<그림8-7> 단계별 정책목표 ··· 291
<그림9-1> 지역연계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 302

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4
제3절 연구수립의 체계/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

재일교포사업가 기당(寄堂) 강구범의 재정적 지원으로 1987년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으로 개관한 기당미술관, 1950년대 한국전쟁기, 가족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로 피난 와서 화가의 삶을 보낸 것이 인연이 되어, 서귀포시가 이를 기려 2002년에 개관한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의 인문과 자연이 낳은 서예가 현중화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기 위해 2008년에 개관한 소암기념관(서예전문미술관) 3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개관 이래

서귀포시는 양적 인프라를 갖추고, 2022년에는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관광유형의 분화, 문화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다. 운영의 한계점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관광도시 서귀포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이중섭미술관 및 소암기념관의 관람객이 감소하는 한편, 문화향유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운영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가. 운영실태 진단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제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의 도약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새로운 문화관광상품 가능성 모색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을 타 공·사립미술관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미술관 3관 통합운영전략과 자원 연계방안을 통한 ‘미술관도시’라는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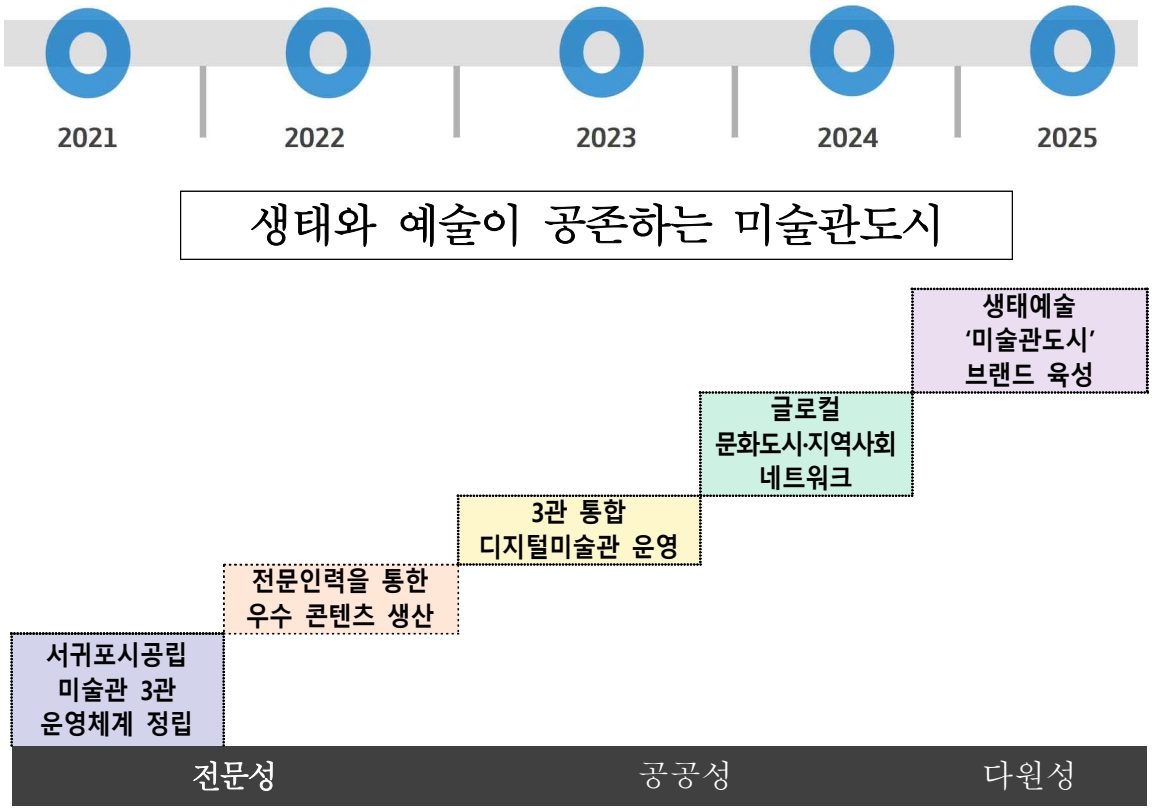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계획년도 : 2021년 ~ 2025년(5개년)



<표1-1>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나. 공간적 범위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창작공간 덕판배)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전역

<그림1-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위치

다. 내용적 범위

○ 미술관 환경변화 분석진단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 국내·외 우수사례 미술관 조사·분석 및 시민설문조사 수행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위상과 역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주요 전략 제시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현황진단을 통한 발전경영 전략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통합운영 및 차별화 전략

▶ ‘미술관도시’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관광상품화 방안

2. 연구의 방법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내부자료, 관람객 조사 등 현황자료, 국내외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와 계획들을 검토하고, 각 시설의 전시시설, 수장고, 편의시설 등 기능별 공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미술관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상품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 연구진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연구 진행 단계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함.

<표1-2> 연구의 방법

사업성격과 방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 전략 도출이 가능한 연구진으로 구성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 전문기관으로써의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과 효율적 운영계획 세부전략 제시
공립미술관의 성격과 지역별 추세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구축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	· 공립미술관 전 영역별 포메이션을 통한 기능 및 역할 정립 · 운영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 확보 · 도민 중심의 조직 / 문화서비스 강화 구상 · 공립미술관의 차별화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구체적 통합운영과 관광상품화 방안 제시가 가능한 풍부한 경험의 연구진 구성	·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상품화 방안 마련 · 공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제시 · 컨텐츠를 고려한 계획 제시 · 조직의 구성과 규모를 산정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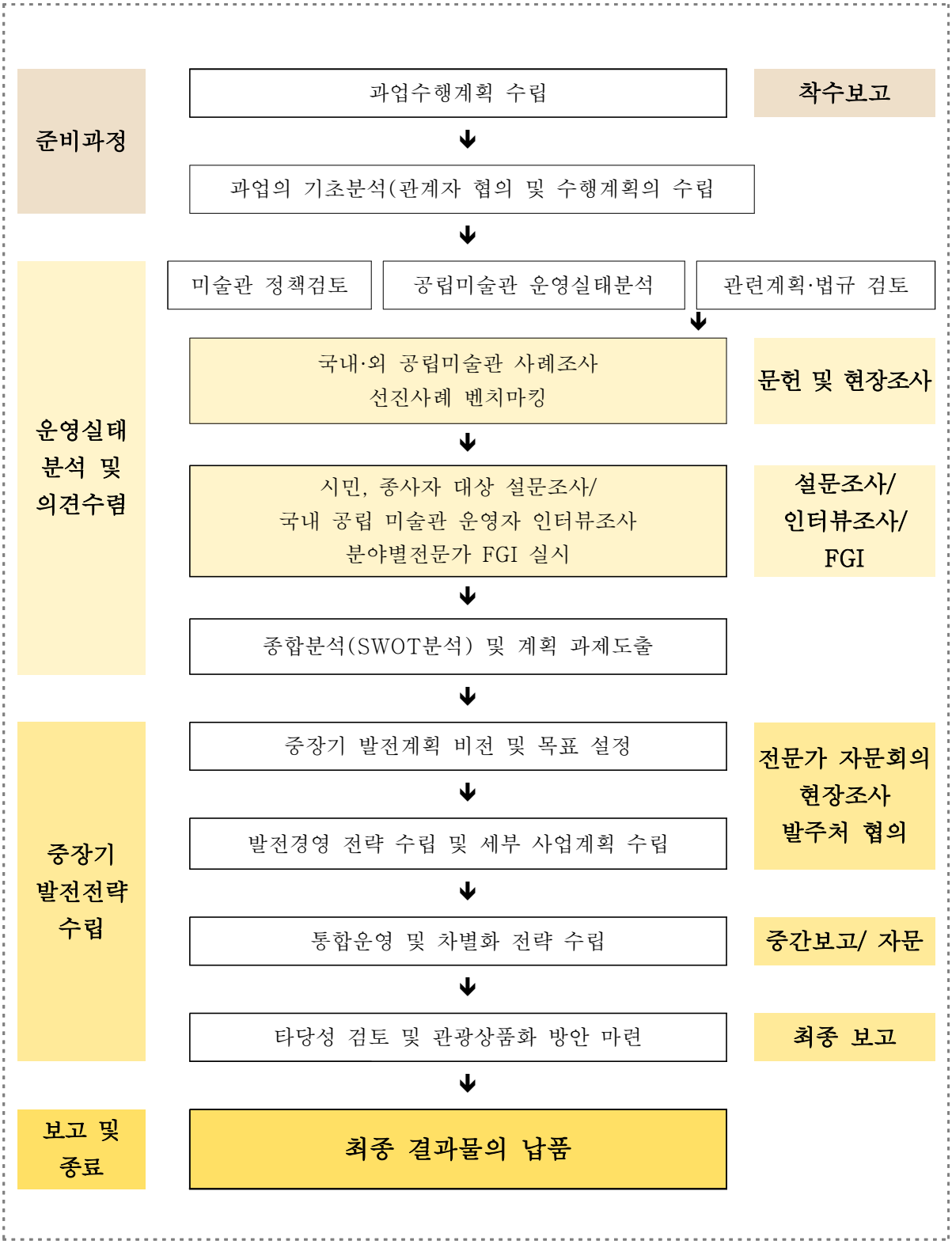
◆ **현장조사 및 문헌연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현황자료, 국내외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와 계획들을 검토하고, 각 시설의 전시시설, 수장고, 편의시설 등 기능별 공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현장조사

◆ **사례조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중장기발전을 위해 조직·인력·예산·전시현황·운영프로그램·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국내·외 유사 시설에 대한 사례 조사 수행

◆ **설문조사**
현행 미술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제주도민·미술관 3관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제3절 연구수립의 체계

<표1-3> 연구수립의 체계



2장 제주도 일반현황

제1절 제주도 자연환경/11
제2절 제주시·서귀포시 일반현황/19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현황·여건 분석/29
제4절 제주도 유동인구 이동경로 분석/35
제5절 UNWTO(세계관광기구) 향후 세계관광 전망/38

제1절 제주도 자연환경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내 관광 1번지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한편, 예부터 시인묵객과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켜 그 자체로 창작과 상상의 소재이자 무대가 되어옴.

21세기 들어오며 예술과 미술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주도의 자연자원이 단순한 볼거리 관광자원에 머물지 않고 생태예술・환경예술・치유예술의 강력한 모티브가 되고 그 결과물들이 다양한 예술장르로 승화되고 있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주도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이야말로 글로벌시대 생태예술・환경예술・치유예술의 산실이자 거점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 연장선에서 향후 제주도의 포괄적인 문화예술 정책 및 지역 미술관의 확장된 역할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제주도 자연환경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오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는 368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시에 210개(57.1%), 서귀포시에 158개(42.9%)가 분포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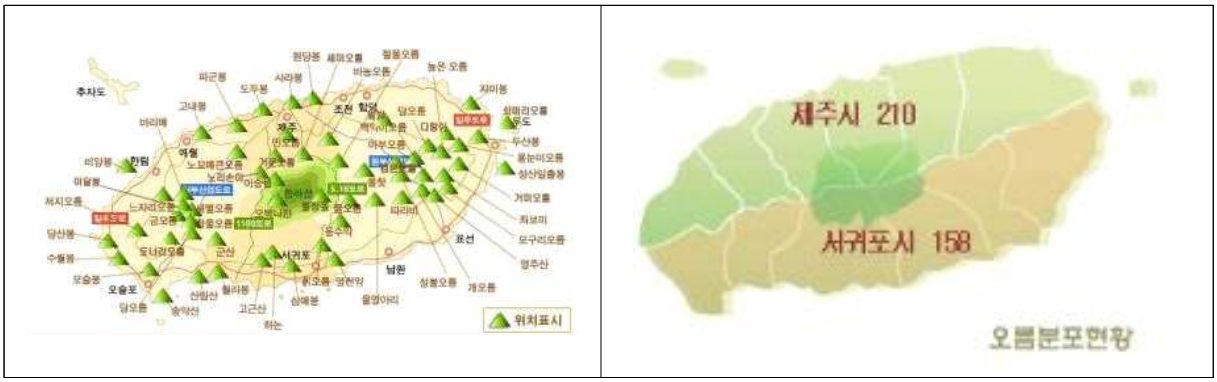
- 제주시에는 동(洞)지역에 59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한림읍이 16개, 애월읍 50개, 구좌읍 40개, 조천읍이 30개, 한경면 13, 우도면이 2개소가 있음
- 서귀포시에는 동(洞)지역에 37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정읍에 8개, 남원읍 29개, 성산읍 22개, 안덕면・표선면에 각각 31개소가 있음.

<표2-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오름 분포 현황

구 분	계	읍 면 동 (단위 : 개소)						
제 주 시	210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59	16	50	40	30	13	2
서귀포시	158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37	8	29	22	31	3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종합계획, 2016년

<그림2-1>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분포 및 현황



자료 : 제주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 곶자왈

○ ‘곶자왈’이란 용어는 조선시대 고지도인 제주삼한도, 제주삼읍총지도, 제주삼읍전도, 탐라순력도 등에 ‘곶’이라는 용어가 존재했던 사실로 미루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됨.[1] 곶자왈은 제주어로서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나 원래는 수풀을 뜻하는 ‘곶’과 돌과 자갈들이 모인 곳을 뜻하는 ‘자왈’의 합성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1).

○ 최근 제주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생태자원으로서 대표되는 곶자왈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 제주사람들이 부르던 ‘곶’을 가리키는 것임. 제주어 사전(2009)에 따르면, 곶자왈이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북제주군지에는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러한 곶자왈은 제주 지하수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물들이 연중 자랄 수 있도록 보온 및 보습효과를 만들어 줌으로써 동물과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의 허파라 할 수 있음.

○ 곶자왈 전체에서 정리된 곤충의 종수는 16목 172과 1,246종으로 제주도에 기록된 종수의 약 29%을 점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곶자왈 환경자원 조사, 2013).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분포는 4개 권역 즉, 애월, 한경·안덕, 조천·함덕, 구좌·성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곶자왈 분포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 중 5.95%인 110㎢로 제주시 52㎢, 서귀포시 58㎢가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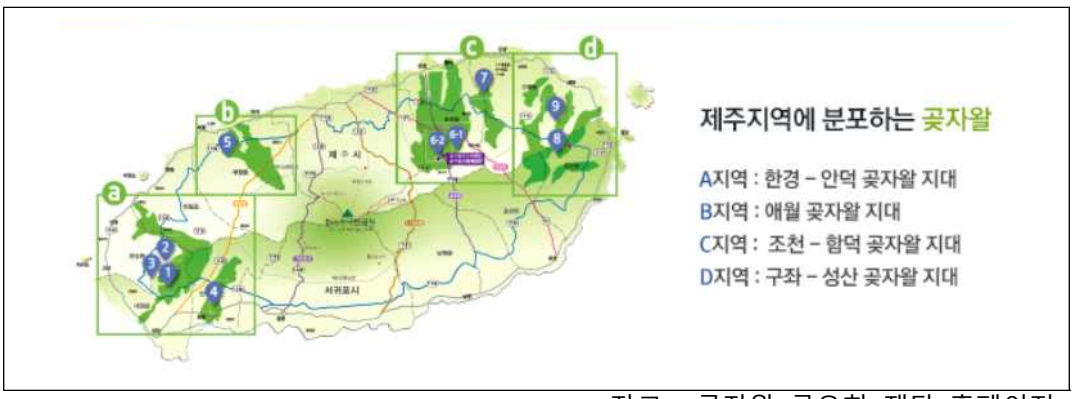
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곶자왈 환경자원조사, 2013년, p.2.

<표2-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분포 현황

합계 (면적)	제주시	서귀포시	분포지역(명칭) 별									
			애월 곶자왈 지대	한경/안덕 곶자왈 지대		조천/함덕 곶자왈 지대			구좌/성산 곶자왈 지대			
110㎢	52	58	애월	한경/안덕	상창/화순	조천/대흘	함덕/와산	선흘	종달/한동	세화	상도/하도	수산
기점오름			노꼬매	도너리	방악	민오름주변		서검은이	동검은이	다랑쉬	용눈이	백악이

자료 : 곶자왈 공유화 재단 홈페이지

<그림2-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분포도



자료 : 곶자왈 공유화 재단 홈페이지

3. 국제보호지역 지정 자연자원[2)]

제주특별자치도내 국제보호지역 지정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재 등이 있음

가. 생물권보전지역(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내는 난대·온대·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쳐 1,800여종의 식물과 곤충 등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임.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주변 및 서귀포시 영천과 효돈천을 연계한 지역은 동굴·폭포·계곡 등 수려한 자연 경관 등 독특하고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지역은 파초일엽, 상록활엽수림, 흑비둘기 서식, 패류화석층, 해안폭포 및 국내 유일의 아열대성 연성산호 군집, 455종의 해양동물 출현, 21목 98과 232종이 어류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고임.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은 2002.11.6.~11.8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MAB의장단회의(7명)에서 지정키로 결정하여 20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음.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백서, 2014, p.116~129에서 인용하여 각색하였음.

○ 지정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발 200m 이상 지역, 그리고 영천과 효돈천 및 그 주변 500m이내 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으로 전체면적은 83.094ha로 핵심지역 15,158ha, 완충 지역 14,601ha, 전이 지역 53,335ha로 되어 있음.

○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주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 관광활성화는 물론, 생태관광객의 증가, 효과적인 생태계 보전관리와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등에 대한 원리, 방법론, 경험 등을 지원받아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할 수 있고 자연보전에 대한 도민 인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인 연구・교육・훈련・국제행사 개최 등을 수행하게 되고, 지구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국제적 인지도가 확대되어 제주도가 추구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큰 기여가 되고 있음.

○ 한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17개국 610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82년 설악산, 2002년 제주도, 2009년 신안다도해, 2010년 광릉숲, 2013년 고창군이 지정되었음.

나. 세계자연유산 등재(World Heritage)

○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6월 27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 이로써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최초 세계자연유산이 됨.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성산일출봉 3개 지역임.

○ 지정면적은 188.45㎢이며 이 중 핵심지역은 94.75㎢, 완충지역은 93.70㎢임.

○ 2012년 6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세계자연유산 정기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음.

다. 세계지질공원 인증(Global Geoparks Network)

○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임. 2004년 유네스코와 유럽 지질공원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었고, 전 세계 29개국 120개소(2015년 1월 기준)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됨. 제주도는 2010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음.

○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는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질명소는 섬 중앙에 위치한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 수성화산체의 대표적 연구지로 알려진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 형성 초기 수성화산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해안, 주상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중문 대포주상절리대, 제주 형성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자 100만 년 전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서귀포패류화석층, 퇴적층의 침식과 계곡·폭포 형성과정을 전해주는 천지연폭포 웅회구의 대표적 지형이며 해 뜨는 오름으로 알려진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가운데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만장굴 등 9개의 대표 명소가 있음.

<표2-3> UNESCO 자연환경분야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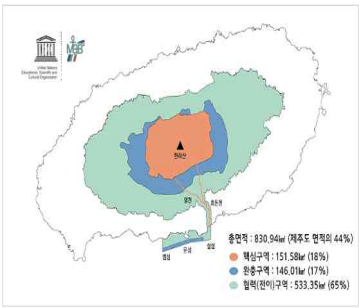
구 분	명 칭	지정구역(범위)	등재연도	비 고
세계 자연 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거문오름, 김녕굴 및 만장굴, 벵뒤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2007. 7. 2	167개국 1,073건 *한국(12)
세계 지질 공원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한라산국립공원, 만장굴, 성산일출봉,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중문·대포 주상절리 해안,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우도, 비양도, 선흘곶자왈(동백동산)	2010. 10. 1	35개국 127개소 *한국(2)
생물권 보전 지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일대	2002. 12. 16	120개국 669개소 *한국(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총람, 2018.

<그림2-3> UNESCO 자연환경분야 인증 현황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자료 : 세계자연유산본부 홈페이지

라. 람사르습지 등재

○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요람이며 다양한 동식물 종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일차적인 생산성을 제공하며 가속화 되는 수자원 위기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함.

○ 람사르습지 등재는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동백동산 습지가 있음.

①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오름 정상 원형분화구에 습원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온대 산지습지의 생태적 특징을 가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소재하고 있음.
- 2006.10.18.일자로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된 이후 탐방객의 방문 문의가 급증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②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정구호(바깥둘레 1,500m)로서 매우 특이한 산지 습지를 이루고 있으며, 물가에는 큰고랭이, 골풀이 우점하고 기장대풀, 청비녀골풀이 출현하며, 수심이 깊은 쪽은 세모고랭이 등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서곤충으로는 한국미기록종인 송장헤엄치게가 서식하는 등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고산습지임.
- 이 지역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8.10.13.일로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되었음.

③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 1100고지 습지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습지가 넓게 분포하는 특성이 있으며, 물이 장기적으로 보유된 지역은 좀개수염, 좀팽이수염, 올챙이, 고랭이 등이 우점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빨리 건조되는 지역에는 한라부추, 누운기장대풀로 구성되며, 습지식물로 유일한 모기방동사니가 식생하고 있음.
- 지역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9. 10. 13일에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되었음.

④ 동백동산 습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12번 일원에 위치한 동백동산 습지는 0.59㎢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생태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곶자왈에 위치하고

있어 초지, 천연동굴, 자연습지 등 자연상태 원시성이 우수한 곳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 매를 비롯하여, 2급 10종, 천연기념물 6종,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제자연보호연맹 적색목록에 등록된 중국물부추와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고사리삼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

-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곶자왈 용암"은 특수성이 높아 제주 지하수 충전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습지유형을 갖추고 있어 2011. 3. 14일자로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된 이후 탐방객이 급증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⑤ 숨은물 뱅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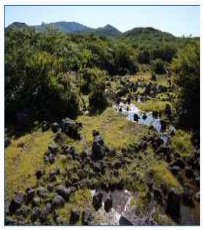
- '숨은물뱅듸'는 오름 사이에 숨어 있는 넓은 벌판을 일컫는 제주어로 행정구역상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속하며, 한라산 중산간 해발 980m에 위치한 고산습지로 삼행제샛오름, 노로오름과 살핀오름의 중앙에 위치함.
- 숨은물뱅듸는 주변 지역에 비하여 완만한 지형이 분포하며, 주로 주변의 하천에서 유입된 물과 강우에 의해 습지가 유지됨. 습지의 형태는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기하학적 형상이며, 지표수가 흔하지 않은 화산섬의 지질 특성상 한라산 산록 완사면에 형성된 산지 습지는 매우 드물게 발달된 습지임.
- 오름으로 둘러싸인 와지 형태의 완사면에 발달해 있어 주변의 오름 생태계와 연계되어 다양한 생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숨은물뱅듸의 면적은 약 43,602m, 둘레는 약 2,474m로 산지 습지로서 큰 규모에 해당하며, 습지 내에서도 지형의 기복에 따라 습지의 깊이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 대상지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음.

<표2-4>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

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
물영아리오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0.309	기생화신구	2006.10.18
물장오리오름	제주도 제주시	0.610	산정화구호	2008.10.13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0.126	산지습지	2009.10.12
동백동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곶자왈지역	2011.3.14
숨은물 뱅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5	산지습지(저습지)	2015.5.13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홈페이지

<그림2-4>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

				
물영아리오름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동백동산습지	숨은물뱅듸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홈페이지

제2절 제주시·서귀포시 일반현황

1. 행정구역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4개 시군, 7읍 5면 31동으로 편제되었으나,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제주시로, 기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서귀포시로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로 통합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은 2행정시 7읍 5면 31동(행정동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43읍면 중 제주시는 26읍면동, 서귀포시는 17읍면동이 있음.

<표2-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구 분	시	읍·면·동					통·리		
		계	읍	면	동		계	통	리
					행정	법정			행정
합 계	2	43	7	5	31	62	709	**537**	172
제 주 시	1	26	4	3	19	40	568	472	96
서귀포시	1	17	3	2	12	22	141		7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2019.

<그림2-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2. 인구현황

가. 2020년 10월 현재

<그림2-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2020년 10월 기준)

최근 5년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 및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 당 인구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음.

<표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세대 및 인구

(2019. 12. 31기준, 단위 : 세대, 명)

구 분	합 계			한 국 인				외 국 인		
				세대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96,657**	**351,753**	**344,904**	**293,155**	**670,989**	**337,345**	**333,644**	**25,668**	**14,408**	**11,260**
제주시	505,950	254,656	251,294	209,439	489,405	245,533	243,872	16,545	9,123	7,422
서귀포시	190,707	97,097	93,610	83,716	181,584	91,812	89,772	9,123	5,285	3,83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나. 인구추이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2012년 592,449명이였던 것이 2019년 말 현재 696,657명으로 14.9% 증가하였고, 104,208명이 증가했음.

○ 2019년 제주시 인구는 505,950명으로 제주도 전체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인구는 27.4%를 차지하고 있음.

<표2-7>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구 분	세 대			인 구		
	전 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 체	제주시	서귀포시
2019	**293,155**	**209,439**	**83,716**	**696,657**	**505,950**	**190,707**
2018	287,104	204,621	82,483	692,032	501,791	190,241
2017	278,203	198,454	79,749	678,772	492,401	186,371
2016	266,972	192,353	74,619	661,190	483,325	177,865
2015	256,928	185,874	71,054	641,355	470,778	170,577
2014	246,516	179,090	67,426	621,550	458,325	163,225
2013	238,465	173,370	65,095	604,670	445,457	159,213
2012	232,141	168,658	63,483	592,449	435,413	157,03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이동은 2019년 94,966명이 전입하였으며, 전출은 92,030명으로 2,936명이 순이동(순이동률 0.5%) 되었음.

○ 2012년에 비해 2019년의 전입인구는 15,465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출은 71,685명이 증가하였음. 순이동은 1,940명이 감소하였음.

<표2-8>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이동

(단위 : 명. %)

구 분	전 입			전 출			순이동	순이동률
	총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입률	총	시도간 전출	시도간 전출률		
2019	**94,966**	**35,158**	**5.1**	**92,030**	**32,222**	**4.6**	**2,936**	**0.5**
2018	104,202	39,189	5.9	95.349	30,336	4.6	8,853	1.3
2017	105,027	41,752	6.4	91,022	27,747	4.3	14,005	2.2
2016	106,825	40,381	6.4	92,193	25,749	4.1	14,632	2.3
2015	97,580	38,544	6.3	83,323	24,287	3.9	14,257	2.3
2014	92,508	32,835	5.5	81,396	21,723	3.6	11,112	1.9
2013	88,851	28,244	4.8	81,028	20,421	3.5	7,823	1.3
2012	79,501	25,221	4.3	74,625	20,345	3.5	4,876	0.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 제주특별자치도 시도 간 전입 사유를 보면, 2019년도 전체 전입인구 35,158명 중 직업이 15,058명으로 42.8%, 2018년도 43.9%, 2017년도 45.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2019년도에 가족이 24.4%, 주택이 12.7%, 교육이 6.1%, 자연환경이 6.2%, 주거환경이 2.7%, 기타가 5.1%를 차지하고 있음.

<표2-9>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사유별 이동(시도간 전입)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1,752**	**100.0**	**39,189**	**100**	**35,158**	**100**
직 업	19,008	45.5	17,214	43.9	15,058	42.8
가 족	9,468	22.7	8,893	22.7	8,577	24.4
주 택	6,242	15.0	5,288	13.5	4,467	12.7
교 육	2,586	6.2	2,409	6.1	2,142	6.1
주거환경	667	1.6	645	1.6	936	2.7
자연환경	2,126	5.1	2,196	5.6	2,193	6.2
기 타	1,655	4.0	2,544	6.5	1785	5.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최근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지속적 증가 전망임.

* 제주도 총인구 : 2020년 67만36명→2023년 70만5천명→2035년 78만6천명 전망.

○ (제주시) 2020년 49만7천명에서 2021년 50만4천명, 2035년에는 57만3천명에 이르러 2020년 대비 11.9%(약 6.8만명) 증가가 예상됨.

○ (서귀포시) 2020년 17만9천명에서 2028년 20만명, 2035년 21만명에 이르러 2020년 대비 15.9%(약 3만4천명) 증가가 예상됨.

<표2-10>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단위 : 명. %)

연도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0	676,454	100.0	497,439	73.5	179,015	26.5
2021	686,640	100.0	504,433	73.5	182,207	26.5
2022	696,291	100.0	511,068	73.4	185,223	26.6
2023	705,504	100.0	517,424	73.3	188,080	26.7
2024	714,276	100.0	523,481	73.3	190,795	26.7
2025	722,665	100.0	529,277	73.2	193,388	26.8
2026	730,669	100.0	534,828	73.2	195,841	26.8
2027	738,304	100.0	540,116	73.2	198,188	26.8
2028	745,610	100.0	545,172	73.1	200,438	26.9
2029	752,547	100.0	549,982	73.1	202,565	26.9
2030	759,107	100.0	554,512	73.0	204,595	27.0
2031	765,266	100.0	558,757	73.0	206,509	27.0
2032	771,023	100.0	562,714	73.0	208,309	27.0
2033	776,372	100.0	566,355	72.9	210,017	27.1
2034	781,263	100.0	569,680	72.9	211,583	27.1
2035	785,641	100.0	572,638	72.9	213,003	27.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3. 2019년~2020년 각종 사회지표

<표2-1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사회지표

인구	2020.10. 기준	제주도 총 인구 673,606명 + 외국인 23,410명 = 총 697,016명 제주시: 507,135명 서귀포시: 189,881명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9.12. 기준	제주도 총 인구 670,989명 + 외국인 25,668명 = 총696,657명 제주시: 505,950명 서귀포시: 190,707명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가구와 가족		○ 가구분포 ‘부부와 미혼자녀’ 구성 가구가 3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22.1%)’, ‘한부모와 미혼자녀(16.7%)’ 순임 ○ 가구원 수 1인가구 29.4%, 2인가구 27.4%로 전체의 56.8%를 차지 ○ 2019년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는 16.7%로 2017년(12.6%) 대비 4.1%p 증가 - 분거가족은 주로 ‘국내(도외)’에 거주한다고 응답 (배우자 48.7%, 미혼자녀 55.3%) - 분거 사유는 주로 직업(직장)으로 나타남(배우자 72.8%, 미혼자녀 41.8%) ○ 도 단위 조사(서귀포시 별도 수치 없음). 출처: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주거		○ 도민들이 희망하는 주택형태는 주로 ‘단독주택’(56.2%)이며, 40대 미만 연령층은 ‘아파트’를 선호, 40대 이상은 ‘단독주택’을 선호 ○ 거주여건 만족도에 대해 「공해환경」,「교통환경」분야의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주거환경」분야는 감소, ○ 도 단위 조사(서귀포시 별도 수치 없음). 출처: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교육		○ 2018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3.3명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 도내 대학이 갖추어야할 역량으로 「취업 역량 강화」가 68.5%로 가장 높고, 「장학금 제도 등 재정 확립(34.5%)」, 「우수 교원 확보(28.9%)」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2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 단위 조사(서귀포시 별도 수치 없음). 출처: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지역안전지수		○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은 「국가안보(34.9%)」, 「건축물・시설물(29.4%)」, 「먹거리(29.1%)」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함 - 반면 「폭력범죄(60.6%)」, 「성범죄(60.0%)」 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제주도 5위(2017년 3위) ←9개도 중. 출처: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환경		○ 도민들은 환경 체감에 대하여 「좋다」는 응답이 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감소 - 수질 58.7%, 대기 53.6%, 녹지환경 50.8%, 토양 42.9%, 소음・진동 38.0% ○ 환경관리실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감소 - 자연경관 41.8%, 오름 41.2%, 곶자왈 38.7%, 중산간지역 37.4%, 지하수는 25.7%, 연안지역 및 해안가 22.9% 출처: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교통(자동차) (2019.12.31 기준)	○ 자동차 등록대수 총 596,215대. 이 중 승용차는 495,054대로 83.0%, 승합차 19,751대, 화물 80,052대, 특수자동차가 1,358대 임. ○ 자동차 등록대수 총 596,215대 중, 제주시 491,312대로 82.4%, 서귀포시 104,903대로 17.6% ○ 승용차 등록대수 총 495,054대 중, 제주시 422,453대로 85.3 %, 서귀포시 72,601대로 14.7% ○ 세대당 등록자동차 보유대수는 2.033대로 전국 1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교통(항공) (2019.12.31 기준)	○ 2019년 기준 제주도에는 국제공항 1개소가 있음. ○ 처리능력: 연간 운항횟수는 189,000회, 동시 주기는 43대(일반40, 소형 3대), 여객수는 3,175만명임. ○ 2019년 기준 제주국제공항 수송 실적 전체 175,366편이 운항되었고, 31,316,394명을 수송하였음. 이 중 국내선은 157,830편 28,648,341명 수송으로 전체 91.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선은 17,536편 2,668,053명을 수송하였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교통(항만) (2019.12.31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항만은 제주항(무역항)과 서귀포항(무역항), 화순항(연안항), 성산포항(연안항), 한림항(연안항), 애월항(연안항), 추자항(연안항) 등 7개소가 있음. ○ 제주항 국제크루즈선 입항 실적을 보면, 2013년에 184회 386,139명이 입항하던 것이, 2016년에는 3.13배가 증가한 507회 1,209,106명이 입항하여 계속 증가하였으나, ○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 입항횟수가 409회, 관광객은 1,019,374명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9회, 관광객이 44,266명에 대폭 감소하였음. ○ 도 단위 조사(서귀포시 별도 수치 없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총생산(GRDP) (2017년 추계)	□ 2017년 추계 결과(기준년 개편 반영) ○ (지역내총생산(명목)) 2017년 19조 9,81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7%(약1조원) 증가 - 제주시는 14조 441억원으로 전년대비 4.3%(5,806억원)증가 - 서귀포시는 5조 9,369억원으로 전년대비 13.0%(6,811억원)증가 ○ (경제성장률) 2017년 제주도는 4.6% 경제성장, 제주시 2.6%, 서귀포시 9.7% ○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17년 31,47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9%(1,186천원) 증가 - 제주시 30,262천원, 서귀포시 34,751천원 ○ GRDP 경제성장률 - 2012년 이후 농림어업 지속적 감소. 건설업과 건설투자는 꾸준한 성장세 ○ 산업구조 - 1차 산업(농림어업) 10.7%, - 2차 산업(광공업 및 제조업) 4.3%, - 3차 산업(건설업, 서비스업)이 82.6%로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출처: 제주지역통계, 지역내총생산 기준년 개편, 2020.
청년고용률 KOSIS (2020년상반기기준)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분(반)기별 청년고용률(=취업자/15세-29세 인구)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청년고용률은 2019년도 2/4분기까지는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다가 이후 전국 보다 낮고, 서귀포시의 청년고용률은 제주시보다 2016년까지 높게 나타나다가 2017년 이후 낮게 나타남. ○ 서귀포시의 고용률은 2015년 상반기 39.6%로 제주시 36.5%보다 3.1%p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이후 역전되어 2020년 상반기 35.6%로 제주시 37.9%보다 2.3%p 낮게 나타남.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내국인) (2019년 기준)	○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내국인)는 40대, 50대 계층이 가장 많으며,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16.1%(832만명)로, 2011년 11.2%(570만명)에 비해 4.9%p(262만명) 증가하였는데, 1985년 175만명에 비해 657만명이 증가하였음. ○ 21세기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의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20%이상으로 구성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에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총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됨. 출처: 2020년 통계청

4. 유통과 소비환경 분석

가. 소비자의 고령화 경향

○ 2020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내국인)는 40대, 50대 계층이 가장 많으며,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16.1%(832만명)로, 2011년 11.2%(570만명)에 비해 4.9%p(262만명)증가하였는데, 1985년 175만명에 비해 657만명이 증가하였음.

○ 21세기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의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20%이상으로 구성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에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총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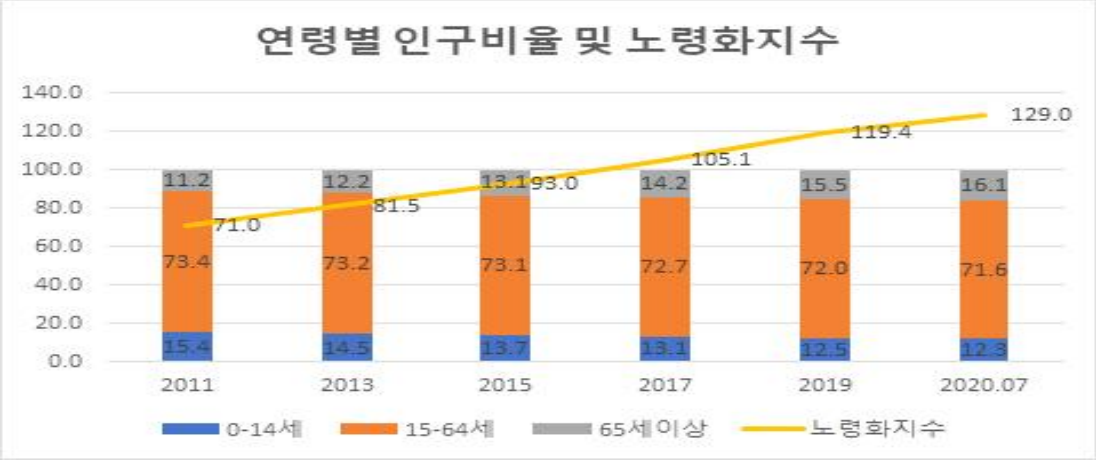
<표2-12> 연령별 인구비율 및 노령화 지수

(단위: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07년
0-14세	15.4	14.5	13.7	13.1	12.5	12.3
15-64세	73.4	73.2	73.1	72.7	72.0	71.6
65세이상	11.2	12.2	13.1	14.2	15.5	16.1
노령화지수	71.0	81.5	93.0	105.1	119.4	129.0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그림2-7> 연령별 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나. 1인 가구 경제 확산

○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4인 가구였으나, 201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520.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로 나타나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으며, 2인 가구(26.1%), 3인 가구(21.5%), 4인 가구(18.8%), 5인 이상 가구(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1인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29.1%,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비자의 가치추구 및 웰빙구매 성향으로 가격과 양 위주의 구매에서 탈피하여 고품질, 친환경, 명품브랜드, 소포장 단위 구매를 선호하고, 특히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선호하는 등 소비자 수요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줌.

○ 특히 편의점도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가정간편식과 편의점도시락에 대한 인기 확대로 다른 소매업태 보다 높은 성장세이고, 오프라인 유통업태 중 온라인과의 직접적 경쟁이 제한적인데, 더욱이, 근거리 소량 상품판매 특성상 타 유통업태와 달리 경기/소비심리 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적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다. 무인점포 확대

○ 최근 유통환경 변화의 주된 트렌드 중의 하나는 무인점포의 확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는 아마존(Amazon)을 들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도가 눈에 뜨이고 있는데, 2018년 1월 '노 라인 노 체크아웃(No Lines No Checkouts)' 슬로건을 내세워 무인 슈퍼마켓인 아마존고를 오픈하여 올해까지 모두 10곳, 3년 내 총 3,000여개의 무인 슈퍼마켓을 오픈 할 계획임.

○ 그 밖에 세븐일레븐과 CU는 무인 편의점 테스트 매장을 열었고, 이마트 24와 미니스톱은 자동판매기, GS25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편의점 등을 속속 내고 있으나 한국 무인 편의점 역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시범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출산율 감소라는 2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 유통업계의 무인화 점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라. 옴니채널(Omni Channel)의 확산

○ 유통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인 옴니채널은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채널이 합쳐진 신조어로 소비자가 인터넷매장, 오프라인 매장, 모바일 스토어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각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을 방문해도 같은 매장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을 모바일로 결재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쿠폰을 발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싱글 채널은 고전적 방식으로 단일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하며, 멀티 채널은 한 대형회사가 여러 유통라인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대형몰 같은 다양한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마. 인플루언서(Influencer)마케팅 확대

○ SNS를 통한 소통이 활성화되고 모든 세상이 연결되고 있어 광고보다 SNS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이 주목 받고 있음.
인플루언서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수많은 팔로어를 기반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으로, SNS 일반인 스타라 할 수 있음.

○ 2017년 말 인플루언서 등 국내 1인 커머스 사업자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왕홍' (중국 SNS 유명인사)을 통해 거래되는

금액만 연간 약 18조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인플루언서는 라이프스타일, 감성적 호소 등으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지향적인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인플루언서와 손을 잡는 유통 업체들이 늘고 있음.

○ 롯데백화점은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네온(NEON)'을 오픈하였음. 네온은 인플루언서의 일상과 콘텐츠를 고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쇼핑 플랫폼으로, 인플루언서의 정보 공유부터 구매 전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음.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현황·여건 분석

1. 제주도 관광지(관람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람지)는 총 185개소이며, 이 중 공공관광지는 60개소, 사설관광지는 125개소 임.

<표2-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람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문광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해양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185							
공영관광지	60	1	1	1	28	32	8	24
사설관광지	125					125	55	7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2. 관광객 내도 현황

○ 제주지역 관광객은 2011년 8백만명 대에서 매년 10%대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 12,273,917명을 거쳐 2019년 말 기준 15,286,136명으로서 43%인 6,545,160명 증가하였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 -6.9%, 2018년에는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14> 관광객 내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8,740,976	9,691,703	10,851,265	12,273,917	13,664,395	15,852,980	14,753,236	14,313,961	15,286,136
증감률	-	10.9%	12.0%	13.1%	11.3%	16.0%	—6.9%	—3.0%	6.8%
내국인	7,695,339	8,010,304	8,517,417	8,945,601	11,040,135	12,249,959	13,522,632	13,089,129	13,560,004
증감률	-	4.1%	6.3%	5.0%	23.4%	11.0%	10.4%	—3.2%	3.6%
외국인	1,045,637	1,681,399	2,333,848	3,328,316	2,624,260	3,603,021	1,230,604	1,224,832	1,726,132
증감률	-	60.8%	38.8%	42.6%	—21.2%	37.3%	—65.8%	—0.5%	40.9%
외국인 점유율	-	17.3%	21.5%	27.1%	19.2%	22.7%	8.3%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및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3,603,021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 2017년에는 2.9배가 감소한 1,230,604명,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481,300명이 증가한 1,726,132명이 내도함. 국적별로는 2019년 기준 중국이 6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말레이시아임.

<표2-1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객 내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328,316**	**2,624,260**	**3,603,021**	**1,230,604**	**1,244,832**	**1,726,132**
일 본	96,519	59,233	47,997	55,359	86,634	87,975
미 국	19,812	16,898	33,605	32,651	31,270	39,827
대 만	32,189	17,839	38,046	28,994	51,331	87,981
중 국	2,859,092	2,237,363	3,061,522	747,315	666,120	1,079,133
홍 콩	28,405	22,732	44,757	48,952	49,085	56,268
싱가포르	46,307	29,620	50,566	33,732	28,572	26,345
말레이시아	63,953	39,892	66,207	49,524	68,353	67,877
기 타	182,039	200,683	260,321	234,077	263,467	280,72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3. 관광업체 등록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관광업체는 총2,050개소이며, 제주시에는 1,534개소(74.8%)・서귀포시에는 516개소(25.2%) 임.

○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123개소로 전체 54.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소가 420개소・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98개소, 국제회의업이 31개소, 카지노업이 8개소, 유원시설업이 73개소, 관광편의 시설업이 297개소 임.

<표2-1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체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관광 업종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2,050**	**1,534**	**516**
여행업	소 계		1,123	1,056	67
	일반여행업		366	349	17
	국외여행업		147	134	13
	국내여행업		610	573	37
관광숙박업	**소 계**		**420**	**207**	**213**
	호텔업	소 계	399	178	181
		관광호텔업	127	85	42
		한국전통호텔업	1	-	1
		가족호텔업	62	32	30
		호스텔업	165	61	104
		소형호텔업	4	-	4
	휴양콘도미니엄업		61	29	32
관광객 이용 시설업	**소 계**		**98**	**47**	**51**
	종합휴양업		3	2	1
	전문휴양업		43	17	26
	자동차야영장업		22	9	13
	일반야영장업		22	17	5
	관광유람선업		8	2	6
	관광공연장업		0	-	-
국제회의업	**소 계**		**31**	**29**	**2**
	국제회의시설업		1	-	1
	국제회의기획업		3	29	1
카지노업			**8**	**5**	**3**
유원시설업	**소 계**		**73**	**40**	**33**
	종합유원시설업		4	1	3
	일반유원시설업		20	5	15
	기타유원시설업		49	34	15
관광편의 시설업	**소 계**		**297**	**150**	**147**
	관광유흥음식점업		1	1	-
	관광극장유흥업		4	2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5	4	1
	관광식당업		157	97	60
	시내순환관광업		1	1	-
	관광사진업		4	4	-
	관광면세업		7	6	1
	휴양펜션업		104	32	72
	기타관광편의시설업		14	3	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4. 관광객 수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수용시설은 총 5245개소, 33,889객실이며, 이 중 관광호텔 객실이 127개소 15,615객실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이 61개소 9,105객실이며 휴양펜션업이 104개소 913객실임.

○ 제주시가 239개소 16,857객실, 서귀포시가 285개소 17,032객실로 비슷함.

<표2-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수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계		**524**	**33,889**	**239**	**16,857**	**285**	**17,032**
관광숙박업	소 계	420	32,976	207	16,584	213	16,392
	관광호텔	127	15,615	85	8,870	42	6,745
	전통호텔	1	26	-	-	1	26
	가족호텔	62	3,972	32	2,333	30	1,639
	호스텔	165	4,166	61	1,622	104	2,544
	소형호텔	4	92	-	-	4	92
	휴양콘도미니엄	61	9,105	29	3,759	32	5,346
휴양펜션업		**104**	**913**	**32**	**273**	**72**	**64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주요행정통계, 2020.

5.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가. 관광개발

○ 관광개발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업(절차이행 사업장 제외)은 총 21개소(준공 3개소, 일부준공 11개소, 공사중 5개소, 공사중단 2개소), 면적 18,871천㎡, 총사업비는 4조 5,939억 원임.

○ 제주시는 13개 사업(준공 3개소, 일부준공 5개소, 공사중 4개소, 공사중단 1개소)으로 아덴힐 리조트, 라온 더마파크, 애월스마트테마파크, 봉개 휴양림, 묘산봉 관광지, 에코랜드, 폴로 승마리조트, 세프라인, 여성테마파크, 동물테마파크, 엠버리조트, 열해당 리조트 등이며, 면적 11,871천㎡, 총사업비는 2조 4,705억 원임.

○ 서귀포시는 8개 사업(준공 0개소, 일부 준공 6개소, 공사중 1개소, 공사중단 1개소)으로 토산 관광지, 미천굴 관광지, 수망 관광지, 한라힐링파크, 핀크스 비오토피아, 백통신원, 팜파스, 록인제주 등이며, 면적 7,000천㎡, 총사업비는 2조 1,234억 원임.

<표2-18> 관광개발사업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준공	일부준공	공사중	공사중단
사업지구 수	계	21	3	11	5	2
	제주시	13	3	5	4	1
	서귀포시	8	0	6	1	1
면적(천㎡)	계	18,871	1,393	12,784	3,949	745
	제주시	11,871	1,393	9,307	949	222
	서귀포시	7,000	0	3,477	3,000	523
투자규모(억원)	계	45,939	3,559	27,387	10,977	4,016
	제주시	24,705	3,559	17,664	2,202	1,280
	서귀포시	21,234	0	9,723	8,775	2,736

주 : 절차이행 사업장 제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나. 유원지 개발

○ 유원지개발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업은 총 16개소(준공 1개소, 일부준공 15개소), 면적 14,326천㎡, 총사업비는 10조 1,923억 원임.

○ 제주시는 4개 사업(일부준공 4개소)으로 함덕 유원지, 산천단 유원지, 라온프라이빗타운, 무수천 유원지 등이며, 면적 2,051천㎡, 총사업비는 9,738억 원임

○ 서귀포시는 12개 사업(준공 1개소, 일부준공 11개소)으로 테디벨리 리조트, 중문관광단지, 강정 유원지, 남원1차 유원지, 남원2차 유원지, 표선민속 유원지, 롯데 리조트, 우리들 리조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삼매봉 유원지, 헬스케어타운 등이며, 면적 92,185천㎡, 총사업비는 9조 2,185억 원임.

<표2-19> 유원지개발사업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준공	일부준공	공사 중단
사업지구 수	계	16	1	15	0
	제주시	4	0	4	0
	서귀포시	12	1	11	0
면적(천㎡)	계	14,326	96	14,230	0
	제주시	2,051	0	2,051	0
	서귀포시	12,275	96	12,179	0
투자규모(억원)	계	101,923	2,276	99,647	0
	제주시	9,738	0	9,738	0
	서귀포시	92,185	2,276	89,909	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업은 총 23개소(완료 20개소, 일부운영 2개소, 미착공 1개소), 면적 4,331,696천㎡, 총사업비는 2조 5,539억 원임.

○ 제주시는 13개 사업(완료 10개소, 일부운영 1개소)으로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오메가파크(메이즈랜드), 중앙병원신제주분원,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엠버호텔센트럴, 아스타 호텔, 호텔 레오, GRABEL 호텔, 마레보리조트, 유니호텔, 제니아관광호텔, 루스톤빌라앤호텔, 제주뮤지엄콤플렉스 등이며, 면적 250,237㎡, 총사업비는 2,431억 원임.

○ 서귀포시는 10개 사업(완료 8개소, 일부운영 1개소, 미착공 1개소)으로 호텔 빠레브, WE메디컬리조트, 더 베니스 랜드, 헬로키티아일랜드, The Cliff Hotel Jeju, 그랜드메르관광호텔, NH농협은행제주수련원, 제주해양과학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이며, 면적 4,071,459㎡, 총사업비는 2조 3,108억 원임.

<표2-20> 투자진흥지구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완료	일부운영	미착공
사업지구 수	**계**	**23**	**20**	**2**	**1**
	제주시	13	12	1	0
	서귀포시	10	8	1	1
면적(㎡)	계	4,321,696	408,413	3,849,547	63,736
	제주시	250,237	191,287	58,950	0
	서귀포시	4,071,459	217,126	3,790,597	63,736
투자규모(억원)	**계**	**25,539**	**5,734**	**19,484**	**321**
	제주시	2,431	2,203	228	0
	서귀포시	23,108	3,531	19,256	32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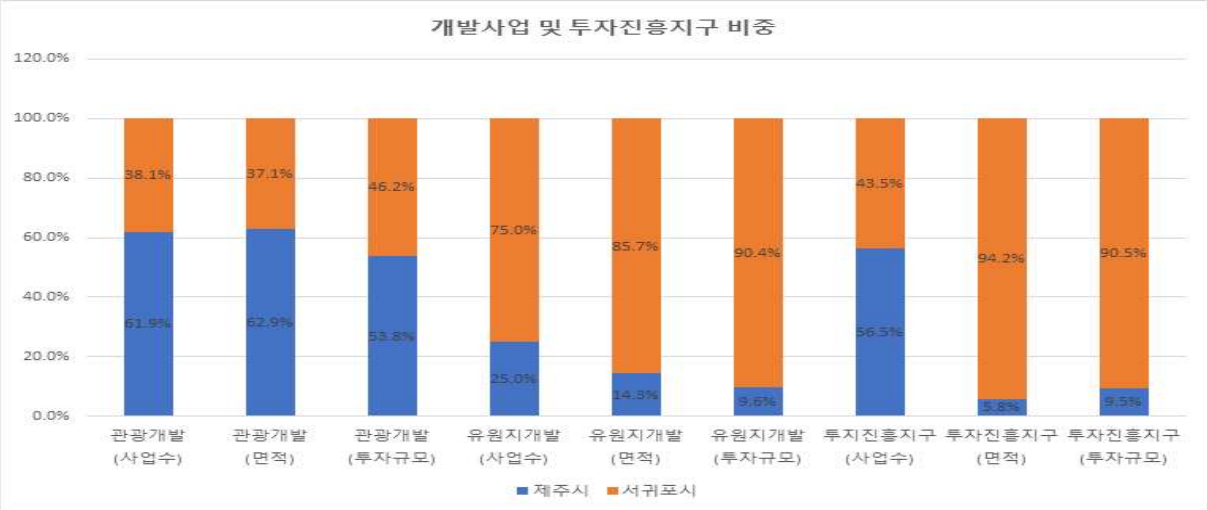
라.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비중

○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별로 사업수, 면적, 투자 규모에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관광개발사업에서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 38.1%, 면적 37.1%, 투자규모 46.2%이고,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 61.9%, 면적 62.9%, 투자규모 53.8%임.

○ 유원지개발사업에서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 75.0%, 면적 85.7%, 투자 규모 94.2%이고,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 25.0%, 면적 14.3%, 투자 규모 9.6%임.

○ 투자진흥지구에서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정지구수 43.5%, 면적 94.2%, 투자규모 90.5%이고,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정지구수 56.5%, 면적 5.8%, 투자 규모 9.5%임.

<그림2-8>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비중



제4절 제주도 유동인구 이동경로 분석

1. 관광 트랜드의 변화

향후 제주관광 트랜드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으로 2019년 국가별 관광상품 유형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해 볼 수 있음.

<표2-21> 국가별 관광상품 유형

국 가	시티 투어	소규모 맞춤투어	레저 및 계절관광	문화 및 테마관광	미식 관광	럭셔리 관광	기타	합계
일 본	29.7%	8.8%	14.0%	26.1%	13.3%	2.0%	6.1%	100%
한 국	46.0%	5.5%	12.4%	14.3%	6.7%	1.9%	13.2%	100%
주요국 평균	26.5%	8.4%	22.1%	12.0%	9.7%	5.7%	15.7%	100%

자료: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2019. 4)[3]

3)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기본계획>(2020.06), 108쪽.

○ 위 표에서 미술관 방문과 관련된 항목 '문화 및 테마관광' 향유층을 볼 때, 일본 26.1%, 한국 14.3%, 주요국 평균 12.0%임. 한국은 주요국 평균보다 2.3% 높은 것에 비해, 일본보다는 12% 낮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한국인은 시티투어가 46.0%로 일본이나 주요평균국에 비해 20% 전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관광경제 패러다임은 다변화 될 것으로 보임. 이는 전세계 각국이 저마다 공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며, 선도적인 관광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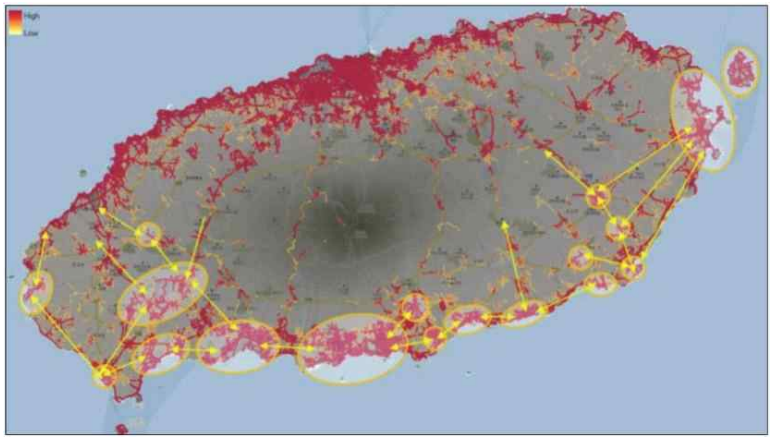
○ 전세계적 관광객 지출경비 감소(직구 증가 등),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둔화, 국내외 경제 저성장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나아가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 있은 관광(자연과 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제주 방문객 수 변화와 이동경로

○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2013년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다가 2019년 다시 회복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20년 한 해 코로나19 위기를 전세계적으로 겪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임. 외국인의 경우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강함.

<그림2-9> 국내 관광객 제주도 주요 이동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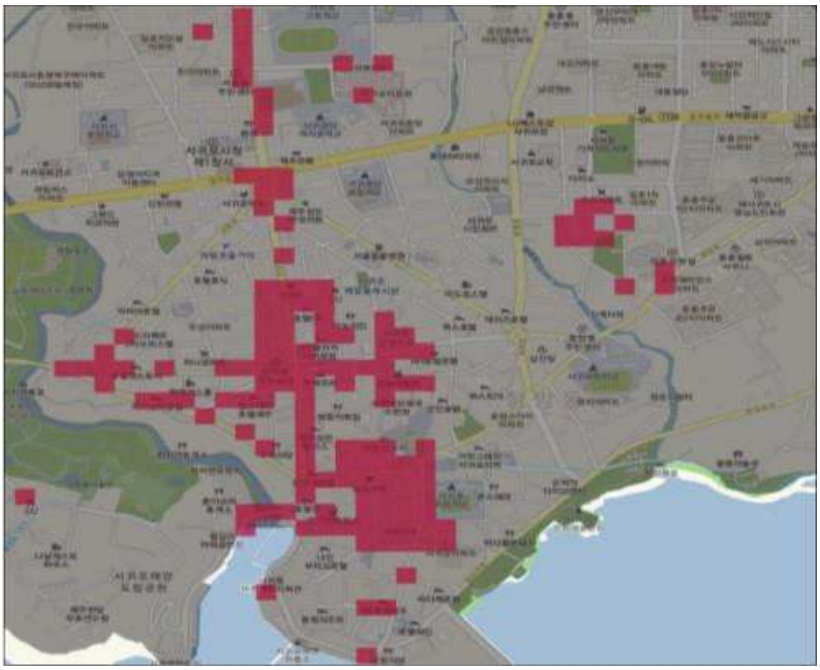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거점산출방법-도로명주소 전자지도(기초구간)와 매핑한 유동인구 격자(50x50m)중, 국내관광객 집계 수가 6~10분위(상위 50% 내 순위)에 해당하는 격자 산출.[4)]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제주연구원, 2020년 8월, 136쪽 인용.

○ 제주 유동인구의 지난 2년여(2017년 전후) 간의 주요 이동 경로와 거점을 살펴보면(<그림2-9>),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도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시(원도심)권에서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경향을 보임.

○ 제주시권 다음으로 인구밀집 지역으로는 동쪽으로 성산포와 남쪽 서귀포시(원도심)권, 중문권, 대정읍~안덕면 중산간 영어교육도시권, 안덕면 해안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록 방문장소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제주도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

<그림2-10> 국내 관광객 서귀포 주요 이동 거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도로명주소 전자지도(기초구간)와 매핑한 유동 인구 격자(50x50m)중, 국내관광객 집계 수가 100분위 이상(상위 1% 내 순위)에 해당하는 격자 산출.[5)]

○ 이 중 서귀포시(원도심)권은 제주시 다음으로 유동인구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귀포 시내에서는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남쪽 아랑조을거리(천지동 주민센터) 주변 및 이중섭거리, 칠십리교와 칠십리공원, 제주올레길7코스 등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매일올레시장 쪽 유동인구 분포는 낮은 편임.

○ 한편, 시내 동쪽 동홍동 소재 한국SGI서귀포문화회관 주변도 유동인구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제주연구원, 2020년 8월, 137쪽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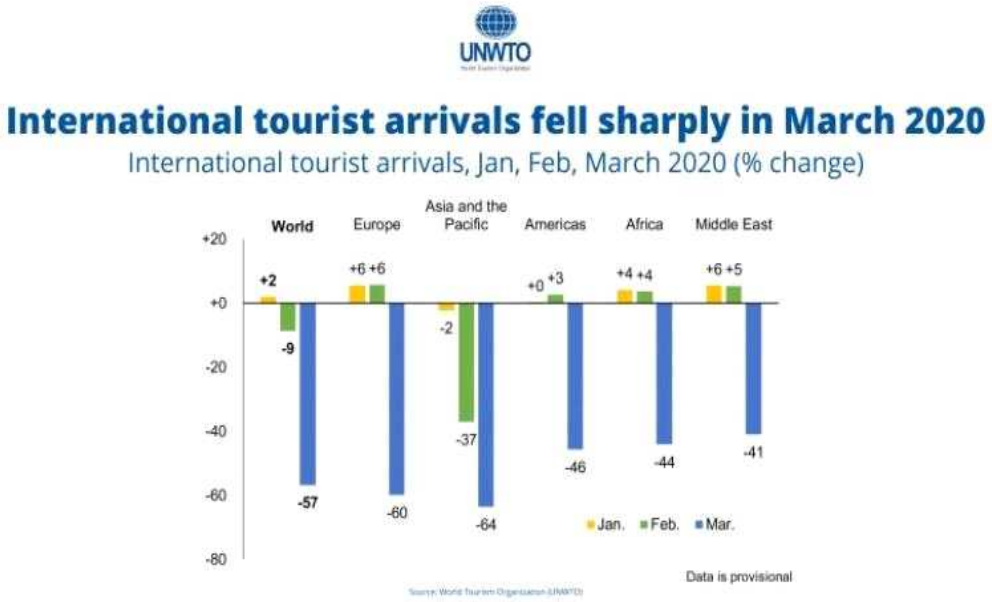
○ 제주도 유동인구의 활동공간이 반드시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별도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제5절 UNWTO(세계관광기구) 향후 세계관광 전망

■ 2020년 국제관광현황 분석

2020년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지구적으로 관광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의 이동 자체를 막고 있는 현실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귀결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 동향은 관광 1번지 제주도의 관광산업 나아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과 직결하기 때문에 보다 냉철하게 현실은 직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관광모델을 만들어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2-11> 2020년1월~3월 세계관광객 수 급락 지표



자료: 2020년 UNWTO 보고서

○ 2020년 9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20년 국제관광현황 분석을 공개하였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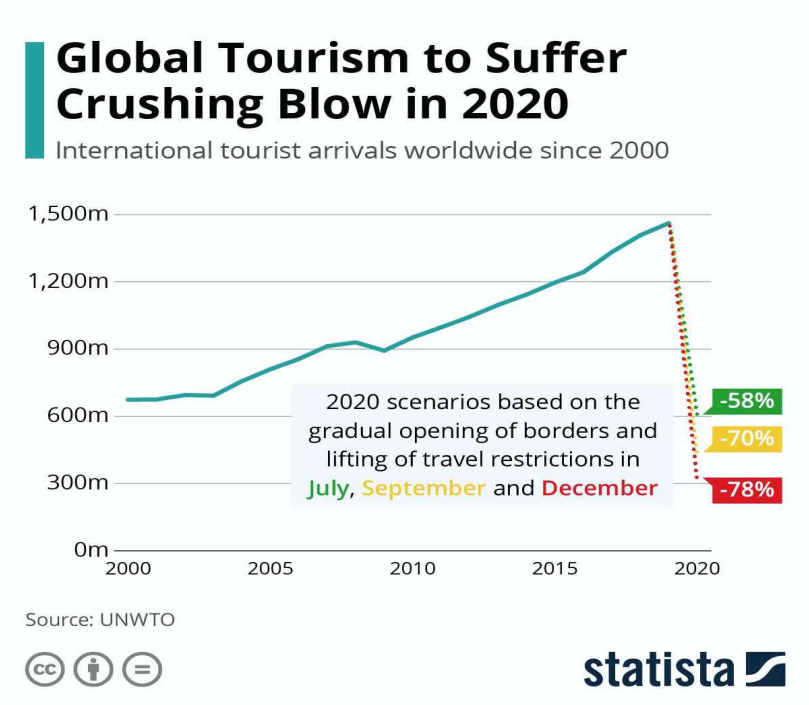
6)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 지난해보다 65% 급락…', <서울신문> 9월 21일자
*UNWTO 9월 20일(현지시간) 보고서 인용.

○ 2020 상반기 기준,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수준으로 급락했음을 발표함. 관광객 수로는 4억 3892만 7000명 감소.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4600억 달러(약 535조원)로 추산. UNWTO는 "세계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 손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기록한 경제 손실의 5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남은 2020년 전체를 내다볼 때, 전 세계 관광객 수는 8억 5000만 명에서 최대 11억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91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20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음.

○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음. 다음은 유럽(66%), 아프리카(57%), 중동(57%), 미주(55%) 순임.

○ 아·태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시아지역의 관광객 감소율은 83%로 단연 높음. 동북아지역 국가 중에는 홍콩의 감소율이 91%로 가장 높고, 중국(84%), 마카오(84%), 몽골(80%), 대만(79%), 일본(76%), 한국(75%)이 그 뒤를 이음.

<그림2-12> 2000년~2020년 세계관광객 추이



자료: 2020년 UNWTO 보고서

○ UNWTO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전 세계 여행객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3장 문화예술향유실태 및 미술관 환경변화

제1절 국민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현황/43
제2절 전국 미술관·박물관 현황/59
제3절 미술관과 환경변화/76

제1절 국민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현황

1. 국민문화예술향유 현황

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그림3-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 2003년~2019년(16년) 간 국민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문화예술향유층은 2014년을 기점으로 70%대(그 중 순수예술은 31%)에 이르렀으며, 2019년에는 80%대(그 중 순수예술은 37.1%)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의 문화행사 참여가 대중화되고 있음.

○ 물론 양적 측면에서의 문화향유율의 증가라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또한 잠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반증임.

나.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의향

<그림3-2>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 분야별 문화예술행사도 다변화 되고 있음.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로 구분하여 관람률을 조사한 결과(2016년~2019년), 영화와 대중음악/연예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고, 서양음악과 무용 분야는 관람률이 낮음.

○ 미술전시회 관람률은 2016년 대비 2.5%가 상승하여 2018년 15.3%, 2019년 13.5%로 일정 정도 미술 향유층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3-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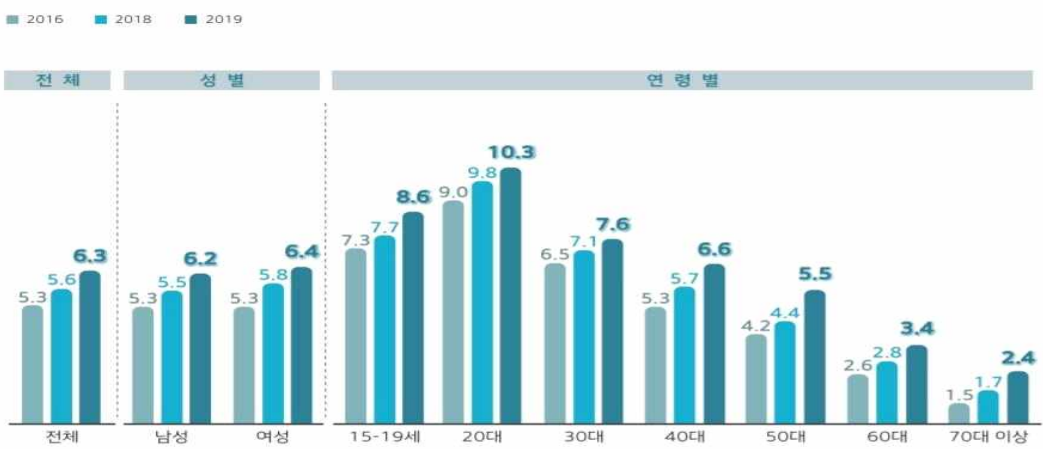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을 물었을 때, 영화(81.7%)가 압도적으로 높고, 대중음악/연예(30%), 뮤지컬(23.2%), 연극(21%), 미술전시회(15.6%), 전통예술(11.8%), 문학행사(8.3%), 서양음악(7.4%), 무용(4.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미술전시회(15.6%) 관람 의향은 비교적 중위권에 있으며, 향후 전시 컨셉의 다변화와 다양한 매체 융합에 따라 관람률과 참여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성별·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그림3-4> 성별·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 성별・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2016년~2019년)를 보면, 15세~70세 이상 전 연령층은 1년 평균 5회 정도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여 평균 5회 정도 동일하며, 연령별로는 20대(평균 9.5회), 15~19세(8회), 30대(7회), 40대(5.5회), 50대(4.5회), 60대(2.5회), 70대 이상(8회) 순으로 점점 행사 관람횟수가 줄고 있음.

○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로 40대(5.5회)~50대(4.5회)가 전 연령층 평균치로 나타나고 있음.

라.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그림3-5>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2016년~2019년)을 보면,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격차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19년도에는 중소도시(84.6%)가 대도시(84.1%)를 능가하고 있음.

○ 읍면지역은 대・중소도시보다 낮지만, 2016년~2017년 1년 사이 7% 증가하여 마침내 70% 진입했음을 알 수 있음. 그만큼 읍면지역에도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행사가 증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마. 문화예술행사 이용자 의견(보완 사항)

○ 문화예술행사의 보완점으로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높음.

<그림3-6> 문화예술행사 이용자 의견

(표본수: 8,298명, 단위 %)

자료 :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

바. 문화예술행사 정보습득 경로

○ 주로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33.0%)'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주변사람(27.1%), 소셜미디어(SNS)(14.1%), 텔레비전・라디오(12.7%), 안내문(6%) 등으로 나타남.

<그림3-7> 문화예술행사 정보습득 경로

(표본수: 8,298명, 단위 %)

자료 :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재작성)

2. 전국・제주특별자치도 문화기반시설 현황

(문화예술활동공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문체부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해 오고 있음.

○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 지난 2017년 9월에 박물관과 미술관 담당 부서를 '문화기반과'로 일원화 했고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정책을 수립했음.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문체부 문화기반과장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 속 "박물관・미술관이 국민이 더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일상생활 속의 문화시설로 자리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문 발표.(서울경제, 2019.6.24.일자)

○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은 도시 집중의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한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으로 인식되고, 이용자들 또한 관광객이나 도시인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반해,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한 마을공공시설, 이용자는 주로 지역주민들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유형과 정의

<표3-1>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유형과 정의

시설의 유형	시설의 정의
시·군·구민회관	지방 자치단에서 회의, 공연, 집회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
문화예술회관	예술작품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시설
복지회관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시설
청소년회관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
문화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향토문화 또는 특정 국가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시설
도서관 (학교도서관 제외)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볼 수 있도록 한 시설
박물관(+미술관)	고고학 자료, 미술품, 인문·자연·과학 등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존·진열하여 일반에 전시하는 시설
문화의 집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체험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대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하는 시설
시설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개인 또는 기업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한 시설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로 행정 업무, 문화, 복지, 편익 시설을 제공함
민간공연장	민간에서 설치한 예술작품의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시설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나. 전국 문화시설 현황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2018년 말 기준 총 2,825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국립도서관이 3개소, 공공도서관이 1,096개소, 박물관이 881개소, 미술관이 258개소, 문예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집 등이 587개소가 있음.

<표3-2> 전국 문화시설 현황(박물관·미술관 현황은 별도)

(2019. 1. 1. 기준, 단위: 개)

시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2,825**	**3**	**1,096**	**840**	**233**	**23**	**255**	**231**	**101**
서울	399	2	173	145	22	6	21	25	5
부산	107	0	43	27	14	2	11	15	0
대구	80	0	41	24	10	7	11	8	0
인천	104	0	50	41	9	0	10	10	1
광주	63	0	23	17	6	0	7	5	4
대전	55	0	24	22	2	0	4	5	3
울산	43	0	19	15	4	0	5	5	4
세종	19	0	10	9	1	0	1	1	0
경기	537	1	264	249	11	4	44	31	9
강원	215	0	57	34	22	1	21	18	6
충북	130	0	45	30	15	0	12	11	7
충남	166	0	62	43	19	0	18	16	6
전북	158	0	58	39	18	1	17	14	12
전남	206	0	69	47	21	1	21	22	4
경북	201	0	65	37	28	0	27	23	6
경남	207	0	71	45	25	1	22	20	15
제주	135	0	22	16	6	0	3	2	19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다. 제주도 문화시설 현황

<표3-3> 제주도 문화시설 현황(박물관·미술관 현황은 별도)

(2019. 1. 1. 기준, 단위: 개)

시 군 구	합계	공공도서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공연장	영화관
		계	지자체	교육청					
2	89	22	16	6	3	2	19	35	8
제주시	55	11	8	3	2	1	11	23	7
서귀포시	34	11	8	3	1	1	8	12	1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 영화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자료임

라. 서귀포시 문화시설

(1) 공공도서관 : 11개소(지자체8, 교육청3)

시군구	설립 주체	도서관명	주 소
서귀포시	교육청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동홍동) 4-1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송악도서관	서귀포시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체육관로 183 (제남도서관)
교육청 소계		3	
서귀포시	지자체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 (신효동) 8232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화순서서로 44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백사로110번길 17-10
지자체 소계		8	
계		**11**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학습장이자 문화정보의 교류장임. 지역 미술관 프로그램을 도서관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2) 문예회관 : 1개소

시군구	건립주체	시설명	주소
서귀포시	광역자치단체	서귀포 예술의전당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계			**1**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원 : 1개소

시군구	문화원명	설립일	주소
서귀포시	서귀포문화원	1996. 5. 7	서귀포시 동홍로31-7 (시민회관2층)
계	**1**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4) 문화의 집 : 8개소

시군구	문화의집	주소	개관일
서귀포시	성산일출 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1998. 06. 12.
	표선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110번길 17-10 (구. 표선리 40-65)	2002. 02. 22.
	안덕산방 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44	2001. 01. 15.
	보목문화의집	서귀포시 보목로70번길51-2	2003. 01.
	중문문화의집	서귀포시 중문로 26번길 7	2003. 12. 30.
	대륜문화의집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법환동)	2005. 02. 03.
	무릉문화의집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28	2005. 09. 26.
	위미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92	2005. 09. 12.
계	**8**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5) 공연장 : 12개소(공공5, 민간7)

공연장명 (개관일자)	소재지	시설 구분	공연장 면적(㎡)	무대면적 (㎡)	객석수
김정문화회관 (2004.02.28)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강정동)	공공	1,636	216	383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2014.06.19)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공공	5,434	675	802
소극장		공공	5,434	123	190
야외공연장		공공		359	123
옛)서귀포관광극장 (1962년 신축. 1963년 개관 옛 영화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5(서귀동) *서귀포시 최초 영화관. 민간소유. 서귀포시가 건물을 임대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공공	792 (2층)		667 (개관 당시)
㈜이레제주조랑말타운 (2002.04.25)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64-21(성읍리)	민간	1,820	400	993
제주서커스월드 (2004.01.17)	서귀포시안덕면 동광로 214 (동광리)	민간	1,968	1,235	992
점보빌리지 (2011.01.07)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319번길 31-11 (724-1230	민간	2,874	314	9998
오션아레나 (2012.07. 13)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민간	2,241	75	1,533
(주)신세계쇼앤서커스 (2013.07. 13)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중문동)	민간	2,420	176	1,300
퍼시픽랜드 (1987.02.09)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색달동)	민간	2,077	547	1,200
센트럴 스테이지 (2017.08.22)-야외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98	민간	195	195	500
계	**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문화역사/문화예술

(6) 영화관 : 1개소

영화관명	소재지	상영관별	설립연도	상영관면적	객석수	비고
롯데시네마 서귀포	서귀포시 월드컵로 31(법환동)	1관	2005	233	168	
		2관		168	99	
		3관		197	149	
		4관		136	92	
		5관		136	62	
		6관		126	79	
계	1개소	Screen 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문화역사/문화예술

3. 서귀포시 지역주민 문화향유 활동

가. 서귀포시 인구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KOSIS, 2019.10)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인구는 2017년 9월 유입인구가 처음으로 제주시를 초월하여 증가하였으나, 2019년 8월 18만1,889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았으며, 2020년 9월 기준 18만1,502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나. 서귀포시 지역주민 문화향유 활동 현황

○ 2018년~2019년 기준 서귀포시 원도심이자 공립미술관과 인접한 6개 주민센터(동홍동, 서홍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송산동)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시작하는 지역주민 참여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함.

○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 음악, 댄스, 공예, 어학, 서예, 미술 등 분야가 다양하며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임.

○ 사회변화와 주민 문화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지역문화시설,과 미술관이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018. 상반기 동홍동 주민자치센터(수강생 모집공고)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모집대상	운영장소	비 고
오카리나교실 (초급)	매주 화요일 19:30~21:30	동홍동민 (성인 15명)	동홍아트홀	오카리나 준비 교재비 별도
요가교실	매주 수.금요일 15:30~17:30	〃 20명	문화강좌실	요가매트 준비
바리스타 핸드드립(취미반)	매주 수요일 19:00~21:00	〃 15명	외부 장소	재료비 개인부담 (2만원내외)
도예교실	매주 목요일 18:30~20:30	〃 20명	도담도예	재료비 개인부담 (월3만원)
통기타교실	매주 목요일 16:30~18:30	〃 15명	동홍아트홀	통기타 준비
프랑스자수	매주 화요일 1900~21:00	〃 15명	열린사랑방	재료비 개인부담 (10만원내외)
난타교실(중급)	매주 수요일 20:00~22:00	〃 15명	문화강좌실	개인 난타 채 준비
클래식기타교실	매주 목요일 19:00~21:00	〃 15명	동홍아트홀	클래식기타 준비
프리테니스	매주 수.금요일 19:00~21:00	동홍동민 (누구나 20명)	삼성여고체육관	
가죽공예 초급과정	매주 수요일 18:50~20:50	동홍동민 (성인15명)	화잠가죽공방	재료비 개인부담 (18만원내외) 개인준비물 별도
명화미술	매주 토요일 10:00~12:00	초등생 (4~6학년 15명)	회의실	재료비 개인부담 (2만원내외)

자료 : 동홍동주민자치센터 제공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018년~2019년 서홍동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2018년	노래교실, 악기교실(하모니카,우크렐레), 수납정리교실, 목공예교실, 라인댄스교실, 풍물교실, 가죽공예교실, 도자기교실
2019년	노래교실, 원예교실, SNS교실, 캘리그래피교실, 요가교실, 라인댄스교실

자료 : 서홍동주민자치센터 제공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019 상반기 정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 일시	모집	접수	확정
계	9개			302	404	248
1	건강요가	3.4~6.26. (4개월) 33회	매주 월, 수 (16:30~18:30)	14	27	14
2	자수	3.5~6.25. (4개월) 17회	매주 화 (09:30~12:30)	10	22	10
3	한자서예	3.6~6.26. (4개월) 17회	매주 수 (10:00~12:00)	12	12	12
4	한글서예	3.7~6.27. (4개월) 16회	매주 목 (10:00~12:00)	12	12	12
5	사군자	3.7~6.27. (4개월) 16회	매주 목 (14:00~16:00)	12	10	10
6	수채 캘리그라피	3.5~5.28. (3개월) 13회	매주 화 (13:30~16:30)	10	15	13
7	재봉틀	3.8~6.28. (4개월) 17회	매주 금 (10:00~13:00)	8	36	8
8	밴드동아리	3.4~6.27. (4개월) 32회	매주 수, 금	8	7	7
9	인터넷활용	3.4~6.26. (4개월) 33회	매주 월, 수 (15:30~17:30)	12	3	-
2019년 하반기 정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계	10개			102	130	81
1	건강요가	8.5~11.27 (4개월)	매주 월, 수 (16:30~18:30)	14	25	14
2	자수	8.6~11.26 (4개월)	매주 화 (09:30~12:30)	10	12	10
3	한자서예	8.7~11.27 (4개월)	매주 수 (10:00~12:00)	12	13	13
4	생활소품 만들기	8.5~11.26 (4개월)	매주 월 (10:00~12:00)	10	8	8
5	민요교실 (물허벅)	8.6~11.28 (4개월)	매주 화,목 (19:30~21:30)	10	16	16
6	수채 캘리그라피	8.5~11.27 (4개월)	매주 화 (13:30~16:30)	10	9	9
7	재봉틀	8.5~11.29 (4개월)	매주 금 (10:00~13:00)	8	24	8
8	밴드교실	8.5~11.28 (4개월)	매주 월,목 (19:00~21:00)	4	3	3
9	한글서예	8.8~11.28 (4개월)	매주 목 (10:00~12:00)	12	9	0
10	사군자	8.8~11.28 (4개월)	매주 목 (14:00~16:00)	12	11	0

자료 : 정방동주민자치센터 제공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019년 중앙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대 상	장 소	운영시간	모집	비고
1	우쿨렐레 연주교실	초등생	지역아동센터	수 16:00~18:00	10명	기관 연계
2	방송댄스 교실	초등생	지역아동센터	월 16:00~18:00	15명	〃
3	청소년을 위한 탁구교실	초6·중·고생	청소년문화의집	일 14:00~16:00	15명	〃
4	POP 교실	중·고등학생	청소년문화의집	토 14:00~16:00	15명	〃
5	어르신 가요교실	관내 어르신	중앙동노인회관	금 14:00~16:00	20명	〃
6	어르신 웃음치료 교실	관내 어르신	중앙동노인회관	화 15:00~17:00	20명	〃
7	만지고 느끼고 표현하는 아트스피치	초등1~4	꿈쟁이도서관	수 18:00~20:00	15명	〃
8	한자랑 놀다보니 자격증 까지(초급한자)	초등1~3	꿈쟁이도서관	목 17:30~19:30	15명	〃
9	민요교실	일반주민	중앙동주민센터 (문화사랑방)	화,목 19:00~21:00	15명	동아리
10	댄스스포츠 교실	〃	무지개에어로빅	금,일 19:00~20:00	30명	동아리
11	가죽공예교실	〃	중앙동주민센터 (열린사랑방)	화 18:30~20:30	15명	재료비 자부담
12	천연화장품&아로마교실	〃	중앙동주민센터 (2층회의실)	목 18:30~20:30	15명	〃
13	중국어회화 교실	〃	중앙동주민센터 (열린사랑방)	월,수 18:30~19:30	15명	-
14	프리테니스교실	〃	중앙동노인회관 3층	화,목 19:00~21:00	20명	-
15	노래교실	〃	중앙동주민센터 (열린사랑방)	목 18:00~20:00	15명	-
16	도자기교실	〃	중앙동주민센터 (열린사랑방)	금 18:30~20:30	15명	재료비 자부담
17	요가교실	〃	중앙동노인회관 3층	수 18:30~20:30	20명	

자료 :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제공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018년 상반기 천지동주민자치센터(수강생 모집 공고)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모집대상	운영장소	비고
요가 교실	3월~6월(49회)월.수.금19:30~21:00	주민(30명)	천지동 노인회관	
가죽공예(초급)	3월~5월(12회)수 18:30~20:00	주민(10명)	주민센터 회의실(2층)	재료비 수강생 부담
손바느질	3월~5월(13회)수 10:00~11:30	주민(10명)	〃	〃

중국어(초급)	3월~5월(12회)금 18:30~20:00	주민(15명)	주민센터 회의실(2층)	재료비 수강생 부담
클레이아트 교실	3월~5월(12회)토 10:00~11:30	초등1~3학년(15명)	〃	〃
2019년 상반기 천지동주민자치센터(수강생 모집 공고)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모집대상	운영장소	비고
건강요가교실	3월~6월매주 월.수.금 19:30~21:00(50회)	주민(30명)	천지동 노인회관	
풍물교실 (어린이반)	3월~6월매주 화요일 12:00~13:30(16회)	서귀어린이집 원생(40명)	서귀어린이집	
풍물교실 (성인반)	3월~6월매주 화.목 19:00~21:00(33회)	주민(20명)	천지동주민센터 동민문화의 방	
캘리그라피	3월~5월매주 수요일 10:00~13:00(12회)	〃	천지동주민센터 동민문화의 방	재료비 수강생 부담
Very easy 초등영어(초급)	3월~6월매주 토요일 10:00~11:30(17회)	초등2~3(15명)	천지동주민센터 동민소통의 방	
어린이한자교실 (도전! 한자급수 따기)	3월~6월매주 토요일 11:00~12:30(17회)	초등1~2(15명)	천지동주민센터 동민소통의 방	

자료 : 천지동주민자치센터 제공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019년 송산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인원
풍물교실	2월~6월(화, 금)19:30~21:00	18
요가교실	3월~6월(월, 목)20:00~21:30	10
라틴댄스	3월~6월(화)19:30~21:00	15
홈패션 교실	3월~6월(수)10:00~12:00	6
라인댄스	3월~6월(수, 금)18:00~20:00	10
한글서예 교실	3월~6월(목)13:00~15:00	7
합창교실	3월~6월(목)19:00~21:00	12
어르신 노래교실	3월~6월(토)10:00~11:30	18
색소폰교실(초급)	3월~6월(토)18:00~20:00	8
기타교실(초급)	3월~6월(일)14:00~16:00	7

2019년 송산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인원
기타교실(중급)	3월~6월(일)16:00~18:00	8
어르신 국학기공	3월~6월(월)18:00~19:30	20
종합소득세 세무교육	4월 24일(수)15:00~17:00	14
부가가치세 세무교육	6월 12일(수)16:00~18:00	12
풍물교실	7월~10월(화, 금)19:30~21:00	18
요가교실	8월~10월(월, 목)20:00~21:30	15
라틴댄스	8월~10월(화)19:30~21:00	15
아동생활체육	8월~12월(월)16:00~17:00	29
라인댄스	8월~10월(수, 금)18:00~20:00	10
합창교실	8월~10월(목)19:00~21:00	12
어르신 노래교실	8월~10월(수)10:00~11:30	18
색소폰교실(초급)	8월~10월(토)18:00~20:00	8
기타교실(초급)	8월~10월(일)14:00~16:00	7
기타교실(중급)	8월~10월(일)16:00~18:00	8
어르신 국학기공	7월~10월(월,화)18:00~19:30	20
양도소득세 세무교육	8월 21일(수)15:00~17:00	14
사랑해요 한글, 한글서예 체험 프로그램	8월 2일(금)~ 8월 3일(토) 14:00~19:00	200

자료 : 송산동주민자치센터 제공

다. 시사점

○ 국정기조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3만 2천 달러로 선진국 진입 기준에 들어섰지만 2019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4위에 머물러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비전(국정기조)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가 강조됨에 따라 문화·체육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지역균형개발 기조에 맞춰 문화 또한 지역 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및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이 질적으로 높은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임.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 문화시설 고유의 특성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간의 결합으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함.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열린 미술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도내외 미술관 답사
- 서귀포시민 1일 관장제 도입
- 미술과 지역(자연과 역사)을 테마로 한 예술제
- 작가와 인연이 되는 장소 발굴 및 스토리 텔링, 기록화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술관을 홍보하는 주역이 되어야 함.

- 미술관 기획전시/상설전시 관련 소식 동영상 업로드 및 피드백
- 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탐방·촬영·홍보
- 어린이 홍보팀 모집과 육성

제2절 전국 미술관·박물관 현황

1. 전국 미술관・박물관 설립 추이

가. 전국 미술관·박물관 수

○ 2019년 기준 전국 미술관・박물관은 총 1,139관(박물관 881개소, 미술관 258개소)으로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약 3.5배 많음. 2013년 대비 매년 증가 추세임.

○ 2019년 기준 전국 박물관의 경우 공립과 사립의 비중이 각각 40% 정도 비슷하게 차지하고(20%는 국립 및 대학) 있는 반면, 미술관은 국・공립(28%)에 비해 사립(67%) 비율이 월등하게 높음.

<표3-4> 전국 미술관·박물관 수

(단위: 개)

년도	합계	박물관	미술관
		계	계
(2019년 기준)	**1,139**	**881**	**258**
(2018년 기준)	1124	873	251
(2013년 기준)	911	740	171

자료: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2018년 기준)

나. 전국 미술관·박물관 지역별 분포

<표3-5> 전국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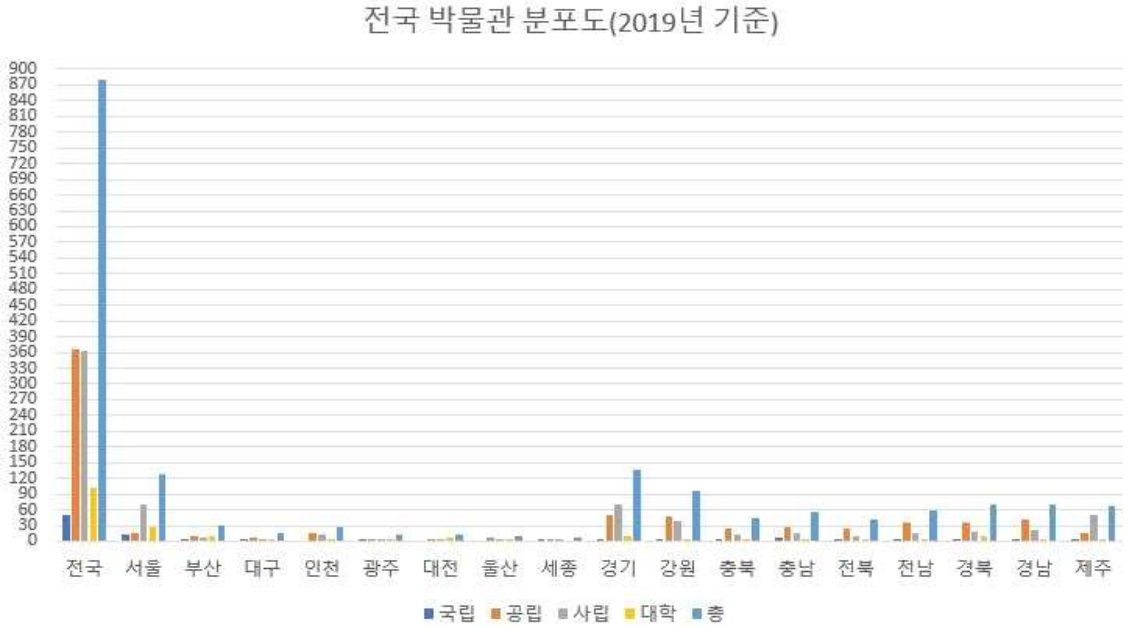
(2019년 기준, 단위: 개)

박물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립	50	14	2	1		2			1	5	3	2	7	4	2	3	3	1
공립	366	16	11	7	15	3	4	8	2	50	47	24	27	24	36	36	41	15
사립	363	70	6	5	12	3	4	1	4	71	40	13	17	9	17	19	21	51
대학	102	28	11	3	1	4	6	1		10	5	5	4	4	3	11	5	1
총	881	128	30	16	28	12	14	10	7	136	95	44	55	41	58	69	70	68
미술관																		
국공립	72	5	2	2	2	4	2	-	-	12	4	5	2	7	8	5	5	7
사립	172	35	4	0	3	8	3	-	-	36	14	6	7	9	24	5	4	14
대학	14	5	2	2	0	0	0	-	-	4	0	0	0	0	0	1	0	0
총	258	45	8	4	5	12	5	-	-	52	18	11	9	16	32	11	9	21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재작성

<그림3-8> 전국 박물관 분포도

(단위: 개)



○ ‘2019년 기준 지역별 박물관 시설 수(총 881개)를 보면, 경기(136개), 서울(128개), 강원(95개) 순으로 가장 많고, 경남(70개), 경북(69개), 제주(68개)가 비슷한 수치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상위에 속한 경기, 서울, 강원 3지역 박물관 수을 합하면 총 359개로 전체 41%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경남, 경북, 제주 지역 박물관 수를 합하면 566개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음. 즉, 전국 박물관의 절반 이상이 이들 6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부산(30개), 인천(28개), 대구(16개), 대전(14개), 광주(12개), 울산(10개)과 같은 광역시는 인구밀집도 대비 박물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되고 있음. 이들 6개 도시 박물관 총 수는 110개로 전체 박물관 수의 12%에 불과함.

○ 한편, 박물관 수 상위권에 있는 강원 지역의 경우는 공립(47개)이 사립(40개) 박물관 수 보다 많음. 이는 중위권에 속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도 동일함. 반면, 서울(공립16, 사립70)과 제주(공립15, 사립51)의 경우는 사립박물관 비중이 월등히 높음.

<그림3-9> 전국 미술관 분포도

(단위: 개)

○ 2019년 기준 지역별 미술관 시설 수(총258개)를 보면, 경기(52개), 서울(45개), 전남(32개), 제주(21개), 강원(18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97개)에만 38% 집중되어 있고, 위 5개 지역 미술관 수를 합하면 168개로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부산(8개), 대구(4개), 인천(5개), 대전(5개), 충남(9개), 경남(9개)은 국·공·사립 포함 각 10개 미만이며, 이들 6개 지역 미술관을 합산하면 40개로 전체 15%에 지나지 않음. 더불어 울산과 세종은 0%임.

○ 한편, 인구 백만 명 당 미술관 수는 제주(21개)가 3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경기(52개), 서울(45개)은 인구 대비 3~4%에 불과함. 전남 17% 울산, 세종(없음)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전국 국·공·사립 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현황

가. 전국 주요 미술관 현황 및 제주도 미술관

<표3-6> 전국 주요 미술관 현황 및 제주도 미술관

전국	지역	구분	전국국·공·사립미술관명 258관 중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 (연간)	전국미술관 258관 중
서울	종로구	사립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978.04.14	316	1,508,271	1위
서울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13.11.12	362	1,185,168	2
경기	과천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과천)	1986.08.25	311	911,179	3
서울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990.10.17	329	830,000	4
서울	영등포	사립	63아트	2008.09.26	365	680,000	5
제주	서귀포	사립	박물관은살아있다	2013.07.15	365	500,000	6
부산	해운대	공립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3.20	303	484,834	7
서울	종로구	사립	대림미술관	1996.05.21	257	463,995	8
서울	용산구	사립	디뮤지엄	2015.09.01	233	461,901	9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나상목)미술관	1999.11.13	312	432,520	10
제주	제주시	사립	제주러브랜드	2004.11.16	365	400,000	11
제주	제주시	사립	제주유리의성	2008.10.08	365	400,000	12
경북	포항시	공립	포항시립미술관	2009.12.15	192	398,483	13
대구	달서구	공립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1991.10.08	310	378,605	14
서울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1998.12.01	259	349,622	15
서울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999.10.	353	300,000	16
부산	사하구	공립	부산현대미술관	2018.06.15	300	281,385	17
제주	서귀포	공립	이중섭미술관	2002.11.28	301	265,037	18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2008.10.08	312	223,293	19
경기	양평군	공립	양평군립미술관	2011.12.16	254	208,463	20
광주	북구	공립	광주시립미술관	1992.08.01	319	208,094	21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미술관	2011.05.26	313	200,831	22
전북	전주시	사립	교동미술관	2007.04.26	301	180,000	23
강원	원주시	사립	뮤지엄 산(청조갤러리)	2013.05.16	312	177,735	24
경기	안산시	공립	경기도미술관	2006.10.25	312	172,495	25
강원	강릉시	사립	하슬라미술관	2003.10.20	365	160,000	26
경기	안산시	공립	단원미술관	2013.04.05	310	141,547	27
충남	당진시	사립	아미미술관	2010.10.11.	363	140,000	28
전북	완주군	공립	전라북도립미술관	2004.10.14	282	137,259	29
제주	제주시	사립	그리스신화박물관	2012.02.07	365	130,000	30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예술의전당알천미술관	2010.11.16	365	127,806	31
대전	서구	공립	대전시립미술관	1998.04.15	281	122,228	32
서울	용산구	사립	삼성미술관 Leeum	2004.10.13	305	120,000	33
경기	수원시	공립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5.10.08	312	119,035	34
경남	김해시	공립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006.03.24	309	118,248	35
제주	서귀포	공립	제주추사관	2010.05.13	300	114,695	36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2009.06.26	302	106,000	37
인천	중구	공립	인천아트플랫폼	2009.09.25	313	102,000	38
서울	송파구	사립	소마미술관	2004.09.16	206	101,464	39
서울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1988.02.15	350	100,000	40
경기	성남시	사립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2015.08.21	314	90,000	41
충남	예산군	사립	수덕사선미술관	2011.01.11	285	85,619	42
전남	진도군	공립	남도전통미술관	2010.10.01	318	85,615	43

전국	지역	구분	전국국·공·사립미술관명 258관 중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 (연간)	전국미술관 258관 중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4.04.28	300	83,268	44
전남	담양군	사립	대담미술관	2010.06.20	365	81,221	45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분관 (대청호미술관)	2004.10.02	314	80,869	46
경남	창원시	공립	경남도립미술관	2004.06.23	219	75,502	47
경남	김해시	공립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2005.11.25	300	74,638	48
경기	성남시	대학	신구대학교식물원 갤러리 우촌	2014.01.17	329	71,364	49
대전	서구	공립	이응노미술관	2007.05.03	311	70,889	50
.....							
제주	서귀포	사립	빛의 벙커	2018.11.16	300	69,249	54
제주	서귀포	사립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2002.02.	305	67,136	55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	2007.09.01	302	67,000	56
.....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2016.09.24	311	27,246	90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9.11	300	26,245	93
제주	제주시	사립	성안미술관	2007.12.03	300	23,000	103
제주	서귀포	공립	기당미술관	1987.07.01	300	22,044	104
.....							
제주	서귀포	사립	왈종미술관	2013.06.01	365	17,244	126
.....							
제주	서귀포	사립	자연사랑미술관	1999.04.01	365	10,800	152
제주	서귀포	공립	소암기념관	2008.10.04	314	10,501	153
.....							
제주	제주시	사립	제주옹기숨미술관※	2018.03.	300	약1만(자체조사)	순위에서 제외
제주	서귀포	사립	제주조각공원	1987.10.02	300	-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258개 미술관 중 방문객 순위 50위 내 재작성

※ 위 표에서 순위에서 제외된 제주옹기숨미술관(사립)은 2018년 개관하여 공예품 제작과 전시 및 판매를 하는 미술관임.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관람객이 연간 150만명으로 집계되어 상위권인 2위를 차지함. 본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전화 인터뷰), 해당 미술관 관람객은 연간 약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 수치는 공식 총람과 불일치하므로, 이하 순위 계산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밝힘.

○ 전국 국·공·사립미술관을 통틀어 볼 때, 관람객 수 기준, 상위 5위권에는 수도권의 세종문화회관 미술관(1위, 사립)과 국립현대미술관(2위, 3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4위, 사립)이 연간 관람객 수가 80만 명~1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상위 10위 중 제주도 소재 미술관의 경우, 방문객 연간 50만 명으로 집계된 '박물관은 살아있다(6위, 사립)' 1곳이 있음.

○ 제주도 소재 공립미술관 최상위는 관람객 26만을 기록, 18위에 해당하는 이중섭미술관을 들 수 있음. 그 다음으로 제주추사관(36위), 제주도립미술관(37위)을 들 수 있는데 10만명 선에 머물고 있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104위/258곳 중)과 소암기념관(153위/258곳 중) 방문객 추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전국 국·공립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표3-7> 전국 국·공립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전국	지역	구분	전국국·공립미술관명 72관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명) (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전국국·공립 미술관 72관 중
서울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13.11.12.	362	1,185,168	2위	1위
경기	과천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과천)	1986.08.25.	311	911,179	3	2
부산	해운대	공립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3.20.	303	484,834	7	3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나상목)미술관	1999.11.13.	312	432,520	10	4
경북	포항시	공립	포항시립미술관	2009.12.15	192	398,483	13	5
대구	달서구	공립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991.10.08	310	378,605	14	6
서울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1998.12.01.	259	349,622	15	7
부산	사하구	공립	부산현대미술관	2018.06.15.	300	281,385	17	8
제주	서귀포	공립	이중섭미술관	2002.11.28	301	265,037	18	9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2008.10.08.	312	223,293	19	10
경기	양평군	공립	양평군립미술관	2011.12.16.	254	208,463	20	11
광주	북구	공립	광주시립미술관	1992.08.01.	319	208,094	21	12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미술관	2011.05.26	313	200,831	22	13
경기	안산시	공립	경기도미술관	2006.10.25.	312	172,495	25	14
경기	안산시	공립	단원미술관	2013.04.05.	310	141,547	27	15
전북	완주군	공립	전라북도립미술관	2004.10.14	282	137,259	29	16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2010.11.16	365	127,806	31	17
대전	서구	공립	대전시립미술관	1998.04.15.	281	122,228	32	18
경기	수원시	공립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5.10.08	312	119,035	34	19
경남	김해시	공립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006.03.24.	309	118,248	35	20
제주	서귀포	공립	제주추사관	2010.05.13	300	114,695	36	21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2009.06.26	302	106,000	37	22
인천	중구	공립	인천아트플랫폼	2009.09.25	313	102,000	38	23
전남	진도군	공립	남도전통미술관	2010.10.01.	318	85,615	43	24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4.04.28	300	83,268	44	25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분관 (대청호미술관)	2004.10.02.	314	80,869	46	26
경남	창원시	공립	경남도립미술관	2004.06.23	219	75,502	47	27
경남	김해시	공립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2005.11.25	300	74,638	48	28
대전	서구	공립	이응노미술관	2007.05.03.	311	70,889	50	29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	2007.09.01	302	67,000	56	30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솔거미술관	2015.08.21	303	66,141	57	31
경기	여주시	공립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001.08.10.	313	64,532	58	32
서울	강서구	공립	겸재정선미술관	2009.04.23.	289	59,474	60	33
전북	무주군	공립	최북 미술관	2012.06.08.	312	48,039	63	34
전남	목포시	공립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2009.07.29.	298	47,451	64	35
전북	정읍시	공립	정읍시립미술관	2015.10.24	150	43,728	66	36
강원	양구군	공립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2002.10.25.	314	43,568	67	37
경기	고양시	공립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2007.05.31.	263	43,306	68	38
강원	강릉시	공립	강릉시립미술관	2013.07.01	310	38,987	73	39

전국	지역	구분	전국국·공립미술관명 72관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명) (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전국국·공립 미술관 72관 중
전남	함평군	공립	함평군립미술관	2011.04.29.	268	38,251	75	40
광주	북구	공립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	2015.06.04.	317	34,225	78	41
충남	천안시	공립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2012.09.03	218	33,768	79	42
경기	성남시	공립	성남아트센터 성남큐브미술관	2010.08.06	250	32,559	81	43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한국공예관	2005.	300	32,000	82	44
전북	남원시	공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2018.03.02.	251	29,084	84	45
강원	고성군	공립	진부령미술관	2004.12.20	300	27,743	89	46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2016.09.24	311	27,246	90	47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2013.09.11.	300	26,245	93	48
경기	오산시	공립	오산시립미술관	2012.07.01.	310	25,000	96	49
전북	익산시	공립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2015.04.22.	300	24,000	101	50
경기	이천시	공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07.08.14.	303	23,640	102	51
제주	서귀포	공립	기당미술관	1987.07.01	300	22,044	104	52
경남	창원시	공립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1994년 사립개관)	2004.04.30	311	22,031	105	53
전남	곡성군	공립	전라남도옥과미술관	1996.09.13.	313	21,616	108	54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2016.07.01	314	21,055	111	55
광주	남구	공립	양림미술관	2012.12.27.	292	20,000	113	56
충남	홍성군	공립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2011.11.08	300	20,000	117	57
경북	청송군	공립	군립청송야송미술관	2005.04.29.	310	19,552	119	58
강원	인제군	공립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2012.10.06	280	18,066	121	59
인천	미추홀	공립	송암미술관	1992.10.31	304	17,154	127	60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2012.08.30.	289	16,174	128	61
충북	진천군	공립	군립생거판화미술관	2010.09.16	311	14,593	133	62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미술관	2009.11.29.	220	13,150	137	63
전남	보성군	공립	보성군립백민미술관	1993.12.29.	310	13,000	138	64
전북	순창군	공립	순창공립미술관	2016.04.22.	309	12,715	140	65
광주	남구	공립	이강하 미술관	2018.02.09.	273	11,079	149	66
제주	서귀포	공립	소암기념관	2008.10.04	314	10,501	153	67
전남	무안군	공립	무안군오승우미술관	2011.02.24.	362	10,089	157	68
경남	진주시	공립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2015.12.31	300	7,541	170	69
충북	청주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	2018.12.27	5	5,732	186	70
경북	김천시	공립	김천시립미술관	2012.12.24	311	5,167	191	71
서울	중구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1988.08.19.	266	2,385	219	72
서울	관악구	공립	남서울미술관	2004.09.02.	286	362	248	
전남	화순군	공립	화순군립석봉미술관	2018.10.22.	-	-	-	

※문체부 2019 총람에서 전국국공립 미술관 현황 중,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청주)은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국립 1관하여 **72**개소로 공식 집계됨. 이 표에서는 국현 서울관과 덕수궁관을 별도로 하여 집계되고 있어서 미술관 실재 집계는 74개소.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재작성

○ 전국 주요 국·공립미술관 관람객 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위권에 수도권 4곳, 지방 6곳으로 집계되고 있음. 수도권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과 백남준아트센터이며, 지방의 경우는 부산시립미술관(3위), 김제시립벽천(나상목)미술관(4위), 포항시립미술관(5위),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6위), 부산현대미술관(8위), 제주 이중섭미술관(9위)임.

○ 전국국공립미술관 상위 10위 중 작가미술관이 3곳 포함됨. 김제시립벽천미술관, 제주이중섭미술관(9위), 용인 백남준아트센터(10위)가 이에 해당됨.

다. 전국 주요 작가미술관(single artist museum)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표3-8> 전국 주요 작가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전국	지역	구분	미술관명 47관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명) (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전국작가 미술관 47관 중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나상목)미술관	1999.11.13	312	432,520	10위	1위
제주	서귀포	공립	이중섭미술관	2002.11.28	301	265,037	18	2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2008.10.08.	312	223,293	19	3
경기	안산시	공립	단원미술관	2013.04.05	310	141,547	27	4
제주	서귀포	공립	제주추사관	2010.05.13	300	114,695	36	5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4.04.28	300	83,268	44	6
대전	서구	공립	이응노미술관	2007.05.03	311	70,889	50	7
제주	서귀포	사립	김영갑갤러리	2002.02.	305	67,136	55	8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솔거미술관	2015.08.21	303	66,141	57	9
서울	강서구	공립	겸재정선미술관	2009.04.23	289	59,474	60	10
서울	종로구	사립	환기미술관	1992.11.05	281	48,929	62	11
전북	무주군	공립	최북 미술관	2012.06.08	312	48,039	63	12
강원	양구군	공립	군립 박수근미술관	2002.10.25	314	43,568	67	13
충남	공주시	사립	사립임립미술관	1997.	300	40,000	71	14
강원	속초시	사립	석봉도자기미술관	1997.10.02	300	36,000	76	15
전북	남원시	공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2018.03.02	251	29,084	84	16
강원	춘천시	사립	권진규미술관(휴관)(未)	2015.12.05	360	28,000	87	17
서울	종로구	사립	일민미술관	1994.07.19	201	27,925	88	18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2016.09.24	311	27,246	90	19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2013.09.11	300	26,245	93	20
충남	천안시	사립	리각미술관	1993.03.02	365	25,500	94	21
강원	춘천시	사립	이상원미술관(未)	2014.10.18	300	25,000	97	22
경남	통영시	사립	전혁림미술관	2003.05.11		25,000	99	23
경기	이천시	공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07.08.14	303	23,640	102	24
경남	창원시	공립	창원시립마산 문신미술관(1994년사립)	2004.04.30	311	22,031	105	25
충북	청주시	사립	운보미술관	2001.05.26	317	20,000	116	26
충남	홍성군	공립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2011.11.08	300	20,000	117	27
제주	서귀포	사립	왈종미술관	2013.06.01	365	17,244	126	28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2012.08.30	289	16,174	128	29
대구	남구	대학	극재미술관	1999.10.28	234	14,490	134	30
전남	보성군	공립	보성군립백민미술관	1993.12.29	310	13,000	138	31
광주	남구	공립	이강하 미술관	2018.02.09	273	11,079	149	32
제주	서귀포	공립	소암기념관	2008.10.04	314	10,501	153	33
전남	무안군	공립	무안군오승우미술관	2011.02.24	362	10,089	157	34

전국	지역	구분	미술관명 47관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명) (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전국작가 미술관 47관 중
경남	진주시	공립	시립이성자미술관(未)	2015.12.31	300	7,541	170	35
경기	안산시	사립	정문규미술관	2009.06.12	310	6,500	177	36
서울	용산구	사립	김세중미술관	2015.07.14	280	6,000	181	37
충남	아산시	사립	당림미술관	1997.06.14	310	5,000	194	38
경북	경산시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종복미술관	2013.09.27	270	5,000	195	39
경북	울진군	사립	향암미술관	1999.07.30	250	4,000	203	40
광주	동구	사립	우제길미술관	1999.09.01	360	3,990	204	41
광주	동구	사립	의재미술관	2001.11.17	228	3,468	207	42
경기	파주시	사립	기산미술관	2011.11.11	300	3,000	211	43
전남	순천시	사립	모긴미술관	2015.12.05.	297	2,942	214	44
경기	양주시	사립	안상철미술관	2008.07.24	291	2,258	220	45
경기	의정부	사립	백영수미술관	2018.04.20	260	1,300	234	46
전남	진도군	사립	장전미술관	1989.11.19.	315	1,000	243	47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재작성

○ 2019년 기준 전국 작가미술관은 총 47개소로 집계되고 있음. 시도에서 설립한 공립미술관 20여 개소 있음. 이 경우 지자체는 지역 출신 작가 브랜드를 살려 작품 수집과 기증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주를 이룸. 예를 들어 김제 벽천미술관, 양주군립 박수근미술관, 진주시립이성자박물관, 서귀포 소암기념관 등이 그러함.

○ 반면, 김창열미술관(제주) 같이 작품을 제주도에 기증한 경우, 또는 이중섭미술관(제주), 제주추사관, 단원미술관(안산)과 같이 지역과 인연이 있었던 '작가'를 기리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작가의 작품과 관련 자료들을 매년 발굴・구입・전시・연구하는 미술관이 있음.

○ 사립 작가미술관의 경우, 작가가 직접 미술관을 설립하여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사후에도 작가의 유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충북 운보(김기창)미술관, 폐교한 학교를 임대・개조하여 생전・사후에도 그 뜻을 잇는 서귀포시 김영갑갤러리, 현존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미술관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왈종미술관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은 민간 기부(설립자: 기당 강구범)로 설립한 전국 최초 시립미술관으로 변시지 화백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음. 항간에는 '변시지미술관'으로 알려질 정도로 변시지 작가의 상징성을 띠고 있으나, 미술관의 전반적인 운영방향 상 작가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음.

○ 전국 작가미술관 중 관람객 수 상위 5위를 보면, 김제 벽천미술관(1위, 432,520명), 제주 이중섭미술관(2위, 265,037명), 용인 백남준아트센터(3위, 223,293명), 안산 단원미술관(4위, 141,547명), 제주추사관(5위, 114,695명) 순.

○ 6위로 이어지는 양주 장욱진미술관(83,268명)부터는 연간 관람객 수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한편, 1위 벽천미술관과 2위 이중섭미술관의 관람객이 약 20만 명 차가 날 정도로 벽천미술관의 위상은 독보적임.

○ 그럼에도 제주도 작가미술관 6곳 중 2곳이 상위 5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다만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이 33위(10,501명)인 점도 참작하여 작가미술관 홍보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라. 제주도 공·사립 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표3-9> 제주도 공·사립 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지역	구분	미술관명 21관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명) (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도내 미술관 21관 중
서귀포	사립	박물관은살아있다	2013.07.15	365	500,000	6위	1위
제주시	사립	제주러브랜드	2004.11.16	365	400,000	11	2
제주시	사립	제주유리의성	2008.10.08	365	400,000	12	3
서귀포	공립	이중섭미술관	2002.11.28	301	265,037	18	4
제주시	사립	그리스신화박물관	2012.02.07	365	130,000	30	5
서귀포	공립	제주추사관	2010.05.13	300	114,695	36	6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2009.06.26	302	106,000	37	7
서귀포	사립	빛의 벙커	2018.11.16	300	69,249	54	8
서귀포	사립	김영갑갤러리	2002.02.	305	67,136	55	9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	2007.09.01	302	67,000	56	10
서귀포	사립	유민미술관	2017.07.05	185	32,966	80	11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2016.09.24	311	27,246	90	12
서귀포	사립	성안미술관	2007.12.03	300	23,000	103	13
서귀포	공립	기당미술관	1987.07.01	300	22,044	104	14
서귀포	사립	왈종미술관	2013.06.01	365	17,244	126	15
제주시	사립	아라리오 뮤지엄 탑동시네마	2014.10.01	310	15,113	129	16
제주시	사립	돌하르방공원	2005.10.22	363	13,431	136	17
서귀포	사립	자연사랑미술관	1999.04.01	365	10,800	152	18
서귀포	공립	소암기념관	2008.10.04	314	10,501	153	19
제주시	사립	제주옹기숨미술관	2018.03.	300	-	-	-
서귀포	사립	제주조각공원	1987.10.02	300	-	-	-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재작성

마. 제주도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비교

<표3-10> 제주도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 현황 및 관람객 수 순위 비교

지역	구분	등록여부	제주도내 박물관(68관)·미술관(21관)	개관일	개관일수	방문객(명)(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도내 순위		
								박물관	미술관	종합 89관 중
제주시	사	1종	에코랜드	2013.01.08	365	1,636,000		1위		1위
서귀포	사	1종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제주)	2012.07.14	365	995,525		2		2
서귀포	사	1종	카멜리아힐	2010.02.19	365	809,000		3		3
서귀포	사	미술	박물관은살아있다	2013.07.15	365	500,000	6		1	4
제주시	사	1종	한림공원	1986.07.01	365	487,646		4		5
제주시	사	2종	제주아이스뮤지엄	2012.07.15	365	472,000		5		6
제주시	사	2종	선녀와나무꾼	2008.05.04	365	450,784		6		7
제주시	공	1종	제주4.3평화기념관	2008.03.28	341	436,977		7		8
제주시	공	1종	민속자연사박물관	1984.05.24	353	435,550		8		9
제주시	사	미술	제주러브랜드	2004.11.16	365	400,000	11		2	10
제주시	사	미술	제주유리의성	2008.10.08	365	400,000	12		3	11
서귀포	사	1종	제주항공우주박물관	2014.04.24	354	360,000		9		12
서귀포	사	1종	휴애리	2007.05.05	365	350,000		10		13
제주시	공	1종	제주돌문화공원	2006.06.03	355	348,345		11		14
제주시	국	1종	국립제주박물관	2001.06.15	311	342,891		12		15
서귀포	사	1종	헬로키티아일랜드	2014.01.01	365	330,000		13		16
서귀포	사	1종	일출랜드 식물원	2002.04.28	365	304,102		14		17
서귀포	사	1종	여미지식물원	1989.10.12	365	300,000		15		18
서귀포	사	1종	제주 허브동산	2003.	365	300,000		16		19
서귀포	사	1종	제주민속촌	2001.04.13	365	292,136		17		20
서귀포	사	2종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2008.05.09	365	279,449		18		21
제주시	사	2종	제주공룡랜드	2007.07.01	365	270,000		19		22
서귀포	공	미술	이중섭미술관	2002.11.28	301	265,037	18		4	23
서귀포	사	2종	설록차전시관	2001.09.01	365	259,150		20		24
서귀포	사	2종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	1998.04.13	364	247,832		21		25
제주시	사	1종	넥슨컴퓨터박물관	2013.07.27	312	230,456		22		26
제주시	공	미등록	제주목 관아	2003.01.22	365	206,308		23		27
서귀포	사	2종	피규어 뮤지엄	2017.09.28	365	195,000		24		28
제주시	공	1종	해녀박물관	2006.06.09	338	187,250		25		29
제주시	사	1종	메이즈뮤지움	2011.04.14	365	180,000		26		30
제주시	사	2종	테디베어사파리테지움	2008.07.15	365	178,910		27		31
서귀포	사	2종	제주테디베어뮤지엄	2001.04.24	365	170,000		28		32
서귀포	사	2종	석부작 박물관	2016.01.01	365	150,000		29		33
제주시	공	미등록	제주항일기념관	1997.08.15	358	149,000		30		34
서귀포	공	1종	감귤박물관	2005.02.25	362	137,000		31		35
제주시	사	미술	그리스신화박물관	2012.02.07	365	130,000	30		5	36

지역	구분	등록 여부	제주도내 박물관(68관)·미술관(21관)	개관일	개관 일수	방문객(명) (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도내 순위 박물관	도내 순위 미술관	도내 순위 종합 89관 중
서귀포	사	2종	초콜릿박물관	2002.05.04	365	120,000		32		37
제주시	공	미등록	항몽유적지	1984.02.25	365	114,795		33		38
서귀포	공	미술	제주추사관	2010.05.13	300	114,695	36		6	39
제주시	공	1종	김만덕기념관	2015.05.29	311	106,565		34		40
제주시	공	미술	제주도립미술관	2009.06.26	302	106,000	37		7	41
서귀포	사	1종	본태박물관	2012.11.03	365	104,501		35		42
제주시	사	1종	생각하는 정원	1992.07.30	365	102,180		36		43
서귀포	사	1종	아프리카박물관	1998.11.01	365	90,820		37		44
제주시	공	2종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전시관	2012.09.04	349	74,918		38		45
서귀포	사	미술 미등록	빛의 벙커	2018.11.16	300	69,249	54		8	46
서귀포	사	미술	김영갑갤러리	2002.02.	305	67,136	55		9	47
제주시	공	미술	제주현대미술관	2007.09.01	302	67,000	56		10	48
제주시	사	2종	제주미니랜드 세계미니어처박물관	2001.06.21	365	63,481		39		49
제주시	공	1종	제주교육박물관	1995.04.29	308	62,690		40		50
서귀포	사	2종	조안베어뮤지엄	2008.08.15	365	60,935		41		51
서귀포	사	1종	건강과성박물관	2006.05.09	365	59,096		42		52
서귀포	사	2종	세계조가비박물관	2011.02.23	365	50,000		43		53
제주시	공	미등록	제주 삼양동 유적	2004.01.05	365	49,146		44		54
서귀포	공	미등록	서복전시관	2003.09.06	365	39,853		45		55
서귀포	사	2종	세계오지민속박물관	2014.04.01	365	38,000		46		56
서귀포	사	미술	유민미술관	2017.07.05	185	32,966	80		11	57
제주시	사	1종	방림원	2005.11.15	365	31,569		47		58
서귀포	사	2종	SOS박물관	2012.08.17	313	30,750		48		59
제주시	사	1종	제주평화박물관	2004.02.29	365	30,262		49		60
서귀포	사	2종	제주유리박물관	2010.04.01	365	30,000		50		61
제주시	공	미술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2016.09.24	311	27,246	90		12	62
제주시	공	2종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2010.01.13	358	26,962		51		63
서귀포	사	1종	제주해양동물박물관	2017.09.19	340	25,680		52		64
서귀포	사	2종	세계술박물관	2014.05.01	365	24,000		53		65
제주시	국	1종	제주대학교박물관	1967.03.20	220	23,000		54		66
제주시	사	미술	성안미술관	2007.12.03	300	23,000	103		13	67
제주시	사	1종	한울랜드뮤지엄	2014.12.10	365	22,212		55		68
서귀포	공	미술	기당미술관	1987.07.01	300	22,044	104		14	69
서귀포	사	2종	토이파크	2011.06.14	365	20,000		56		70
서귀포	사	미술	왈종미술관	2013.06.01	365	17,244	126		15	71
제주시	사	미술	아라리오 뮤지엄 탑동시네마	2014.10.01	310	15,113	129		16	72
제주시	사	미술	돌하르방공원	2005.10.22	363	13,431	136		17	73

지역	구분	등록여부	제주도내 박물관(68관)·미술관(21관)	개관일	개관일수	방문객(명)(연간)	전국 미술관 258관 중	도내 순위 박물관	도내 순위 미술관	도내 순위 종합 89관 중
서귀포	공	미등록	한국야구명예의전당	1998.04.28	300	11,700		57		74
서귀포	사	미술	자연사랑미술관	1999.04.01	365	10,800	152		18	75
서귀포	공	미술	소암기념관	2008.10.04	314	10,501	153		19	76
서귀포	사	1종	제주커피박물관바움	2015.01.01	365	9,000		58		77
서귀포	사	2종	제주옹기박물관	2010.11.27	300	5,000		59		78
제주시	사	2종	이랜드뮤지엄	2014.06.30	300	3,000		60		79
제주시	사	미술	제주옹기숨미술관	2018.03	300	-	-		-	-
서귀포	사	미술	제주조각공원	1987.10.02	300	-	-		-	-
서귀포	사	2종	믿거나말거나	2010.12.24	365	-	-	-		-
서귀포	사	등록	닥종이인형박물관	2006.06.01	-	-	-	-		(휴관)
서귀포	사	2종	레오나르로다빈치과학박물관	2011.04.07	-	-	-	-		(휴관)
서귀포	사	1종	신영제주영화박물관	1999.06.05	-	-	-	-		(휴관)
서귀포	사	1종	보석앤화석박물관	2008.02.29	-	-	-	-		(휴관)
제주시	사	1종	파파월드	2007.07.01	-	-	-	-		(휴관)
제주시	사	등록	타임파크	-	-	-	-	-		(휴관)
제주시	사	등록	탐라신화공원	-	-	-	-	-		(휴관)
합 계										89관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기준으로 재작성

○ 위 표는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광부)>에 집계・조사된 제주도 박물관(68개) 및 미술관(21개) 현황(총89개)임. 이 중 2곳은 방문객 수 집계가 되지 않았으며, 그 외 7곳은 휴관 중임. 따라서 위 표는 80곳 대상으로 조사된 방문객 순위 별로 재작성한 것임.

○ 제주도 박물관・미술관 통틀어 상위 1위는 에코랜드로 연간 160만명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해양과학관과 카멜리아힐이 80만명~90명 기록하고 있다. 그 외 10위권 내는 평균 약 45만 명, 30위권 내 20만 명, 40위대 초반까지 10만 명, 40위대 후반부터는 10만 명 이하로 집계되고 있음. 그만큼 방문객들의 선호도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중 상위 20위권 내 미술관으로는 사립미술관이 3곳 있음. 40만~50만 명 관람객 수 기록. 다만 이들 3곳은 '순수예술' 미술관이라기 보다는 '미술관' 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한 광의의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문화시설임을 알 수 있음.

○ 순수예술 미술관 차원에서는 이중섭미술관이 23위로 처음 등장하고 있으며. 제주추사관(39위), 제주도립미술관(41위), 김영갑갤러리(47위), 제주현대미술관(48위) 순임.

○ 도내 예술시장 내 기당미술관(도내 미술관 14위/21개, 도내 박물관・미술관69위/89개) 및 소암기념관(도내 미술관 19위/21개, 도내 박물관・미술관76위/89개)의 위상도 위 표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음.

바. 관람객 수로 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순위(종합)

<표3-11> 관람객 수로 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순위 비교

(2019년 기준)

미술관명 관람객 수	전국 국·공·사립 미술관	전국 국·공립 미술관	전국 국·공·사립 작가미술관	제주도내 국·공·사립 미술관	제주도내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258관 중	**72관 중**	**47관 중**	**21관 중**	**89관 중**
이중섭미술관 265,037명	18위	9위	2위	4위	23위
기당미술관 22,044명	104위	52위	-	14위	69위
소암기념관 10,501 명	153위	67위	33위	19위	76위

3. 서귀포시 미술관・박물관 현황 및 분포도

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 미술관·박물관 분포수

<표3-12>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 미술관·박물관 분포수

(2019년 기준, 단위: 개)

2개 시	박물관 미술관 합계	박물관				미술관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2	89	**68**	16	51	1	**21**	7	14	0
제주시	42	**32**	14	17	1	**10**	3	7	0
서귀포시	47	**36**	2	34	0	**11**	4	7	0

자료: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미술관・박물관은 인구 대비 타 시도 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기준 도내 미술관・박물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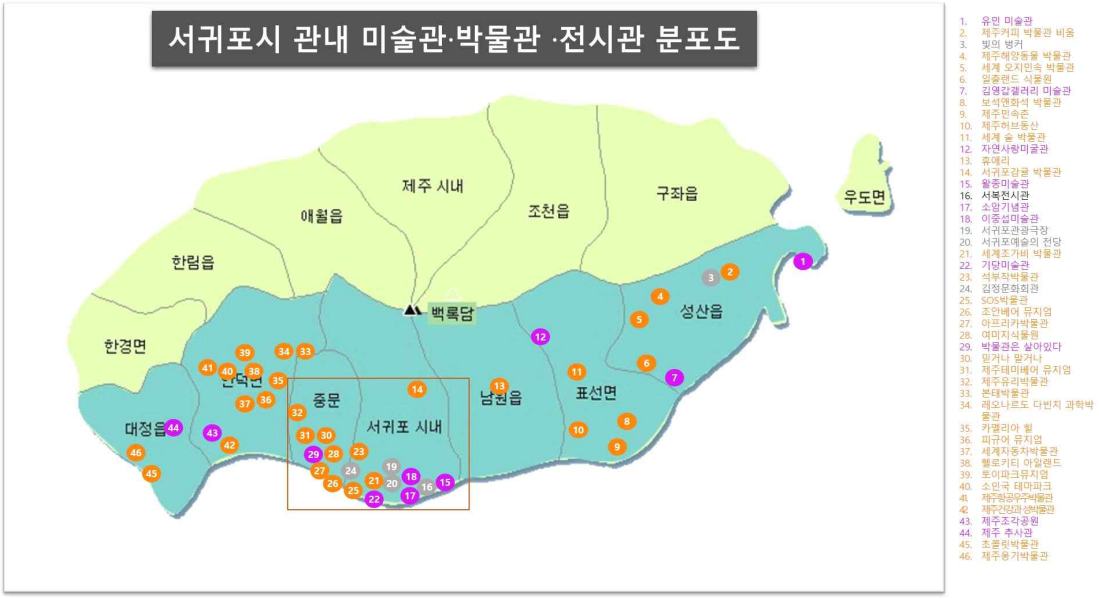
○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공립박물관(2개)이 적고, 사립박물관(34개)이 눈에

띄게 분포하고 있음.

○ 공립미술관의 경우는 제주시(3개), 서귀포시(4개)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규모나 예산, 인력면에서 제주시 권역 공립미술관보다 작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섭미술관은 연간 관람객 수가 20만명 이상일 정도로 제주시 권역 공립미술관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음.

나. 서귀포시 관내 미술관·박물관 분포도

<그림3-10> 서귀포시 관내 미술관·박물관 분포도



○ 서귀포시 관내 총47개 미술관·박물관 분포도를 보면, 서귀포시 원도심과 중문, 안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서귀포시 권역 미술관·박물관을 통틀어 관람객 수가 많은 상위권 시설은 제주해양과학관(성산읍), 카멜리아힐(안덕면), 박물관은살아있다(중문 색달동), 제주항공우주박물관(안덕면), 휴애리(남원읍) 순임. 그 중 미술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은살아있다'(중문 색달동)를 제외한 모두는 박물관 등록 문화시설들임.

○ 순수예술을 다루는 공립미술관으로서 이중섭미술관은 도내 미술관·박물관을 통틀어 23위, 서귀포시 권역에서는 12위를 보이고 있음.

다. 서귀포시 관내 미술관·박물관 현황

<표3-13> 서귀포시 관내 미술관·박물관 현황

(2019년 기준)

구분	명칭	주 소
박물관		
공 립 (2개소)	서귀포감귤박물관	효돈순환로 441(신효동)
	서복전시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서귀동)
사 립 (34개소)	아프리카박물관	이어도로 49(대포동)
	제주민속촌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표선리)
	제주건강과성박물관	안덕면 일주서로 1611(감산리)
	보석 앤 화석박물관	표선면 하천로 11(하천리)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상창리)
	본태박물관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69(상천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서광리)
	헬로키티아일랜드	안덕면 한창로 340(상창리)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성산읍 서성일로 474(난산리)
	제주커피박물관바움	성산읍 서성일로1168번길89-17(고성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안덕면 산록남로 788(상천리)
	토이파크뮤지엄	안덕면 동광로 267-7(동광리)
	피규어 뮤지엄	안덕면 한창로 243(상창리)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성산읍 서성일로 689-21(수산리)
	제주테디베어뮤지엄	중문관광로110번길31(색달동)
	소인국테마파크 전시관	안덕면 중산간서로 1878(서광리)
	석부작박물관	일주동로 8941(호근동)
	조안 베어뮤지엄	대포로 113(대포동)
	초콜릿박물관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44(일과리)
	제주옹기박물관	대정읍 무영로254번길 3-1(무릉리)
	제주유리박물관	중산간서로 1403(상예동)
	믿거나 말거나	중문관광로110번길 32(색달동)
	세계조가비박물관	대평로 284(서홍동)
	SOS 박물관	월드컵로 31(법환동)
	세계술박물관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31(하천리)
	여미지식물원	중문관광로 93(색달동)
	일출랜드 식물원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삼달리)
	제주허브동산	표선면 돈오름로 170(표선리)
	휴애리	남원읍 신례동로 256(신례리)
	카멜리아 힐	안덕면 병악로 166(상창리)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강정동)
	닥종이인형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법환동)
	신영영화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남원리)
	제주해양과학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고성리)
소 계	36개소	
미술관		
공 립 4개소	기당미술관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로 27-3(서귀동)
	소암기념관	소암로 15(서귀동)
	제주추사관	대정읍 추사로 44(안성리)
사 립 7개소	왈종미술관	칠십리로214번길 30(동홍동)
	김영갑갤러리미술관	성산읍 삼달로 137(삼달리)

구분	명칭	주 소
	자연사랑미술관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46(가시리)
	유민미술관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고성리)
	박물관은살아있다	중문관광로 42(색달동)
	제주조각공원	안덕면 일주서로 1836(덕수리)
	빛의 벙커(성산 ANIEX)	성신읍 고성리 2039-22
소 계	11개소	
		총 계 47개소

자료: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4. 관광 패러다임 전환시대 지역미술관의 역할

○ 세계경제침체와 IT기술발전은 미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의 개념을 크게 확장하고 있음. 현대는 미술관이 이용자들에게 의미를 주입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창출하고 있음. 따라서 미술관은 적용과 변화를 위한 실천의 산물이며, 방문객들의 다양한 심리적·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21세기 미술관 기능을 정립해야 함.

○ 미술관의 지역사회 기여. 방문객·지역민 예술치유의 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미술관은 더 이상 단순히 문화예술과 여가 향유를 위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넘어 주민의 평생학습장이자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 예술 생태계 생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함.

제3절 미술관과 환경변화

1. 사회적 환경변화

가. 21세기 지식기반산업화 시대 진입

○ 21세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류지식의 생산 보고로서 미술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미술관은 인류의 지식과 지역 문화의 원천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주요 거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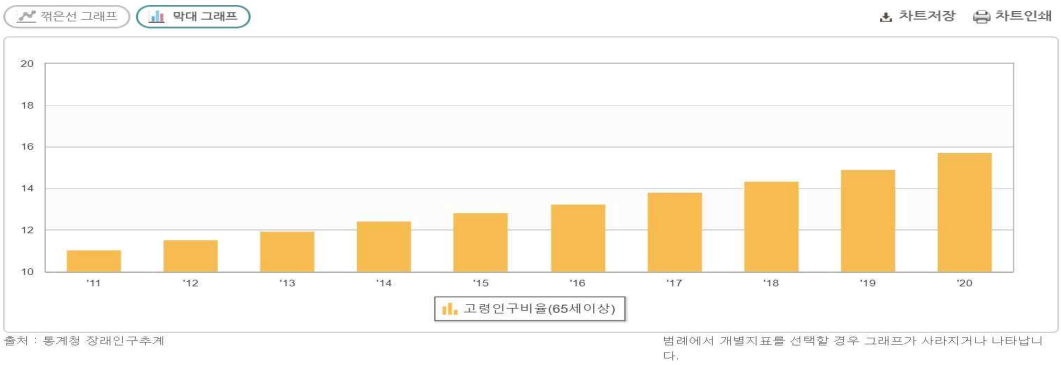
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사회 가속화

○ 세계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국가들은 GDP 성장률 저하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반영되고 있음.

○ 2019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전체의 15.7%인 774만6000명으로 집계(통계청 발표)됨에 따라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임.

<그림3-11>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	11.0	11.5	11.9	12.4	12.8	13.2	13.8	14.3	14.9	15.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부담 증가와 세수확대의 한계로 인해 공적 자원 운영에서 고효율, 저비용 운영에 대한 요구의 강도 증가하고 있음.

다.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수요 급증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나노기술(NT), 인지과학(CS) 등의 기술이 중첩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 활동 활발.

○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코로나 시대에서 미술관은 급변하는 한국미래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람 서비스와 관람 소통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 데이터(Big Data) 환경에서 ‘큐레이션 커머스(Curation Commerce)’ 개념의 등장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증받은 큐레이션에 의해 선별, 분류, 배포되는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미술관 큐레이션에 대한 신뢰도 강화로 이어져 미술정보에 대한 유용한 서비스 개발에 유리함.

※ 큐레이션은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특정 분야 전문가에 의해 정보의 분류, 배포에 활용되어 맛집, 의류, 여행, 숙박, 도서 등에 대한 선별 추천으로 이어져 통용

2. 문화예술 환경변화

가. 생활예술의 중요도 증가와 예술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

○ 문화예술 향유의 지역 분권화와 생활기반 문화시설 강화로 ‘블록(block)’ 시스템에서 ‘그물망(web)’ 시스템으로 변화.

· 미술문화 향유가 기존은 예술가와 비평가, 예술기관 등의 ‘미술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폐쇄적 구조.

· 블록 패러다임에서는 미술제도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기 어려웠음.

· 지금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과 공유문화로 인해 예술생산과 소비가 관심사별, 소그룹별, 취향별 작은 커뮤니티 형태로 이뤄지고 작은 그룹은 그물처럼 이어져 개방적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으로 변화.

○ 커뮤니티 아트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으로 변화

· 예전에는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단위 재생을 커뮤니티 아트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도시, 혹은 지역 단위로 재생의 범위가 확대됨.

· 이는 하나의 거리나 하나의 시장이 예술을 수단으로 재생될 때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면서 도시와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함께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

해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함.

※ 〔지방도 젠트리피케이션〕① 대구 김광석길 예술가도 밀려났다.(연합뉴스 2017. 7. 29)"월세 10만원 점포가 2년 만에 3배 올라 더 있을 수 없었다"대구 도심 약령시·북성로도 임대료 치솟자 영세상인 밀려나.

· 미술관은 단순히 문화예술과 여가 향유를 위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넘어 주민의 평생학습장이자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 예술 생태계 생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

<표3-14> 생활예술로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고급예술의 관점		생활예술의 관점
목적	예술 그 자체	⇒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전문 창작자, 비평가, 애호가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숭배의 대상		창의적인 과정
성격	문화자원-차별논리		사회자본-연계적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013에서 참조.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수요

·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문화)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새로운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1인 가구 증가와 욜로 문화(You live only once)로 개인 취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고급 미술의 상징이었던 미술관 전시와 교육 소비 증가.

· SNS 시대에 디지털 계정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은 개인의 홍보수단임과 동시에 새로운 미술관 홍보 수단으로 부상함.

나. 현대미술의 문화예술산업에의 기여

○ 미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창조성에 기반을 두고 원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은 지식기반산업 체계에서 중요한 기반이 됨.

○ 문화예술의 창조성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도시경제를 주도하고 트렌드를 창출하며 글로벌시장 진출 시 막대한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함.

○ 문화예술은 창작물, 인력, 기술이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여가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연결된 생태계가 커지는 추세임.

○ 현재 세계적으로 미술과 자본의 결합은 아트마케팅, 아트펀딩, 아트옥션 등 다양한 시스템과 개념으로 등장하며, 현대미술을 증권, 채권, 선물 등과 같이 하나의 자본 상품으로 변화됨.

○ 과거 미술시장은 일부 상류층 자본가들 위주의 현대미술 콜렉터와 전문가들의 예술적 기호와 방향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현재 미술시장은 현대미술 대중화로 인해 대중들이 미술시장으로 흡수되어 새로운 콜렉터 층이 대두하면서 미술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음.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위주의 한국미술시장에 일반 시민의 미술콜렉션을 위한 '브리즈아트페어', 작가 직영의 '유니온 아트페어'의 등장으로 미술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현대미술 작업의 가치 평가 시스템을 주도했던 전문가들과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비전문가 집단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현대미술의 대중화는 21세기 현대미술의 개방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

○ 경기침체 시대에 현대미술은 경제투자상품의 성격을 띠면서 타 분야와 보다 직접적으로 결합하면서 아트 마케팅이 부상하고 있음.

※ 일본의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루이비통의 협업, 아티스트 이미지의 지드래곤과 나이키의 협업 등 다양한 아트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아시아 아트마켓의 중심부에 있는 홍콩이 아시아 시장의 거점으로서 입지가 약해지면서 한국이 아시아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름.

※ 〔세계 미술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 한국 온다](한겨레신문, 2020년 9월 4일) 2022년부터 한국 화랑협회와 공동장터 열기로 프리즈 관계자 협회 쪽과 최근 양해각서 체결.

○ K-POP과 K-DRAMA로 촉발되고 성공한 한류에 대해 세계의 지속적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현대미술 또한 K-ART의 이름으로 진출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원천으로 미술관, 박물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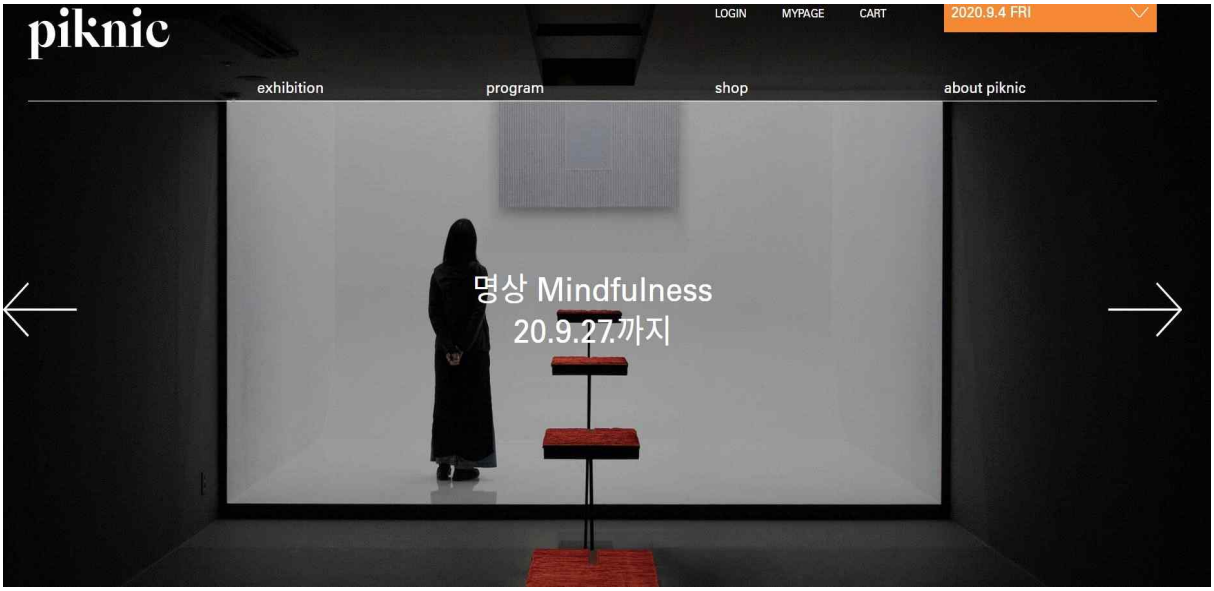
다. 예술을 통한 치유(힐링)가 화두로 부상

○ 사회 치유 및 개인 힐링의 문제가 예술계에서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치유(힐링)는 심리치료 전문가들에 의해 개인의 특정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예술을 통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함.

○ 특히 경기불황,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직면하면서 현대인들의 심리적 불안을 예술로 치유하는 예술치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서울 남산에 위치한 '피크닉'의 <명상 Mindfulness>전은 MZ세대의 인기를 끌면서 '피크닉'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43만 7천명을 넘었음.

<그림3-12> 예술심리치료 영상



○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주목했으며 미술관 교육에서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음.

○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이면서, 사회통합과 사회문제 치료를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해 하나의 문화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며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임.

○ 낙후 지역 재생에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와 같은 현대미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회문제 해결에 지역주민 주도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순기능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3. 미술관 패러다임의 변화 - 21세기 미술관

가. 미술관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확대

○ 뮤지엄(박물관, 미술관 혼용)의 정의

뮤지엄(박물관, 미술관 혼용)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정의는 1845년 브리티시 박물관법(British Museum Act)에서 콜렉션으로 규정하고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이래로, 근대의 박물관은 콜렉션으로 간주하다가 점차 콜렉션을 수장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게 됨.

○ 미술관의 기능과 시대에 따라 변화

박물관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1946년 국제박물관협의회 창립결의문, 1951년, 1989년, 1995년 국제박물관협의회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데 미술관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관 표본들을 보존, 연구, 전시하는 박물관에 속하며 그 정의는 미술관의 기능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옴.

○ 신박물관학의 영향

기존 박물관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영향으로 생태박물관학(Ecomuseology), 커뮤니티박물관학(Community Museology), 사회박물관학(Sociomuseology)과 연계되어 일상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공헌하는 형태의 박물관으로 나타나게 됨.

○ 다양한 박물관 등장

신박물관학의 영향은 마을박물관(Neighborhood Museum), 총체박물관(Integral Museum), 생태박물관(Ecomuseum) 등 새로운 형태의 뮤지엄으로 등장하면서 미술관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됨.

○ 21세기 박물관학

오늘날 Ecomuseology, Community museology는 지식과 실험에서 복잡한 영역이 되었으며 21세기 뉴뮤지올리지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 학파와 운동으로 세계 신박물관학운동(MINOM)의 노력과 기구들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세계신박물관학운동(MINOM, Mouvement International pour la Nouvelle Muséologie)은 주요 사회 문제와 인식을 문화유산, 문화재 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박물관 논쟁의 중재자로서 MINOM 회의 및 지역 교류를 추진함 (http://www.minom-icom.net).

○ 벽 없는 미술관

20세기 후반 미술장르와 미술관은 급격한 변화양상을 띠게 되는데 기존 제도권 미술계와 사회에 반발하여 나타난 설치미술과 연극과 미술이 결합된 퍼포먼

스(백남준, 존케이지)로 나타나면서 화이트 큐브로 명명된 미술관의 흰 벽면을 벗어난 대안공간(콘서트홀, 야외장소, 도시 내 여러 장소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 양상을 띠면서 '벽 없는 미술관' 개념이 생겨남.

○ 열린공간으로서 미술관

'벽 없는 미술관'은 물리적 공간의 벽을 넘어 개념적으로 닫고 제한된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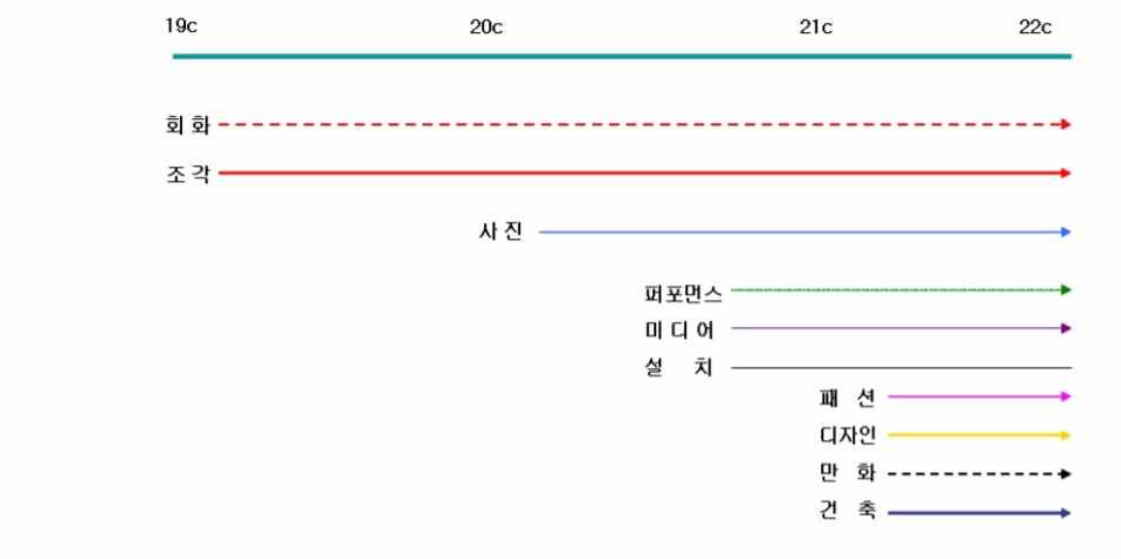
○ 현대미술의 영역 확장.

포스트모던 시대를 거치면서 사조의 소멸과 장르간 구분과 질서가 허물어지고 동시대 작가들의 시대적 비판 의식은 다양한 분야로 흩어져 상업적이고 대중적이어서 미술관에서 터부시하였던 패션, 디자인, 만화, 건축의 영역으로까지 현대미술의 영역을 넓혀감.

○ 다양한 문화적 요구 수용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현대미술관은 다른 학문과의 협력과 융합을 강화하면서 현대미술전시의 개념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며 과거의 전통을 동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서 적용과 변화를 위한 실천의 산물이며 미술관 공간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임.

<그림3-13> 현대미술의 시대별 매체 수용 경향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013.

나. 보존-연구기능에서 활용중심으로의 변화

○ 전통적 의미에서의 미술관은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수집한 작품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보존의 장소로 인식하는 한편, 근대적 의미에서 '공중의 이익'이라는 근대적 범위의 공공성 개념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일반 대중들과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이었음.

○ 최근 미술관의 전시 연계 사회교육, 문화행사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로 이는 과거와 같은 보존 중심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적 역할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미술관 전시는 하나의 사회담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추동하고 유발하는 문화적 발신지로서 역할.

○ 미술관 활동이 정적인 태세에서 동적인 태세로 전환하면서 실제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도 보존과 관리 개념보다 활용방안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높아짐.

※ 〔전시로 만나는 미술품 보존과학,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자 C의 하루'〕 (아시아경제, 2020년 6월 3일)

○ 다양한 방식의 소장품 활용은 미술관 활동의 활성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관람객 개발을 목표로 교육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나고 이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커지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음.

※ 스위스 샤울라거 미술관은 엠마뉴엘 호프만 재단(Emanuel Hoffmann Foundation)이 소유한 컬렉션을 위한 신개념 수장형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며 미술관의 이름인 샤울라거는 보는 창고라는 독일어이며, 창고에 갇힌 컬렉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컬렉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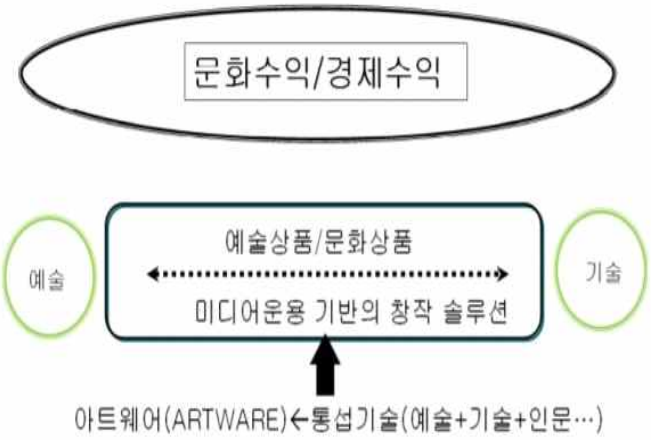
다. 기술에 기반하여 순수에서 융복합으로 변화

○ 지금 시대는 예술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로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IT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일상세계를 구축하는 기반기술로 인식됨.

※ 미국 뉴욕 뉴뮤지엄의 리좀(Rhizome)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리좀(Rhizome)을 운영하여 이들의 전시를 오프라인에서 개최

○ 홀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콘서트, 예술과 놀이의 융합, 예술과 치료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유형의 예술이 탄생하고 있음.

<그림3-14> 뉴미디어 시대의 예술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2013) 참조

○ 인터넷 네트워크의 일상화로 시공간을 넘어선 예술 향유 환경을 가지고 있음.

·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N-스크린,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술관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

· 3D,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어 융합문화예술콘텐츠 검색과 해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360° VR로 생생하게 보세요"〕(뉴시스, 2020년 8월 10일)

○ 인터렉티브 아트(Interactive Art), 미디어아트(Media Art),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 디지털 아트(Digital Art), 웹아트(Web Art)와 같은 기술기반 작품의 전시와 소장품으로서의 수용은 미술관 역할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라. 일방적 감상에서 상호소통 중심으로 변화

○ 21세기 미술관은 오브제 중심의 전시를 넘어 전시 공간을 시각적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기술을 이용하여 체험적이고 상호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 미술관 관람객의 포지셔닝이 수동적 감상자 입장에서 적극적 참여자이자 생산하는 관람자로 변화하고 있음.

마. 수요자 중심의 미술관 교육으로 변화

○ 이전 미술관은 작품 중심(object-oriented), 내용 중심(content-oriented), 프로그램 중심(program-oriented)으로 전시, 교육, 교류 활동이 주를 이루었음.

○ 현재 미술관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커뮤니티 연계 이벤트, 사회적 통합에 무게를 둔 다문화교육과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 창의적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심.

<그림3-15> 뉴미디어 시대의 예술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바. 지역 중심의 미술관 활동

○ 이전은 중앙의 미술관 활동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환경으로 변화.

○ 정책적 변화 관점에서 지방분권 강화 기조 아래 미술관 진흥정책 수립과 수행체계 정비에 있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지역 미술관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요구를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중심의 교류 활동에 더 집중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4장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현황 및 분석

제1절 조직 현황/89
제2절 미술관 3관 예산 및 관람객 추이·수익 현황/90
제3절 각 미술관 현황 분석/97
제4절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창작공간 덕판배/115

제1절 조직 현황

○ 2019년 8월 5일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에서 분리하여, 미술관 운영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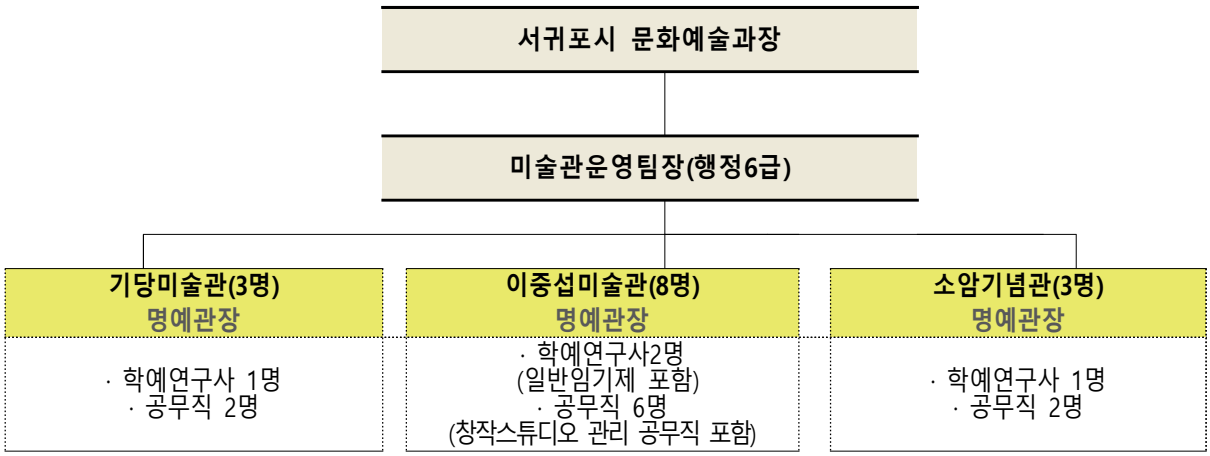
○ 직제 : 1팀 3개 미술관 15명

<표4-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직제현황

(2019. 8. 개편 이후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명)	행정6급	학예사	공무직	비고
문화예술과	소계		**15**	**1**	**4**	**10**	3관 미술관 각각 명예관장 위촉(총3명)
	미술관운영팀		1	1			
	3관	기 당미술관	3		1	2	
		이중섭미술관	8		2	6	
		소 암기념관	3		1	2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단, 타 국·공립미술관 조직에 준하는 미술관 운영 독립직제 마련 및 인력 충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제2절 미술관 3관 예산 및 관람객 추이·수익 현황

1. 예산 편성 규모

가. 기당미술관

<표4-2>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규모

(단위 천원)

기 당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2,000	2,000	10,000	50,000	50,000	60,000	50,000	45,000	45,000
작품구입			10,000	1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5,000	55,000
교육프로								20,000	14,000	23,000	20,000
기 타	44,563	44,146	40,755	44,012	47,969	52,469	65,658	96,698	96,358	112,706	102,333
합 계	44,563	44,146	52,755	56,012	57,969	152,469	165,658	223,698	210,358	225,706	222,33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나. 이중섭미술관

182,<표4-3>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규모

(단위 천원)

이중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12,000	50,000	45,000	40,000	40,000	40,000	60,000	40,000	50,000	65,000	65,000
작품구입		3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000,000
교육프로											3,200
기 타	150,552	143,453	176,774	190,451	221,492	240,912	542,204	247,824	299,578	314,682	276,971
합 계	162,552	223,453	221,774	230,451	261,492	1,280,912	1,102,204	787,824	849,578	879,682	1,345,17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다. 소암기념관

<표4-4>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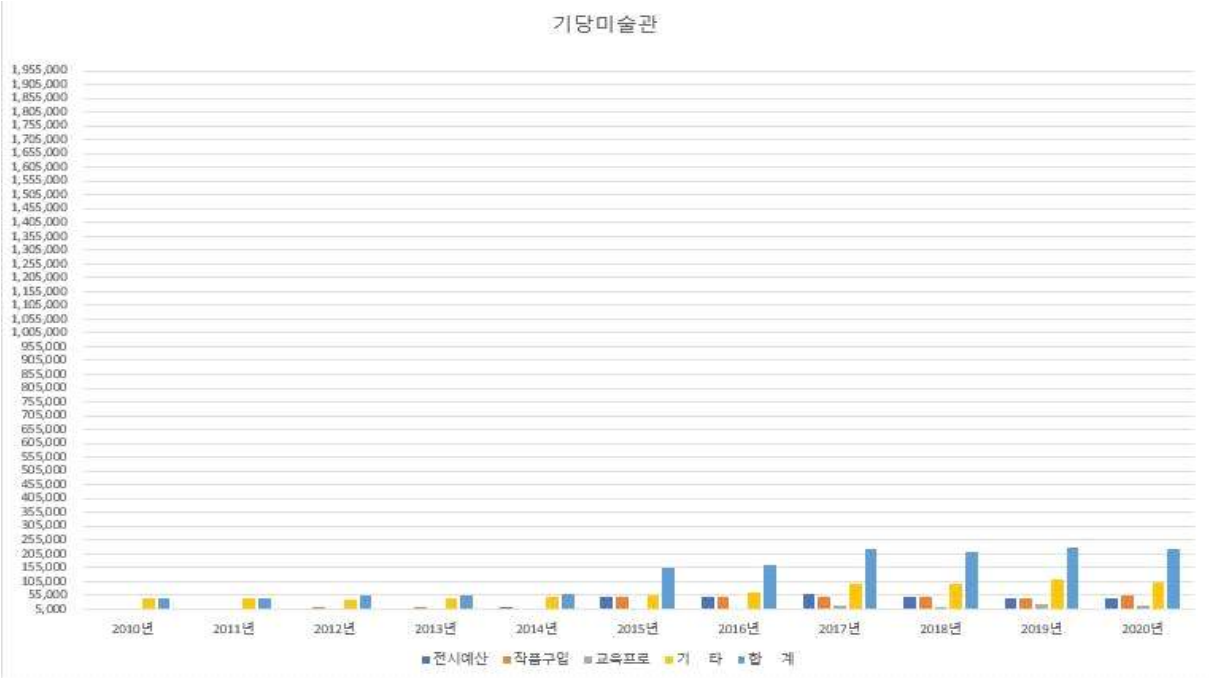
(단위 천원)

소 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10,000	66,000	60,000	50,000	60,000	70,000	70,000	60,000	60,000	54,000	50,000
작품구입				30,000	30,000	4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5,000
교육프로								5,000	5,000	4,500	4,000
기 타	94,679	92,280	78,111	79,439	79,953	72,930	102,764	86,696	145,156	93,550	86,247
합 계	104,679	158,280	138,111	159,439	169,953	182,930	202,764	181,696	240,156	182,950	176,24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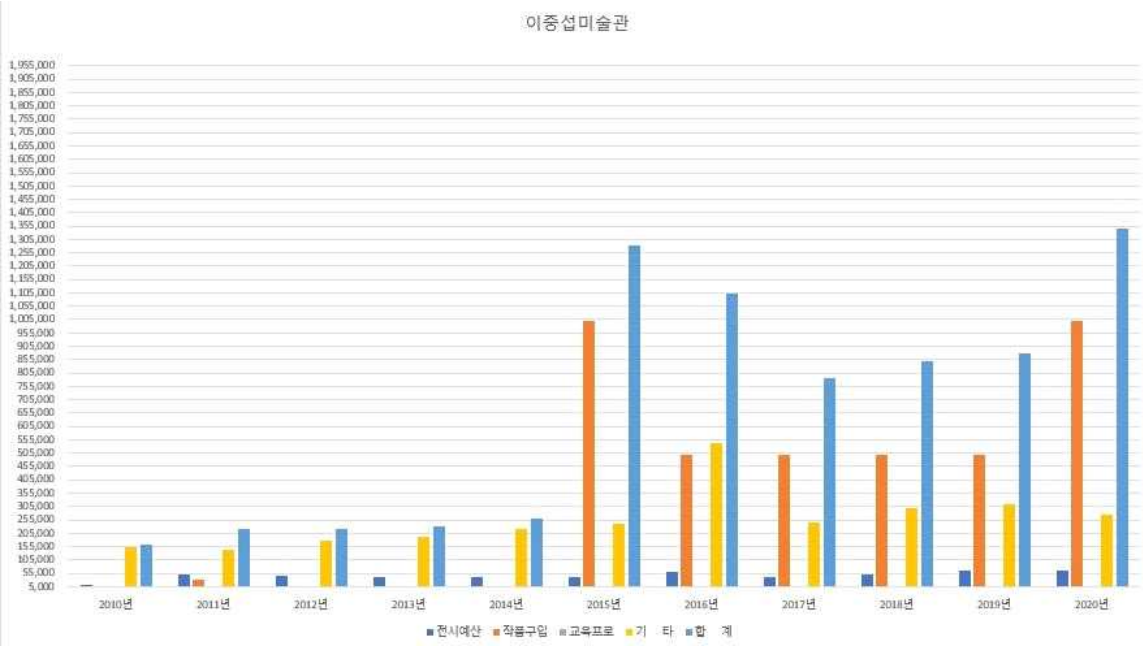
<그림4-1>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추이



- 10년간 예산 규모 변동: 4천만원 대에서 2억원 대로 5배 증가.
- 예산 대부분은 전시, 작품구입, 교육 이외의 기타 항목이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예산에는 재료비(아트상품 개발비 1천~2천만원 포함), 사무관리비, 미술관 시설유지비.
- 전시기획과 작품구입이 매년 평균 5천만원 대 유지되고 있음.
- 다양한 실험과 기획, 작품 발굴을 위한 예산 책정을 통해 미술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필요.

○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추이

<그림4-2>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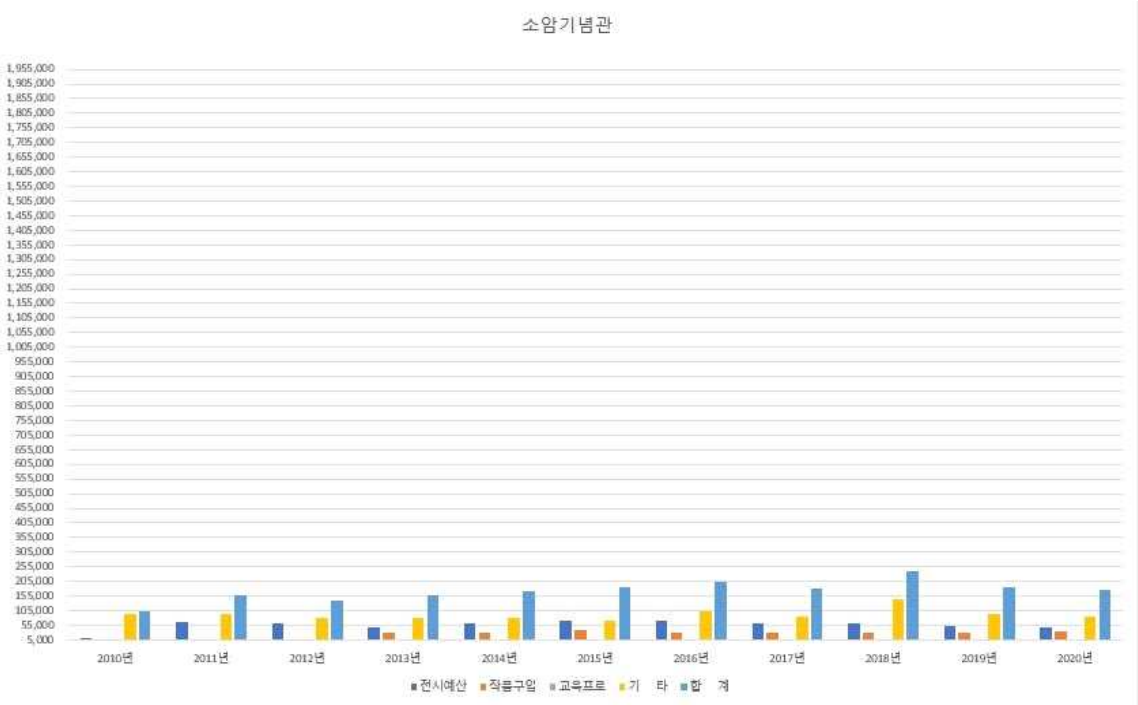
- 10년간 예산 규모 변동: 2009년 예산 10억에서 2010년~2014년간 약 2억원 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억원 대 예산 집행(주로 작품구입비로 책정).
- 예산은 주로 전시예산과 작품구입비로 구성됨.
- 전시예산은 4천~6천만원 대 유지. 교육프로그램은 부속 기관인 창작스튜디오에 편성되는 예산 집행 외에는 별도 책정 없음.
- 기타 예산에는 재료비(아트상품 개발비 약 1억원 포함), 사무관리비 등.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예산은 별도 편성

- 연구・아카이브, 지역연계 프로그램 예산 책정 필요.
- 이중섭 미술관은 연간 20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고 있고, 서귀포시 문화도시 위상에 부응한 시설확충과 인력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함.

○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추이

<그림4-3>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추이



- 10년간 예산 규모 변동: 1억원대에서 1억8천만원 대 유지.
- 2018년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2억 4천만원 편성되었음.
- 기타 예산에는 재료비(아트상품 개발비 약 500만~1천만 원 포함), 사무관리비, 시설 유지비 등.
- 전시예산이 점점 감소 추세이고, 최근 4년간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평균 4백~5백만원으로 기당미술관 대비 5배 적음.
- 다양한 실험과 기획, 작품 발굴을 위한 예산 책정을 통해 미술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필요.

2. 미술관 3관 관람객 추이 및 수익 현황

가. 기당미술관

○ 최근 5년간 관람객 추이(2015년~2019년)

<표4-5> 기당미술관 관람객 추이

(2020.6.30. 기준, 단위: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도 내	8,623	10,051	4,009	4,369	6,426	594
도 외			12,977	17,630	19,837	2,624
외국인	52	139	108	45	49	5
통합관람권	260	325	83	-	-	-
합 계	**8,937**	**10,515**	**17,177**	**22,044**	**26,312**	**2,923**
전년대비 증감율	-	증1,578	증6,662	증4,867	증4,268	-

※ 도민 입장료 감면(50%) 발권을 근거로 산출
※ 2016년까지 도민 입장료 감면(50%)을 시행하지 않아 집계에 차질.

○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수익 현황(2016년~2019년)

<표4-6> 기당미술관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단위: 천원)

기당미술관	2016	2017	2018	2019
아트상품 판매		10,563	10,122	9,684 (▽438)
관람료	-	-	-	7,317 (증561)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시사점

- 2020년 6월 30일 기준 집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이 분석.
- 2017년(개관 30주년) 관내 아트라운지를 조성하면서 시민들 중심으로 관람객 수가 년간 5천여 명 증가하면서 관람료 수익도 증가 추세.
- 아트상품 수익은 평균 1천만원 대 유지.

나. 이중섭미술관

○ 최근 5년간 관람객 추이(2015년~2019년)

<표4-7> 이중섭미술관 관람객 추이

(2020.6.30. 기준, 단위: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도 내	236,216	268,356	5,062	7,452	2,198	1,000
도 외			265,853	256,848	205,949	24,820
외국인	586	2,026	6,237	723	690	52
통합관람권	545	602	183	13	-	-
합 계	**237,347**	**270,984**	**277,335**	**265,036**	**208,837**	**25,872**
전년대비 증감율	-	증33,637	증6,351	▽12,299	▽56,199	-

※ 도민 입장료 감면(50%) 발권을 근거로 산출
※ 2016년까지 도민 입장료 감면(50%)을 시행하지 않아 집계에 차질.

○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수익 현황(2016년~2019년)

<표4-8>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단위: 천원)

이중섭미술관	2016	2017	2018	2019
아트상품 판매	236,826	239,058원	247,828원	214,622 (▽32,777)
관람료	-	-	-	150,507 (▽56,327)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시사점

- 2020년 6월 30일 기준 집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이 분석.
- 최근 5년간 꾸준히 20만 명 이상 관람객들이 방문, 도내 공립미술관 7관 중 관람객 수 순위 1위 유지하고 있음. 다만 2017년 277,335명 정점을 찍고 이후 점점 감소 추세.
- 아트상품 수익 평균 2억원대, 관람료 수익 1억5천만원 대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음. 최근 2~3년 관람객 수 감소 원인과 대비책이 필요함.

다. 소암기념관

○ 최근 5년간 관람객 추이(2015년~2019년)

<표4-9> 소암기념관 관람객 추이

(2020.6.30. 기준, 단위: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관람객 수	**11,845**	**12,122**	**10,676**	**10,501**	**13,367**	**1,362**
전년대비 증감율		증277	▽1,446	▽175	증2,866	

○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수익 현황(2016년~2019년)

<표4-10>소암기념관 아트상품 판매 및 관람료

(단위: 천원)

소암기념관	2016	2017	2018	2019
아트상품 판매	2,478	5,353	3,817	4,699(852▲)
관람료	※ 소암기념관은 무료입장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시사점

- 2020년 6월 30일 기준 집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이 분석.
- 최근 5년간 방문객이 1만 명대를 유지. 다만, 2017년 기준 기당·이중섭 2관 관람객 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하지만 소암은 오히려 감소했음. 반면에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866명 소폭 증가함.
- 향후 증감 추이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방문객 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트상품 수익은 평균 4백만원 대 유지.

제3절 각 미술관 현황 분석

1. 기당미술관

<그림4-4> 기당미술관 전경(2020년 9월 촬영)

기 당 미술관

point

위치: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재일동포 사업가 기당(奇堂) 강구범 선생이 고향 서귀포를 위하여 건립 후 서귀포시에 기증하여 1987년 7월 1일 개관.

① 민간 기부로 설립된 전국 최초 시립미술관으로 서귀포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랜드마크임.

② 미술관 건물은 제주전통농가의 '눌'을 형상화한 나선형의 지붕과 동선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 건축가 김홍식 설계로 지어졌으며 건축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남.

③ 제주 출신 폭풍의 화가 변시지(1926-2013)선생의 작품 30여점을 상설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그 상징성이 높음.

④ 그 외에도 장리석, 홍종명, 이대원 등 우리나라 대표작가들과 제주도 현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음.

⑤ 삼매봉 기슭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며, 삼매봉도서관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이 인접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음.

⑥ 관내 높은 층고와 노출 콘크리트 바닥재의 건축물로 대형 설치작품이나 프로젝트형의 현대미술 전시가 가능.

○ 조직인력 현황 분석

<표4-11> 기당미술관 조직인력 현황 분석

(2020년 11월 30일 기준)

기당미술관			
구 분	유·무	**인원(명)**	**비 고**
명예관장	○	1	
관장	-	-	
행정 팀장	○	3관 총괄	공립미술관 3관 총괄 팀장(행정6급 1명)
학예연구사	○	**1**	○기당미술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당미술관 전시기획 및 전시실 대관업무 ○기당미술관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매표 및 로고상품 제작 판매 총괄 ○기당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창작공간(덕판배) 프로그램 운영·관리
일반직공무원	○	**2**	○기당미술관 운영관리 ○매표·아트상품 판매 등 운영관리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일일보고, 관람객설문 등 자료관리 ○아트상품 출납·세외수입 관리 등 행정지원 ○공공근로, 환경정비 인력 운영관리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기당미술관

○ 시설 현황

<표4-12> 기당미술관 시설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기당미술관 (지상1층, 지하1층) 개관일 1987. 7. 1 미술관등록 1997. 6. 4	부지면적		11,279㎡	아트샵 (문화상품점)	8㎡
	건물면적		964.26㎡	다목적 룸(아트라운지)	132.23㎡
	연면적		1,230.72㎡	관내 Wifi Zone	있음 (제주Wifi)
	전시실	상설전시실	(변시지) 204.91㎡(강용범) 26.25㎡	장애인편의시설 (Barrier-free)	경사진입로, 장애인화장실
		기획전시실	370.13㎡ (2층으로 연결되는 둥근 벽면, 높은 층고의 중앙홀)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있음
	수장고		107.8㎡	물품보관소(Locker)	있음
	교육시설 (세미나, 강당)		지하 46㎡	비품실	9㎡
	자료실(연구실)		없음	주차장(대)	24대 (장애인 1대 포함)
	사무실		30㎡	기타 관련 시설물	야외정원 조각작품 공간 +

※미술관 증여공증(기탁자 :기당 강구범, 1986 .10 .14)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기당미술관

○ 소장품 현황

<표4-13> 기당미술관 소장품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점)

합계	서양화	한국화	드로잉/판화	사진	설치/조각	공예	서예
680	302	151	30	1	30	2	164

※소장품 이외 기탁작품 : 39점 보관 중.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표4-14> 기당미술관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기획전/특별전	컨셉
2015년	○ 기획초대전 <차규선 - 만화방창> 2015.06.11 ~ 2015.07.20 ○ 기획초대전 <제주산수 – 그리다> 2015.10.07 ~ 2015.11.13 ○ 기획초대전 <이완된 풍경> 2015.12.03 ~ 2016.01.31	입주작가, 제주풍경
2016년	○ 소장품전 <촉각적 회화> 2016.02.03 ~ 2016.03.27 ○ 기획초대전 <김성호 - 섬 불빛 바다, 그리운 제주> 2016.04.27 ~ 2016.06.10 ○ 소장품전 <그림 속 여름 : 쿨> 2016.06.11 ~ 2016.07.29. ○ 기획초대전 <김상연 - 기억의 흔적> 2016.08.03 ~ 2016.09.28. ○ 국제협력전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 2016.10.12 ~ 2016.11.30. ○ 소장품전 <Wind Wish : 제주에 부는 바람, 마음에 부는 바람> 2016.12.20 ~ 2017.02.28	유명작가 초대전, 소장품전
2017년	○ 소장품전 <뮤즈에서 실존으로> 2017.03.14 ~ 2017.04.20 ○ 특별기획전 <미술관 안 동물원> 2017.04.28 ~ 2017.06.20 ○ 개관30주년기념 아카이브전 <원조30년 : 최초의 시립미술관 찾기> 2017.06.28 ~ 2017.10.29 ○ 소장품전 <연필과 지우개: 상처를 배웅하며> 2017.11.16 ~ 2018.01.16	개관 30주년, 어린이
2018년	○ 소장품전 <꽃 – 찰나의 아름다움> 2018.01.19 ~ 2018.03.27 ○ 어린이환경미술전 <반짝반짝 고물상> 2018.04.01 ~ 2018.07.15 ○ 소장품전 <한여름의 천문학> 2018.07.18 ~ 2018.09.05 ○ 기획초대전 <빛과 어둠 : 현현(顯現)과 그림자> 2018.10.02 ~ 2018.12.12. ○ 기획초대전 <고영우 : 너의 어두움> 2018.12.18 ~ 2019.02.20	지역 원로작가, 어린이와 가족
2019년	○ 기증소장품전 <향연 - 기당을 만들어온 사람들> 2019.02.27 ~ 2019.04.24 ○ 생태미술기획전 <바다가 보이는 기당정원> 2019.05.04 ~ 2019.07.28 ○ 서귀포시-사천미술학원 국제협력전 <Flying Of New Media> 2019.08.06 ~ 2019.08.30 ○ 기획초대전 <에꼴 드 제주 - 세 개의 서정>	생태와 자연, 기증과 소장품

년도별	기획전/특별전	컨셉
	2019.09.20 ~ 2019.11.14. ○ 신소장품전 <DECADE : 지금까지, 그리고 모색> 2019.11.29 ~ 2020.02.23	
2020년	○ 기획초대전 <수상하고 이상한 기당 원더랜드> (온라인 전시병행) 2020.06.18 ~ 2020.08.13 ○ 소장품전 <너의 녹턴, 나의 세레나데> 2020.08.20 ~ 2020.10.02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서귀포에 바람: 생활의 바람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2020.11.17 ~ 2021.02.28.(온라인 전시병행)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 실시 (1차: 2020.02.25.~06.17 | 2차: 2020.09.03-10.11)	국내 젊은 작가들, 서귀포시 공립 미술관 협업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연차별 운영 프로그램

<표4-15> 기당미술관 연차별 운영 프로그램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프로그램		
	미술관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작가초청 워크샵 등)	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어린이 참여)	답사 프로그램 (지역연계, 작가유적지)
2015년	-	○ <제주산수 – 그리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2015.10	-
2016년	-	-	-
2017년	○ 기당미술관 개관30주년 학술세미나 2017. 12	○ 제주도립미술관 연계 어린이미술학교 2017. 7~8월	-
2018년	○ 성인교육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 2018. 9~11월	○ 어린이미술학교 <어린이 상상우주 공작소> 2018. 7~8월	-
2019년	○ 성인교육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수채화 살롱> 2019. 3~6월 ○ 성인교육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 2019. 9~11월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기증 세미나 2019. 3월	○ 어린이미술학교 <꿈꾸는 장난감 제작소> 2019. 7~8월	-
2020년	○ 성인교육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 2020. 3~10월	-	-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국내외 교류 현황

<표4-16> 기당미술관 국내외 교류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교류 세부사항	비고
2015년	-	
2016년	○ 국제협력전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 2016. 10. 12 ~ 2016. 11. 30(주한일본대사관)	
2017년	○ 제주도립미술관 <4·3미술 아카이브 : 기억의 투쟁 30년> 작품대여(김영훈 작품) ○ 기당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원조30년 : 최초의 시립미술관 찾기> 작품대여(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 제3회 제주국제아트페어 <공존> 작품대여(홍성석 작품)	
2018년	○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중개소 시:작 강좌프로그램 2018. 9월 ~ 11월 ○ 기당미술관 여름테마전 <한여름의 천문학> 작품대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 기당미술관 기획초대전 <고영우 : 너의 어두움> 작품대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성당 등)	
2019년	○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중개소 시:작 강좌프로그램 2019. 3월 ~ 11월 ○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중개소 콘서특강 <스승을 만나다> 2019. 6. 15 ○ 서귀포시-사천미술학원 국제협력전 <Flying Of New Media> 2019. 8. 6 ~ 2019. 8. 30. (중국사천미술학원 신매체학과) ○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중개소 성과발표회 <발광> 2019. 11. 19 ~ 11. 23 (제주문화중개소)	
2020년	○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 <산, 산, 산> 작품대여(김택화 작품 외) ○ 가나아트센터 기획초대전 <변시지 : 시대의 빛과 바람> 작품대여(변시지 작품 2점)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 실시 (1차: 2020.02.25.~06.17 | 2차: 2020.09.03-10.11)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시설물 대관 규정

<표4-17> 기당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2020년 11월 30일 기준)

대관시설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심사여부	비고
기획전시실 (370.13㎡)	1주(6일), 1일 8시간	있음 50,000원/1일 기타비용 별도	심사 있음 (대관심사)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기당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표4-18> 기당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 분	기당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비고
명승·명소 전망(뷰포인트)	삼매봉, 외돌개, 황우지해안, 천지연폭포, 제주천지연담 팔수자생지, 하논분화구	약1km반경 내 (도보 가능)
미술관·박물관· 전시관	서귀포예술의 전당, 세계조가비박물관, 석부작박물관	〃
문화재(사적, 향토유형유산)	하논 봉림사(향토유형유산)	〃
공원·테마파크	삼매봉공원, 걸매생태공원, 서귀포칠십리시공원	〃
문화시설 (공연장 등)	칠십리야외공연장, 서귀포예술의 전당	〃
문화상품가게 예술/재래시장	토이마켓, 아랑조을거리, 천지연유원지	〃
추천 견학· 체험·캠핑	서귀포항, 서귀포잠수함, 새연교(새섬공원)	〃
관광/마을정보 커뮤니티시설 및 관공서	삼매봉도서관, 남성마을회관, 서귀포평생학습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홍동·천지동주민센터, 서귀서초등학교	〃

자료 : 자체 조사

2. 이중섭미술관

<그림4-5> 이중섭미술관 전경(2020년 9월 촬영)

point

위치: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1995년 문화관광체육부 '95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국민화가 이중섭(1916-1956)이 살았던 서귀포 거주지에 기념 표석 건립을 계기로 1997년 이중섭거주지 복원(서귀포시). 2002년 이중섭미술관 개관. 2008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준공하였음.

① 한국전쟁기 1951년 대향 이중섭은 가족과 함께 서귀포에 피난하여 1년 남짓 보냄. 서귀포시는 이중섭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이중섭미술관을 건립함.

② 국민화가 이중섭은 서귀포 체류 중 아름다운 풍광을 소재로 <서귀포의 환상>, <섶섬이 보이는 풍경> 등을 명작을 남김.

③ 미술관 소장품은 서지자료 포함 총 286점이며, 그 중 이중섭 작품은 유화, 은지화, 엽서화 등 47점, 그 외 이중섭 서지 자료 및 유품인 팔레트를 소장하고 있음.

④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고, 도내 공립미술관 7관 중에서 관람객 수 순위 1위를 기록함. 관광지 서귀포시 중심가에 위치한 점도 이점으로 작용함.

⑤ 이중섭미술관은 국내외 신진작가 지원을 위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중에 있으며, 2009년~현재까지 80명의 작가를 배출, 해를 거듭하며 레지던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음.

⑥ 주변에 이중섭거리와 더불어 (옛)서귀포관광극장, 올레시장, 작가의 산책길 등 역사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조직인력 현황 분석

<표4-19> 이중섭미술관 조직인력 현황 분석

(2020년 11월 30일 기준)

이중섭미술관			
구 분	유·무	**인원(명)**	**비 고**
명예관장	○	1	
관장	-	-	
행정 팀장	○	3관 총괄	공립미술관 3관 총괄 팀장(행정6급 1명)
학예연구사	○	**2**	○이중섭미술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022년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 준비 ○이중섭미술관 운영관리 ○이중섭미술관 전시기획(상반기) ○수장고 및 소장작품 수집/관리/운영 ○매표 및 로고상품 제작 판매 총괄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이중섭세미나 기획 및 운영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작가관리, 프로그램 운영)
일반직공무원	○	**6**	○이중섭미술관 운영관리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매표·아트상품 판매 등 운영관리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일일보고, 관람객설문 등 자료관리 ○아트상품 출납·세외수입 관리 등 행정지원 ○공공근로, 환경정비 인력 운영관리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이중섭미술관

○ 시설 현황

<표4-20> 이중섭미술관 시설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이중섭미술관 (지상2층) 개관일 2002. 11. 28 미술관등록 2004. 9. 15	부지면적		5,700㎡	아트샵 (문화상품점)	53㎡
	건물면적		306.72㎡	다목적 룸 (라운지, 편의시설)	-
	연면적		589.46㎡	관내 Wifi Zone	제주wifi
	전시실	상설전시실 (1층)	121㎡	장애인편의시설 (Barrier-free)	없음
		기획전시실 (2층)	74㎡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없음
	수장고		41㎡	물품보관소(Locker)	있음
	사회교육시설 (세미나, 강당)		없음	비품실	-
	자료실(연구실)		-	주차장(대)	39대 (장애인 3대 포함)
	사무실		36㎡	주변 환경 또는 시설물	창작스튜디오 이중섭거주지 이중섭공원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이중섭미술관

○ 소장품 현황

<표4-21>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총괄

(2020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점)

합계	서양화	한국화	판화	사진	설치	공예	미디어 아트	기타
286	168	44	25	6	5	2	1	35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타(35)는 이중섭 자료에 해당함.

※ 이중섭 원화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점)

합계	은지화	엽서화	유화	수채화	드로잉	편지화
47	25	7	9	1	3	2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이중섭 자료 소장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점)

연도	수량(점)	구성(점)	비고
계	35점		**구입 21, 기증 14**
2003	12	사진1, 편지 및 편지봉투5, 서지자료 6	기증
2012	1	이중섭 애용 팔레트	기증
2014	1	시 1	기증
2018	6	서지자료 6	구입
2019	1	한글편지 1	구입
2020	14	서지자료2, 엽서4, 편지 및 편지봉투8	구입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표4-22> 이중섭미술관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기획전/특별전	컨셉
2015년	○ <결별>(2014. 12. 6. ~ 2015. 2. 1.) ○ <예술작품 기증, 아름다운 만남>(2015. 3. 4. ~ 6. 28.) ○ <그리운 제주도 풍경>(2015. 8. 18. ~ 10. 11.) ○ <아일랜드 유목민>(2015. 12. 4. ~ 2016. 1. 3.)	청년작가 발굴, 기증 확산, 이중섭 자료 발굴, 입주작가 지원
2016년	○ <2016 청춘의 계단>(2016. 1. 7. ~ 2. 28.) ○ <운명의 현해탄, 아고리와 아스파라가스의 사랑>(2016.3.8. ~ 4.30.) ○ 강요배 초대전 <시간의 창>(2016.5.3. ~ 6.30) ○ 특별전 <내가 사랑하는 이름>(2016.7.12. ~ 2017.1.29.) ※미술관 신소장품과 이중섭 유족 미공개 자료 전시	이중섭 탄생 100주년 특별기획

년도별	기획전/특별전	컨셉
2017년	○ <다방 르네상스, 이중섭의 친구들> (2017.3.14.~4.23.) ○ <내 사랑, 패밀리> (2017.5.2.~8.20.) ○ <섬, 마음의 랜드스케이프> (2017.9.1.~10.29.) ○ 이중섭 상설전시실 교체(2017.10.17.~2018.6.3.) ○ <1955년, 미도파화랑 상상>(2017.11.14.~2018.2.4.)	이중섭 재조명 및 입주작가 지원
2018년	○ 신년기획전-<또 하나의 가족, 개와 게>(2018.2.6.~3.25.) ○ <한 마음, 한 자리>(2018.3.27.~7.1.) ○ 특별전 <소, 사랑하는 모든 것>(2018.7.3.~10.7.) ○ <경계를 넘어서>(2018.3.27.~7.1.) ○ <와유강산(臥遊江山>(2018.11.13.~2019.2.10.) ○ 이중섭 상설전시실 교체(2018.10.10.~2019.6.30.)	4.3 70주년 기념, 이중섭 '소' 관련 대표작품 대여전, 입주작가 지원
2019년	○ 신년기획전-<도새기 해가 떴습니다>(2019.2.13.~4.21.) ○ 공립미술관공동기획전-예술의 두루 나눔 <나눔의 행복, 아름다운 동행>(2019.4.24.~5.24.) ○ 공립미술관공동기획전 연계 <예술 나눔>(2019.4.20.~5.2.)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2019.7.4.~9.1.) ○ <회화의 맛>(2019.9.5.~11.10.) ○ <색(色)다른 섬 풍경>(2019.11.15.~2020.2.23.)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제주 작가 지원
2020년	○ <자화상-나를 찾다>(2020.2.27.~8.31) (온라인 전시병행) ○ <그림의 온기>(2020.9.9.~.11.8.)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서귀포에 바람: 역사의 바람-제주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2020.11.17 ~ 2021.02.28.(온라인 전시병행)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 실시 (1차: 2020.02.25.~06.17 | 2차: 2020.09.03-10.1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코로나19 대비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연차별 운영프로그램

<표4-23> 이중섭미술관 연차별 운영프로그램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프로그램		
	미술관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작가초청 워크샵 등)	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어린이 참여)	답사 프로그램 (지역연계, 작가유적지)
2015년	○ <이중섭 세미나> 서귀포시·조선일보 공동주최, 서귀포문화원 주관 (2015.9.7.)	-	-
2016년	○ <이중섭 세미나> 서귀포시·조선일보 공동주최, 서귀포문화원 주관 (2016.9.6.) ○ <이중섭 학술심포지엄>(2016.12.6.)	-	-
2017년	○ <이중섭 세미나> 서귀포시·조선일보 공동주최, 서귀포문화원 주관 (2017.9.7.)	-	-
2018년	○ <이중섭 세미나> 서귀포시·조선일보 공동주최, 서귀포문화원 주관 (2018.9.6.) ○ <이중섭미술관 세미나>(2018.12.7.)	-	-

년도별	프로그램		
	미술관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작가초청 워크샵 등)	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어린이 참여)	답사 프로그램 (지역연계, 작가유적지)
2019년	○ <이중섭 세미나> 서귀포시·조선일보 공동주최, 서귀포문화원 주관 (2019.9.23.) ○ <이중섭미술관 세미나>(2019.5.30.)	-	-
2020년	○ <이중섭 세미나> 서귀포시·조선일보 공동주최, 서귀포문화원 주관 (9월7일)-비대면온라인 진행	-	-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국내외 교류 현황

<표4-24> 이중섭미술관 국내외 교류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교류 세부사항	비고
2015년	○ 이중섭미술관 특별기획전 <그리운 제주도 풍경> (개인소장가 협력으로 이중섭 원화 렌탈 전시)	
2016년	○ 조선일보·국립현대미술관·이중섭미술관 공동주최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중섭, 백년의 신화> 관련 작품 대여 (이중섭 유족 미공개 작품 및 사진 자료 포함)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2016.6.3.~10.3.) - 부산시립미술관 순회전(2016.10.20.~2.26.)	
2017년	○ 제주비엔날레 <한라 살롱> 전시 작품 대여 ○ 중랑아트센터 <이중섭과 그의 시대> 전 작품 대여	
2018년	○ 이중섭미술관 특별기획전<소, 사랑하는 모든 것> (개인소장가 협력으로 이중섭 원화 렌탈 전시) ○ 서울시립미술관 <한묵>전 관련 작품 대여 ○ 국립현대미술관 <이성자>전 관련 작품 대여 ○ 성북문화재단 <정릉시대>전 관련 작품 대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봄 그리고 봄> 관련 작품 대여	
2019년	○ 경기도미술관 전시 관련 작품 대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 실시 (1차: 2020.02.25.~06.17 | 2차: 2020.09.03-10.11)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시설물 대관 규정

<표4-25> 이중섭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2020년 11월 30일 기준)

대관시설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심사여부	비고
기획전시실 (74㎡)	1주(6일), 1일 8시간	있음 50,000원/1일 기타비용 별도	심사 있음 (대관심사)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관 대관(별도).

○ 이중섭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표4-26> 이중섭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 분	이중섭미술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비고
명승·명소 전망(뷰포인트)	천지연폭포, 문섬, 자구리해안, 소남머리, 정모시쉼터, 정방폭포, 소정방폭포	약1km반경 내 (도보 가능)
미술관·박물관·전시관	창작스튜디오(이중섭),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 왈종미술관	〃
문화재(사적, 향토유형유산)	서귀진지(도지정), 서귀본향당(향토유산), 솔동산근대유적(옛 상점 터 등)	〃
공원·테마파크	이중섭거주지, 자구리문화예술공원, 서복공원	〃
문화시설 (공연장 등)	(옛)서귀포관광극장, 칠십리야외공연장	〃
문화예술시장 /재래시장	이중섭거리 문화예술시장, 아랑조을거리, 서귀포상설시장, 매일올레시장, 정방유원지	〃
추천 견학·체험·캠핑	서귀포항, 서귀포잠수함, 새연교(새섬공원)	〃
관광/마을정보 커뮤니티시설 및 관공서	유토피아 커뮤니티센터(이중섭거리) 서귀포시청1청사, 정방동·송산동·천지동주민센터, 서귀초등학교	〃

자료 : 자체 조사

3. 소암기념관

<그림4-6> 소암기념관 전경(2020년 9월 촬영)

point

위치: 서귀포시 소암로 15

서귀포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소암 현중화(1907-1997) 선생의 유택(조범산방眺帆山房-돛단배가 바라 보이는 집)을 그대로 보존하여 선생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기 위해 2008년 개관.

① 서귀포 출신 국민서예가 소암 선생의 생전 거주지에 건립된 서예전문미술관.

② 자연과 하나 되는 소암예술을 전하고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③ 기념관은 소암 작품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외에도 소암일대기실과 창작산실을 조성하여 소암 생전의 유품과 작업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④ 기념관은 '소옹과 사람들' 연속기획전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외교류를 펼치고 있음.

⑤ 전국서예가들과 서예 후학들에게 창작열을 일깨워주는 창작산실임.

⑥ 기념관 주변은 이중섭미술관, 자구리문화예술공원, 서귀포항, 해안변 편의시설이 있어 일대는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되고 있음.

○ 조직인력 현황 분석

<표4-27> 소암기념관 조직인력 현황 분석

(2020년 11월 30일 기준)

소암기념관			
구 분	유·무	**인원(명)**	**비 고**
명예관장	○	1	
관장	-	-	
행정 팀장	○	3관 총괄	3개 공립미술관 총괄 팀장(행정6급 1명)
학예연구사	○	**1**	○미술관(3개소) 종합운영계획수립 추진 ○소암기념관 운영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소암기념관 전시기획 및 전시실 대관업무 ○소암기념관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수장고 및 소장작품 수집/관리/운영 ○매표 및 로고상품 제작 판매 총괄 ○소암기념관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일반직공무원		**2**	○매표·아트상품 판매 등 운영관리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일일보고, 관람객 설문 등 자료관리 ○시설물 및 환경정비 인부 관리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소암기념관

○ 시설 현황

<표4-28> 소암기념관 시설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소암기념관 (지하1층, 지상2층) 개관일 2008. 10. 4 미술관등록 2008. 12. 9	부지면적		1,903㎡	아트샵 (문화상품점)	10㎡
	건물면적		791.80㎡	다목적 룸 (라운지, 편의시설)	-
	연면적 (지하1층, 지상2층)		1,523㎡	관내 Wifi Zone	제주wifi
	전시실	기획전시실	123.82㎡	장애인편의시설 (Barrier-free)	없음
		상설전시실Ⅱ	175.18㎡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없음 (화장실만 있음)
		상설전시실Ⅰ	53.26㎡		
	수장고		62㎡	물품보관소(Locker)	없음
	교육시설 (세미나, 강당)		62㎡	비품실	-
	자료실	소암일대기실	66.90㎡	주차장(대)	실내8면 (장애인 1대 포함) 실외 2면
		창작산실 (유물전시실)	62.89㎡		
	사무실		50㎡	기타 관련 시설물	야외 정원 계단식 쉼터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소암기념관

○ 소장품 현황

<표4-29> 소암기념관 소장품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점)

합계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드로잉
686	10	80	594	1	1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표4-30> 소암기념관 기획전/특별전 개최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기획전/특별전	컨셉
2015년	○ 서귀소옹과 사람들3-남농 허건, 2014.12.26~2015.3.18 ○ 신소장품전, 2015.3.20~6.10 ○ 자연:계절-소장품전, 2015.6.12~7.15 ○ 금석학을 통해서 보는 제주오현의 필적, 2015.7.17~9.16 ○ 서귀포서예문인화초대작가회전, 2015.9.19~9.25 ○ 특별전 "청탄 김광추 전", 2015.10.3~11.29 ○ 제18주기 소암선생 추모전, 2015.12.3~12.20 ○ 사색:소장품전, 2015.12.23~2016.2.24	소장품전 및 특별전 2회 등
2016년	○ 사색:소장품전, 2015.12.23~2016.2.24 ○ 옛글에서 배우다, 2016.2.25~4.29 ○ 조선시대간찰: 고간 소아산보, 2016.4.30~6.29 ○ 신소장품 신선(新扇), 2016.7.1~9.21 ○ 청추(淸秋): 소장품, 2016.10.4~11.30 ○ 제19주기 소암선생 추모전, 2016.12.3~12.18 ○ 서귀소옹과 사람들4- 소전 손재형, 2016.12.23~2017.3.5	소장품전 및 특별전 2회 등
2017년	○ 서귀소옹과 사람들4- 소전 손재형, 2016.12.23~2017.3.5 ○ 봄, 새로운 시작: 소장품, 2017.3.9.~5.21 ○ 고길홍 기증사진전, 2017.5.27~7.2 ○ 영주십경, 전성호 전각전, 2017.7.6.~7.23 ○ 녹수음중: 소장품전, 2017.7.6~8.20 ○ 아산 조방원전, 2017.8.22~9.24 ○ 소암 현중화를 기리다, 2017.9.26~11.26 ○ 20주기 소암현중화선생 추모전, 2017.12.3~2018.1.14	소장품전 및 특별전 2회 등
2018년	○ 중국 기와(瓦當)를 만나다, 2018.1.18~2.25 ○ 자연을 느끼다: 소장품, 2018.2.27~4.1 ○ 제47회 제주소묵회 대관전, 2018.4.3~4.7 ○ 자연을 느끼다: 소장품, 2018.4.8~5.22 ○ 일상의 예술: 제주민화, 2018.5.24~7.18 ○ 소암기념관으로 마실오다전, 2018.7.21~9.29 ○ 개관10주년기념 20세기한국서화: 밤에 뜬 해, 2018.10.4~11.25 ○ 소암기념관 실기강좌 수강생전 배우고 익히다 學習, 2018.11.30 ~12.9 ○ 음미하다: 소장품전, 2018.12.11~'19.3.3	소장품전 및 특별전 2회 등

년도별	기획전/특별전	컨셉
2019년	○ 고 청원 변성근 기증작품, 2019.3.6~5.5 ○ 관조적 사유:소장품전, 2019.5.8~6.20 ○ 천병근: 제주, 40년만의 재회, 2019.6.21~8.11 ○ 풍류, 즐기다:소장품전, 2019.8.14~9.27 ○ 대관전 남헌 오의삼서법전, 2019.9.20~9.25 ○ 개관11주년기념서귀소옹과 사람들 5금봉 박행보, 2019.10.1~12.1 ○ 소장품전 <안부를 묻다>, 2019.12.5~'20.2.16	소장품전 및 특별전 2회 등
2020년	○ 소장품전 <안부를 묻다>, 2019.12.5~'20.2.16 ○ 소장품전 <다시 봄> '20.2.20~8.30 (온라인 전시병행) ○ 소장품전 <한시의 여운> '20.9.9~11.08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서귀포에 바람: 자연의 바람-바람이 품은 푸른 생명력> 2020.11.17~2021.2.28.(온라인 전시병행)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 실시 (1차: 2020.02.25.~06.17 | 2차: 2020.09.03-10.11)	소장품전 및 특별전 등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연차별 운영 프로그램

<표4-31> 소암기념관 연차별 운영 프로그램

(2020년 11월 30일 기준)

년도별	프로그램		
	미술관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작가초청 워크샵 등)	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어린이 참여)	답사 프로그램 (지역연계,작가유적지)
2015년	○ 작가와의 대화(고영훈, 2015.5.2.) ○ 전시연계강좌-제주 오현 (제주대 김동전, 2015.7.29.) ○ 전시연계 심포지엄 청탄의 삶과 예술에서 내일을 읽다. (2015.11.28.)	○ 상반기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드로잉) 2015.3.1.~5.30 ○ 하반기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한국화) 2015.9.1.~11.30	-
2016년	○ 전시연계강좌-조선시대간찰 (안동교, 2016.6.11.) ○ 작가와의 대화(배병우, 2016.7.16.)	○ 상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드로잉) 2016.4.1.~7.30 ○ 하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전각, 한국화) 2016.9.1.~11.30	-
2017년	○ 전시연계강좌-리듬의 아름다움과 구성미:소암과 소전 서예미학 비교(이동국, 2017.2.11.) ○ 인문학강좌-미술비평가 손철주(2017.5.20.) ○ 국제학술심포지엄(2017.10.14.)	○ 상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전각) 2017.3.1.~5.30 ○ 하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전각)2017.9.1.~11.30 ○ 전통문화강좌(한문, 다도) 2017.8.1.~8.30	-
2018년	○ 전시연계교육- 민화그리기 루씨손, 오기영(2018.6.2.~7.7) ○ 인문학 강좌-손철주, 김응학, 석한남(2018.5~8월) ○ 작가와의 대화(고영우, 2018.7.7.) ○ 전시연계강좌-20세기 한국 서화의 특질과 미래(김양동, 이동국)	○ 상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한국화, 수채화) 2018.3.1.~6.24 ○ 하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전각, 한국화) 2018.9.1.~11.30	-

년도별	프로그램		
	미술관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작가초청 워크샵 등)	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어린이 참여)	답사 프로그램 (지역연계,작가유적지)
	○ 소암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2018.10.13.)		
2019년	○ 작가와의 대화(김훈, 2019.3.16) ○ 인문학강좌-손철주,윤철규 (2019.4~7월) ○ 전시연계강좌-야외현장휘호 (서예, 문인화, 2019.10.5.)	○ 상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한국화) 2019.3.1.~5.31 ○ 하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한국화) 2019.9.1.~11.30	-
2020년	-	○ 상반기 실기교육프로그램 (서예, 한국화)2020.5.9.~8.30	-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국내외 교류 현황

<표4-32> 소암기념관 국내외 교류 현황

(2020년 11월30일 기준)

년도별	교류 세부사항	비고
2015년	○ 서귀포서예문인화초대작가회전 (작가 초대전) ○ 청탄 김광추 특별전(김광추 작품 대여)	
2016년	○ 조선시대 간철: 고간 소아산보(옥과미술관 작품 대여) ○ 서귀소옹과 사람들4- 소전 손재형(손재형 작품 전시)	<서귀소옹과 사람들>은 연속 전시
2017년	○ 고길홍 기증 사진전(사진작가 고길홍이 작업한 소암 인물 사진전) ○ 전성호 전각전 ○ 아산 조방원전(아산미술문화재단, 부국문화재단 작품 대여)	
2018년	○ 중국 기와전(충북대 소장 진한대 기와 대여전) ○ 제주 소묵회 대관전(대관전) ○ 마실오다전(기당,이중섭,왈종 작품 대여) ○ 일상의 예술: 제주민화전(민속자연사, 제주대 작품 대여전)	
2019년	○ 천병근 작품전(소암과 교류가 있었던 서양화가 천병근 작품전) ○ 서귀소옹과 사람들5-박행보 작품전(금봉 박행보와 소암 선생 한국화 및 서예교류전) ○ 남헌 오의삼 서법전(오의삼 대관전)	<서귀소옹과 사람들>은 연속 전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 실시 (1차: 2020.02.25.~06.17 | 2차: 2020.09.03-10.11)	-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시설물 대관 규정

<표4-33> 소암기념관 시설물 대관 규정

(2020년 11월 30일 기준)

대관시설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심사여부	비고
기획전시실 (123.82㎡)	1주(6일), 1일 8시간	있음 50,000원/1일 기타비용 별도	심사 있음 (대관심사)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소암기념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표4-34> 소암기념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 분	소암기념관 주변 문화·관광 정보	비고
명승·명소 전망(뷰포인트)	천지연폭포, 문섬, 자구리해안, 소남머리, 정모시쉼터, 정방폭포, 소정방폭포	약1km반경 내 (도보 가능)
미술관·박물관· 전시관	이중섭미술관 및 창작스튜디오, 서복전시관, 왈종미술관	〃
문화재(사적, 향토유형유산)	서귀진지(도지정), 서귀본향당(향토유산), , 솔동산근대유적(옛 상점 터 등)	〃
공원·테마파크	자구리문화예술공원, 서복공원	〃
문화시설 (공연장 등)	(옛)서귀포관광극장, 칠십리야외공연장	〃
문화상품가게 예술/재래시장	이중섭거리 문화예술시장, 아랑조을거리, 서귀포상설시장, 매일올레시장, 정방유원지	〃
추천 견학· 체험·캠핑	서귀포항, 서귀포잠수함, 새연교(새섬공원)	〃
관광/마을정보 커뮤니티시설 및 관공서	유토피아 커뮤니티센터(이중섭거리) 송산동·정방동·중앙동주민센터, 서귀초등학교	〃

자료 : 자체 조사

제4절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창작공간 덕판배

1.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그림4-7> 이중섭거리 초입 창작스튜디오 전경

가. 개요

○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탄생한 작가들의 창작산실이자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임.

○ 2007년 11월 제주도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후,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하여 2008년 12월 준공.

○ 2009년 개관과 동시에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작가를 대상으로 입주 작가를 모집·선정해 오고 있음. 그동안 이곳을 거쳐 간 많은 입주 작가들은 회화, 사진, 공예, 디자인,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

○ 1층은 공예공방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2층 전시실은 입주작가 전시회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관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방문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로 대표되는 본 건물은 서귀포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플랫폼이자 작가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있음.

나. 일반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이중섭로 33(서귀동 514번지)

○ 조　　직 : 이중섭미술관 공무직(1인) 담당

○ 시설규모 : 건축면적 424.39㎡/ 연면적 1390.88㎡(지상 5층)

○ 운영예산(2020년) : 총 60,076천원(그 중 교육비: 3,200천원)

다. 시설 현황

<표4-35> 창작스튜디오 시설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층 수	시설용도	현 황
1층	공예공방 (224.84㎡) (주요시설 :전기 가마 1대, 도예 실기실)	도예 아카데미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실기 작품 소성) 2019년 활동: 82회(상반기 43회/하반기 39회) 2009년(개관)~2020년 5월까지 도예 아카데미 수강생: 698명
2층	전시실 (165.35㎡)	입주작가 전시회, 작품 기증전, 도예 아카데미 수강생 결과보고전, 도내 전업 작가, 동아리, 단체 등 시민들에게 무료 대관 2009년~2020년 초반까지 총 330회 대여. 단체전 128회, 개인전 202회 개최
	열린화장실	전시관 이용객 및 주변 이중섭거리 방문객들을 위한 시민화장실
3층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시 시민문화복합센터 완공까지 한시적 사용 중
4층	작업실(3실), 공동부엌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입주작가 레지던스). 2009년 이래 국내외 작가들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작가를 선정하여 창작공간을 제공. 2020년 11월 현재까지 총 80명 작가들이 입주하여 이중섭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5층	작업실(1실), 세미나실, 사무실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라. 시설물 대관 현황

<표4-36> 창작스튜디오 시설물 대관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대관시설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심사여부	비고
전시실 (165.35㎡)	1주(6일), 1일 8시간	무료	심사 있음 (대관심사)	·2020년 대관: 23회, 관람인원 6,518명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운영 중단취소 건 15건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마. 창작스튜디오 역대 입주작가 현황

○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2009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0년 11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동안 총 80명의 작가들이 입주했음.

○ 지역별로는 도외작가 51명, 도내작가 28명, 국외 작가 1명에 이르고 있으며 작가의 재능을 기부하여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음.

<표4-37> 창작스튜디오 역대 입주작가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연 도	기수	구 분		인원
		장기(1년)	단기(6개월)	
2009년	1기	6	-	6
2010년	2기	5	3	8
2011년	3기	5	1	6
2012년	4기	6	2	8
2013년	5기	6	2	8
2014년	6기	6	2	8
2015년	7기	6	2	8
2017년	8기	7	-	7
2018년	9기	7	-	7
2019년	10기	-	10	10
2020	11기	4	-	4
계		**57**	**23**	**80**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바. 역대 결과 보고전 현황

<표4-38> 창작스튜디오 역대 결과 보고전

(2020년 12월20일 기준)

구분	전 시 명	전 시 기 간
1기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展	2010. 1. 29~2. 7
2기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展	2011. 1. 7~1. 21
3기	<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展	2012. 1. 6~1. 18
4기	<생각의 지도, 마음의 저편> 展	2012. 9. 7~10. 31
5기	<바람의 영토, 섬의 다이어리> 展	2013. 7. 19~10. 31
6기	<바람 섬의 나날>展	2014. 10. 1~11. 30
7기	<아일랜드 유목민> 展	2015. 12. 4~2016. 1. 3
8기	<섬, 마음의 랜드스케이프> 展	2017. 9. 1~10. 29
9기	<경기를 넘어서> 展	2018. 10. 10~11. 11
10기	<사이(間) : 공간·작가 ·작품사이>	2019. 6. 1~6. 13
	<五感濟州>展	2019. 11. 30~12. 12
11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섬> 展	2020. 12. 5~12. 17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사. 지역연계프로그램 현황(2017년~2019년)

○ 2017년 지역연계프로그램 현황 ※2017년부터 지역연계프로그램 시작

<표4-39> 창작스튜디오 2017년 지역연계프로그램

(2020년 11월30일 기준)

작 가	프로그램 제목	기간 / 시간	회차	시간
한○○	인물 드로잉	4/8(토), 4/22(토)	2	14:00~16:00
김○○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법	5/13(토), 5/27(토)	2	14:00~16:00
고○○	먹그림 그리기(수묵화)	6/10 (토)	1	14:00~16:00
김○○	실크스크린	7/8(토)	1	14:00~16:00
권○○	켈리그라피	8/12(토), 8/26(토)	2	14:00~16:00
김○○	자연관찰하기	9/9(토)	1	14:00~16:00
박○○	민화그리기	10/14(토)	1	14:00~16:00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2018년 지역연계프로그램 현황

<표4-40> 창작스튜디오 2018년 지역연계프로그램

(2020년 11월30일 기준)

작 가	프로그램 제목	기간 / 시간	회차	시간
최○○	표현 연구 (드로잉을 중심으로)	5/12, 19(토)	2	14:00~16:00
오○○	민화-채색화	6/2, 9, 30(토)	3	14:00~16:00
박○○	우리 마을 바다를 품은 여인들의 손 그림 프로젝트	7/7, 14, 21(토)	3	16:00~18:00
박○○	작가 오픈스튜디오 운영	9/7(금)	1	14:00~15:00
김○○	나도 화가! 프로젝트	9/15(토)	1	14:00~16:00
박○○	작가 오픈스튜디오 운영	10/24(수)	1	15:00~16:00
김○○	스토리 페인팅 -이야기가 있는 그림	10/6, 13, 20, 27 (토)	4	14:00~15:30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2019년 지역연계프로그램 현황

<표4-41> 창작스튜디오 2019년 지역연계프로그램

(2020년 11월30일 기준)

작 가	제 목	일 시	회차	시 간	인원(명)	대 상 자
성○○	별별 우리별 만들기	3/16, 23(토)	2	10:00~12:00	10	초등학생 (1~3학년)과 학부모
최○○	나를 알아가는 시간 -인터뷰를 통한 나만의 드라마 제작	3/30, 4/6(토)	2	10:00~12:00	16	성인여성
김○○	반짝 반짝 빛날 나 -미디어를 통해알아보기	4/13, 20(토)	2	10:00~12:00	10	초등학생 (4~6학년)
권○○	나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회화 수업	4/27, 5/4(토)	2	14:00~16:00	12	초등학생
문○○	미술의 다양한 기법(스텐실)체험	5/11, 18(토)	2	14:00~16:00	10	초등학생
최○○	'자신만의 캘리그라피 책갈피, 부채 만들기'	8/31, 9/7(토)	2	10:00~12:00	10	초등학생
오○○	'제주와 나 -제주 섬의 이미지를 통해 바라본 나'	9/21, 9/28(토)	2	10:00~12:00	10	초등학생 (5~6학년)

작 가	제 목	일 시	회차	시 간	인원(명)	대 상 자
곽○○	'쉽게 만나보는 우리의 미술, 민화'	10/5, 10/12(토)	2	14:00~16:00	10	초등학생 (학부모 동반 가능)
김○○	'내가 그리는 제주의 지도'	10/19, 26(토)	2	10:00~12:00	10	초등학생 (학부모 동반 가능)
김○○	'나만의 제주 풍경 그리기'	11/2, 9(토)	2	14:00~16:00	10	초등학생 (4~6학년)

자료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아. 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개선점)

○ (본래의 취지) 창작스튜디오는 입주 작가들에게 단지 안정된 체류를 위해 물리적 서비스 공간 제공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창작역량을 펼칠 수 있는 예술 플랫폼이어야 함.

○ (본래의 취지) 현재 창작스튜디오 3층에는 서귀포문화원이 입주(2020년 4월)하면서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입주 작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갖게 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창작스튜디오로서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남.

○ (본래의 취지) 향후 문화원 이전 시 반드시 본래 목적대로 입주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창작스튜디오는 무엇보다도 작가에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발판인 한편,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예술창작의 거점이어야 함.

○ (조직과 예산) 창작스튜디오 내 전담인력(프로그램 기획, 교육, 비평, 지역 홍보 등)이 필요함. 이중섭미술관 부속시설로서 창작스튜디오가 아니라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지원 국제적인 창작스튜디오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시설이용, 작가·주민연계 프로그램, 예산 확보 차원에서 독자성을 확보해야 함.

○ (지역사회 연계) 입주 작가들에게 부과한 지역연계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자가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여서 정작 작가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 연장선에서 서귀포시를 예술무대로 확장시키는 기회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

○ (운영방침 면) 2009년부터 입주 작가 선발 이래 2018년까지 장기 체류(1년)

작가가 5~7명 유지되고, 단기 포함하여 년간 6~8명 입주 작가를 선발해 왔지만, 2019년에는 단기 체류(6개월) 작가만 상·하반기 각5명, 2020년에는 장기체류이지만 총 4명, 2021년도 모집 요강에도 4명에 한정하고 있어 선발 인원이 매해 변동되고 있음.

○ (운영방침 면) 입주작가 모집 분야에서 지금까지 회화 작가 위주로 선발된 경향이 있는데, 향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입주 작가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미술관도시 활성화) 서귀포시가 표방하는 '미술관도시' 의 출발점이 국내·외 유망작가들이 입주한 창작스튜디오가 될 수 있도록 입주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끌어내고, 자발적 재능기부도 유도하고, 미술관 운영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사례: 우수 작가 발굴 프로모션을 통한 작가 육성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주민들이 예술 거점으로서 창작스튜디오를 매개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얻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참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난지한강 공원 내에 유휴시설을 개조하여 2006년 개관. 국내의 역량 있는 미술가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난지아트쇼> <비평워크숍> 등 전시 및 연구능력을 계발하는 프로그램,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 활용과 다원화 된 교류를 위해 국제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국내외 미술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 등 운영. 2009년까지 국내 젊은 작가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서 창작 스튜디오로서의 기반을 다졌고, 2010년을 기점으로 전시, 연구 및 학술, 교류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2012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인 레지던시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음.

프로그램 기획실(레시던시 프로그램 총괄: 큐레이터 1, 국내외입주작가 지원1)
청사 관리 사무실(시설물 유지보수 총괄)로 구성됨.

2. 창작공간 덕판배

<그림4-8> 서귀포칠십리시공원 내 '창작공간 덕판배' 전경

가. 개요

○ 창작공간 덕판배는 탐라선(耽羅船)의 마지막 형태인 덕판배를 모티브로 현대미술의 제작기법을 가미하여 2012년 탐라대전 당시 제작된 조형물(제작품명: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_탐라선)임. 축제가 끝난 뒤, 서귀포칠십리시공원으로 이설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2013년)하기 시작했음.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서귀포시가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창작·전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일반현황

○ 명　　칭 : 창작공간 덕판배

○ 위　　치 : 서귀포시 남성중로 120(칠십리시공원 내)

○ 시설규모 : 총 2동(1동 규격: 길이 51m×폭 3m×상고6m·하고 3m)

※ 조형물의 길이 51m는 탐라대전 속 '탐라문화제'의 개최년수를 의미

창작공간 1동 : 4개소(각 30㎡/ 가로10m×세로3m)
전시·교육공간 1동(120㎡/가로40m×폭3m): 전시공간(70㎡)
교육공간(30㎡)
창고(20㎡)

<그림4-9> '창작공간 덕판배' 공간 구성 현황

○ 주요기능

· 외부기능: 배(船) 형상의 조형물로 칠십리시공원 랜드마크 역할

· 내부기능: 창작(레지던시), 전시, 문화교육 등 다목적 복합공간

나. 창작공간 덕판배 위탁운영 현황

○ 위탁계획 수립 : 2015. 1. 26

○ 위탁현황

· 1차 위탁 : 2015. 3. ~ 2016. 3. 31(도예 1명)

· 2차 위탁 : 2017. 6. ~ 2018. 6. 30(도예 1명)

· 3차 위탁 : 2018. 7. ~ 2020. 12. 31(일러스트, 사진, 회화, 도예 등 4명)

다. 위탁운영 사무(의무사항)

· 분기별 1회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발표 전시 개최

·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창작공간 덕판배 관리(방문객 안내 등)

· 운영기간 내 문화예술(동아리) 창작작품 연 1회 이상 전시

· 덕판배 운영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

·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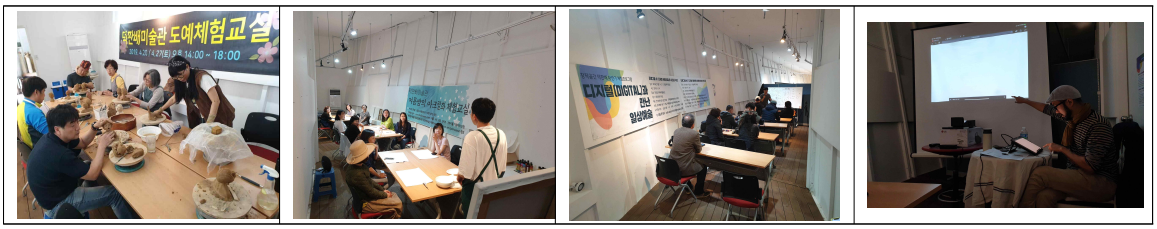
  -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함

- 방문객 입장료 무료 원칙
- 덕판배 및 주변 대지 청결 유지・관리

※ 공공요금(전기, 수도요금), 화재보험료, 프로그램 행사 홍보 등 행정지원

라. 활용현황

・ 2018년부터 작가 당 4회 이상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도예교실, 아크릴화 교실, 디지털카메라 교실,
- 일러스트 교실 진행
- 2019-2020 결과보고전(도예)



<그림4-10> 덕판배 교실 운영 현황

마. 문제점 및 전망

○ 전담인력의 부재
・ 시설 상주인력의 부재로 전체적인 시설관리의 어려움 발생.
・ 출입 열쇠를 다수가 관리하고 있고, CCTV 등 보안장치가 없음.
・ 귀중품 분실 우려 및 고가의 작품을 상설로 전시하기 어려운 환경임.

○ 시설 노후 및 전시환경 미흡
・ 2012년 제작된 조형물로 제작 당시 건물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제작된 것임. 이후 가(假) 건물을 이어서 만들어진 형태로, 매년 이음새 누수로 인한 방수, 도색, 부분적인 수리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화재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온도 및 습기, 보안의 취약 등 전시장으로서 환경이 매우 미흡함.
・ 전반적인 시설노후화와 이용도의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상징성(랜드마크 역할) 제고
・ 2012년 탐라대전 후 덕판배(탐라선) 조형물을 칠십리시공원으로 이설하여 문화적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했으나 원본성, 재질, 기능, 예술적 조형성, 용도면에서 ‘덕판배(탐라선)’의 상징을 살리고 있지 못함.
・도시공원 주변 환경이 변하고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물 실태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덕판배를 철거하여 야외공원으로서의 생태환경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5장 국내·외 미술관 사례조사 및 분석

제1절 국내 타시도 미술관 사례 분석/127
제2절 해외미술관 사례/145

제1절 국내 타시도 미술관 사례 분석

1. 서울시립미술관

가. 미술관 소개

○ 서울의 미술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하여 경희궁 공원 부지에 6개의 전시실과 야외조각을 갖추고 1988년 8월 19일 개관하였음.

○ 2002년 5월 17일 옛 대법원 자리인 지금의 자리로 서울시립미술관을 이전·개관하였음. 르네상스식 건물인 본관은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인 평리원(한성재판소), 일제강점기 경성재판소,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임.

○ 옛 건물의 아치형현관(2006년 3월 등록문화재 제237호로 지정)으로 일부만 남기고 새로 탄생한 미술관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신축하여 정동지역 문화의 거리 형성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 2003년 8월 1일에는 1994년 서울정도 600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기념관을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으로 개관하였음(현재, 이곳은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임).

○ 2004년 9월 2일에는 또 하나의 분관인 남서울분관이 구벨기에 영사관 건물에 자리잡게 되었다. 젊은 세대들의 실험적 작품 및 새로운 모색을 위한 열린 공간임.

○ 2006년 개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의 침출수처리장의 관리동을 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 겸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였음.

○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 본관 이외에도 남서울분관, 북서울미술관,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벙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미술관 운영 비전과 전략 :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그림5-1>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비전과 전략

–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비전과 전략 –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SeMA·세마)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기억을 짓고, 뜻깊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일구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서울 전역에 펼쳐진 각 분관들이 시대와 미술의 변화에 조응해 교차하고, 서로를 채우고, 매일 성장하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입니다.

도시—문화 도시 서울을 세계와 연결하는 미술관
서울은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거대도시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을 매개로 활력과 매혹이 가득한 서울과 세계 도시를 연결합니다.

지역—미술관도시 서울을 보듬는 모선(母船) 미술관
서울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깃든 도시입니다. 서울 곳곳에 분관을 갖춘 서울시립미술관은 저마다의 지역별 특성과 기능, 역사적 배경에 맞춰 모두가 친근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유기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당대—복합적인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미술관
익숙함과 낯섦이 함께 존재하는 오늘의 풍경은 우리에게 다층적인 시간과 공간, 여러 사유와 이념에 반응하기를 요청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 안팎을 넘나드는 문화예술의 풍부한 상상력을 우리 생활 속에 불어 넣습니다.

공공—다양하고 이질적인 다중과 만나는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의 길을 열어 미술관과 관람객을 잇고, 관람객과 관람객을 잇습니다. 미술관을 자주 찾는 관람객뿐 아니라, 잠재하는 관람객을 예측하고, 연구하여, 미술관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행정—큐레이팅의 선도성과 시립미술관의 공공성이 연동하는 미술관
큐레이팅의 선도성과 시립미술관의 공공성이 연동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합니다.

나. 시설 현황

<그림5-2> 서울시립미술관 시설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구 분		소 재 지	건물 규모		주요시설
			층수	연면적	
1) 서소문본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지상3층 /지하2층	13,434㎡	• 전시실 8 (상설전시실 2) • 기타 : 자료실, 세마홀, 강의실 카페, 아트숍 등
2) 북서울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지상3층 /지하3층	17,113㎡	• 전시실 5 (어린이갤러리 1 • 기타 : 아트도서실, 다목적홀, 카페 레스토랑 등
3) 남서울미술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지상3층 /지하1층	1,570㎡	• 전시실 11 • 기타 : 강의실
4)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지상2층 /지하1층	2,122㎡	• 창작스튜디오 2 • 전시실 2 • 기타 : 야외작업장
5) SeMA 창고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지상1층	467㎡	• 전시실 5 • 기타 : 사무실, 창
6) 백남준기념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12-1	지상1층	88㎡	• 전시실 2 • 기타 : 주민공동 이용시설
7) SeMA 벙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	지하1층	871㎡	• 전시실 2 • 기타 : 사무실

다. 운영 현황

(1) 기관 성격:

○ 책임운영기관으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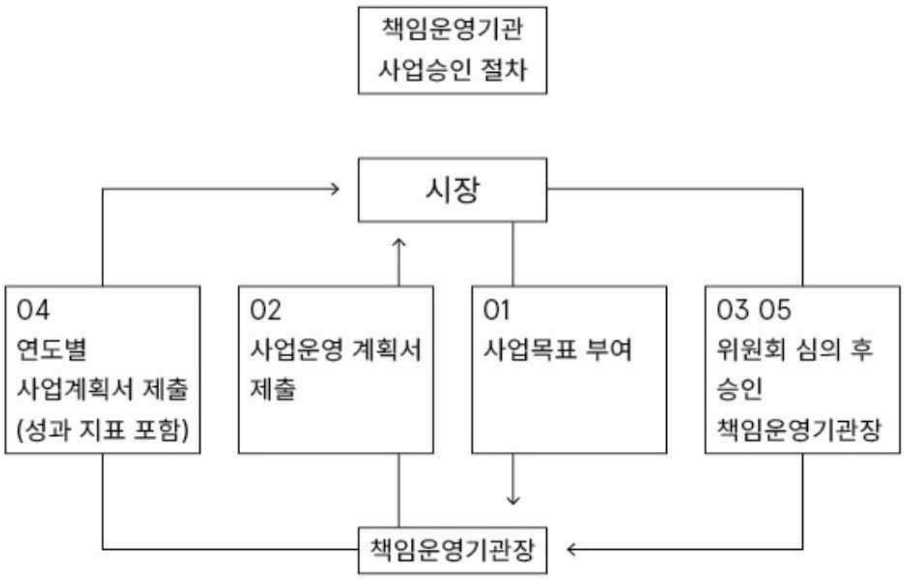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11.13., 조례 제4711호)

※ 지정기준-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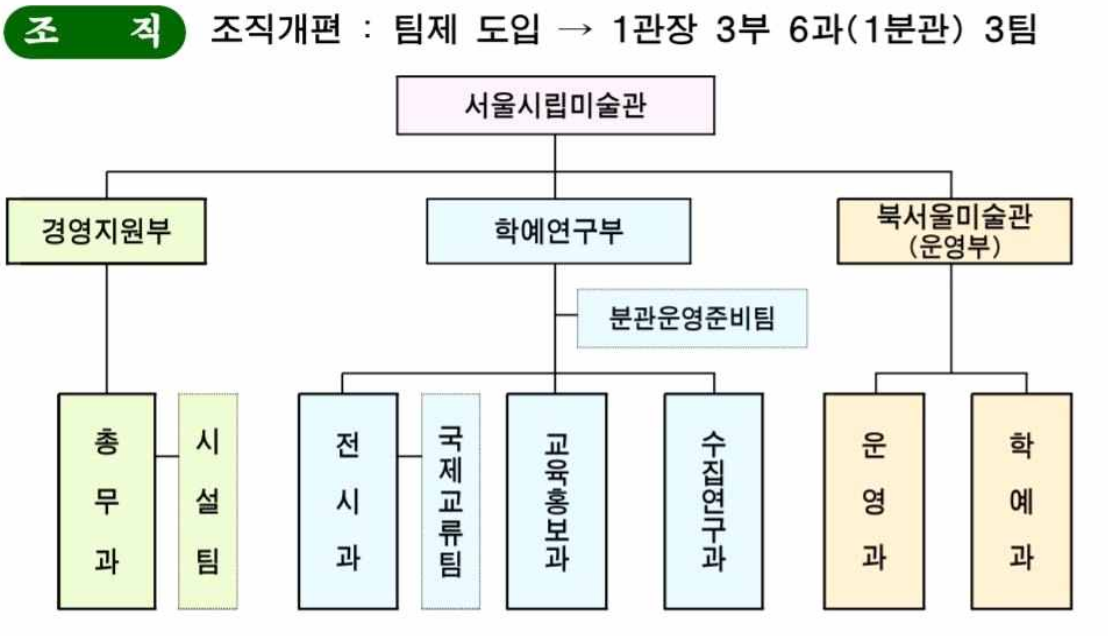
○ 책임운영기관 체계

<표5-1> 서울시립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체계



(2) 조직 현황

<그림5-3> 서울시립미술관 조직도



(3) 서울시립미술관 인력 현황

<표5-2> 서울시립미술관 인력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단위: 명)

○ **공무원 : 84명/76명**(정원/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관리운영직 포함)			임기제 일반직				학예연구직		
		소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4급이상	5급	7급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정 원	84	55	4	51	14	3	1	10	15	2	13
현 원	76	50	4	46	13	2	1	10	13	2	11
과부족	△8	△5	-	△5	△1	△1	-	-	△2	-	△2

○ **공무직 · 촉탁직 · 공공안전관 : 67명/63명**(정원/현원)

('20. 3. 31.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공 무 직						촉탁 계약직			공 공 안전관
		소계	일 반 종사원	시 설 청소원	시 설 경비원	시 설 정비원	대 민 종사원	소계	시 설 청소원	시 설 경비원	
정 원	67	46	5	13	11	13	4	18	16	2	3
현 원	63	42	5	12	10	12	3	18	16	2	3
과부족	△4	△4	-	△1	△1	△1	△1	-	-	-	-

○ **뉴딜 코디네이터 : 32명/31명**(정원/현원)

(4) 서울시립미술관 부서별 업무

<표5-3> 서울시립미술관 부서별 업무

(2020년 3월 31일 현재)

○ **부 서 별**

구 분	담 당 업 무
총 무 과	○ 미술관 책임경영 기획 · 조정 ○ 조직, 인사, 예산, 재산관리, 의회협력, 시설유지 관리 등
교 육 홍 보 과	○ 미술교육계획 수립 · 시행 ○ 미술관종합홍보계획 수립 · 시행, 홈페이지 구축 · 운영 등
전 시 과	○ 기획전시 계획 수립 · 시행,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추진 ○ 미술창작활동 지원 등
수 집 연 구 과	○ 소장작품 구입 · 수증 · 연구, 대여 · 보존, 수장고 관리 ○ 소장품 상설전시 운영, 미술관 자료실 운영 등
운 영 과	○ 북서울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 시행, 예산 · 회계, 복무, 재산관리 등 ○ 북서울미술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학 예 과	○ 북서울미술관 전시계획 수립 · 시행, 홍보 및 교육 운영 ○ 아트도서실 운영 등

(5) 세입예산 현황

<표5-4> 서울시립미술관 세입예산

(202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1,485	1,273,220	△471,735	△37.1%
세 외 수 입	726,485	1,007,564	△281,079	△27.9%
국고 보조금	75,000	265,656	△190,656	△71.8%

(6) 세출예산 현황

<표5-5> 서울시립미술관 세출예산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 세출예산 : 15,065,611천원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20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15,065,611	12,518,254	2,547,357	20.3%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720,000	1,710,000	10,000	0.6%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140,000	176,926	1,963,074	1,109.5%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104,900	104,900	-	0%
백남준 기념관 운영	106,520	106,310	210	0.2%
소장작품 상설전시	187,610	187,610	-	0%
미술소통 프로젝트	104,800	105,000	△200	0.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2,305,650	1,881,150	424,500	22.6%
서울 사진축제	300,000	344,000	△44,000	△12.8%
SeMA 벙커(여의도 지하벙커) 운영	5,000	-	5,000	100%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88,990	183,870	5,120	2.8%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270,792	286,145	△15,353	△5.4%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73,496	163,970	9,526	5.8%
시민큐레이터 운영	115,850	115,750	100	0.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237,500	237,500	-	0%
학예연구 역량강화	113,000	183,600	△70,600	△38.5%
북서울미술관 지역 문화행사	105,320	107,875	△2,555	△2.4%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10,530	114,580	△4,050	△3.5%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5,700	15,700	-	0%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4,000	-	0%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79,000	79,000	-	0%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600,000	1,600,000	-	0%
소장작품 보존관리	222,000	230,000	△8,000	△3.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20,007	1,763,759	256,248	14.5%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1,038,808	730,979	307,829	42.1%
시립미술관 에너지 효율화사업	420,000	785,000	△365,000	△46.5%
기본경비	1,356,138	1,280,630	75,508	5.9%

(7) 서울시립미술관 관람객 현황(2016-2020)

<표5-6> 서울시립미술관 관람객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명)

연도별	주 요 전 시	관 람 현 황	
		총 관람객	일평균
2020년	총 10회 《강박²》, 《고향》, 《레안드로 에를리치》 등	161,101*	3,428
2019년	총 62회 《데이비드 호크니》, 《한국근현대명화전》, 《안은미래》 등	2,039,508	6,496
2018년	총 44회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유령팔》 등	1,369,242	4,347
2017년	총 55회 SeMA Green 《날개파티》, 《공예의 자리》, 《하이라이트》 등	2,036,589	6,424
2016년	총 30회 제9회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천경자 1주기전》 등	1,818,375	5,736

* 코로나 19로 인한 관람객 감소 및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인한 '20.2.25.부터의 미술관 전 시설 휴관에 따라 총 관람객 수 감소

(8)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현황

○ 특별전 제외 관람료는 무료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미술관 자체기획전 및 상설전에 대하여 무료화를 추진

○ 특별전의 경우 유료화 추진. 예를 들어 〈데이비드 호크니 전〉(2019.3.22.~8,4) 관람료의 경우, 일반 15,000/청소년 13,000원/어린이 10,000원으로 책정. 30만 관객 돌파.

라. 소장품 현황

○ 총 5,73점(구입 3,397점, 기증 1,766점, 관리전화 10점)

<표5-7>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2020년 3월 31일 기준, 단위: 점)

구분	합계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서예	디자인	조각	설치	뉴 미디어	공예
총계	**5,173**	656	1,780	481	1,184	87	19	438	151	224	153
구입	**3,397**	339	1,216	303	668	26	-	375	135	210	125
기증	**1,766**	309	562	178	516	61	19	63	16	14	28
관리전환/ 임대	**10**	8	2	-	-	-	-	-	-	-	-

자료: 서울시립미술관 자료

마. 시사점

○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지자체로서 제일 규모가 큰 서울시 문화예술 행정 현황, 그 중에서 동시대 공립미술관 운영비전과 그에 따른 조직편성, 예산편성, 프로그램 개발 등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운영 모델이 되고 있음.

2. 포항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은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미술관입니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은 '철'이라는 재료 속에
상징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철의 탄생이 인류 문명사의 급진적 전환을 이끌었듯이 우리
미술관은 스틸아트를 통해 '삶 속에서 예술이, 예술 속에 삶'이
호흡하는 신철기시대(neo-iron age)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림5-4> 포항시립미술관 전경과 소개ⓒ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가. 미술관 소개

○ 2006년 공사 착공, 2009년 12월 22일 개관한 시립미술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10)임.

○ 포항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내포하는 재료인 철을 주제로 운영하는 미술관임. 수준 높은 예술품을 기획, 전시하고 현대미술과 동시대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 영일만과 포항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원 속에 자리 잡고 있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 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목을 키우는 문화전시공간임. 환호해맞이공원과 연계하여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사색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알리고 있음.

○ 개관1주년을 맞는 맞는 2011년에는 '테크놀로지의 명상' 이라는 주제 아래 미디어 전시를 선보일 정도로 실험적 현대미술을 선도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포항 출신 서양화가 초헌 장두건(草軒 張斗建, 1918~2015) 미술상 제정. 매년 포항시 주최로 포항 및 대구와 경상북도 출신 작가 중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를 선정하여 <장두건 미술상>을 수여함. 선정된 작가는 창작지원금과 함께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기회를 얻음.

○ 운영비전과 전략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미술관!
세계를 연결하는 미술관 !
다시 찾고 싶은 미술관 !

<그림5-5> 포항시립미술관 전경과 소개

자료: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나. 시설 현황

○ 부지면적 8,008㎡/ 건물 총면적 5,658㎡(지하 1층, 지상 2층).
전시실 4관, 수장고2관, 초헌 장두건관, 세미나실,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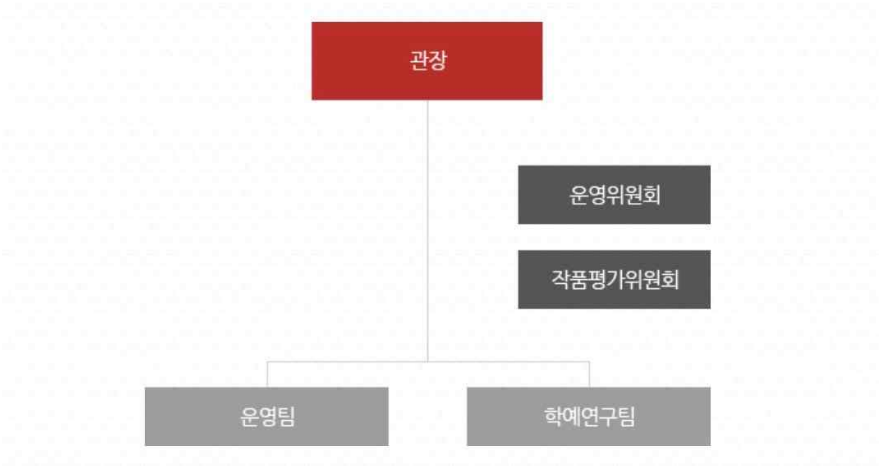
○ 부대시설: 세미나실(지하 1층), 미술 전문 도서관 'POMA라이브러리'(지상1층), 간식 및 지역 공예 작가들의 수공예품을 파는 휴게공간 '카페테리아 & 아트숍' 등.

○ 미술관 인근 포항스틸아트공방 운영(북구청 근처). 시민들이 철을 이용해 금속공예품을 직접 제작·체험하는 곳. 공방, 전시실, 아트숍, 북카페로 구성됨.

다. 운영 현황

(1) 조직도 및 인력 현황

<표5-8> 포항시립미술관 조직도 및 인력 현황(2020년 기준)



구분	명칭	명수
총계		11
관장	임기제, 지방사무관	1
운영팀	운영팀장	1
	운영행정	1
	시설관리	1
	청사보안	1
학예연구팀	학예연구팀장	1
	학예행정	1
	학예-전시, 홍보	2
	학예-수집, 작품관리	1
	학예-교육, 연구	1

(2) 운영 프로그램

○ 스틸 아트 교육 프로그램

○ 장두건 미술상(지역 출신 작가 지원)

(3) 관람객 현황(2015년-2019년)

<표5-9> 포항시립미술관 관람객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관람객 수	167,576	215,794	252,325	408,807	303,553

* 2020년: 11,144명 (8월16일까지의 관람객 수 / 코로나19로 약 3개월 휴관)

라. 주요 전시 및 소장품

○ 장두건 〈학들의 낙원〉(2002), 〈세월〉(1994) 및 송영수(1930~1970)의 〈소녀〉(1967)을 비롯하여 근현대미술품 900여 점 소장.

○ 전시실 총 4관 중, 1층의 1, 3, 4전시실과 2층의 2전시실을 활용해 영남 지역 및 철과 관련된 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근현대미술 기획 전시가 개최됨. 상설전시실인 2층의 초헌 장두건관에서는 작가의 주요 작품과 관련 자료 전시.

마. 시사점

○ 포항제철로 대변되는 포항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반영한 미술관임. 이러한 정체성에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실험정신&독창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 출신 작가 지원 프로그램도 탄탄한 편임.

3.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그림5-6> 장욱진미술관 항공 VR 캡처 ©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가. 미술관 소개

○ 2014년 4월 28일 개관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옛 덕소(현 양주시)에서 12년간 생활한 장욱진 화백(1917~1990)과의 인연으로 설립되었음(주소: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 양주시는 2010년 장욱진미술문화재단과 장욱진화백 작품기증 관련 협약 체결, 2011년 미술관 건축공사 착공, 2013년 5월 27일 미술관 준공, 2014년 1월 양주시와 장욱진미술문화재단 사이 협약식 체결을 거쳐 개관에 이르렀음.

○ 순수한 이상적 내면세계를 추구한 장욱진 화백의 정신을 기리며, 장욱진 정신과 관련된 동시대 작가 및 관련 작가 기획전시를 통해 한국현대미술 보급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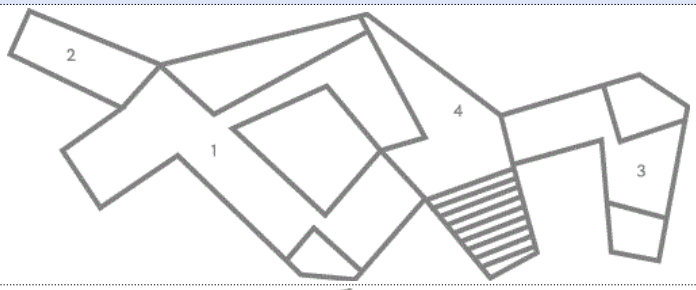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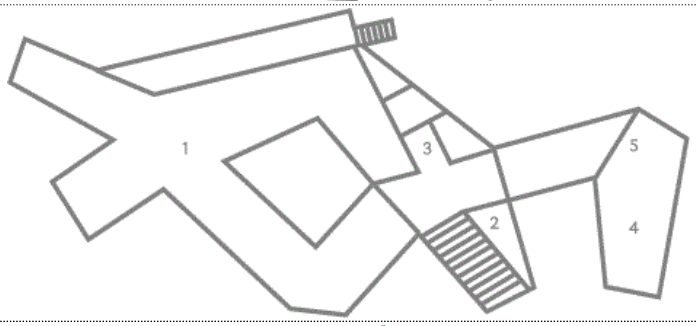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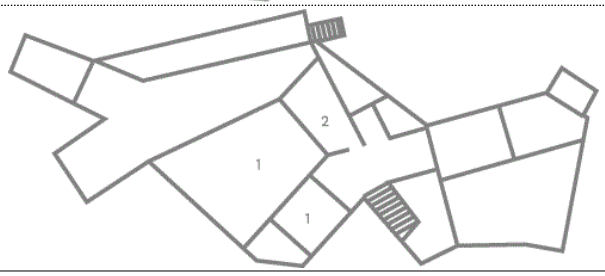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연구, 수집, 교육프로그램, 미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대중과 호흡하는 시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나. 시설 현황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6,204㎡ 와 연면적 1,852㎡ 에 이르며, 전시실을 비롯하여 영상실, 강의실, 아카이브 라운지 등 복합적인 시설들로 구성.

※ 본 미술관 홈페이지:'전시실 VR보기'서비스를 통하여 미술관 건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음.

<그림5-7> 장욱진미술관 시설 현황

층 수	시설용도	현 황
지상 2층	01 전시실2-5 02 영상실 03 사무실 04 화장질	
지상 1층	01 전시실 02 아트숍 03 안내 04 카페 05 화장실	
지하 1층	01 강의실 02 화장실	

자료: 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다. 운영 현황

(1) 인력 현황

<표5-10> 장욱진미술관 인력 현황

(2020년 7월 기준)

구분	명칭	명수
총계		7
관장	시간선택제 임기제(5급)	1
학예실	학예연구사 (전시, 교육, 홍보, 레지던시 운영)	4
	학예연구원 (교육 운영 보조)	1
	청원경찰	1

자료: 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2) 운영 예산

<표5-11> 장욱진미술관 한 해 운영 예산

(2017년 기준)

합 계	전시기획비	교육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약 6억5천	약 2억2천	약 4~5천	약 1억7천	약 1억8천
	상설전1회, 연례전시1회, 공모전1회, 기획전2회	성인 및 어린이 대상	전기, 수도, 사무용품 등	관장1, 큐레이터1, 에듀케이터1, 기간제 학예사2, 매니저1, 행정1

자료: 장욱진화백 문화브랜드 육성연구용역보고서(2017년)

(3) 관람객 현황(2015년~2019년)

<표5-12> 장욱진미술관 관람객 현황

(2020년 7월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관람객 수	38,084	89,478	91,652	83,268	85,720	17,535명

자료: 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4) 관람료

<표5-13> 장욱진미술관 관람료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	5,000	3,500	19세 이상 ~ 65세 미만
청소년 및 군인	1,000	700	14세 이상 ~ 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1,000	700	8세 이상 ~ 13세 이하
영유아	무료	700	7세 이하
노인	무료	무료	65세 이상

자료: 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라. 미술관 대관 규정

<표5-14> 장욱진미술관 대관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강의실 (127.8㎡)	1일1실 (4시간 기준)	150,000	50명 이하 수용 가능 냉·난방비 포함 초과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 25 가산
전시실	1일 (8시간 기준)	㎡300원	기획전시가 없을 시 대관 가능 냉·난방비 포함 초과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 25 가산

자료: 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마. 시사점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 설계만으로도 작품 감상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적의 공간임. 미술관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형성되고 있음. 양주군 지자체와 미술관은 장욱진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벨트를 조성하면서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음.

4.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가. 미술관 소개

○ 2002년 10월 25일 박수근 화백(1914~1965) 생가(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에 개관한 양구군립 공립미술관임.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을 기리는 동시에 양구군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

○ 양구군에서 박수근과 그의 작품을 양구의 품에 가져올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박수근 기념비를 세우면서부터. 그리고 20여 년의 노력 끝에 2002년 박수근미술관을 군 예산으로 짓게 됨. 박수근미술관은 개관 당시 '박수근 작품이 한 점도 없는 박수근미술관' 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음.

○ 미술관 수장고에 박수근 그림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수집가들은 소장 작품들을 기증하기 시작. 현재 박수근 관련 소장품은 작품 110여 점(유화 12점 포함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유품 120여 점 있음. 그 외 이응로, 김환기, 이중섭, 도상봉, 박고석 등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과 후배 현대화가들의 작품 등을 소장하고 있음.

○ 박수근 원작 확보를 위해 군립 미술관 규모로서는 부담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옥션 등을 통해 구입하면서 현재 주목받는 미술관으로 성장하고 있음.

> ☞ 미술관의 본색과 경쟁력은 소장품에서 드러남. 어떤 작품을 소장하느냐가 곧 미술관의 정체성과 직결됨.

○ 현재 박수근미술관은 박수근 화백의 소박한 삶과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이를 전시, 교육, 출판사업 등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시설 현황

<그림5-8> 박수근미술관 건축물 구성

○ 규모

· 부지면적 8만 5,950㎡
· 박수근기념관 연면적 684.26㎡(지상 2층)
· 현대미술관 연면적 877.93㎡(지상 2층)
· 박수근파빌리온 연면적 607.84㎡(지상 1층)

자료: 박수근 미술관 홈페이지

○ 주요 시설

기념전시실, 제1기획전시실, 제2기획전시실, 제3기획전시실, 파빌리온[7], 창작스튜디오 2동, 박수근묘, 박수근기념동상, 빨래터, 자작나무숲. 내년(2021년)에는 아카이브관 건립을 예정 중임. 그 외에박수근미술관 내 현대미술관(뮤지엄 샵, 교육실, 세미나실 포함), 방짜식기 전시관, 어린이미술관, 양구공예전시관, 모퉁이카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술관 외곽에 작가들의 작업실인 미석예술인촌이 들어서 일종의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음.

다. 운영 현황

(1) 인력 현황

<표5-15> 박수근미술관 인력 현황

(2020년 11월 기준)

구분	명칭	명수
총 계		**7명**
관 장	5년 계약직(학예사), (1년 단위로 연장)	1
학예실	행정(파견공무원) 행정 시설관리 업무 보조	1
	청원 경찰(파견공무원)	2
	학예직 보조(계약직)	3

※ 미술관 규모와 업무량에 비해 현행 조직에 한계가 많음. 현재 관장이 1인 다역을 하고 있음. 미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책임 있는 전문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필요함. 다만 박수근미술관은 도립보다 시설이 우수하고, 운영방법, 실태는 배울 점이 많음.

(엄선미 관장 인터뷰 중)

7)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중 지은 건축물. 박수근의 서울 창신동 아뜰리에를 재현. 건축가 이종호 설계.

(2) 운영예산

작품 구입비로 최근 5년간 5억~8억원 책정(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작품구입비 등).

(3) 관람객 수

전시 관람객 수는 2013년 36,989명에서 매년 증가 2016년 47,883명으로 정점을 찍고 현재도 4만~5만 명대 유지.

<표5-16> 박수근미술관 관람객 수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관람객 수	36,989	41,468	42,629	47,883	43,568 *문광부 2019년 통계

라. 소장 자료 및 전시 현황

박수근 화가의 손길이 담겨있는 유품과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여 상설전시 하고 있음. 또한 박수근 선생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근·현대 한국 화단의 주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획 전시하고 있음.

마. 주요 활동

박수근 화가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이를 전시, 교육, 출판사업 등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박수근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박수근 미술상'을 제정하여 2020년 제5회 수상자를 배출했음. 박수근미술관 내 어린이미술관에서는 '한국의 위대한 화가 박수근을 기리는 전국사생대회' 역시 매년 개최하며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이 되고 있음. 박수근 화백의 장녀이자 화가인 박인숙 (박수근미술관)명예관장 또한 관내 어린이미술관과 연계한 미술체험교실 활동 등으로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바. 박수근 미술관 엄선미 관장과 인터뷰(2020.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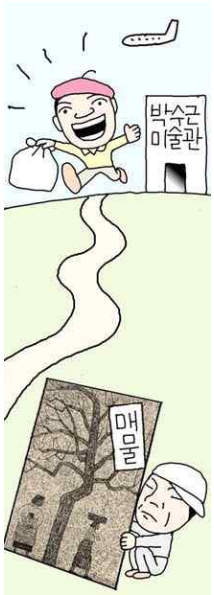
○ 관장제, 총괄, 심의 결정 권한에 대하여

엄선미 관장은 본 미술관에 재직하면서 2010년 학예사, 2014년 학예실장, 2017년부터 관장직(임기제 공무원)을 맡고 있음. 관장은 실무, 대외협력, 예산, 소장품,

예산 수립을 총괄. 박수근미술관의 시설물 포함 공간 활용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기획되고 있음.

○ 원화 구입과 관련하여

2011년 박수근의 유화 작품 ‘마을’(1964년)을 8억원에 구입하여, 박수근 탄생 97주년(2011년) 특별전 때 선보임.



한편, 2020년 2월 박수근이 1950년대 중반 그린 ’나무와 두 여인’이 매물로 나와 박수근미술관 엄선미 관장 다급히 서울행 행보가 기사에 나오기도 함.

“반드시 사야 합니다.”

“박수근의 대표작은 거래가 잦지 않고 경매로 구할 경우 값이 너무 뛰어 시골미술관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 실물을 본 엄 관장은 박수근의 장남 박성남(73)씨를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다음 날 양구군청에 ‘이 작품은 꼭 잡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자료: ‘이 작품, 꼭 사야 한다... 1년 예산 올인한 시골미술관’, 조선일보 2020년 3월 30일자 기사 및 좌측 삽화 인용.)

박수근의 그림이 인구 2만3000명 휴전선 접경 지역으로 타지 사람을 불러들이는 문화 브랜드임을 알고 있었기에 군수 및 군의원 등 모든 공무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림이 꼭 필요하다’며 만장일치 승인, 1년치 구매 예산 8억원을 27×19.5㎝짜리 손바닥만한 그림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소식(7억8750만원 낙찰).

○ 주민들의 박수근 화백에 대한 생각

양구군 사람들은 박수근을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강원도는 박수근을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로 알리고 있음.

제2절 해외미술관 사례

1. 지역과 상생하는 해외미술관 사례

가.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일본 가나가와현)

(1) 명칭 및 주소

○ 원어명: 神奈川県立近代美術館

○ 영문명: The Museum of Modern Art, Kamakura&Hayama

○ 한국명: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 주　소: 神奈川県三浦郡葉山町一色2208-1 [하야마(葉山)별관]
神奈川県鎌倉市雪ノ下2-8-1 [가마쿠라(鎌倉)별관]

○ 홈페이지: http://www.moma.pref.kanagawa.jp

(2) 개요

○ 1951년 일본 가마쿠라시에 개관한 일본 최초의 공립 근대미술관임. 2016년 3월 옛 가마쿠라관이 폐관되어 현재는 하야마관(2003년 개관)[8]과 가마쿠라 별관 2관 체제로 활동하고 있음.

○ 동시대 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시 던지면서 일본 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 대상으로 교육보급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 [교육보급활동] Outreach[9] 사업 일환으로 관장 및 학예사, 연구자들 중심의 미술 전문강좌 프로그램 기획, 시민들의 예술의식 고취.

○ [자료실] 지역과 상생하는 '미술도서실' 운영.
본 미술관에서 열린 전람회 카탈로그와 최근 다른 관(국내)의 전람회 카탈로그, 어린이용 책(그림책 등)을 포함한 미술 관련 도서, 국내외 미술 잡지 소장 및 공개. DVD, CD 시청각 시설, 복사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장서 검색 서비스, 특별별 컬렉션(예술가 및 미술사가의 장서 및 서간 소장) 정비.

---

8) 하야마(葉山): 일본 가나가와현 소재 해양 휴양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음. 2013년 세계의 해수욕장 100위 안에 선정된 잇시키(一色)해변으로 유명하고 다양한 리조트와 세련된 카페도 많아 도시인들에게 인기가 많음.

9) Outreach: 영어로 손을 뻗는다는 의미. 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의 봉사 활동, 공공기관의 현장출장 서비스.

○ [홈페이지 운영] 미술관 소식, 전람회 개최 및 예정일정, 각종 이벤트, 컬렉션 정보수시 갱신.

○ [홈페이지 운영] 예술아카이브 구축 충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공개하여 자료로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재생산하는 미술관 표방.

<그림5-9> 소장품 및 각종 이벤트 소개 코너

자료: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홈페이지

○ 소장품 예술아카이브 카드 작성 및 공개

<그림5-10> 예술아카이브 카드 작성 및 공개

江の島図

項目	内容
作家名	高橋由一
作家名（よみ）	たかはし　ゆいち
生没年	1828-1894
作品名	江の島図
制作年	1876-1877
材質・技法	油絵具、カンヴァス
寸法	47.2×74.7×2.8
No.	TAKYUI1ZZ0001
解説	江ノ島には江戸時代から多くの人が観光に訪れていたが、1891年（明治24）に橋が架かるまで、人々は砂州を歩いて海岸から島まで渡っていた。ここには荷を運ぶ人や旅姿の人に混じって、洋装の紳士も描かれている。由一は、自らもまたそこを歩く旅人のように視点を低い位置において江ノ島を仰ぎ見て、緻密な描写で人々の姿を描いている。
分類	美術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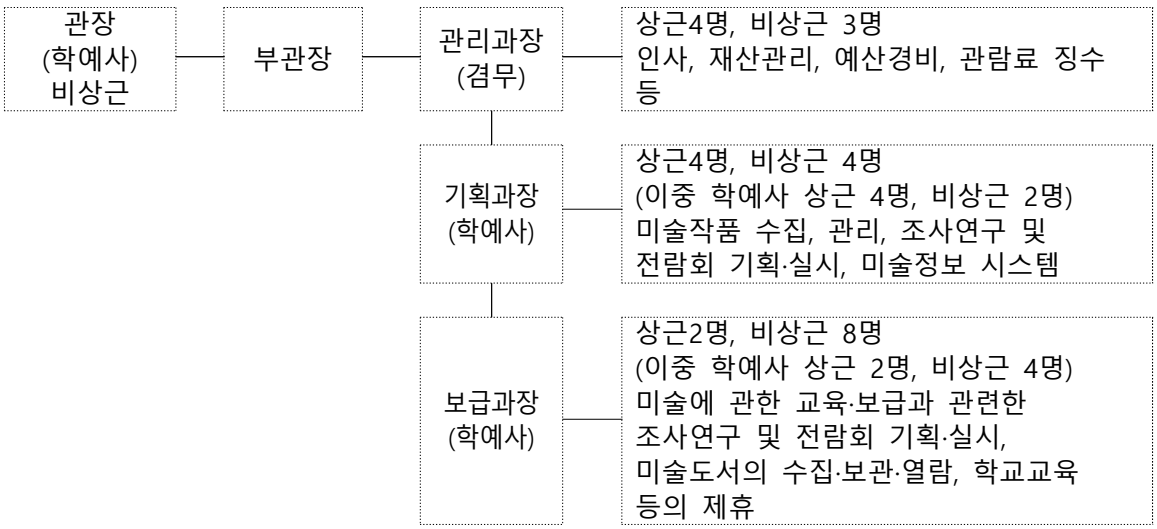
[寸法の見方について]
洋画、日本画、写真の場合：寸法（縦・高さ）cm×寸法（横・幅）cm
彫刻、工芸の場合：寸法（縦・高さ）cm×寸法（横・幅）cm×寸法（厚み・奥行）cm
版画の場合（イメージ寸）：寸法（縦・高さ）cm×寸法（横）cm

자료: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홈페이지

(3) 운영 현황

○ 조직

<표5-17>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조직도



직원 (전원 하아먀관 배치)	총 29명 상근 13명, 비상근 16명	이중 **학예사 상근8명, 비상근 6명**

자료: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年報 2018(平成)年度」(2019년 12월 24일 발행)

○ 미술관 수입・지출 현황

<표5-18>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수입·지출 현황

수입/세목	금액(円)	내역
교육 총무비 사용료	6,968	가마쿠라 별관 전주 등 토지 사용료
사회교육비 사용료	53,222,700	관람료 수입
사회교육비 사업수입	5,473,634	도록등 판매수입
사회교육비 수강자 수입	87,000	현립 사회교육시설 공개강좌
사회교육비 입체(立替)	1,986,232	레스토랑 외 광열수비
교육비 잡비 수입	1,134,832	도서관복사요금, 조성금, 고지(古紙) 판매수입
계	61,911,366円	**(원 환산) 6억1천9백11만3천6십6원**

지출세목	금액(円)	내역
유지운영비	19,360,628	유지관리
미술관사업비	57,279,347	전람회개최비、교육보급사업, 조사연구사업
미술작품정비비	35,828,024	미술작품구입・수리·복구, 가마쿠라 별관 개수 관련 경비
특정사업비	389,103,356	PFI사업비(미술관 시설 공사)
현립 사회교육시설 공개강좌사업비	310,000	-
계	501,881,355円	**(원 환산) 50억1천8백8십1만3천5백5십원**

자료 :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年報 2018年度」(2019년 12월 24일 발행)

○ 관람객 수

<표5-19> 2018년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관람객 현황

하마야관(葉山館) 기획전						
전람회명	회기	일수	관람료		관람객수	순회관
브루노 무나리 (Bruno Munari) 늘 아이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4/7~6/10	57日	일반 20세 미만·학생 65세 이상 고교생	1,200 円 1,050 円 600 円 100 円	19,574명	기타큐슈시립미술관 이와테현립미술관 세타가야미술관
국립민족학박물관 컬렉션 조개의 길	6/23~9/2	63日	〃	〃	8,817명	
알바 아아토 (Alvar Aalto) -또 하나의 자연	9/15~11/25	65日	〃	〃	32,732명	나고야시립미술관 도쿄스테이션갤러리 아오모리현립미술관
堀内正和전 재미나고 유쾌한 마음과 형태	12/8~3/24	90日	〃	〃	8,020명	
소 계		275일			69,143명	
하마야관(葉山館) 컬렉션전						
전람회명	회기	일수	관람료		관람객수	
추상의 희열	4/7~6/10	57日	일반 20세 미만·학생 65세 이상·고교생	250 円 150 円 100 円	20,123명	
그림이라는 것이 멈춰있는 것일까?	6/23~9/2	63日	〃	〃	9,693명	
그려진 '건물'	9/15~11/25	65日	〃	〃	33,319명	
모던한 폼(form)	12/8~3/24	90日	〃	〃	8,872명	
소 계		275일			72,007명	
합 계(8전람회)					141,150명	

자료 :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年報 2018年度」(2019년 12월 24일 발행)

(4) 시사점

○ 지역문화시설이 재정난으로 폐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여 주요 업무인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미술 분야에서의 Outreach(공공기관의 현장출장 서비스) 활동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음.

○ 조직: 총29명 직원 중 학예사 14명. 전시, 기획, 미술품 수집 및 관리, 조사연구, 미술정보 시스템 구축, 미술교육 보급, 미술도서실 운영 등에 투입되고 있음.

○ 재정면에서는 매년 수입 6억원 중 5억원이 관람료 수입임. 반면 지출 50억 중 약 40억 가량이 미술관 시설비용(특별 지출). 이를 제외하면 년 10억 가량으로 미술관 사업과 미술품 정비비로 지출되고 있음. 직원 29명 규모에 비해

미술관 운영 예산이 한국의 지자체 미술관과 별반 차이가 없음. 그럼에도 전담인력의 충분한 배치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미술관 소식, 전람회 개최 및 예정 일정, 각종 이벤트, 컬렉션 정보 수시 갱신. 예술아카이브 구축 충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공개하여 자료로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재생산하는 미술관 표방.

○ 매년 年報(Annual Report)를 백서 형식으로 발행하여 미술관 제반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나. 이콘갤러리(영국 버밍엄)

(1) 명칭 및 주소

○ 정식명칭: Ikon Gallery

○ 한국명: 이콘 갤러리

○ 주　소: 1 Oozells Square Brindleyplace Birmingham B1 2HS, UK

○ 홈페이지: https://www.ikon-gallery.org

<그림5-11> 버밍엄 이콘갤러리 위치

(2) 개요

○ 1965년, 영국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버밍엄에 개관한 갤러리. 버밍엄의 대표적인 공공 갤러리. 런던이 아닌 지방인 ‘버밍엄’ 소재 미술관으로서 우수한 접근성을 통해 대중성 확보와 국제화를 성취한 것으로 명성이 자자함.

○ 4인 작가들 즉, 데이빗 프렌티스(David Prentice), 실바니 메릴리언(Sylvani Merilion), 제시 브루튼(Jesse Bruton), 로버트 그로브즈(Robert Groves)가 설립한 이콘갤러리는 1965년 창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뛰어난 예술성(artistic excellence)과 혁신성(innovation)이 접근성(accessibility)과 결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해 왔음.

○ 새로운 독립 갤러리인 이콘갤러리는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보다 많은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중견 및 신진 미술 작가들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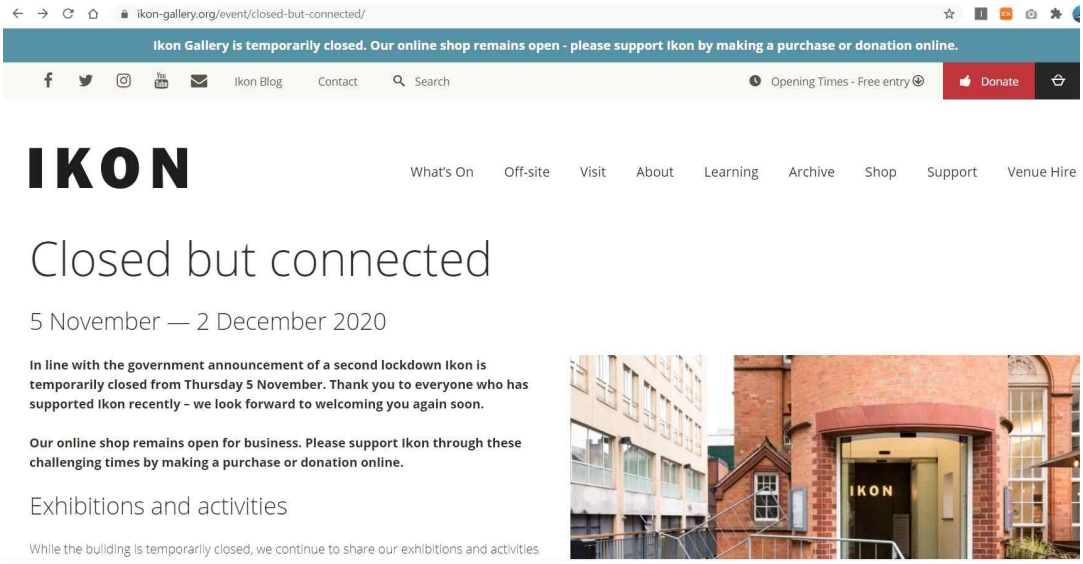
○ “이콘은 기성 미술계와 미술 기관들에 대한 반론이다. 시각적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는 창립사는 이러한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음.

(3) 시사점

○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대도시 런던 밖 여러 중소 도시들에 박물관·미술관 또는 생존 작가들의 동시대 미술을 전시하는 공공 갤러리가 다수 지어지면서 미술이 고급 예술이란 인식을 바꾸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미술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에게는 생활공간의 연장으로서 문화플랫폼 역할을 제시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 디지털미술관 운영도 다채롭게 하고 있음.
- 전시(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 업로드) 및 갤러리 활동 소개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스템 구축: 책, 작품 인쇄물, 액세사리 등 문화상품 주문, 배달까지 관리.
- 홍보 채널: 홈페이지 이외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운영.
- 사안별로 안내 문구도 자세하고 세심하게 작성하여 방문객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그림5-12> 버밍엄 이콘갤러리 홈페이지 코로나 휴관 안내



2. 작가미술관(Single artist museum) 해외 사례

가. 무라카미산토기념관(일본 시코쿠 에히메현)

(1) 명칭 및 주소

○ 정식명칭: 村上三島記念館

○ 영문명: Santō Murakami Memorial Museum of Calligraphy

○ 한국명: 무라카미산토기념관

○ 주소: 愛媛県今治市上浦町井口7505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쵸 이노구치)

○ 홈페이지: https://www.city.imabari.ehime.jp/museum/santou

(2) 개요

○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가교 '세토우치 시마나미 카이도'(일본 자전거의 성지, 75km)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오미시마(大三島)에 위치한 서예미술관으로, 무라카미산토(村上三島, 1912~2005)의 고향임[10].

10) 일본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国) 사이에 놓인 섬들 중, 미술관으로 지역 브랜드를 선점하는 섬으로는 동쪽 가가와현 권역에 나오시마(直島), 서쪽 에히메현 권역에 오미시마(大三島)를 들 수 있음. 일본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国) 사이 내해(内海) 세토우치(瀬戸内)는 전세계의 아트 팬을 매료시키는 현대 아트의 성지로 알려져 있음. 자연과 아트의 융합의 무대인 나오시마, 토요시마, 이누지마는 물론 무라카미산토기념관이 있는 오미시마도 3개의 미술관이 있는 아트 섬.

○ 1963년 가미우라초 역사민속자료관으로 개관. 1990년 전시실・수장고의 확장과 함께 600석의 다목적 홀을 가진 예술회관이 증축, 2007년에는 제1전시실 내에 오사카부 다카츠키시에 있던 무라카미산토의 아틀리에가 이전・재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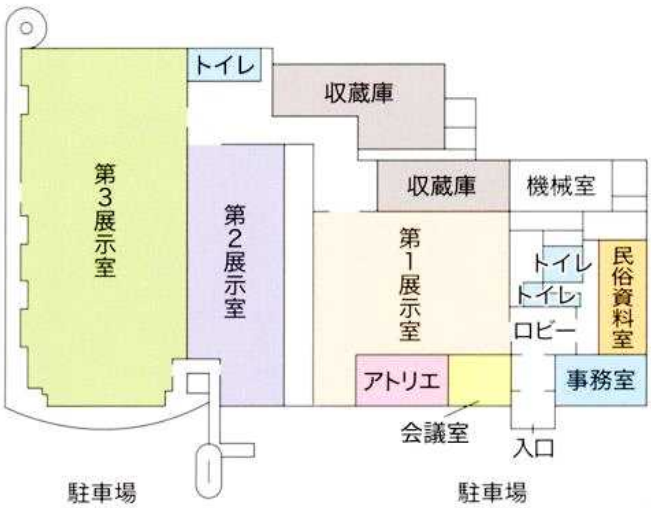
○ 생전 무라카미의 노력으로 저명한 현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았고, 회화를 포함하여 총 관장품수는 약 3,800점(이 중 미시마의 유작 약 850점)에 달함. 그 중 무라카미가 수집해 온 중국의 명묵과 벼루, 붓, 고서 등 귀중한 서예 관련 자료도 소장・전시하고 있음.

(3) 시설 현황

<그림5-13> 무라카미산토기념관 시설 현황

시설 현황			
부지면적		7002.45㎡	
건축면적 (연면적)	구관	1,293.92㎡	철근 콘크리트
	신관	3,847.30㎡	철근 콘크리트 및 일부 철골철근 콘크리트
세부내용			
전시부		제1전시실(아틀리에 포함), 제2전시실. 제3전시실, 회의실, 역사민속자료실, 수장고, 사무실, 도서실 등	
홀		다목적홀(600석), 조명실, 음향실, 영사실 제1연수실, 제2연수실, 회의실(일본실), 4층 연수홀,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		기념관 앞(승용차 41대・대형버스 2대), 다목적홀 앞(31대)	

<그림5-14> 무라카미산토기념관 '전시관' 건물 구성



(4) 전시실 구성과 내용

○ 제1전시실

- 1990년 2월, 오사카부 다카츠키시에 있던 무라카미 아틀리에를 이전하여 재현한 공간임.
- 전시실 중앙에 설치한 쇼케이스에는 무라카미의 애장의 중국명・청대의 고묵, 벼루 등의 컬렉션, 본인이 사용했던 붓, 낙관등도 전시하여, 보다 폭넓은 서예의 세계와 역사를 알리고 있음.

<그림5-15> 무라카미산토기념관 '제1전시관' 내부

○ 제2전시실

주로 기획전을 하는 공간임. 서예작품 이외에도 다른 장르의 작품도 전시.

○ 제3전시실

무라카미의 긴 족자(축 길이 약 3.3m)를 전시하기 위해 둘레 약 100m, 천장 높이 4.3m 규모로 설계된 전시실임. 이들 족자 작품은 70세 후반부터 주된 개인전(일본 예술원 회원 취임 기념전, 서업 60년 서법전, 근작 서전, 서업 65년 기념전, 문화 공로자 현창 기념전) 때 써서 남긴 작품임.

(5) 시사점

○ '기념관' 명칭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서예과 그림을 아우른 '서예미술관' 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예 장르가 자칫 비인기 장르로 방문객들의 관심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킬 정도로 서예작품 하나하나에 서체 설명, 내용 설명이 들어가 있고, 서예의 문방사우와 같은 유물들도 전시기법에 맞게 전시하여 어린이들에게까지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돋보임.

○ 동일 부지에 다목적홀(600석)과 역사민속자료관이 함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는 이마바리시(今治市) 내 상세 관광 정보 및 지역의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정보가 링크되어 있음.

○ 지역의 기업(운수업) 메세나와 제휴하여 지역의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 활성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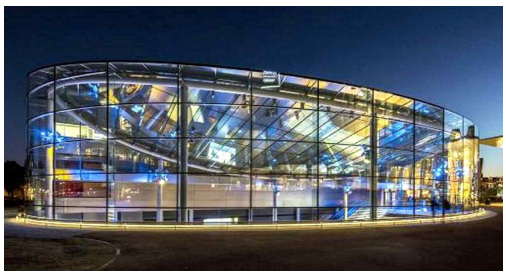
☞ JB本四高速 기업 메세나「세토우치 미술관 네트워크」지원

*JB本四高速:(주)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

세토나이카이 지역에는 매력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이 많이 존재함. 세토우치 기업의 JB本四高速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을 네트워킹하고 세토우치 지역의 교류 촉진과 활성화, 어린이 미술 감상 교육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6개 시설로 발족해, 2020년 현재 79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세토우치 미술관 네트워크」에서는「어린이 아트 감상문」의 모집이나「부모 아트 감상 이벤트」의 실시, 참가하고 있는 미술관·박물관을 둘러싼 스탬프 릴레이의 실시 등, 설립 목적에 따른 몇 개의 사업을 전개 중.

○ 지역의 기업(운수업, 관광업, 호텔업 등) 메세나와 제휴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강구.

나. 반 고흐 미술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림5-16> 반 고흐 미술관 전경

기획전 및 뮤지엄 나이트(Museum Night) 연출 당시 건물 광경(자료: 반 고흐 미술관 홈페이지)

(1) 명칭 및 주소

○ 정식명칭: Van Gogh Museum(VGM)

○ 주소: Museumplein 6, 1071 DJ Amsterdam, The Netherlands

○ 홈페이지: https://www.vangoghmuseum.nl

(2) 개요

○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가에 1973년 6월 3일 개관. 전 세계에서 반 고흐(1853~1890)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 암스테르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자 세계 최대 고흐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음. 한 해 관람객 200만 명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보유.

○ VGM의 창립자는 빈센트 윌렘 반 고흐(1890~1978, 고흐 동생 테오의 외아들, 삼촌의 이름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는 종종 'the engineer'로 불림). 그는 1925년 모친이 사망하면서 반 고흐의 그림, 그림, 편지 및 아버지가 수집했던 동시대의 작품들을 물려받아 관리해 왔음. 그가 죽은 후에도 소장품이 온전하게 남아,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신념을 일관해 오던 중, 1962년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얻어 그의 컬렉션을 '빈센트 반 고흐 재단(Vincent van Gogh Foundation)' 에 양도. 그 답례로, 국가는 VGM을 건립하였고, 그는 VGM의 창립자로 추대되어 죽기 직전까지 거의 매일 박물관에서 빈센트, 테오, 박물관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전념한 인물이었음.

○ 2019년 현재 VGM 조직은 크게 VGMF(반 고흐 미술관 재단)와 VGME(반 고흐 미술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GMF는 미술관 관련 업무 전반을, VGME는 미술관을 통한 기업 업무를 총괄함. VGMF 직원은 총 286명(비정규직 148명 포함), VGME 직원은 총56명(비정규직 33명 포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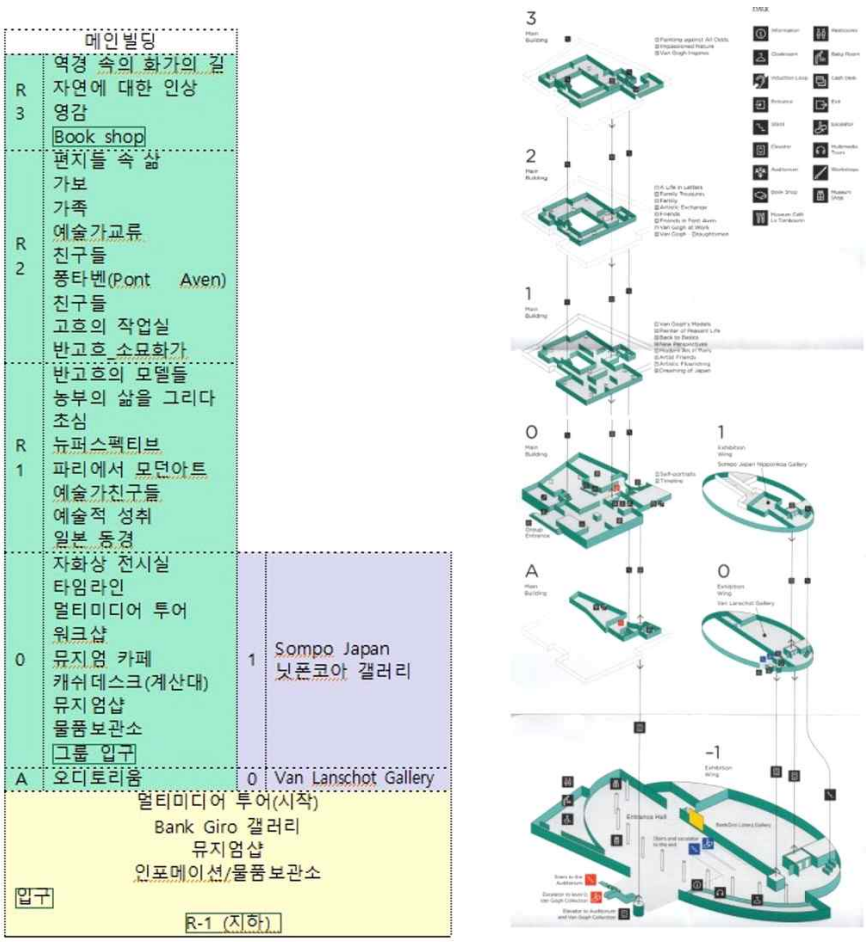
○ 유화 200여 점, 소묘 500여 점, 700통 이상의 편지, 고흐가 수집한 우키요에와 회화를 포함한 컬렉션은 세계 최대 규모임. 주요 소장품으로는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해바라기>, <아를르의 침실>, <자화상>을 비롯해 <까마귀가 있는 밀밭> 등임.

○ 최근 확장 공사를 거쳐 더욱 유기적이고 넓어진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구관에서는 상설전시, 1999년 일본인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가 설계한 신관에서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음.

○ 천장이 위층까지 뚫려 있는 본관 1~2층에서는 고흐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소개하여 그의 작품 세계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음. 3층은 소묘 작품, 4층에는 고흐 자신의 컬렉션이자 그의 화풍에도 영향을 미친 우키요에 등을 전시하고 있음.

○ 원형의 건물 중 반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건축적인 가치는 물론, 이를 이용하여 Museum Night와 같은 미디어아트가 펼쳐지고,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가운데, VGM은 단순한 고흐 작품 전시관을 넘어 미래미술관의 비전과 역할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현황



<그림5-17> 반 고흐 미술관 배치도(관내 전시실과 편의시설 중심으로 발췌)
*1년 2회 테마기획전이 R0층부터 R3층까지 전시됨.

(4) 숫자로 보는 미술관 현황

○ 반 고흐 미술관 관람객은 최근 5년 기준 평균 2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또 미술관에서는 on라인 홍보 매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위한 콘텐츠도 개발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꾀하고 있음.

○ 2018년 현황

2018 IN NUMBERS - VAN GOGH MUSEUM	숫자로 보는 2018년 VGM
2.161.160 visitors	총 방문객 수
66.644 schoolchildren	학생 방문객 수
5,048,307 website visitors	홈페이지 조회 수
4,7 million Facebook followers	페이스북 팔로워(4천7백만)
900.000 Instagram followers	인스타그램 팔로워
456 new aquisitions in the library	도서관 취득 자료 수
578 meters of books relocated	개장된 서점 길이(578m)
194 events and receptions for nearly 20.000 visitors	약 2만명 대상 이벤트와 리셉션 개최 수
132 lessons on Van Gogh at schools in deprived neighbourhoods	소외 지역 학교 대상 반고흐 강연 횟수

<그림5-18> 숫자로 보는 2018년 반 고흐 미술관 현황
자료: Annual Report 2018

○ 이외에도 방문객의 국적, 연령, 뮤지엄 샵 거래 품목 동향 등 집계하여 매년 Annual Report에 보고하고 있음.

(5) 시사점

○ VGM은 규모나 명성 면에서 국제적 미술관으로 서귀포공립미술관과는 비할 바 없이 압도적인 미술관이지만, 지역의 작가미술관의 관점에서 보면 VGM의 운영체계, 전시기법, 홍보전략, 고객관리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음.

○ VGM은 문화다양성을 표방하는 전세계 문화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맞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관객 창출과 이에 따른 투자 시스템을 끊임없이 탐구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 전시회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activities)의 파워와 독창성.

예1) **데이비드 호크니-반고흐: 자연의 환희(The Joy of Nature)**.

2019년 3월 네덜란드와 국제 언론이 주목한 연계 전시회였음(데이비드 호크니 본인이 오픈닝에 직접 참가). 미술관 광장에서 비디오 영상을 통한 호크니 작품 라이트 아트(미술관 본관 전체 유리벽면 이용, 작품 투시) 및 하프 연주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음. 이를 계기로 전시 기간 중 반고흐미술관이 제작하여 가장 잘 팔린 카탈로그(3만 부 이상) 중 하나로 기록되었음.[11)]

예2) **반고흐와 해바라기 展**

2019년 여름 시즌 본 전시는 명화 해바라기(1889년)에 대해 최근 실시한 기술연구 결과를 인상적으로 보여준 기회로 역대 최고 관람객 평점 중 하나를 달성했음. 미술에 대한 지식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접근성 있는 접근방식에 대해서 고심도 방문객들에게 전달되어 자발적으로 작품에 빠져들고 배우려는 모습들이 보였음. 작품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통해 고흐가 사용한 작품의 상태와 재료에 관한 많은 정보를 관객들에게 보여줌. 전세계적인 규모로 연구되어 출판된 '고흐의 해바라기 관련 출판물 전시도 함께 하여, 예술과 학문이 만남이 색다르게 조명되었음.

○ VGM 주관 관람객 수(visitor data) 수집과 분석의 정례화와 치밀함. 이를 바탕으로 on/off라인 미술관 운영 전략 및 지원 체계 구축.

○ 홍보: 팝업 투어(Pop-up tour). VGM의 특별전 개최에 즈음해서는 국외 대도시에 대중교통 버스 전면 홍보 실시 및 이벤트성으로 한시적 운영하는 팝업 투어(Pop-up tour) 등 실시함. 2018년~2019년 중 바르셀로나 팝업, 휴스턴 팝업, 시카고 노스브룩 코트 몰 팝업 등이 열렸으며, 이를 기회로 미술관 밖 해외에서도 미술관 홍보와 더불어 입장권 및 아트상품 등을 판매함.

○ Annual Report(年報) 자제 발간(A4 100쪽 분량). 미술관의 전반적인 사업 보고와 평가, 수집현황, 방문객 수, 매출실적 등을 관련 사진들과 함께 실어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제작·보급하고 있음. 홈페이지에서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Annual Report를 pdf파일로 볼 수 있음.

11) Annual Report 2019 , Van Gogh Museum 발행.

6장 지역주민 의식(설문) 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16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162

제1절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일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미술관도시' 라는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내용(핵심 내용)

○ (공통 질문) 서귀포시 이미지, 공립미술관 인지도 및 관심도, 프로그램 참가 여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미술관도시 추진에 대한 의견, 공립미술관 개선 방안 등.

○ (전문가) 미술관 3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발전방안, 관장제 도입에 대한 의견, 덕판배 미술관 운영 관련 등.

○ (제주도민) 미술관 3관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 미술관 3관 인지도 순위, 관람 횟수, 방문 동기 등.

○ (미술관 3관 관람객) 해당 미술관 정보 취득 경로, 관람 횟수, 방문 동기, 재방문 의사, 해당 미술관 시설 및 전시 등 서비스 만족도, 입장료 관련 등.

다. 조사방법

○ 조사대상을 전문가, 제주도민, 기당미술관 관람객, 이중섭미술관 관람객, 소암기념관 관람객 5유형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작성, 현장 대면조사, 방문조사, e-메일 교환 등으로 실시하였음.

라. 조사기간 및 응답자 수

○ 2020년 8월 30일 ~ 10월 20일

※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2차 휴관(2020.09.03.-10.11)으로 설문 조사 기간이 연장됨.

○ 전문가 60명(남19, 여41), 제주도민 123명(남42, 여81), 기당미술관 관람객 45명(남17, 여28), 이중섭미술관 관람객 52명(남15, 여37), 소암기념관 관람객 46명(남10, 여36)이 조사에 응하였음.

○ 위를 합산하여 총 응답자 수는 326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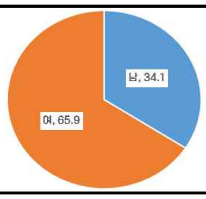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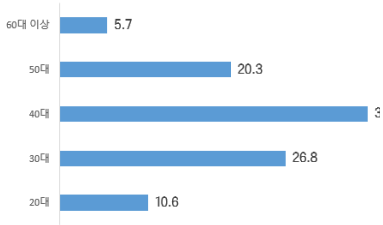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34.1%인 42명, 여성이 65.9%인 81명임.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남성	42	34.1
여성	81	**65.9**
합계	123	100.0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0.6%, 30대가 26.8%, 40대가 36.6%, 50대가 20.3%, 60대 이상이 5.7%로 나타남.

연령	응답자 수(N)	비율(%)
20대	13	10.6
30대	33	26.8
40대	45	**36.6**
50대	25	20.3
60대 이상	7	5.7
합계	123	100.0



○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26.8%,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8.7%, 제주시 거주가 47.2%, 도외지역이 7.3%로 나타남.

연번	거주지	응답자 수(N)	비율(%)
1	서귀포시 동지역	33	26.8
2	서귀포시 읍·면지역	23	18.7
3	제주시	58	**47.2**
4	도외	9	7.3
합계		123	100.0

○ 직업으로는 직장인(급여생활자)가 가장 많은 58.5%인 72명이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이 8.9%인 11명으로 나타남.

연번	직업	응답자 수(N)	비율(%)
1	학생	4	3.3
2	직장인(급여생활자)	72	**58.5**
3	공무원	7	5.7
4	자영업	11	8.9
5	전문직	5	4.1
6	문화예술계 종사자	7	5.7
7	은퇴인	4	3.3
8	전업주부	5	4.1
9	기타	8	6.5
합계		123	100.0

○ 서귀포시 이미지에 대한 상위 3개 선택 결과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32.1%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문관광단지가 22.0%,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가 17.6%로 나타남.

서귀포시의 이미지	응답자 수(N)	비율(%)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51	**32.1**
중문관광단지	35	22.0
독특한 미술관 · 박물관 · 갤러리	6	3.8
해양 레저 스포츠	10	6.3
매력적인 카페 · 펜션	12	7.5
국제회의도시(제주포럼 등)	15	9.4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	28	17.6
기타	2	1.3
합계(중복 선택)	159	100.0

나.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인지도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당미술관은 45.5%, 이중섭미술관 95.1%, 소암기념관 37.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서 이중섭미술관이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관람여부에 대해서는 기당미술관이 33.3%, 이중섭미술관은 78.0%, 소암기념관은 19.5%가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중 가장 익숙하고 친근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미술관을 순서는 이중섭미술관이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당미술관이 10.6%, 소암기념관이 1.6%로 나타남.

연번	친근한 미술관 여부	응답자 수(N)	비율(%)
1	기당미술관	13	10.6
2	이중섭미술관	98	**79.7**
3	소암기념관	2	1.6
4	무응답	10	8.1
합계		123	100.0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의 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를 우연히 접함이 가장 많은 10.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는 사람, 친구, 동료, 미술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SNS)을 통한 해당 미술관 소식이 각각 6.2%로 나타났음.

미술관에 대한 정보 수집	응답자 수(N)	비율(%)
전시(공연)하는 작가	5	1.4
아는 사람, 친구, 동료	23	6.2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를 우연히 접함	40	**10.8**
미술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SNS)을 통한 해당 미술관 소식	23	6.2
본인이 직접 체크	13	3.5
미술관 관계자	2	0.5
관심 없음	17	4.6
합계	123	100.0

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심도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방문동기는 작가의 작품 및 전시 작품 감상(새로운 작품을 접하기 위해)이 27.6%로 가장 많게 나타남.

방문 동기	응답자 수(N)	비율(%)
작가의 작품 및 전시 작품 감상(새로운 작품을 접하기 위해)	34	**27.6**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관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9	7.3
뮤지엄 샵 문화상품 구매	2	1.6
관내 편의시설 이용	1	0.8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미술관 방문 자체가 좋아서)	24	19.5
인근 관광지 또는 목적지와 연계해서	18	14.7
없음	35	28.5
합계	123	100.0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개선방안 또는 발전 방향(자유 의견)은 적극적인 홍보가 33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공립미술관 개선방안	응답자수(N)
적극적인 홍보	**33**
다양한 콘텐츠 개발	8
획기적인 운영 프로그램	8
다양한(특별전) 작품전시	7
연계방안	6
체험 프로그램	4
환경 개선	3
상품개발(굿즈)	2
합계(자유의견)	71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바라는 공간 우선순위 분포는 전시공간이 46.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하고 편안한 산책 및 휴식 공간이 23.6%로 나타남.

공간 우선순위 분포	응답자 수(명)	비율(%)
전시공간	57	**46.3**
연구 및 교육공간	2	1.6
체험공간	15	12.2
만남의 공간	3	2.4
마을주민들이 애용하는 문화공간	12	9.8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하고 편안한 산책 및 휴식 공간	29	23.6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명소	5	4.1
합계	123	100.0

○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허브인 ‘미술관도시’로 구축하려는 발상에 대한 응답은 시도해 볼만은 하다가 42.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가 35.8%로 나타나 ‘미술관도시’ 구축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미술관도시’ 구축 발상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	44	35.8
시도해 볼만은 하다	52	**42.3**
그저 그렇다	10	8.1
회의적이다	8	6.5
잘 모르겠다	8	6.5
기타	1	0.8
합계	123	100.0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우선순위는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축제 등)가 50.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이 19.8%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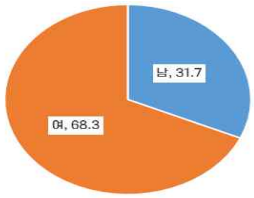
‘미술관도시’ 추진 방향 우선순위	응답자 수(명)	비율(%)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	59	**50.9**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	23	19.8
예술교육기관 유치(예술가 양성)	8	6.9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	20	17.2
관광객 유치(예술 힐링 여행 등)	4	3.4
기타	2	1.7
합계	116	100.0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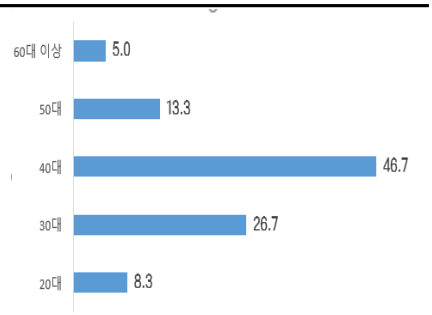
○ 응답자이 성별은 남성 31.7%인 19명, 여성이 68.3%인 60명임.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남성	19	31.7
여성	41	**68.3**
합계	60	100.0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8.3%, 30대가 26.7%, 40대가 46.7%, 50대가 13.3%, 60대 이상이 5.0%로 나타남

연령	응답자 수(N)	비율(%)
20대	5	8.3
30대	16	26.7
40대	28	**46.7**
50대	8	13.3
60대 이상	3	5.0
합계	60	100.0



○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16.7%,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1.7%, 제주시 거주가 68.3%, 도외지역이 3.3%임.

연번	거주지	응답자 수(N)	비율(%)
1	서귀포시 동지역	10	16.7
2	서귀포시 읍·면지역	7	11.7
3	제주시	41	68.3
4	도외	2	3.3
합계		60	100.0

○ 응답자의 예술활동 영역 분포(중복 선택)는 미술평론가, 연구자, 학예사가 가장 많은 30.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기획자, 갤러리스트가 17.1%로 나타남.

연번	예술활동 영역별 분포	응답자 수(N)	비율(%)
1	회화	16	22.
2	설치 및 조각	1	1.4
3	서예	4	5.7
4	사진	6	8.6
5	미디어아트	1	1.4
6	미술평론가·연구자·학예사	21	30.0
7	컬렉터	1	1.4
8	문화기획자·갤러리스트	12	17.1
9	기타	8	11.4
합계(중복 선택)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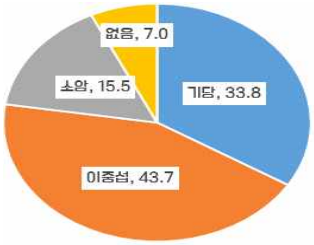
○ 서귀포시 이미지에 대한 상위 3개 선택 결과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31.7%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문관광단지가 17.8%,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가 16.7%로 나타남.

서귀포시의 이미지	응답자 수(N)	비율(%)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57	31.7
중문관광단지	32	17.8
독특한 미술관 · 박물관 · 갤러리	17	9.4
해양 레저 스포츠	14	7.8
매력적인 카페 · 펜션	9	5.0
국제회의도시(제주포럼 등)	20	11.1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	30	16.7
기타	1	6
합계(중복 선택)	180	100.0

나.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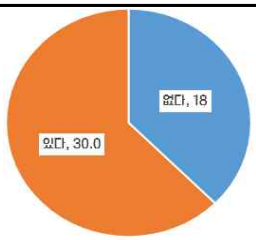
○ 참여하고 싶은 미술관으로는 이중섭미술관이 가장 많은 43.7%로 나타남

참여하고 싶은 미술관	응답자 수(명)	비율(%)
기당미술관	20	33.8
이중섭미술관	26	**43.7**
소암기념관	9	15.5
없음	5	7.0
합계	60	100.0



○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가 70%, 있다가 30%로 나타남.

기당미술관 프로그램 참여 유무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18	30.0
없다	42	**70.0**
합계	60	100.0



○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적정과 적정하다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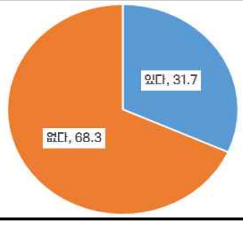
기당미술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적정	2	11.1
적정	7	**38.9**
보통	7	**38.9**
불충분	2	11.1
합계	52	100.0

○ 기당미술관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자유 의견)으로 지속적인 미술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기당미술관 개선사항	응답자수(N)
지속적인 미술관 홍보 필요	**6**
효율적인 전시공간 활용 필요	5
다양한 전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4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분야별 작품 전시 필요	2
갤러리 이미지 개선 필요	2
전시관계자의 역량강화 필요	1
특정 작가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한계 극복 필요	1
미술관 자체적인 운영(행정)방식 필요	1
작품 해설사 필요	1
문화카페 필요	1
가족(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요	1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1
합계(자유 의견)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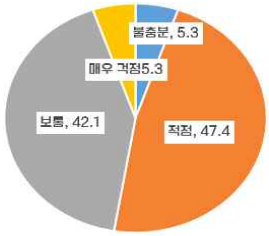
○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가 68.3%, 있다가 31.7%로 나타남.

이중섭미술관 프로그램 참여 유무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19	31.7
없다	41	**68.3**
합계	60	100.0



○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적정과 적정하다가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중섭미술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적정	1	5.3
적정	9	47.4
보통	8	42.1
불충분	1	5.3
합계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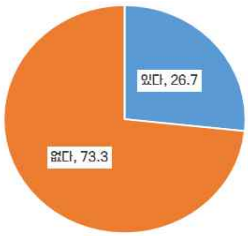


○ 이중섭미술관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자유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전시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이중섭미술관 개선사항	응답자수(N)
전문적이고, 다양한 전시기획 필요	**7**
작품 구입 필요	4
전시공간 탈바꿈 필요	4
전시 콘텐츠 개발	4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전시 및 문화공간 활용	2
다양한 홍보(인터넷 블로그, SNS)	2
다양한 연계성 구축	2
지역 예술가 지원 필요	2
입장료 인상 필요	1
대표작 소장을 위한 기금조성 조례 제정 필요	1
상품 개발	1
합계(자유 의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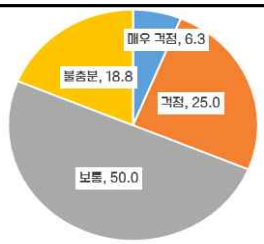
○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가 73.3%, 있다가 26.7%로 나타남.

소암기념관 프로그램 참여 유무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16	26.7
없다	44	**73.3**
합계	60	100.0



○ 소암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적정과 적정하다가 31.3%로 절반을 못미치고 있고 보통이 50%인 8명으로 나타남.

소암기념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걱정	1	6.3
적정	4	25.0
보통	8	50.0
불충분	3	18.8
합계	19	100.0



○ 소암기념관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자유 의견)으로 지속적인 미술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소암기념관 개선사항	응답자수(N)
홍보 및 홍보캠페인	7
교육 및 가족(체험) 프로그램 확충	6
전시 콘텐츠 개발	5
작품 해설가 필요	4
환경 개선	3
주차시설 확충	2
전시공간 탈바꿈 필요	2
서예 공모전 개최	1
지역예술가 지원	1
합계(자유 의견)	31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관련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간활용 만족도는 기당미술관이 50.5%(매우만족과 만족 합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섭미술관이 3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각 미술관별 공간활용 만족도	기당미술관	5.0	50.0	40.0	3.3	1.7
	이중섭미술관	8.3	26.7	51.7	10.0	3.3
	소암기념관	3.3	35.0	50.0	8.3	3.3
각 미술관별 전시기획의 적정성 만족도	기당미술관	11.7	48.3	36.7	1.7	1.7
	이중섭미술관	10.0	36.7	46.7	5.0	1.7
	소암기념관	8.3	30.0	50.0	8.3	3.3
각 미술관별 교육운영 만족도	기당미술관	1.7	30.0	58.3	6.7	3.3
	이중섭미술관	1.7	28.3	60.0	8.3	1.7
	소암기념관	3.3	21.7	58.3	13.3	3.3
각 미술관별 홍보 및 마케팅 만족도	기당미술관	1.7	23.3	35.0	36.7	3.3
	이중섭미술관	5.0	30.0	31.7	31.7	1.7
	소암기념관	0	13.3	43.3	38.3	5.0
각 미술관별 작품수집 및 소장품 확대 만족도	기당미술관	5.0	25.0	48.3	16.7	5.0
	이중섭미술관	5.0	21.7	51.7	16.7	5.0
	소암기념관	1.7	21.7	51.7	16.7	8.3
각 미술관별 대외교류 만족도	기당미술관	0	13.3	60.0	25.0	1.7
	이중섭미술관	1.7	16.7	53.3	26.7	1.7
	소암기념관	0	10.0	60.0	28.3	1.7

○ 전시기획의 적정성 만족도는 기당미술관이 60.0%(매우만족과 만족 합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이 38.3%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교육운영 만족도는 기당미술관이 31.7%(매우만족과 만족 합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홍보 및 마케팅 만족도는 이중섭이 35.0%(매우만족과 만족 합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이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작품수집 및 소장품 확대 만족도는 기당미술관이 30.0%(매우만족과 만족 합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이 23.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대외교류 만족도는 이중섭미술관이 18.4%(매우만족과 만족 합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이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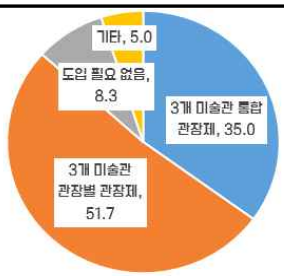
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발전방안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28.3%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60.0%로 나타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장제 도입	응답자 수(명)	비율(%)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60.0	1.7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36.7	28.3
기타	3.3	60.0
합계	60	100.0

○ 관장제를 도입한다면 →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3개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이 51.7%로 나타났으며, 3개 미술관을 통합한 관장제는 35.0%로 나타남.

관장제 도입 방식	응답자 수(명)	비율(%)
3개 미술관을 통합한 관장제	21	35.0
3개 미술관별 관장제	31	51.7
관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5	8.3
기타	3	5.0
합계	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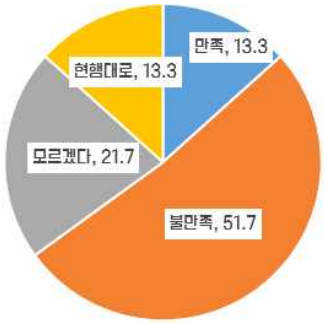


○ 서귀포칠십리시공원에 설치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덕판배' 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의 덕판배를 수리해서 활용해야한다가 4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해야 한다가 15.0%로 나타났음.

덕판배 활용 방안	응답자 수(N)	비율(%)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해야한다	9	**15.0**
현재의 덕판배를 수리해서 활용해야한다	24	40.0
새로운 덕판배를 새로 제작해야 한다	4	6.7
모르겠다	17	28.3
기타	6	10.0
합계	60	100.0

○ 현재 덕판배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에 대하여는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가 51.7%로 절반이 넘었으며, 현행대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는 13.3%로 나타났음.

덕판배 향후 운영	응답자 수(명)	비율(%)
현행대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	8	**13.3**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31	51.7
모르겠다	13	21.7
기타	8	13.3
합계	60	100.0



○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허브인 '미술관도시' 로 구축하려는 발상에 대한 응답은 시도해 볼만은 하다가 48.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가 35.0%로 나타나 '미술관도시' 구축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미술관도시' 구축 발상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	21	35.0
시도해 볼만은 하다	29	48.3
그저 그렇다	4	6.6
회의적이다	2	3.4
잘 모르겠다	1	1.7
기타	3	5.0
합계	60	100.0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활발한 예술도시가 23.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예술시장의 메카와 예술 향유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도시, 다수의 공・사립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도시가 각각 16.1%로 나타났음.

‘미술관도시’의 이미지	응답자 수(N)	비율(%)
랜드마크격인 조형물로서 미술관 보유 도시	5	8.9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활발한 예술도시	13	23.2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예술시장의 메카	9	16.1
예술 향유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도시	9	16.1
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이 남다른 예술도시	8	14.3
다양한 예술정보의 발신과 네트워크 도시	2	3.6
다수의 공·사립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도시	9	16.1
기타	1	1.8
합계	56	100.0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의 추진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이 42.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가 26.8%로 나타났음.

‘미술관도시’추진 방향	응답자 수(N)	비율(%)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	15	26.8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	11	19.6
예술교육기관 유치(예술가 양성)	3	5.4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	24	42.9
관광객 유치(예술 힐링 여행 등)	3	5.4
합계	56	100.0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가 주력할 점에 대해서는 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등을 연결한 프로젝트가 3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전시, 체험, 교육, 예술 올레길 탐방이 30.4%로 나타났음.

'미술관도시'가 주력 할 점	응답자 수(N)	비율(%)
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등을 연결한 프로젝트	22	39.3
유명 예술인 초청 및 예술축제(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유치	2	3.6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5	8.9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전시, 체험, 교육, 예술 올레길 탐방)	17	30.4
국제적인 예술(가)의 거리 조성 (INFO센터, 예술지도, SNS 등)	3	5.4
뮤지엄 부대시설의 상설 문화공간화(카페, 아트숍, 쉼터)	7	12.5
합계	56	100.0

○ 지속가능한 '미술관도시' 는 어떤 주체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가 3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 참여형 민관협동 문화예술위원회가 30.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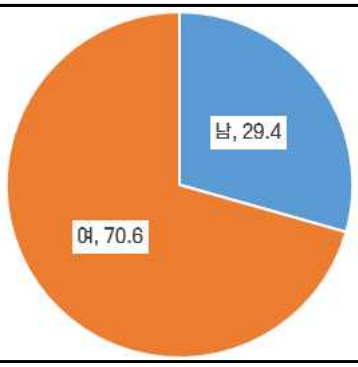
'미술관도시' 추진 주체	응답자 수(N)	비율(%)
제주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28	39.3
서귀포시 및 도내 입주작가 네트워크	6	3.6
예술 후원회(기업)~작가 상생 네트워크	6	8.9
주민 참여형 민관협동 문화예술위원회	7	30.4
국제 이벤트(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경험이 풍부한 조직	2	5.4
관광객~관람객~SNS	5	12.5
기타	2	3.6
합계	56	100.0

3.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가. 공통질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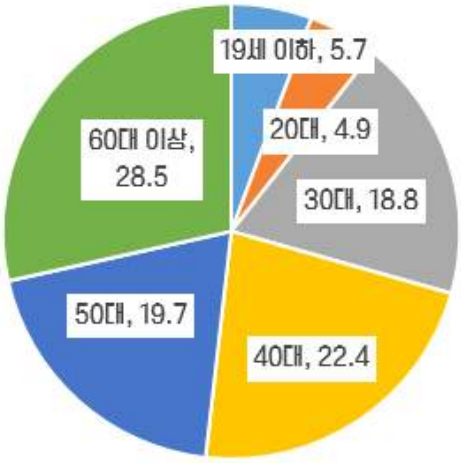
○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이중섭미술관·소암기념관 관람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당미술관 45명, 이중섭미술관 52명, 소암기념관 46명 등 14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 중 남성은 29.4%인 42명, 여성이 70.6%인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음.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남 성	명	17	15	10	42
	%	37.7	28.8	21.7	29.4
여 성	명	28	37	36	101
	%	62.3	71.2	78.3	70.6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19세이하가 5.7%, 20대가 4.9%, 30대가 18.8%, 40대가 22.4%, 50대가 19.7%, 60대 이상이 28.5%인 41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19세 이하	명	6	2	0	8
	%	13.3	3.8	0	5.7
20대	명	3	3	1	7
	%	6.7	5.8	2.2	4.9
30대	명	6	10	11	27
	%	13.3	19.2	23.9	18.8
40대	명	14	12	6	32
	%	31.1	23.1	13.0	22.4
50대	명	9	9	10	28
	%	20.0	17.3	21.7	19.7
60대 이상	명	7	16	18	41
	%	15.6	30.8	39.1	28.5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41.7%,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1.2%, 제주시 거주가 27.1%, 도외지역이 20.0%로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서귀포시 동지역	명	25	17	17	59
	%	55.6	32.7	**37.0**	41.7
서귀포시 읍·면지역	명	5	6	5	16
	%	11.1	11.5	10.9	11.2
제주시	명	10	7	21	38
	%	22.2	13.5	45.7	27.1
도외	명	5	22	3	30
	%	11.1	42.3	6.5	20.0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직업별 분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가장 많은 18.1%인 26명이며, 그 다음으로 직장인(자영업)이 14.1%인 20명으로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학생	명	9	2	4	15
	%	20.0	3.8	8.7	10.8
직장인 (급여생활자)	명	9	6	5	20
	%	20.0	11.5	10.9	14.1
공무원	명	2	4	3	9
	%	4.4	7.7	6.5	6.2
자영업	명	2	8	7	17
	%	4.4	15.4	15.2	11.7
전문직	명	4	7	4	15
	%	8.9	13.5	8.7	10.4
문화예술계 종사자	명	3	10	13	26
	%	6.7	19.2	28.3	18.1
은퇴인	명	1	8	2	11
	%	2.2	15.4	4.3	7.3
전업주부	명	8	3	3	14
	%	17.8	5.8	6.5	10.0
기타	명	7	4	5	16
	%	15.6	7.7	10.9	11.4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서귀포시 이미지에 대한 상위 3개 선택 결과 전체적으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30.4%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카페・펜션이 15.5%, 독특한 미술관 ・ 박물관 ・ 갤러리가 14.5%로 나타남

○ 기당미술관은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31.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독특한 미술관・박물관・갤러리,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가 각각 17.0%로 나타났으며, 이중섭미술관은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29.5%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카페・펜션이 23.1%로 나타났고, 소암기념관은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29.7%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독특한 미술관・박물관・갤러리가 18.1%로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빼어난 자연경관 (제주올레 등)	명	43	46	41	130
	%	31.9	29.5	29.7	30.4
매력적인 카페 · 펜션	명	17	36	15	68
	%	12.6	23.1	10.9	15.5
중문관광단지	명	13	19	14	46
	%	9.6	12.2	10.1	10.6
국제회의도시 (제주포럼 등)	명	5	19	13	37
	%	3.7	12.2	9.4	8.4
독특한 미술관 · 박물관 · 갤러리	명	23	13	25	61
	%	17.0	8.3	18.1	14.5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	명	23	12	22	57
	%	17.0	7.7	15.9	13.5
해양 레저 스포츠	명	11	10	7	28
	%	8.1	6.4	5.1	6.6
기타	명	0	2	1	3
	%	0	0.6	0.7	0.4
전 체	명	135	156	138	143
	%	100.0	100.0	100.0	100.0

○ 기당미술관에서 관람하신 전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지(중복선택)에 질문에 타 블로그 및 카페후기가 19.4%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인의 소개가 14.5%로 나타났으며,

○ 이중섭미술관은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가 가장 많은 26.4%, 그 다음으로 관련 미술관 홈페이지와 지인의 소개가 각각 13.9%로 나타남.

○ 소암기념관은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가 가장 많은 20.3%, 그 다음으로 관련 미술관 관계자가 18.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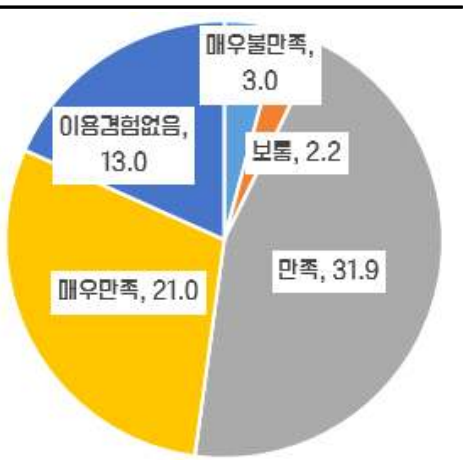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는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가 18.8%로 가장 많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관련 미술관 홈페이지	명	1	10	5	16
	%	1.6	13.9	8.5	8.0
미술관 관계자	명	4	7	11	22
	%	6.5	9.7	18.6	11.6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	명	5	9	9	23
	%	8.1	12.5	15.3	12.0
옥외 광고물 (현수막, 포스터 등)	명	5	5	5	15
	%	8.1	6.9	8.5	7.8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	명	6	19	12	37
	%	9.7	26.4	20.3	18.8
지인의 소개	명	9	10	9	28
	%	14.5	13.9	15.3	14.6
타 블로그 및 카페후기	명	12	4	1	17.0
	%	19.4	5.6	1.7	8.9
기타	명	20	7	6	33
	%	32.3	9.7	10.2	17.4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티켓구매 방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52.9%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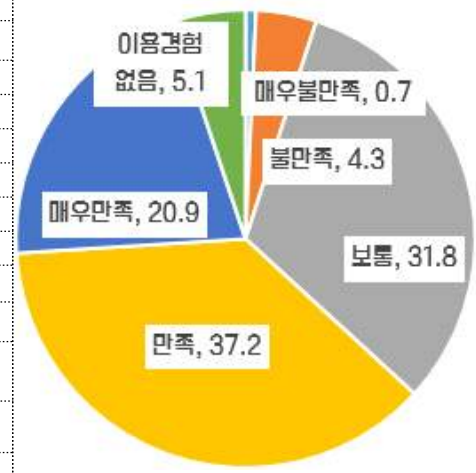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0	2	3
	%	2.2	0	4.3	2.2
불만족	명	0	0	0	0
	%	0	0	0	0
보통	명	6	19	21	46
	%	13.3	36.5	45.7	31.8
만족	명	16	20	10	46
	%	35.6	38.5	21.7	31.9
매우 만족	명	13	11	6	30
	%	28.9	21.2	13.0	21.0
이용 경험 없음	명	9	2	7	18
	%	20.0	3.8	15.2	13.0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직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58.1%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3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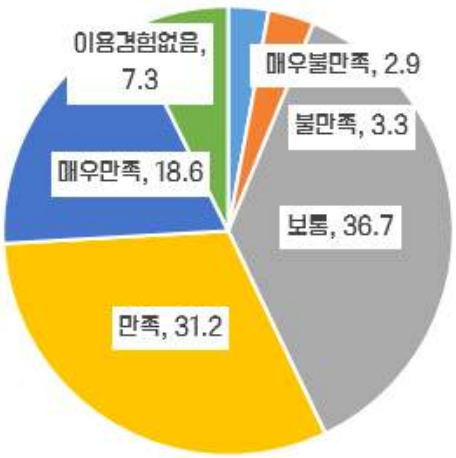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0	0	1
	%	2.2	0	0	0.7
불만족	명	0	1	5	6
	%	0	1.9	10.9	4.3
보통	명	6	19	21	46
	%	13.3	36.5	45.7	31.8
만족	명	22	19	12	53
	%	48.9	36.5	26.1	37.2
매우 만족	명	12	13	5	30
	%	26.7	25.0	10.9	20.9
이용 경험 없음	명	4	0	3	7
	%	8.9	0	6.5	5.1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브로슈어 등 전시안내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49.8%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3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1	2	4
	%	2.2	1.9	4.3	2.9
불만족	명	0	4	1	5
	%	0	7.7	2.2	3.3
보통	명	9	22	22	53
	%	20.0	42.3	47.8	36.7
만족	명	20	12	12	44
	%	44.4	23.1	26.1	31.2
매우 만족	명	9	13	5	27
	%	20.0	25.0	10.9	18.6
이용 경험 없음	명	6	0	4	10
	%	13.3	0	8.7	7.3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전시내용(전시, 소장 논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49.8%로 나타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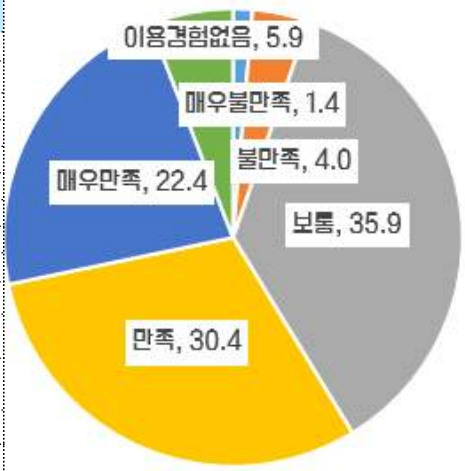
○ 기당미술관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3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1	0	2
	%	2.2	1.9	0	1.4
불만족	명	0	8	2	10
	%	0	15.4	4.3	6.6
보통	명	10	22	20	52
	%	22.2	42.3	43.5	36.0
만족	명	18	10	15	43
	%	40.0	19.2	32.6	30.6
매우 만족	명	11	11	6	28
	%	24.4	21.2	13.0	19.5
이용 경험 없음	명	5	0	3	8
	%	11.1	0	6.5	5.9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전시구성(동선, 조명, 배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52.8%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45.6%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1	0	2
	%	**2.2**	1.9	**0**	1.4
불만족	명	0	4	2	6
	%	0	7.7	**4.3**	4.0
보통	명	9	23	20	52
	%	20.0	44.2	43.5	35.9
만족	명	16	12	15	43
	%	35.6	23.1	32.6	30.4
매우 만족	명	14	12	6	32
	%	31.1	23.1	13.0	22.4
이용 경험 없음	명	5	0	3	8
	%	11.1	0	6.5	5.9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50.4%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4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2	0	3
	%	2.2	3.8	0	2.0
불만족	명	1	5	1	7
	%	2.2	9.6	2.2	4.7
보통	명	9	17	21	47
	%	20.0	32.7	45.7	32.8
만족	명	15	16	16	47
	%	33.3	30.8	34.8	33.0
매우 만족	명	9	11	5	25
	%	20.0	21.2	10.9	17.4
이용 경험 없음	명	10	1	3	14
	%	22.2	1.9	6.5	10.2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35.3%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2	6	9
	%	2.2	3.8	13.0	6.3
불만족	명	2	9	4	15
	%	4.4	17.3	8.7	10.2
보통	명	10	24	25	59
	%	22.2	46.2	54.3	40.9
만족	명	15	9	6	30
	%	33.3	17.3	13.0	21.2
매우 만족	명	11	7	2	20
	%	24.4	13.5	4.3	14.1
이용 경험 없음	명	6	1	3	10
	%	13.3	1.9	6.5	7.2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휴게시설(아트라운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쳐서 37.8%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5	5	11
	%	2.2	9.6	10.9	7.6
불만족	명	3	7	8	18
	%	6.7	13.5	17.4	12.5
보통	명	9	19	19	47
	%	20.0	36.5	41.3	32.6
만족	명	12	12	5	29
	%	26.7	23.1	10.9	20.2
매우 만족	명	11	8	6	25
	%	24.4	15.4	13.0	17.6
이용 경험 없음	명	9	1	3	13
	%	20.0	1.9	6.5	9.5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아트상품(문화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서 32.8%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암기념관이 17.4%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불만족	명	1	2	3	6
	%	2.2	3.8	6.5	4.2
불만족	명	1	6	8	15
	%	2.2	11.5	17.4	10.4
보통	명	15	22	24	61
	%	33.3	42.3	52.2	42.6
만족	명	11	11	4	26
	%	24.4	21.2	8.7	18.2
매우 만족	명	8	9	4	21
	%	17.8	17.3	8.7	14.6
이용 경험 없음	명	9	2	3	14
	%	20.0	3.8	6.5	10.1
전 체	명	45	52	46	143
	%	100.0	100.0	100.0	100.0

○ 서귀포시를 ‘미술관도시’로 구축하여 서귀포시 예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를 합쳐서 75.7%로 나타나 ‘미술관도시’로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당미술관 관람객은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를 합쳐서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섭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은 꼭 같은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를 합쳐서 73.9%로 나타났음.

구 분		기당	이중섭	소암	전 체
매우 반대한다	명	-	1	1	2
	%	-	2.2	2.2	1.4
반대한다	명	1	1	1	3
	%	1.9	2.2	2.2	2.1
보통	명	10	10	10	30
	%	19.2	21.7	21.7	20.8
찬성한다	명	23	14	14	51
	%	44.2	30.4	30.4	35.4
매우찬성한다	명	18	20	20	58
	%	34.6	43.5	43.5	40.3
전 체	명	52	46	46	144
	%	100.0	100.0	100.0	100.0

나. 미술관 별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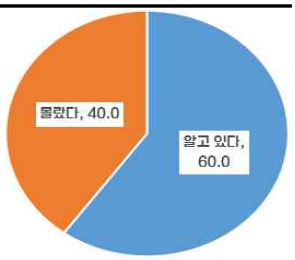
1) 기당미술관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 기당미술관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가 93.3%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당미술관 인지도	응답자 수(명)	비율(%)
알고 있다	42	93.3
몰랐다	3	6.7
합계	45	100.0

○ 기당미술관은 기당 강구범 선생님이 기부체납으로 건립한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입니다. 기당미술관에는 제주출신작가 '폭풍의 화가 변시지와 수암 강용범' 의 작품을 비롯한 근현대 거장들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93.3%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작가 전시 인지도	응답자 수(명)	비율(%)
알고 있다	42	93.3
몰랐다	3	6.7
합계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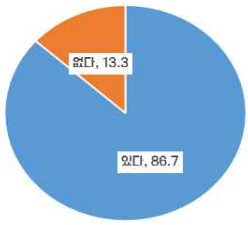


○ 기당미술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중복 선택)에 대하여는 서귀포에 있는 변시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게 나타남.

기당미술관에 대한 이미지	응답자 수(N)	비율(%)
서귀포에 있는 변시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	24	46.2
다양한 동시대미술 전시와 근 · 현대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	14	26.9
딱히 떠오른 이미지가 없고 미술관 성격을 모르겠다	11	21.2
기타	3	5.8
합계(중복 선택)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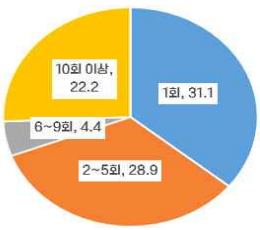
○ 기당미술관 방문 경험은 있다가 86.7%로 많게 나타남.

기당미술관 방문 경험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39	86.7
없다	6	13.3
합계	45	100.0



○ 방문 횟수에 대해서는 1회가 가장 많은 35.9%, 그 다음으로 2~5회가 33.3%로 나타남.

방문 횟수	응답자 수(명)	비율(%)
1회	14	35.9
2~5회	13	33.3
6~9회	2	5.1
10회 이상	10	25.6
합계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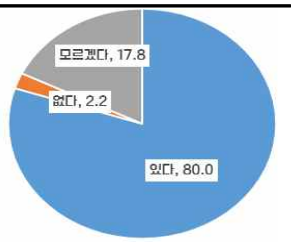


○ 기당미술관에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부분(중복 선택)은 변시지의 그림 등 상설전시가 26.1%로 가장 많게 나타남.

기당미술관 인상적인 부분	응답자 수(N)	비율(%)
변시지의 그림 등 상설전시	24	26.1
미술관 기획전시	18	19.6
기당미술관의 주변경치	17	18.5
미술관 건축물과 휴게공간	11	12.0
시내와 가까운 미술관의 위치	9	9.8
아트상품의 다양성	8	8.7
미술관 직원의 친절도	3	3.3
기타	2	2.2
합계(중복 선택)	92	100.0

○ 기당미술관에 대한 재방문 의향은 있다가 80.0%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재방문 의사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36	80.0
없다	1	2.2
모르겠다	8	17.8
합계	45	100.0



○ 기당미술관의 입장료에 대해 적당하다가 42.2%로 가장 많이 응답 했음.

입장료 금액에 대한 의견	응답자 수(명)	비율(%)
조금 비싸다	2	4.4
적당하다	19	42.2
그리 비싸지 않다	1	2.2
전혀 비싸지 않다	23	51.1
합계	45	100.0

○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가 80.0%로 나타나 대부분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응답자 수(명)	비율(%)
예	3	6.7
아니오	36	80.0
있는지 몰랐다	6	13.3
합계	45	100.0

○ 기당미술관의 전시를 다른 분에게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천한다가 53.3%로 절반이 넘었음.

전시를 다른 분에게 추천의사	응답자 수(명)	비율(%)
보통	9	20.0
추천한다	24	53.3
반드시 추천한다	12	26.7
합계	45	100.0

○ 향후 기당미술관에서 감상하고 싶은 작품은 제주지역 작가 작품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감상하고 싶은 작품	응답자 수(명)	비율(%)
변시지 작품	7	15.6
제주지역 작가작품	14	31.1
국내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작품	12	26.7
설치,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작품	11	24.4
기타	1	2.2
합계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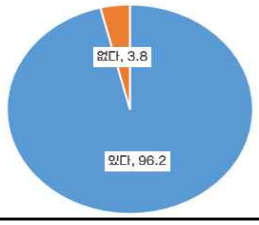
○ 기당미술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자유 의견)에 대하여 미술관 홍보가 가장 많은 7명이 의견을 제시했음.

기당미술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응답자수(N)
미술관 홍보	7
전시공간 확충	5
다양한 전시작품	4
다양한 전시콘텐츠 개발	3
카페시설	3
휴게시설 확충	3
삼매봉도서관과의 연계방안	2
전시 환경개선	2
연령대별 프로그램 확대	1
공공근로 확대	1
청년예술가 작품 활용	1
개관 시간연장	1
전문인력 확충	1
합계(자유 의견)	34

2) 이중섭미술관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96.2%로 대부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음.

이중섭 작품 본 적이 있는지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50	96.2
없다	2	3.8
합계	52	100.0



○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본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중섭 미술관이 42.0%로 가장 많이 응답했음

이중섭 작품 본 곳	응답자 수(N)	비율(%)
이중섭미술관	21	42.0
TV · 신문	11	22.0
인터넷	7	14.0
타 미술관(ex. 국립현대미술관 등)	9	18.0
기타	2	4.0
합계	50	100.0

○ 서귀포시에 이중섭미술관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94.2%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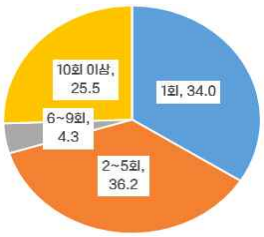
이중섭 미술관 인지도	응답자 수(명)	비율(%)
알고 있다	49	94.2
몰랐다	3	5.8
합계	52	100.0

○ 이중섭미술관 방문 경험은 있다가 90.4%로 많게 나타남.

방문 경험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47	90.4
없다	5	9.6
합계	52	100.0

○ 방문 횟수에 대해서는 1회가 가장 많은 34.0%, 그 다음으로 2~5회가 36.2%로 나타남.

방문 횟수	응답자 수(명)	비율(%)
1회	16	34.0
2~5회	17	36.2
6~9회	2	4.3
10회 이상	12	25.5
합계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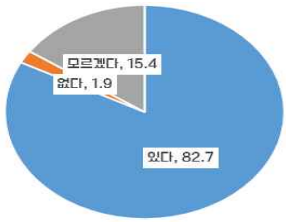


○ 이중섭미술관에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부분(중복 선택)은 이중섭의 그림 등 전시작품이 36.6%로 가장 많게 나타남.

인상적인 부분	응답자 수(N)	비율(%)
이중섭의 그림 등 전시작품	41	36.6
이중섭거주지와 이주업거리가 있는 점	34	30.4
미술관 건축물	4	3.6
이중섭 공원	8	7.1
시내와 가까운 미술관의 위치	15	13.4
아트상품의 다양성	5	4.5
미술관 직원의 친절도	2	1.8
미술관 기획전	3	2.7
합계	112	100.0

○ 이중섭미술관에 재방문 의사는 있다가 82.7%로 나타남.

재방문 의사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43	82.7
없다	1	1.9
모르겠다	8	15.4
합계	52	100.0



○ 이중섭미술관에 대하여 알게 된 경로(중복 선택)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가 26.4%로 가장 많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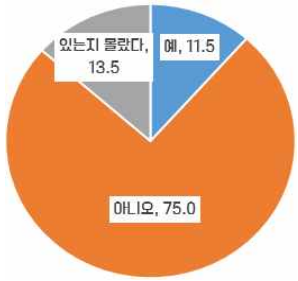
이중섭미술관 알게된 경로	응답자 수(명)	비율(%)
팩스공문 및 안내장	1	1.4
타 블로그 및 카페후기	4	5.6
옥외 광고물(현수막, 포스터 등)	5	6.9
미술관 관계자	7	9.7
기타	7	9.7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	9	12.5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	10	13.9
지인의 소개	10	13.9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	19	26.4
합계(중복 선택)	72	100.0

○ 이중섭미술관을 관람한 가장 큰 이유는 48.1%로 가장 많게 나타남.

관람한 가장 큰 이유	응답자 수(명)	비율(%)
이중섭이 국민화가로 유명해서	25	48.1
이주섭 미술관이 유명한 관광지라서	9	17.3
지인의 추천했기 때문	1	1.9
학교 · 동호회 등 단체관람	3	5.8
인근 관광지 또는 목적지와 연계해서	8	15.4
교육 및 체험 목적	4	7.7
기타	2	3.8
합계	52	100.0

○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가 75.0%로 나타나 대부분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참가 경험	응답자 수(명)	비율(%)
예	6	11.5
아니오	39	75.0
있는지 몰랐다	7	13.5
합계	52	100.0



○ 이중섭미술관의 전시를 다른 분에게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천한다가 55.8%로 전반이 넘었음.

다른 사람에게 추천 여부	응답자 수(명)	비율(%)
결코 추천하고 싶지않다	2	3.8
추천하고 싶지않다	1	1.9
보통	10	19.2
추천한다	29	55.8
반드시 추천한다	10	19.2
합계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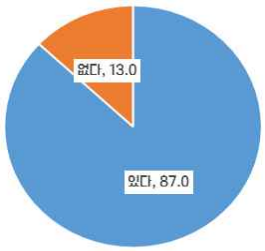
○ 이중섭미술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자유 의견)에 대하여 전시작품 확충이 가장 많은 9명이 의견을 제시했음.

바라는 개선사항	응답자수(N)
전시작품 확충	9
다양한 전시콘텐츠 개발	6
홍보	4
전시공간 확충	4
연계방안 강구	3
교육프로그램 확대	2
이중섭 관련 상품 개발	2
전문인력 충원	2
관람시간 연장	2
주차시설 확충	2
예술가 지원사업	1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1
합계(자유 의견)	38

3) 소암기념관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 소암기념관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가 87.0%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암기념관 인지 여부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40	87.0
없다	6	13.0
합계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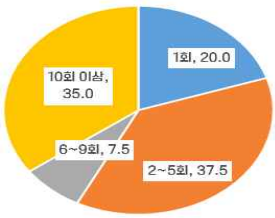


○ 소암기념관 방문 경험은 있다가 87.0%로 많게 나타남.

소암기념관 방문 경험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40	87.0
없다	**6**	13.0
합계	46	100.0

○ 방문 횟수에 대해서는 2~5회가 가장 많은 37.5%, 그 다음으로 10회 이상이 35.0%로 나타남.

방문 횟수	응답자 수(명)	비율(%)
1회	8	20.0
2~5회	15	37.5
6~9회	3	7.5
10회 이상	14	35.0
합계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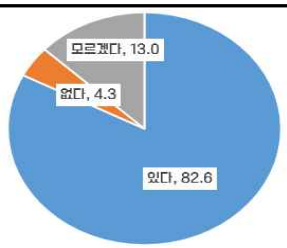


○ 소암기념관에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부분(중복 선택)은 소암의 서예작품 등 전시 작품이 42.7%로 가장 많게 나타남.

인상적인 부분	응답자 수(N)	비율(%)
소암의 서예작품 등 전시작품	35	42.7
소암기념관의 주변 경치	11	13.4
기념관 건축물	7	8.5
시내와 가까운 기념관의 위치	10	12.2
아트상품의 다양성	2	2.4
미술관 직원의 친절도	4	4.9
미술관 기획전	10	12.2
기타	3	3.7
합계(중복 선택)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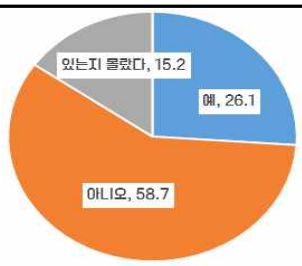
○ 소암기념관에 대한 재방문 의향은 있다가 82.6%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의사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38	**82.6**
없다	2	4.3
모르겠다	6	13.0
합계	46	100.0



○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가 58.7%로 나타나 대부분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참가 경험	응답자 수(명)	비율(%)
예	12	**26.1**
아니오	27	58.7
있는지 몰랐다	7	15.2
합계	46	100.0



○ 향후 소암기념관에서 감상하고 싶은 작품(중복 선택)은 동향화, 민화 등 고미술 관련 전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감상하고 싶은 작가 작품	응답자 수(명)	비율(%)
소암 현중화 관련 전시	20	24.4
국내외 서예 관련 전시	17	20.7
제주의 서예사 관련 전시	13	15.9
동양화, 민화 등 고미술 관련 전시	22	26.8
현대 서예 등, 현대미술 관련 전시	10	12.2
합계(중복 선택)	82	100.0

○ 소암기념관의 전시를 다른 분에게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천한다와 반드시 추천한다가 69.5%로 절반이 넘었음.

다른 사람에게 추천 여부	응답자 수(명)	비율(%)
결코 추천하고 싶지않다	2	4.3
추천하고 싶지않다	1	2.2
보통	11	23.9
추천한다	22	47.8
반드시 추천한다	10	21.7
합계	46	100.0

○ 소암기념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자유 의견)에 대하여 다양한 작품 전시가 가장 많은 6명이 의견을 제시했음.

소암기념관 개선사항	응답자수(N)
다양한 작품 전시	6
홍보	4
박물관 구조 개선	3
주차시설	2
휴게시설	2
획기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	2
가족 프로그램 확대	2
체험 프로그램 확충	2
소장 및 기증된 작품 전시	2
해설사 필요	2
입장권과 연계한 관광지 할인	1
제주 서예가 초대전 개최	1
서예 교육 필요	1
카페운영 필요	1
합계(자유 의견)	31

7장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비전 및 중장기 운영방향

제1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199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SWOT 분석/216
제3절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비전 및 정책목표/219
제4절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중장기 추진과제(세부)/222

제1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1. 관련 계획 검토

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

■ 수립년도 및 계획기간

제1차	2002년 ~ 2011년(10개년)	완 료	
제2차	2012년 ~ 2021년(10개년)	진 행	2017년~2021년(3개년) 추진 중
제3차	2022년 ~ 2031년(10개년)	시행계획	

■ 문화예술 발전계획과 관련

○ 제주 문화예술 비전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창조도시”

○ 장기비전 “문화의 천국(Cultupia : Culture+Utopia) 제주”

○ 계획의 목표

-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체험형 콘텐츠 창조

○ 문화예술 발전전략

- 차별화·글로벌화·교류 활성화·융·복합화

○ 추진과제

① 제주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창조적 활용

② 문화예술 진흥과 국제교류 활성화

-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활동 독려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문화촌 조성
-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옛 제주대병원과 한짓골 중심
-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 문화예술대전, 탐라문화제, 국제관악제, 마을제, 신당놀이 등
-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 한·중·일 서예 비엔날레 개최 및 서예특구 지정

- 국제 폰트(서체)디자인 연구소 유치
- 국제미술기구 유치

③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과 배움 문화 확산

• 문화 메세나운동 확대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문화예술 교육 강화

④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전담조직 신설 및 지원제도 마련
- 대학, 전문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
• 문화테마거리 선정
- 영상촬영, 문화활동 특화거리, 문화산업진흥지구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한·중·일 문화 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⑤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스토리텔링 DB화
• 제주여성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주 체험 콘텐츠 개발(RFID/USN 기술 적용 제주 문화 콘텐츠)
• 인문학 사이버박물관 구축
• 사이버이어도 구축(디지털 제주해양문화관 및 아카이브)

나. 제주미래비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 연계

<그림7-1> 제주미래비전 체계

■ 수립년도 : 2016년 2월

■ 계획기간 : 단기(2015~2019), 중기(2020~2030), 초장기(2030년 이후)

■ 제주미래비전의 성격

○ 「제주미래비전」은 도민이 중심이 되어 범 도민이 공감하는 개방과 소통의 주민 중심 참여형 계획

○ 제주도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최상위 지침 성격의 계획

○ 핵심가치와 중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계획

■ 핵심가치와 중심가치

핵 심 가 치	중 심 가 치
청 정(淸淨, purity, clarification)	자연, 치유, 휴양, 건강
공 존(共存, co-existence)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

■ 휴양·관광 부문의 목표는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이며 추진 전략 4개를 제시

○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 문화·교육·복지 부문의 목표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문화·교육·복지 제주' 이며 추진전략은 4개를 제시함

○ 문화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 제주 공감공동체 만들기

○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양성

○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

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 2017년 4월 수립

■ 계획목표

○ Green Nature; 세계환경수도로서 위상확립

○ Creative Growth; 새로운 창조성장의 모델 제시

○ Global Destination; 세계적 체류휴양 관광중심지 육성

○ Human Network; 도민과 함께하는 균형 있는 지역재생

■ 추진전략

Green Nature 세계환경수도로서 위상확립

○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 제주만들기

- 핵심생태자원 공유화, 주요자연자원 경관관리 등 제주 생태환경 보전
- 생태녹지회랑 및 생태 핵심지역 설정, 생태통로 확보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

○ 자연정체성이 강화된 세계환경모델 도시만들기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성장 도시
- 글로벌 환경·생태브랜드 구축, 세계환경수도조성 등으로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선도적 역할 마련

○ 공해, 화석연료 없는 Carbon Free Island

- 전기자동차 운영, 신교통수단 설치 등으로 화석연료 없는 도시 조성
- 깨끗한 물·공기·먹거리가 많은 삼다도/쓰레기·공해·화석연료 없는 삼무도 조성

Creative Growth 새로운 창조성장의 모델 제시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식창출 거점도시 만들기
- 국제교류 및 영어교육도시, 특화산업 기반 동북아 최고의 교육허브 만들기
- 생활다양성 기반 BT산업 및 IT/CT 등 지식기반 R&D산업 강화

○ 환경가치 등을 활용한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 용암해수 융합산업 등 제주형 창조산업으로 육성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추진,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산업 메카로 조성

○ 고부가가치 6차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 경쟁력을 갖춘 1차산업의 가공·제조, 관광·체험 융합을 통한 6차 산업화
- 제주 청정환경에 부합하는 차세대 아열대·한방작물 발굴

Global Destination; 세계적 체류휴양 관광중심지 육성

○ 4계절이 상존하는 세계최고 휴양도시 만들기
- 체류·체험 등을 위한 다양한 테마형 관광지 조성

○ 도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제주방언, 초가집, 청정해역, 지하수, 한란 등 유형·무형의 문화·자연자원을 보전·계승하고 이들 지역자원을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한류·MICE 기반의 국제회의·문화예술섬 만들기
- 휴양관광과 연계한 MICE산업육성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국제회의 거점도시화)
- 문화귀촌 지원, 문화예술올레, 문화·공연산업 활성화 등 문화예술섬 조성

Human Network 도민과 함께하는 균형있는 지역재생

○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지속가능 제주 만들기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자연과 함께 번영

○ 도시이미지 구축을 통한 세계속의 제주 정체성 만들기
- 알뜨르 비행장 등 구 일본군 군사시설, 4.3유적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평화교육기능 강화 및 「세계 평화의 섬」이미지 제고
- 도시, 마을, 골목, 건축물까지의 제주 표정 만들기를 통한 도시이미지 강화

○ 자율적 공동체로 스스로 만드는 도시재생 실현하기
- 공공지원,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강화
- 제주 원도심활성화, 서귀포 지역중심성 강화, 농촌 정주여건 조성 등 도시재생 실현

<그림7-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 도시재생계획

서귀포시 도심권

○ 목표: 도심 중심성 강화 및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반 강화

-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국제교류도시 조성으로 도심 유동인구 증진
-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도시 기능 강화
- 도심관광거점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을 통한 경제 재생

라.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문화기본법

■ 2019년 2월 수립

■ 계획수립 배경

○ 문화비전 2030은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삼아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음.

○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 즉 사람이 있는 문화를 기조로 비전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개방형 문화정책 보고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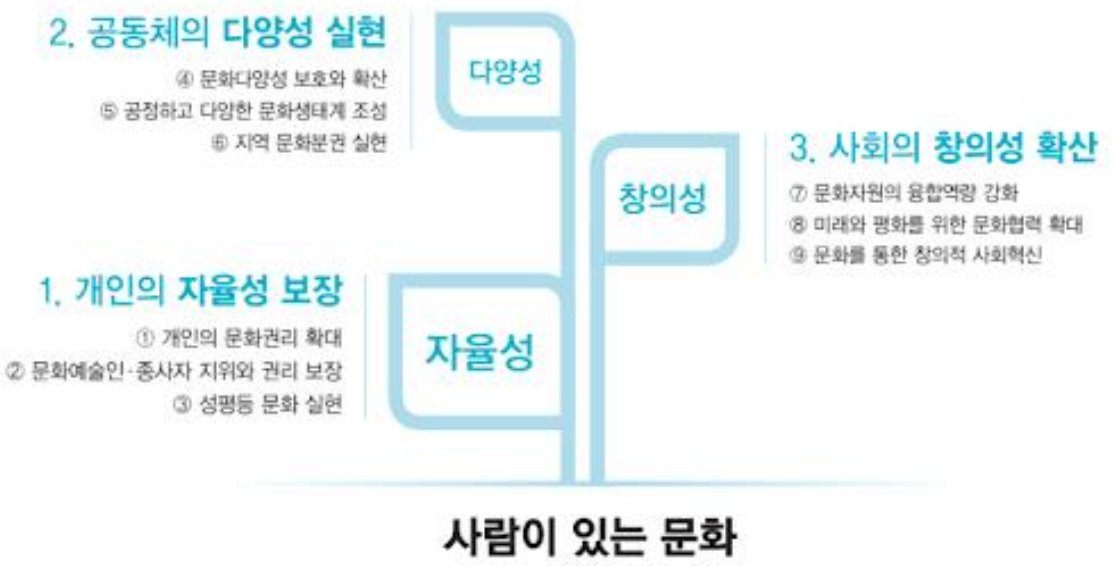
■ 정책비전 :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은 사람 자체의 존재, 사람 안에 내재한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성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3대 가치와 체계

○ 자율성의 가치 ○ 다양성의 가치 ○ 창의성의 가치

<그림7-3>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3대 가치



■ (지자체 사례) 서울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5개 범주별 미래상과 10대 추진과제

<그림7-4>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5개 범주·10대 추진과제

자료: 서울특별시

마.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 수립년도 및 계획기간

제1차	2015년 ~ 2019년(5개년)	완 료
제2차	2020년 ~ 2024년(5개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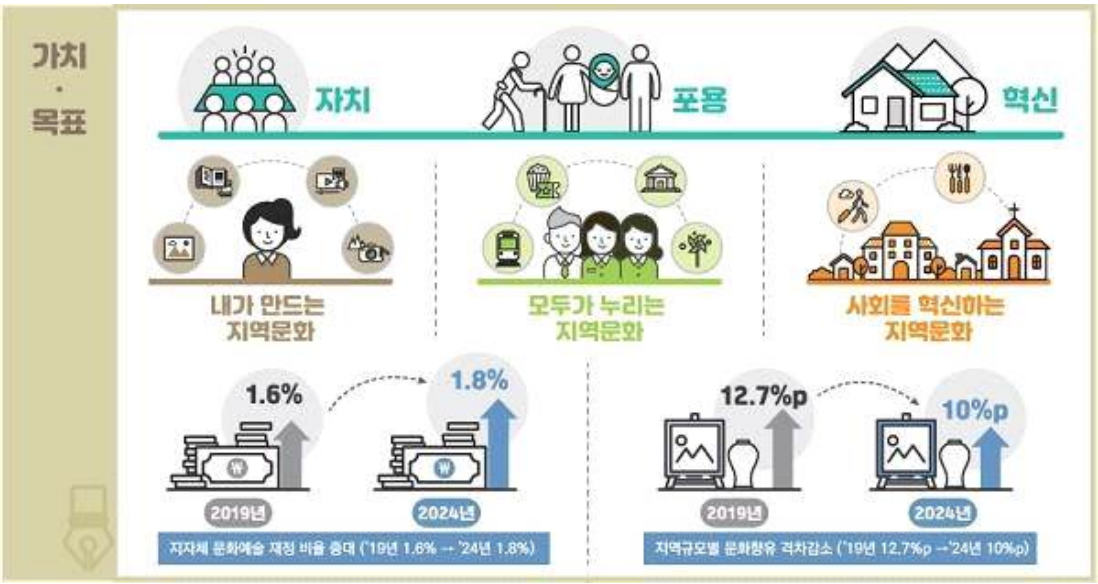
■ 계획의 배경 및 목표

○ 문체부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음.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중앙정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핵심과제(2020~2024)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도출.



<그림7-5>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가치와 목표

<그림7-6>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핵심과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지역문화 종합지수’

○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

○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바. 미술관진흥중장기계획(2019~20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 2019년 6월 수립, 동년 7월부터 시행

■ 계획수립 배경

○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 지난 2017년 9월에 박물관과 미술관 담당 부서를 ‘문화기반과’로 일원화 했고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문체부 문화기반과장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 속 “박물관·미술관이 국민이 더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일상생활 속의 문화시설로 자라 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문 발표.(서울경제, 2019.6.24.일자)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 현재 박물관을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눈 제1종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 추진.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하기로 함.

○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

○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함.

○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 소장품 수장고의 경우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 기술 지원·확대.

사.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019~20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51조 및 제25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계획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제주미래비전 등 지역 상위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실천적 관광정책을 수립한 것임.

■ 2019년 1월 수립

■ 비전: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 수립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제주도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019~2023)을 수립

○ 메가투어리즘시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수용력문제를 진단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질적 성장으로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그림7-7>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의 목적

○ 중장기 제주관광의 목표설정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도민이 행복한 관광지로서 제주관광정책 방향 설정,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적 가치제고, 정부의 관광정책과 연계방안 마련

2. 관련 법규 검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법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제2차)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2019-11-20 제정)
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3.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설치)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문화정책의 주류화' 강조. 하부 실행 전략으로는 '문화시설 공간의 창출', '문화예술 재정 확충', '인력 양성과 체제 정비', '문화복지 지속 확대'를 제시함.
제257조의3 (문화예술의섬조성)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문화예술시장의 조성 기반 구축 7.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정책목표 ❸ 3관 통합 디지털미술관 운영 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❺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법 제2조 (정의)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0.>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법 제23조 (도시·군기본계획의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정비(2017년 4월)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정책목표 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다. 문화기본법(2014년 3월 제정·시행)

(참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과 방향성 제시

「문화기본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원리 안에 '문화권'을 국민기본권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위한 국가 책임과 문화정책 방향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다양성'은 국제사회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적 이념에 맞추어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사회 참여와 커뮤니티 간 상호교류를 시도하는 비주류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하는 법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사람이 있는 문화_문화비전2030' 수립(관련 계획에 따른 서울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5개 범주별 미래상과 10대 추진과제 참조)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정책목표 ❷ 전문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문화향유 실태조사 등)

라.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

_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지역문화현황통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법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2018-12-31 제정) 연계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법 제18조 (문화지구의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함.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2012-04-06 제정) 참조 정책목표 ❷ 전문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❺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마. 문화예술진흥법(2019년 9월 시행)

_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외)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제2조 (정의_문화시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2020-01제정) ☞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 재보수 지원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시설과 관련: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문화기반시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복지부)' 촉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시설 실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열린 환경 조성을 선도해야 할 것. 정책목표 ❶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19년 11월 일부 개정/2020년 5월 시행)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법 제5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미술관 운영방안 모색
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제9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개정 2008. 2. 29.> 1.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법」,「도서관법」 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미술관진흥중장기계획(2019~2023)에 의거 문체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 지난 2017년 9월에 박물관과 미술관 담당 부서를 '문화기반과'로 일원화 했음.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 ☞박물관과 미술관 담당 부서'문화기반과'로 일원화+지역 문화기반시설 협력망 구축 정책목표 ❶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❷ 전문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❸ 3관 통합 디지털미술관 운영 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2018-02-28 제정)

관련법규	주요 검토 내용
제69조 (관광진흥계획의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행복을 키우는 청정 휴양관광도시, 제주'(2019년~2023년)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발전방안 **시사점**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둔 관광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물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경쟁력 강화 모색 ☞(목표)고부가가치 청정휴양 관광상품 개발과 수익 증대,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시장 유치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과 촉진 정책목표❸ 3관 통합 디지털미술관 운영 ❺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SWOT 분석

■ SWOT 분석

S(강점)	W(약점)
○ 뛰어난 자연경관 ○ 바다와 올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음 ○ 서귀포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방문지로서 선호도가 높음 ○ 국제회의와 청정휴양 기반시설 확충 ○ 지역민들의 문화수요가 높음 ○ 초·중·고교 인접함 ○ 이중섭미술관 인지도·관심도가 높음 ○ 서귀포시 중심에 있어 접근성 용이	○ 문화예술계 인적 자원 부족 ○ 미술관의 지역과의 연계성 약함 ○ 이중섭미술관은 지명도에 비해 대표 작품 부재, 기당과 소암은 지역 색채가 강함에 비해 전국적 인지도가 낮음. ○ 미술관 내 유휴공간 부족 ○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획일화 ○ 전담인력과 운영 예산 부족 ○ 홍보 전략 및 홍보 채널 부족 ○ 미술관 방문객 수 감소 추세
O(기회)	**T(위협)**
○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융합한 글로컬 미술관 산업(미디어아트, 예술축제 등)으로 도약 가능성 ○ 서귀포시 중심에 있어 인근 주민 및 문화 기반시설, 야외공원 등과 연계성 높음 ○ 국민화가 이중섭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관심 유도 ○ 지역산업과 연계한 상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풍부한 지역자원을 이용한 차별성 있는 미디어산업 선점 가능성	○ 미술관 패러다임의 변화(문화다양성) ○ 박물관·미술관 난립으로 공립미술관의 차별성 떨어짐 ○ 공립미술관의 시설·조직·예산·컨텐츠 등 경쟁력 떨어짐 ○ 국제회의 도시임에도 미술관 내 외국어 서비스 부재로 국제적 위상 정립의 한계 ○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미술관 방문 선호도나 체류 시간이 짧음 ○ COVID-19 여파로 관광산업의 위축 장기화 전망

■ SO/WT 분석

조직 외부의 기회·위협 요인과 조직내부의 강·약점 요인을 교차시켜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활용하는 SO공격전략(강화전략)과 약점을 보강하고 위협 요인을 극복하는 WT방어전략(해소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SO 공격(강화)전략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 시내 중심에 있고, 주변에 자연자원과 문화시설이 풍부하여 다양한 형태의 미술관 운영(공간적 이동, 시간적 변화)이 가능함.

○ 서귀포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명소이자 국제적인 휴양관광지로서 다양한 문화향유 계층이 방문하는 곳임. 관광명소와 연계한 미술관 내 편의시설 및 외국어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지역정보(예: 미디어 아트로 보는 서귀포)를 제공하여 오래 머물 수 있는 힐링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음.

○ 서귀포 지역민들의 문화수요가 높은 편임으로 지역 자생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 참여 지역미술관 정책을 펼칠 수 있음.

■ WT 방어(해소)전략

○ 서귀포시권에 박물관・미술관 난립으로 공립미술관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시설・조직・예산・콘텐츠・방문객 수 비교에서 경쟁력 순위가 중하위권에 놓여 있음. 이에 행정이 개입하여 과감한 조직 개편과 비전 제시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UNWTO(세계관광기구)는 COVID-19 사태 여파로 향후 관광산업 위축이 장기화를 예측하고 있음. 이는 제주도 관광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에서 미술관 장기간 폐관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미술관을 개관해도 관람객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른 방어(해소)전략으로,
미술관 자체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스타트 업 준비를 해야할 것임.
특히 전문성(수집・보존・조사・연구)과 공공성(수요자 중심의 전시・자료공개・교육・나눔) 분야에 역점을 두어,

- 조직 개편, 미술관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담인력 충원
- 소장품 확대
- 3관 통합 홈페이지(HP) 제작 및 서비스 개시
- 디지털미술관 콘텐츠 구상 및 운영(전시영상제작,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소장품 카드, 연보 제작, 및 운영체계 확립, 고객 관계 마케팅, 온라인 아트숍 운영)
- 도내・외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환,
- 온라인 미술학교
- 미술관 주도 제주도민 및 관광객의 미술관 문화향유실태 파악(갱신) 등

분야별 주요사업 내실화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이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술관으로서 체제 전환을 전제로, 지역미술관으로서 다원성(관광・체험・힐링) 기능 강화, 나아가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으로 이어져 서귀포시 문화관광산업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제3절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
목 표	생태자연과 융합한 문화예술의 선진화 문화향유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운영방향	○ 수요자 중심의 문화 복지형 미술관 ➢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문화향유시설 ○ 자치권 신장을 위한 창조형 글로컬 미술관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의 도입 ○ 동북아의 중심 축으로 도약하는 미술관 ➢ 외국 유수의 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 ○ 생태자연과 어우러진 발견과 힐링 미술관 ➢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의 가치창출

▼△

정 책 목 표

❶	❷	❸	❹	❺
서귀포시공립 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전문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3관 통합 디지털미술관 운영	글로컬 문화도시 · 지역 사회 네트워크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

추 진 과 제

•공립미술관의 비전 도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미술관 조직·운영 체계 확립 •미술관 소장품 수집과 관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서귀포 독자적인 시각문화 이미지 구축 •도내 미술관 네트워크 연구 강화(조사·연구·전시·출판)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술관 시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on/off라인 신매체 융복합 전시기법 개발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디지털미술관 운영 •미술관 3관 MI 및 아트상품 개발 •연보(年報)발간 및 온라인 공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빅데이터형 관람객 전수조사 •아웃리치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미술관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지역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확충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전문성 (수집·보존·조사·연구)		공공성 (수요자 중심의 전시·공개·교육·나눔)		다원성 (관광·체험·힐링)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

○ 목표:

➢ 생태자연과 융합한 문화예술의 선진화

➢ 문화향수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2. 운영방향

○ 수요자 중심의 문화 복지형 미술관

➢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문화향유시설

○ 자치권 신장을 위한 창조형 글로컬 미술관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의 도입

○ 동북아의 중심 축으로 도약하는 미술관

➢ 외국 유수의 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

○ 생태자연과 어우러진 발견과 힐링 미술관

➢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의 가치 창출

3. 정책목표의 설정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우수 콘텐츠 생산

○ 통합(3관) 디지털미술관 운영

○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4. 추진과제

○ 정책목표❶ 서귀포시공립 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 공립미술관의 비전 도출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미술관 조직·운영 체계 확립
- 미술관 소장품 수집과 관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 정책목표❷ 전문 인력은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서귀포 독자적인 시각문화 이미지 구축
- 도내 미술관 네트워크 연구 강화(조사·연구·전시·출판)

-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술관 시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 정책목표❸ 통합(3관) 디지털미술관 활성화
- on/off라인 신매체 융복합 전시기법 개발
-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 디지털미술관 운영
- 미술관 3관 MI 및 아트상품 개발
- 연보(年報)발간 및 온라인 공개

○ 정책목표❹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네트워크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 빅데이터형 관람객 전수조사
- 아웃리치(Outreach)[12]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 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공공성 강화)

○ 정책목표❺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 미술관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지역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확충
-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12) Outreach: 영어로 손을 뻗는다는 의미.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원조/지원] 활동. 공공기관의 현장출장 서비스.

제4절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중장기 추진과제(세부)

1. 정책목표❶ 서귀포시공립 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가. 공립미술관의 공공성 및 정체성, 비전 도출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

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미술관 조직·운영 체계 확립

○ 전문 관장 채용(책임운영제)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향상 도모

○ 추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 방문객 관리: 정기적인 방문객 데이터(visitor data) 수집과 분석. 이를 바탕으로 on/off라인 미술관 운영 전략 및 지원 체계 구축.

○ 매해 증가하는 미술관(박물관)의 양적 확대와 비례하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장 중심의 정책연구팀 가동.

다. 미술관 소장품 수집과 관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미술관의 경쟁력은 수집한 소장품이 좌우함. 미술관 3관 각 정체성에 부합한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야 함.

> 미술관의 본색과 저력은 수집하는 소장품에서 드러난다. 어떤 작품을 소장하느냐가 곧 미술관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그 대표 소장품을 보기 위해 관람객이 찾아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했다 72일 만에 문 연 대형 공립미술관들이 야심차게 기획한 소장품 전시를 공개했다.
> 출처: 다시 문 연 공립미술관 '소장품 열전'(서울경제, 2020-05-11)

○ 소장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활용의 다각화를 위해 미술관 자체 내 체계적인 소장품 DB구축.

○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협력망 사업 강화. 이 맥락에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소장품 등록 여부 자체 심의 후 실행.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 주관 : 국립중앙박물관
- 개용 :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
- 목적 : 공·사립박물관 소장품 DB구축 지원을 통해 국가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개선, 소장품 활용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용도 : 소장품 전산 관리, 기관 간 소장품정보 공유, 소장품 정보의 대국민 공개
- 내용 : 소장품 등록(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현황 : ('15년) 35개관 60명, ('16년) 59개관 88명, ('17년) 71개관 118명
- 추진절차 : 공·사립박물관 대상 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 → DB구축 인력 공모, 선정

자료: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및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중장기적 소장품 수집·관리 및 수장고 운영에 따른 단계별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확보

라.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과 교육

○ 학예, 행정, 경영, 국제교류, 고객관리, 연구출판, 마케팅, 홍보, 교육, 레지스트라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비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 마련(창작스튜디오 포함).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기에 선발.

<표7-1> 미술관 업무의 종류 및 인력 유형

업무의 종류	인력 유형
박물관 경영	관장(Director) 부관장(Deputy Director/Vice president/Assistant director) 개발관리임원(Development officer)
소장품 연구관리	학예사(Curator) 전시디자이너(Exhibition Designer) 전시개발자(Exhibition planner) 전시작성자(Exhibition preparator) 등록담당원(Registrar) 보존처리사(Conservator) 보존처리과학자(Conservation scientist) 소장품관리자(Collection manager) 소장품등록관(Archivist)
교육, 홍보	교육담당자(Educator) 도슨트(Docent) 마케팅매니저(Marketing manager) 미디어매니저(Media manager) 홍보섭외담당자(Public Relations Officer)

	편집자(Editor) 사서(Librarian) 정보담당 매니저(Information manager) 미술관회원담당자(Membership Officer) 사진기사(Photographer)
운영, 관리	재정담당직원(Financial officer) 법률고문(Attorney) 의료담당직원(Health officer) 인력관리담당자(Personnal director) 안전담당소장(Security chief) 자원봉사관리자(Volunteer Coordinator) 뮤지엄숍매니저(Museum shop manager)

자료: Jane R, Glaser&Artemis A, Zenetou, 『Museum:A Place to Work Plan』

○ 관장, 전문인력, 예비인력, 학예, 교육 부문을 포함한 전문경영,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고객관리, 연구출판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심화・확대 운영 ☞ 국립현대미술관 중심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를 통한 지원

<표7-2> 미술관 업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안)

구분	대상	분 야
관장	박물관· 미술관장	• 박물관·미술관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 비영리기관 운영전략 등 CEO 전반 교육 커리큘럼
전문 인력	학예·교육· 행정·홍보 등 실무인력	• 박물관・미술관 행정, 세무회계 관련 특화교육 • 비영리기관 경영과 후원활성화 관련 특화교육 • 국제교류 특화교육 • 전시, 교육, 소장품, 보존·복원, 연구출판 관련 특화교육 •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서비스 관련 특화교육 • 언론, 광고, SNS 등 홍보마케팅 관련 특화교육 • 빅데이터 활용, 기술기반 전시·교육 관련 특화교육
예비 인력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졸업생	•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 기본교육 • 소장품 수집·관리, 보존, 복원 관련 기본교육 • 홍보·마케팅 관련 기본교육

자료: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미술관 예비전문인력 프로그램

- 인턴쉽 과정(학예사 인증제도에 따른 큐레이터 인턴쉽 과정을 제주도립미술관과 협의하여 개설 운영)
- 도슨트 교육(현재 문화 해설사에 의존하기보다 전시 해설에 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도슨트를 모집, 선발, 양성하여 미술관 대민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미술을 애호하는 시민층을 확보)

· 미술교육 외부강사 연수 프로그램(미술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할 외부 강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연수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2. 정책목표❷ 전문 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서귀포 독자적인 시각문화 이미지 구축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미술 주제 콘텐츠의 조사・연구・전시・출판・제작・유통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서귀포시 자연경관과 공립미술관의 미술 주제 콘텐츠의 혁신적 융합을 통한 서귀포만의 독자적인 시각문화 이미지 구축.

○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출판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어 출판의 사업화와 연구의 전문화, 이를 통한 홍보 활성화 및 이미지 보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해외 출판 유통사업 활성화 참고사례

▶ **영국, 테이트 엔터프라이즈, 테이트 퍼블리싱(Tate Publishing)**
- 연간 약 55권 이상 출간, 평균 3천~4천부 인쇄
- 서적유형은 주로 전시 관련 출판물(연간 약 20권 내외)과 컬렉션 관련 도서(연간 약 12~15권),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 가이드북, 어린이 대상 서적 등
- 미술관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 서점에 유통

▶ **싱가포르, 내셔널갤러리**
-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시각예술 관련 도서 출판을 중심으로 출간되며 박물관 내 서점 외에 싱가포르 서점과 Amazon.com을 통해 유통됨
-

자료: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나. 도내 미술관 네트워크 공동연구 강화(조사·연구·전시·출판)

○ 박미법 제33조에 따라 국・공・사립 대학, 관련 학회 등 공동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미술관 공동 연구기능 강화

○ 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동연구, 공동전시 기획,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전문인력 공동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 분야 발굴 및 확대.

○ 외부 기관과의 협력한 연구의 기능 강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예산 절약. 제주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타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큐레이터협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관련학회 등 전문가 학회와 협력하여 학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 또는 교육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다.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술관 시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기설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술관 시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 정보 시스템 내에서 박미법 등록요건인 학예인력, 전시시설, 수장고 면적, 기타 시설 여부, 소장품 개수 등의 정보를 포괄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관리 강화

3. 정책목표❸ 통합(3관) 디지털미술관 활성화

가. on/off라인 신매체 융복합 전시기법 개발(예술과 기술의 융합)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어 스마트폰,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디에서나 미술관과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돌입하고 있음.☞ 다원화된 전시체제 구축과 시너지 효과 창출.

○ 해외 주요 미술관의 경우, 디지털전시실 구축, VR, AR, 등의 실감형 콘텐츠가 제작・보급되어 관람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 **해외 박물관, 미술관 디지털 기술 사용 사례**
> * 대영박물관 : 시대별·지역별·주제별 소장품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 'Museum of the World' 개설('15년), 박물관 내부 가상투어 디지털콘텐츠 제공
> * 영국 자연사박물관 : 소장품 3D 디지털화, 공개, 디지털화된 표본을 통한 각종 연구
> * 중국 고궁박물원 : AI, VR, 음성식별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 전시 개최

○ 국립기관 중심의 스마트 미술관 구축과 전시서비스 고도화 및 소장품 디지털 콘텐츠 활용화를 통해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과 시스템 지원. ※ 비콘(근거리 통신기술) 기반의 '가이드 투어' 및 '작품안내서비스 제공'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나.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디지털 문화플랫폼으로서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콘텐츠 구성과 운영체계를 밀도 있게 구축하여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

○ 검색 기능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미술관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율 제고

○ 플랫폼 내 각종 SNS 매체 또한 병행 운영

다. 디지털미술관 운영

○ 미술관 3관 상설전시 및 기획전/특별전 온라인 송출

○ 미술관 3관 별 작가 및 예술작품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 및 공개하여 방문객 유도와 공공이용율을 높임.

○ 미술관 3관 통합 소장품 카드 및 도록, 연보 등 미술관 자료 일체 담은 아카이브관 병행 운영

○ 온라인 미술학교

라. 미술관 3관 MI(Museum Identity) 및 아트상품 개발

○ 미술관 브랜드 창출과 정체성 강화.

○ 미술관 3관의 시각적 정체성이자 심벌마크인 MI를 개발 및 사용

- MI를 미술관 건축, 전시, 교육, 홈페이지, 홍보물 등 미술관 이용자와 접하는 모든 지점에서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함.

○ 미술관 3관 MI가 들어간 아트상품 개발 및 판매(온라인 아트상품숍 운영)

☞ 참조: 국립현대미술관 ARTZONE 미술가게 MMCA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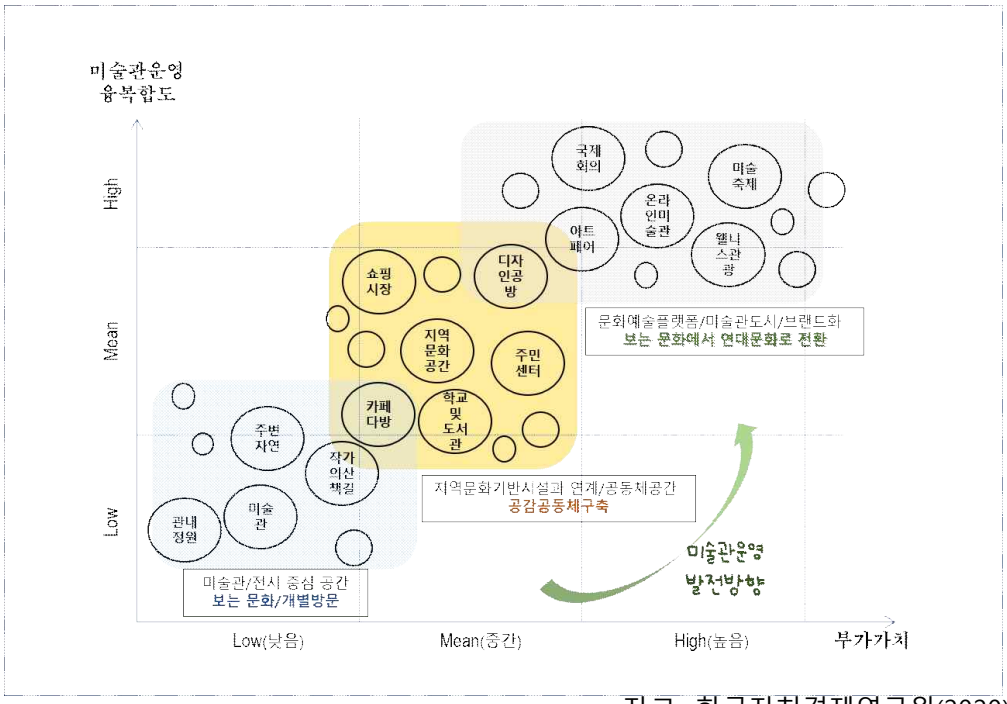
마. 연보(年報, Annual Report) 발간 및 온라인 공개

○ 1년 단위 미술관의 전반적인 사업운영 보고와 평가, 작품 수집 현황, 방문객 수, 매출 실적 등 관련 사진들과 함께 실어 제작. 홈페이지에Annual Report를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함.

4. 정책목표❹ 글로컬 문화도시 · 지역사회네트워크

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그림7-8>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자료: 한국자치경제연구원(2020)

○ 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는 한정된 자원의 적극적 확장임과 동시에 상호 협력의 기회 확대이기도 함.

○ 미술관을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상호발전 도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관광공사가 함께 하는 협업구조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문화관광 산업 생태계 구축

○ 미술관 평가시 '지역사회 협력' 지표를 신설하여 협력망 구축 유도

나.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 미술관 연계 서귀포시 '최초 · 최고'를 테마로 대표적인 관광자원 · 문화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지도 제작

<그림7-9>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안내

☞ 3단 접이식 리플릿(7.5x12.5cm). ' 한국최초, 인천최고'를 테마로 중구에 있는 옛 건축물, 성당, 교량, 철도, 인천 원조 중국음식점 등 다양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으로 요약되었음.

○ 인근 박물관·미술관과 연계한 관람 코스 개발을 통한 관람객 유치의 시너지 효과 창출

다. 빅데이터형 관람객 전수 조사

○ 지역의 미술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의 미술관 문화향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

○ 이용자 맞춤형 관람환경 조성을 통한 수요층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관람객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참고 사례] 국외기관의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영국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전시앱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관람객의 동선, 관람 패턴 등 분석(관람객 사전 동의,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
미국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 관람 중 인상 깊은 작품을 배포된 펜을 활용해 박물관의 태블릿에 가져다 대면, 향후 웹사이트에서 해당 수집 목록 확인 가능
미국 달라스미술관 '프렌즈 프로그램'	특정 목표 달성 시 제공하는 디지털 뱃지를 일정 규모 이상 모으면 기념품과 같은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관객의 반복적 방문 유도 최초 가입 시 최소 필요한 정보만 수집, 이후 관람객이 미술관에 신뢰 형성 시 부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정보수집의 거부감 최소화)

라. 아웃리치(Outreach)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 어린이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등 문화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지역 학교 어린이 홍보팀 모집과 육성

○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적 문화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원격 교육 확대

○ 미술관의 개별적 정책을 일원화하여,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와 실행방안 마련.

마. 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공공성 강화)

○ 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여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베리어 프리' 공간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과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참고) 미국 스미소니언 뮤지엄

- 스미소니언의 접근성 프로그램(Accessibility Program)의 일환으로 'Accessible Exhibition Design'가이드 라인 제시
- 전시콘텐츠, 전시캡션 및 디자인, 시청각, 동선, 가구, 색깔, 조명, 강의 및 프로그램 공간, 긴급 대피로 및 비상구, 어린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각종 부문에 대한 가이드 라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원작의 입체 작품화

※ (참고)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Touching the Prado> 전시

미술관의 대표작품 6개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손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점자로 된 전시텍스트, 오디오 가이드 등 제공함.

<그림7-10>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

자료:프라도미술관

5. 정책목표❺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가. ‘미술관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공립미술관 제도의 혁신: 기존의 전시 중심 공간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나아가 지역의 자연·인문·관광자원과 매칭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미술관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관도시’ 기본계획 수립.

○ ‘미술관도시’ 전담 담당 부서 신설(네트워킹&스토리텔링 전담)

나. 지역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술관도시 캠페인

○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예술교육과 힐링 공간 확충
(ex. 예술의 거리, 예술 카페, 예술 서점, 예술 시장 등)

○ 지역 주민·청소년 도슨트 교육: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 비전 속에 각 미술관 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 마련.

다.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확충

○ 미술관과 명승·명소 매칭 캠페인(자연을 무대로 한 발견과 힐링 미술관)

○ 기술과 자연이 결합된 미디어아트 미래형 미술관 선도 (실험과 공유의 미래형 미술관)

○ 국내외 작가들의 체류와 교류 인프라 확충

○ on/off라인 생태예술축제/자연과 기술의 융복합 예술전시 개최

○ ‘미술관도시’ 아트상품 개발과 판매망 확보

라.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 지역 관련성에 따른 국내·외미술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망 강화

○ 미술관 관련 협회 참여 및 전시 교류, 작가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인적 교류

○ 주요 국제회의·행사 공동 참가 및 유치 노력

○ 21세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서귀포시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일환으로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여 서귀포시를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대외 선언 추진.

8장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운영과 활성화 방안

제1절 공립미술관 운영체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235
제2절 공립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각 미술관 특성화 전략/279
제3절 '미술관도시' 구축 타당성 검토 및 도시 브랜드화 전략/281
제4절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 (2021년~2025년)/290

제1절 공립미술관 운영체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1. 조직활성화 방안

가.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전국 국공립미술관 현황 분석

○ 전국 미술관은 258개소로, 국립미술관 1개소, 공립미술관이 71개소, 사립미술관이 172개소, 대학미술관이 14개소임.(2019년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문화관광체육부)

○ 미술관 258개소 중 경기도가 52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45개소, 전남 32개소, 제주가 21개소임.

○ 전국 공립미술관은 71개소로, 직원 수는 822명, 학예인력은 281명, 소장자료는 61,062점, 연 관람인원은 5,996,900명임.

○ 1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1.58명, 학예인력 수는 3.96명, 소장자료는 860점, 년 관람인원은 84,463명임.

<표8-1> 전국 공립미술관 현황

구분	미술관 수(개)	전체			
		직원 수(명)	학예인력 수(명)	소장자료(점)	연관람인원(명)
전체	71	822	281	61,062	5,996,900
1개관 당 평균	71	11.58	3.96	860	84,463

자료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국공립미술관은 72개소 중 관람객 순위는

- 이중섭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9위임(265,037명)
- 제주도립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22위((106,000명)
- 제주현대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30위((67,000명)
-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47위(27,246명)

○ 이중섭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9위임에도 관장이 없음

(2) 국내외 미술관 조직 및 인력 분석

(가)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2019년 기준 303,553명으로, 2015년 167,576명과 비교했을 때 44.79%인 135,977명이 증가했음.

○ 인력은 관장(임기제, 지방사무관)을 비롯한 총 11명이며, 학예연구사는 6명임.

<표8-2> 포항시립미술관 인력 현황

구분	명칭	명수
총계		11
관장	임기제, 지방사무관	1
운영팀	운영팀장	1
	운영행정	1
	시설관리	1
	청사보안	1
학예연구팀	학예연구팀장	1
	학예행정	1
	학예-전시, 홍보	2
	학예-수집, 작품관리	1
	학예-교육, 연구	1

(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관람객 수는 2019년 기준 85,720명으로, 2015년 38,084명과 비교했을 때 55.57%인 47,636명이 증가했음.

○ 인력은 관장(시간선택제, 임기제(5급))을 비롯한 총 9명이며, 학예연구사는 2명임.

<표8-3>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인력 현황

구분	명칭	명수
총계		9
관장	시간선택제 임기제(5급)	1
학예실	학예연구사 (전시, 교육, 홍보, 레지던시운영)	4
	학예연구원 (학예업무 보조 전반)	3
	청사보안	1

(다) 양주군립박수근미술관

○ 양주군립박수근미술관 관람객 수는 2019년 기준 43,568명으로, 2013년 36,989명과 비교했을 때 15.1%인 6,579명이 증가했음.

○ 인력은 관장(계약직, 학예연구사)을 비롯한 총 6명이며, 학예연구사는 1명임.

<표8-4> 양주군립박수근미술관 인력 현황

구분	명칭	명수
총 계		**6명**
관 장	5년 계약직(학예연구사), 1년 단위로 연장	1
학예실	행정(파견공무원) 행정 시설관리 업무 보조	1
	청원 경찰(파견공무원)	2
	학예직 보조(계약직)	3

(라) 일본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 일본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관람객 수는 2018년 기준(275일 개관/년) 141,150명으로, 이는 기획전과 상설전 관람객 수를 합한 수치임. 년간 15만명 정도 관람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본관 조직은 관장(학예산, 비상근) 산하에 부관장이 있고, 그 밑에 관리과장, 기획과장(학예연구사), 보급과장(학예연구사)이 있음.

○ 인력은 총 29명으로서 상근근무자가 13명, 비상근 근무자가 16명임. 이 중 학예연구사는 총 14명으로, 상근근무자가 8명, 비상근 근무자가 6명임.

○ 미술관 수입은 총 61,911,366円(원 환산 619,113,066원)이며, 지출은 501,881,355円(원 환산 5,018,813,550원)임.

<표8-5> 일본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조직도(2019년도)

관장 (학예연구사) 비상근	부관장	관리과장 (겸무)	상근4명, 비상근 3명 인사, 재산관리, 예산경비, 관람료 징수 등
		기획과장 (학예 연구사)	상근4명, 비상근 4명 (이중 학예연구사 상근 4명, 비상근 2명) 미술작품 수집, 관리, 조사연구 및 전람회 기획·실시, 미술정보 시스템
		보급과장 (학예 연구사)	상근2명, 비상근 8명 (이중 학예연구사 상근 2명, 비상근 4명) 미술에 관한 교육·보급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전람회 기획·실시, 미술도서의 수집·보관·열람, 학교교육 등의 제휴

직원 (전원 하아먀관 배치)	총 29명 상근 13명, 비상근 16명	이중 학예연구사 상근8명, 비상근 6명

자료 :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年報 2018年度」(2019년 12월 24일 발행)

(3) 제주도 관내 미술관 현황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립미술관은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등 총 6개소가 있음.

○ 직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도립미술관 소속이나 여기서는 분리하여 기술하고자 함)은 총 14명으로 관장인 4급(임기제) 1명, 5급(일반직)1명・(임기제)1명, 6급(행정) 1명, 학예연구사 4명, 8급(행정) 1명, 공무직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제주현대미술관은 총 13명으로, 관장인 5급(임기제) 1명, 6급(시설) 1명, 학예연구사 2명, 7급(전기운영) 1명, 공무직 8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김창열미술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문화정책과 소속으로 총 8명으로, 관장인 5급(임기제) 1명, 학예연구사 2명, 7급(행정) 1명, 공무직 4명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은 각각 관장이라는 직제를 편성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있음.

- 미술관장 직급은 제주도립미술관 4급(임기제), 제주현대미술관 5급(임기

제), 김창열미술관 5급(임기제)임.

○ 하지만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 제주도립미술관의 2.2배, 제주현대미술관의 3.1배, 김창열미술관의 7.5배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8-6>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립미술관 인력 현황 비교

(2020. 12. 1. 현원 기준, 단위: 명)

구분		관람객 (2019년 기준)	직급별 인원(명)							
			계 (임기제)	4급 (임기제)	5급 (임기제)	6급	7급 (학예연구사, 임기제)	8급	9급	공무직
서귀포시	소계	248,516	15(4)			1	4(4)			10
	미술관운영팀		1(0)			1				
	기당미술관	26,312	3(1)				1(1)			2
	이중섭미술관	208,837	8(1)				2(1)			6
	소암기념관	13,367	3(1)				1(1)			2
제주도립미술관	소계	191,437	27(9)	1(1)	3(2)	2	7(6)	1		13
	운영과	112,195	8(1)	1(1)	1(0)	1		1		4
	학예연구과		6(5)		1(1)		4(4)			1
	제주현대미술관	79,242	13(3)		1(1)	1	3(2)			8
김창열미술관		32,975	8(3)		1(1)		3(2)			4

(4)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가) 공립미술관 조직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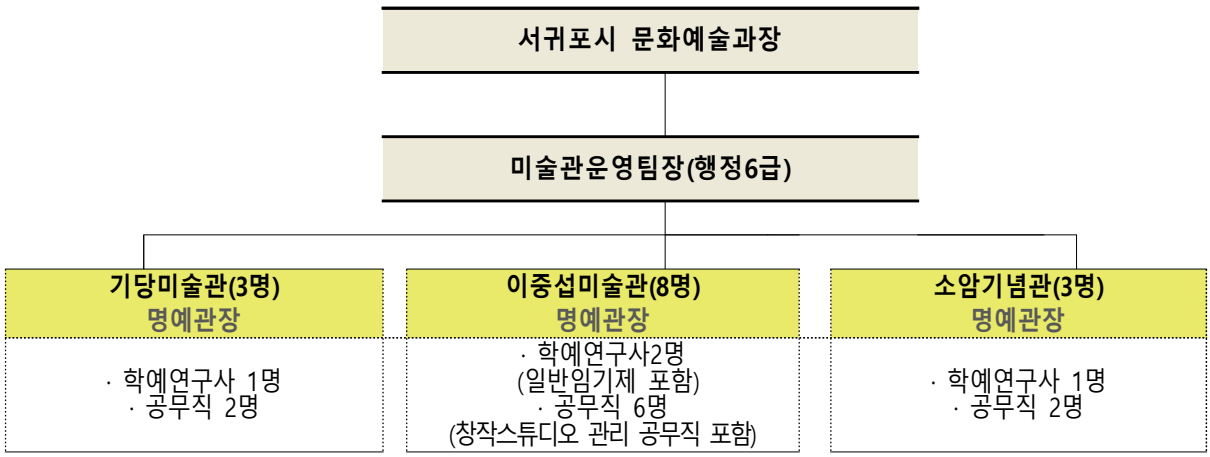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등 3개소가 있으며,

○ 조직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 산하에 있어 직급이 상당히 낮은 편임.

○ 인원은 팀장(행정) 1명, 학예연구사 4명(기당미술관 1명, 이중섭미술관 2명(7급 1명, 임기제 1명), 소암기념관 1명), 공무직 10명이 있음.

※ 2019년 8월 5일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에서 분리, '미술관운영팀' 신설하여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총괄 운영.

<표8-7> 현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조직도



(나) 주요업무 분석

① 기당미술관

○ 기당미술관에서는 학예연구사 1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기당미술관은 건물면적 964.26㎡(지상2층), 연면적 1.230.72㎡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

○ 관람객은 2019년 기준 26,312명으로, 학예업무, 시설관리, 매표 데스크에서 관람 안내, 안전관리, 홍보 등 관람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

○ 2019년 미술관 운영으로 기획전/특별전 총5회, 어린이미술학교, 성인교육프로그램,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세미나 등 운영하였음.

○ 창작공간 덕판배를 관리하고 있음. 창작공간 덕판배는 51mx폭3m의 2동으로, 2018년부터 4명 작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창작공간 제공 및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②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미술관은 학예연구사 2명(7급, 임기제 1명)과 공무직 6명(창작스튜디오 포함)이 근무하고 있음.

○ 이중섭미술관은 건물면적 306.72㎡(지상2층), 연면적 589.46㎡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

○ 관람객은 2019년 기준 208,837명으로, 학예업무, 시설관리, 매표에서 관람 안내, 안전관리, 홍보 등 관람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

○ 2019년 미술관 운영으로 기획전/특별전 총6회, 그림편지쓰기 및 이중섭세미나, 음악극 창작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하였음.

○ 창작스튜디오를 관리하고 있음. 창작스튜디오는 1,390.88㎡(지상5층)의 규모로 연 4~8명 작가에게 지원되는 창작공간임.

○ 2층 전시실은 일반인에게 대관하고 있고, 1층은 공예공방 교육실로 운영하고 있음. 2019년에는 전시실 대관으로 40회, 22,240명이 이용하였으며, 공예공방은 82회가 운영되었음.

③ 소암기념관

○ 소암기념관은 학예연구사 1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소암기념관은 건물면적 791.80㎡(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523㎡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

○ 관람객은 2019년 기준 13,367명으로, 학예업무, 시설관리, 매표에서 관람 안내, 안전관리, 홍보 등 관람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

○ 2019년 미술관 운영으로 기획전/특별전 총7회, 작가와의 대화, 전시연계강좌, 실기교육프로그램 등 운영하였음.

(다)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전국 국공립미술관 72개소 중 관장이 없는 미술관은 5개소에 불과하며, 이중섭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9위(265,037명)임에도 관장이 없는 실정임.

- 전국 공립미술관은 72개소로서,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1.58명, 학예인력 수는 3.96명, 연관람인원은 84,463명이지만,
- 이중섭미술관은 직원 8명(학예연구사 2명, 공무직 6명)이 연 관람인원 265,037명을 응대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중섭미술관은 제주도 내 타 공립미술관 보다 관람객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장 직제를 두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임. (관람객현황 : 2019년 말 기준)

- 제주도립미술관 : 관람객 112,195명, 직원 14명(관장 4급)
- 제주현대미술관 : 관람객 79,242명, 직원 13명(관장 5급)
- 김창열미술관 : 관람객 32,975명, 직원 8명(관장 5급)
- 이중섭미술관 : 관람객 208,837명, 직원 8명(관장 없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3개소)은 관장 직제 없이 각 미술관에 배치된 학예연구사1~2명이 미술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작품구입 및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아트상품개발, 작가 레지던시 운영 등 어려움이 많음. ☞ 이는 조사·연구를 통한 시민맞춤형 기획전시와 전문성을 갖춘 미술관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나.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조직 활성화 방안

(1) 조직 개편안

(가) 제1안 :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안)

○ 현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에는 관장이 없고, 명예관장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명예관장제 시행 : 미술관별 1명(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명예관장의 직무 :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제안 및 참여,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제5조)

○ 이중섭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9위임에도 관장이 없는 실정임.

○ 각 미술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이 필요함.

○ 전문가 60인 대상 설문 조사결과 3개 미술관의 설립 배경, 특성, 방문객 선호도, 사업 추진 성격 등 서로 다르기 때문에 3개 미술관별 관장제(1관 1관장제) 도입 주장이 51.7%를 차지하고 있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김창렬 미술관 사례와 같이 관장을 팀장급(임기제 6급(학예연구사)으로 배치하여 문화예술과 내에 미술관 운영팀장과 3개 미술관 관장(팀장급)을 두고, 인력은 현재 15명에서 26명으로 11명을 증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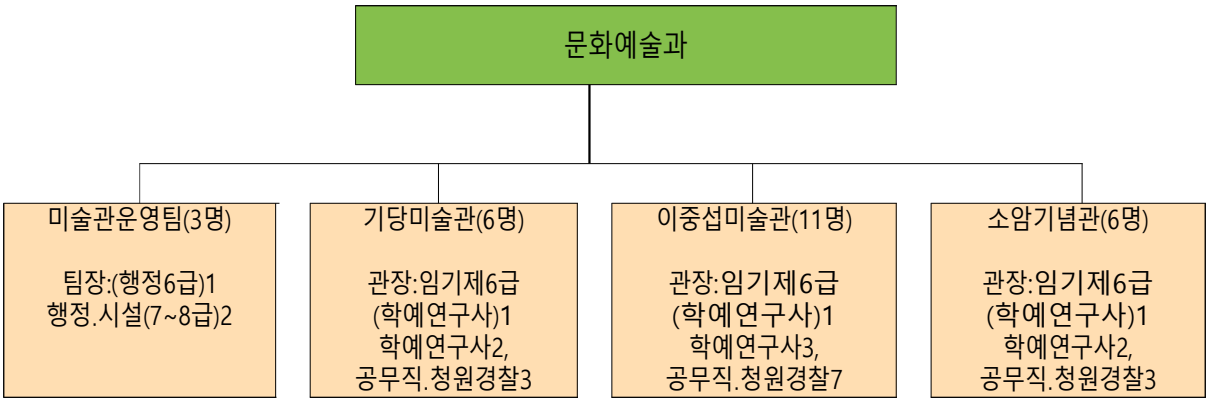
○ 미술관별 관장제를 도입하게 되면, 명예관장제는 시행하지 않음.

<표8-8>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안)-제1안

(단위: 명)

미술관	계	관장 (임기제 6급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행정(시설) (8~9급)	공무직
계	**26**(15)	**4**	**4(4)**	**5(0)**	**13(10)**
미술관운영팀장	3	1(행정 6급)		2	
기당미술관	6(3)	1(6급 학예연구사)	1(1)	1(0)	3(2)
이중섭미술관	11(8)	1(6급 학예연구사)	2(2)	1(0)	7(6)
소암기념관	6(3)	1(6급 학예연구사)	1(1)	1(0)	3(2)

* ( )내는 기존 인력임



(나) 제2안 : 이중섭미술관 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 관장제 도입(안)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개소 모두 한꺼번에 관장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중섭미술관부터 관장제를 도입 후 단계별로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 관장제를 도입함.

○ 이중섭미술관 관장은 임기제 6급(학예연구사)으로 배치하고, 학예연구사는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 각 1명을 증원하고,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 소방관리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을 3개 미술관에 각 1명을 증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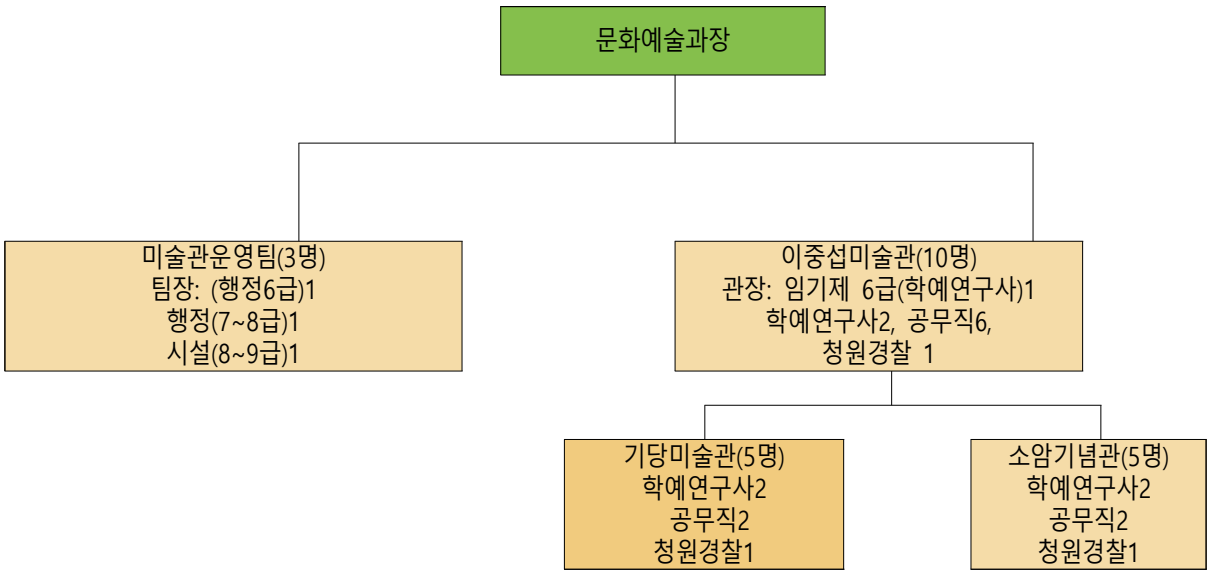
- 현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팀장 : 행정 6급)에 행정직(7~8급)과 시설직(8~9급)을 증원 배치하고,
- 이중섭미술관에는 임기제 6급(학예연구사)을 팀장급으로 관장 보직을 부여하고, 그 산하에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을 둠.
- 인력배치는 이중섭미술관에는 임기제 6급(학예연구사) 1명과 청원경찰 1명을 증원하여 전체 10명을 배치하고,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은 학예연구사 각 1명을 증원함으로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각 1명을 증원 배치하여 전체 각 5명을 배치함
- 명예관장은 이중섭미술관 관장제를 도입하고, 그 산하에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예관장제를 두지 않음.

<표8-9> 이중섭미술관 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 관장제 도입(안)-제2안

(단위: 명)

구 분			계	관장	행정 6급	학예 연구사	시설·행정직 (7~9급)	공무직. 청원경찰	명예 관장
문화 예술과	계		23(15)	1	1(1)	6(4)	2	13(10)	2(3)
	미술관운영팀		3(1)		1(1)		2		
	3관	기당미술관	5(3)			2(1)		3(2)	1(1)
		이중섭미술관	10(8)	1(임기제 6급(학예연구사)		2(2)		7(6)	0(1)
		소암기념관	5(3)			2(1)		3(2)	1(1)

* ( )내는 기존 인력임.



(다) 제3안 :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안)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개소 모두 학예연구사 1~2명에 의해 운영 중으로 미술관이라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관장 직속하의 통합된 독립부서 마련 필요.

○ 국민화가 이중섭 명성만으로 26만5천여명(전국 국·공립미술관 운영 현황 2019기준 9위)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는 이중섭미술관의 시설확충 및 대표작 구입 등을 통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의 도약 필요

○ 서예전문 소암기념관 및 국내 최초 시립 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의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관장 및 학예업무전담 조직이 필요함.

○ 학예업무와 행정(시설)업무 분리 및 미술관 독립을 통한 미술관운영 전문화 필요.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을 총괄하는 가칭 '서귀포시 공립미술관'를 별도 신설하여 관장은 임기제 5급(학예연구관)을 배치하고 그 산하에 미술관운영팀(행정 6급)과 미술관 3관 별 학예팀(팀장: 임기제 6급 학예연구사)을 신설함.

○ 인력은 15명(개편 전) → 27명(개편 후)으로 12명을 증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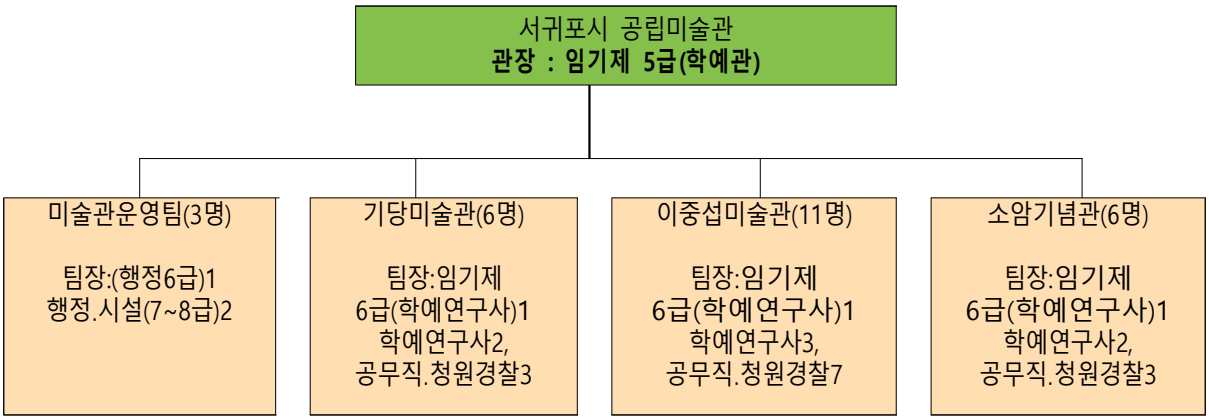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시 명예관장제는 시행하지 않음.

<표8-10> 공립미술관 총괄운영 독립부서 신설(안)-제3안

(단위: 명)

구 분		계	5급(소장)	6급	7,8급 (행정·시설)	학예 연구사	공무직, 청원경찰
계		27(15)	1	4	2	7(4)	13(10)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신설)		1	1 (임기제 학예연구관)				
미술관운영팀(신설)		3		1 (행정)	2		
3관	기당미술관 학예팀	6(3)		1 (임기제 학예연구사)		2(1)	3(2)
	이중섭미술관 학예팀	11(8)		1 (임기제 학예연구사)		3(2)	7(6)
	소암기념관 학예팀	6(3)		1 (임기제 학예연구사)		2(1)	3(2)

* ( )내는 기존 인력임.



(라) 제4안 : 미술관 운영팀장을 학예관장으로 변경(안)

○ 현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산하에 있는 '미술관운영팀장'을 임기제 6급(학예연구사)으로 변경하면서 미술관운영관장직을 부여하고, 직원 2명(행정·시설)을 증원함.

○ 이중섭미술관은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면서 '학예팀장' 보직을 부여함.

○ 별도의 부서독립 없이 현 직제 활용, 최소 인원만 증원

○ 인력증원은 8명으로, 미술관운영관장(현재 미술관운영팀장) 산하에 직원 2명(행정·시설) 증원과 학예연구사 3명을 3개 미술관에 각 1명을 증원하고, 시설관리를 위하여 3개 미술관에 청원경찰 각 1명을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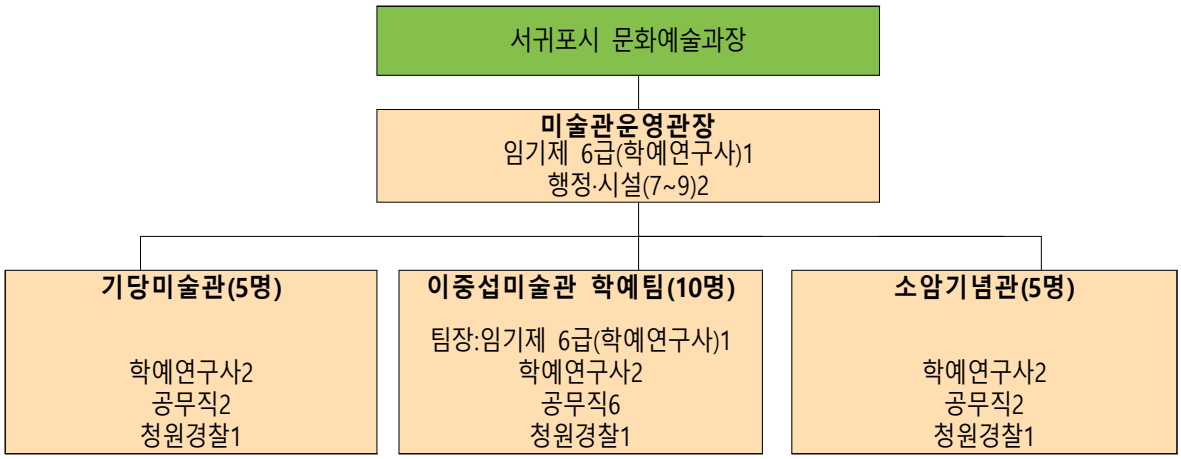
○ 명예관장제는 계속 시행함.

<표8-11> 미술관 운영팀장을 학예관장으로 변경(안)-제4안

(단위: 명)

구 분			계	학예연구사, 임기제 6급	학예연구사	행정·시설 7~9급	공무직	명예관장
문화예술과	소계		23(15)	1(1)	7(4)	2	13(10)	3
	미술관운영관장		3(1)	1(1)		2		
	3관	기당미술관	5(3)		2(1)		3(2)	1
		이중섭미술관 학예팀장	10(8)		3(2)		7(6)	1
		소암기념관	5(3)		2(1)		3(2)	1

* ( )내는 기존 인력임.



(2) 조직개편 각 안별 장·단점 분석

○ 조직개편에 대한 각 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제1안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안은 3개소 각 미술관별 특성을 살릴 수가 있고, 특성 있는 기획전,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전문가 의견도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을 51.7%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한꺼번에 직급상향과 인력 충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제2안 이중섭미술관 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 관장제 도입안은 미래의 미술관 조직은 미술관 별 관장제를 도입해야하나 3개소 모두 관장제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을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3개소 모두 미술관별 관장제를 도입해야하나 1개소만 도입함으로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제3안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안은 3개 미술관 소장품 관리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합관리함으로서 미술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 훼손이 우려됨.

○ 제4안 미술관운영팀장을 학예관장으로 변경안은 기존 인력과 최소의 인력 충원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나 미술관의 본래의 기능을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표8-12> 조직개편 각 안별 장·단점 분석표

구분	장점	단점(문제점)
제1안 (미술관별 관장제)	· 각 미술관별 특성을 살릴 수있고, 특성있는 기획전, 프로그램운영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51.7% 의견 제시	· 한꺼번에 직급상향과 인력 충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움
제2안 (이중섭미술관 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 관장제 도입)	· 미래의 미술관 조직은 미술관별 관장제를 도입해야하나 · 3개소 모두 관장제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실현 가능한 미술관부터 관장제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별로 시행함	· 전문가들은 미술관별 관장제를 도입을 주장하나 실현 가능성 낮음 · 조직부서를 상대로한 설득력 및 당위성 부족 · 직급상향 및 인력충원의 어려움
제3안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	· 3개 미술관 소장품 관리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능	· 통합관리함으로서 미술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 훼손 우려
제4안 (미술관운영팀장을 학예관장으로 변경)	· 기존 인력과 최소의 인력 충원 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임	· 가장 현실적이나 미술관의 본래의 기능을 실행하기가 어려움 · 직급상향 및 인력충원의 어려움

(3) 검토 결과

○ (제1안)인 3개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은 한꺼번에 직급상향과 인력 충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제4안)인 미술관운영팀장을 학예관장으로 변경하는 안은 현실적이나 미술관의 본래의 기능을 실행하기가 어려워 조직개편의 의미가 미흡함.

○ (제2안)인 이중섭미술관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로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 관장제 도입안과 (제3안)인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안이라 판단됨.

① (제2안) 이중섭미술관 관광제(<표8-9>) 도입 후 단계별 관장제 도입안은 각 미술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3개소 모두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이 가장 이상적이나 한꺼번에 직급 상향과 인력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중섭미술관부터 관장제를 도입한 후 차후에 단계적으로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 관장제를 도입하는 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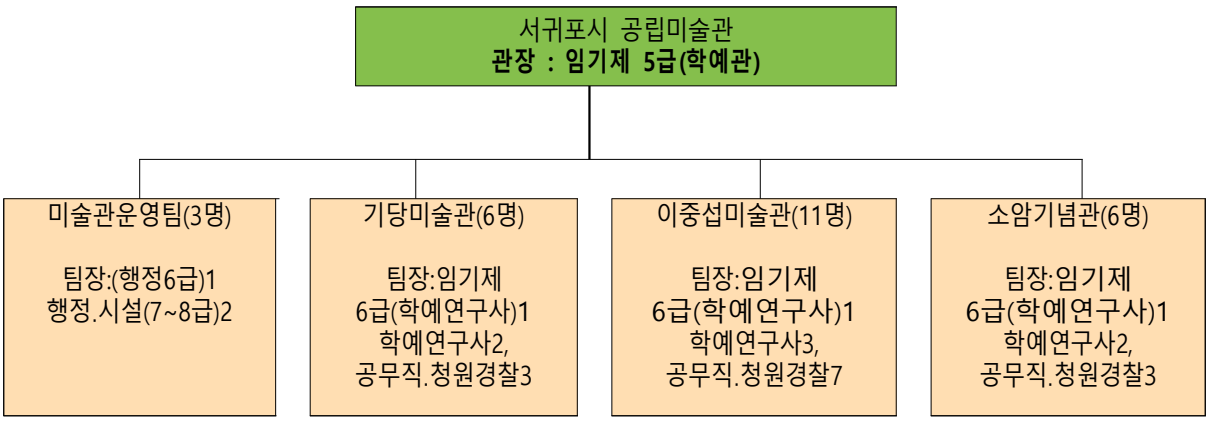
- 명예관장은 관장제를 도입한 이중섭미술관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 대해서는 계속 명예관장제를 시행함.

② (제3안)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안(<표8-10>)은 3개 미술관 소장품 관리 및 전시,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확보 용이 등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하고 미래의 미술관 운영 조직이라 판단됨.

-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은 가칭「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을 별도 신설하여 관장은 임기제 5급(학예연구관)을 배치하고 그 산하에 미술관운영팀(행정 6급)과 3개 미술관별 학예팀(팀장 : 임기제 6급학예연구사)을 신설함.
- 인력은 15명 → 28명(개편 후)으로 13명을 증원함.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시 명예관장제는 시행하지 않음.

○ (최종 검토 결과) (제2안)인 이중섭미술관 관장제 도입 후 단계별로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 관장제 도입안과 (제3안)인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 총괄 독립부서 신설(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2안)은 이중섭미술관관장제 도입되더라도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 관장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안)인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을 총괄하는 독립부서 신설안이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안이라 판단되며, 명칭은 (가칭)서귀포시 공립미술관(관장)이라 칭할 것을 제안함.

<표8-13> 공립미술관 총괄운영 독립부서 신설(안)-제3안



< 인력증원 사유(필요성)>

▶ 관장(임기제 5급(학예연구관)) :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은 관장 없이 학예연구사 1~2명이 모든 미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문관장 직속 통합미술관 필요

-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을 총괄 운영·지휘하고,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대표작구입, 전문 작가미술관 차별화 등을 서귀포공립미술관 활성화을 위한 전문관장 및 학예업무전담 조직 필요
- 이중섭미술관-작가의산책길-올레시장을 잇는 서귀포 문화·관광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중심 추진체 필요
- 전국 국공립미술관 72개소 중 관장이 없는 미술관은 5개소에 불과하며, 이중섭미술관은 관람객 순위 전국 9위(265,037명)임에도 관장이 없는 실정임.
- 전국공립미술관 71개소로서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1.58명, 평균 학예인력 수는 3.96명, 평균 연관람 인원 84,463명(이중섭미술관 265,037명), 평균직원 수는 11.58명(이중섭미술관 8명)
- 이중섭미술관은 제주도 내 타 공립미술관 보다 관람객이 많이 방문함에도 관장이 없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 제주도립미술관(4급)과 제주현대미술관(5급), 김창열미술관(5급)에는 미술관장을 두고 있음.

▶ 미술관학예팀(4명) : 3개 미술관 전문경영 및 활성화를 위한 미술관통합 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업무과 학예업무를 분리, 인력을 증원하여 미술관 전문화

- 학예팀장 : 미술관학예팀 업무 전반
- 행정 7급 : 서무, 회계, 복무, 아트숍운영, 창작스튜디오 및 덕판배 운영 3개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 시설 7급 :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미술관 안전관리계획, 중·단기 시설운영계획 수립·운영 등
- 시설 8급 : 3개미술관 시설유지 및 환경정비, 전기, 기계, 소방 등 부대시설 관리

▶ 학예연구사(3명) : 미술관은 다양한 분야인 작품구입 및 기획전시, 작품수집 및 보존,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트 상품 개발 등 업무와 전 계층의 문화욕구를 반영한 공간 활용과 콘텐츠 반영이 필요한 복합적인 전문 경영이 필요함.

-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및 대표작구입 등을 통한 세계적인 미술관 도약, 독특한 서예전문 소암기념관과 최초 시립 현대미술관으로 기당미술관 활성화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창작스튜디오 전담 학예연구사 필요 : 입주작가 관련 일체 학예 및 사무 업무, 입주작가 선정 및 체류 중 지역연계 프로그램, 미술관3관 공동기획 등
- 전국공립미술관 71개소로서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수는 3.96명임.
- 제주도내 미술관 학예연구사 2~5명 배치(제주도립미술관 5명, 제주현대미술관 2명, 김창열미술관 3명), 이중섭미술관 2명·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 각각 1명임.

▶ 청원경찰(3명) : 각 미술관별 소장품보안 및 관람질서 유지 강화

2. 예산 편성 분석

가. 제주도 6개 공립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현황_발췌·재정리)

<표8-14> 제주도립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단위: 천원)

제주도립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724,000	730,000	1,851,000	1,185,000	683,000	657,000
작품구입		330,000	300,000	300,000	450,000	550,000
교육프로	82,000	81,000	81,000	81,000	50,000	50,000
기 타	393,896	406,460	638,618	1,336,272	591,041	590,081
합 계	**1,199,896**	**1,547,460**	**2,870,618**	**2,902,272**	**1,774,041**	**1,847,081**

<표8-15> 제주현대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단위: 천원)

현대미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244,000	389,000	527,000	533,000	470,000	470,000
작품구입		120,000	120,000	120,000	150,000	150,000
교육프로	30,000	30,000	30,000	60,000	54,000	51,000
기 타	381,063	486,048	446,000	513,823	581,946	294,703
합 계	**655,063**	**1,025,048**	**1,123,342**	**1,226,823**	**1,255,946**	**965,703**

<표8-16> 김창열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6년~2020년)

(단위: 천원)

김창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2016년 9월 개관	537,000	402,000	409,000	334,000	327,000
작품구입		300,000	300,000	300,000	100,000	100,000
교육프로			4,000	5,000	4,000	4,000
기 타		222,348	350,040	377,465	3,148,019	609,307
합 계		**1,059,348**	**1,056,040**	**1,091,465**	**3,586,019**	**1,040,307**

<표8-17> 서귀포시공립 기당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단위: 천원)

기 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50,000	50,000	60,000	50,000	45,000	45,000
작품구입	50,000	50,000	50,000	50,000	45,000	55,000
교육프로			20,000	14,000	23,000	20,000
기 타	52,469	65,658	96,698	96,358	112,706	102,333
합 계	**152,469**	**165,658**	**223,698**	**210,358**	**225,706**	**222,333**

<표8-18> 서귀포시공립 이중섭미술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단위: 천원)

이중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40,000	60,000	40,000	50,000	65,000	65,000
작품구입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000,000
교육프로						3,200
기 타	240,912	542,204	247,824	299,578	314,682	276,971
합 계	**1,280,912**	**1,102,204**	**787,824**	**849,578**	**879,682**	**1,345,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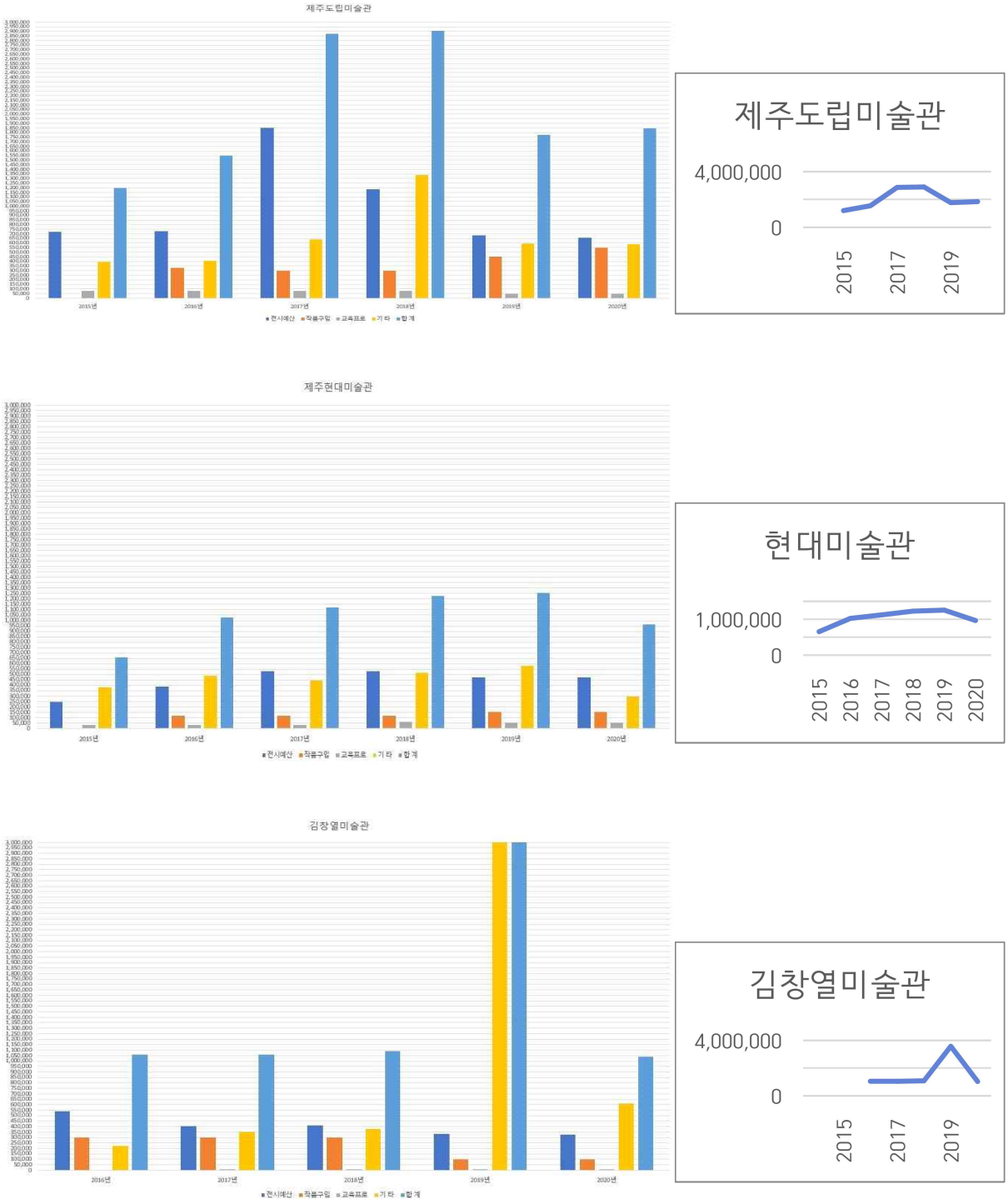
<표8-19> 서귀포시공립 소암기념관 예산 편성 현황(2015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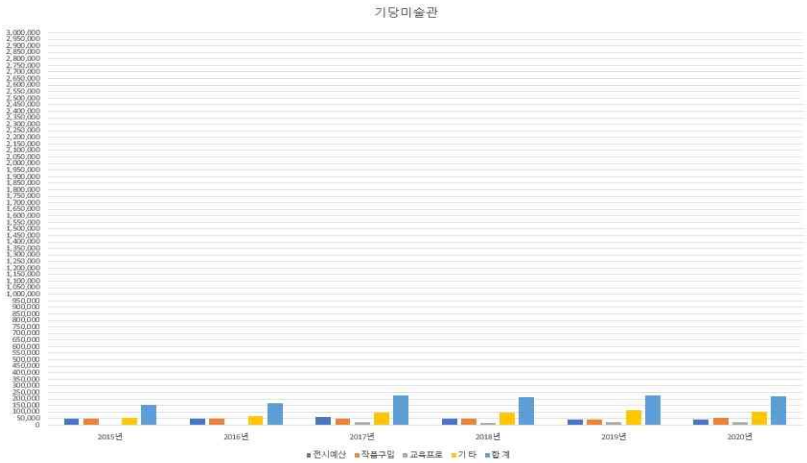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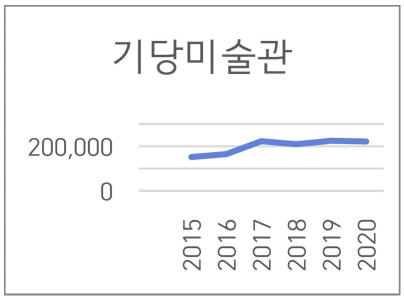
소 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70,000	70,000	60,000	60,000	54,000	50,000
작품구입	4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5,000
교육프로			5,000	5,000	4,500	4,000
기 타	72,930	102,764	86,696	145,156	93,550	86,247
합 계	**182,930**	**202,764**	**181,696**	**240,156**	**182,950**	**176,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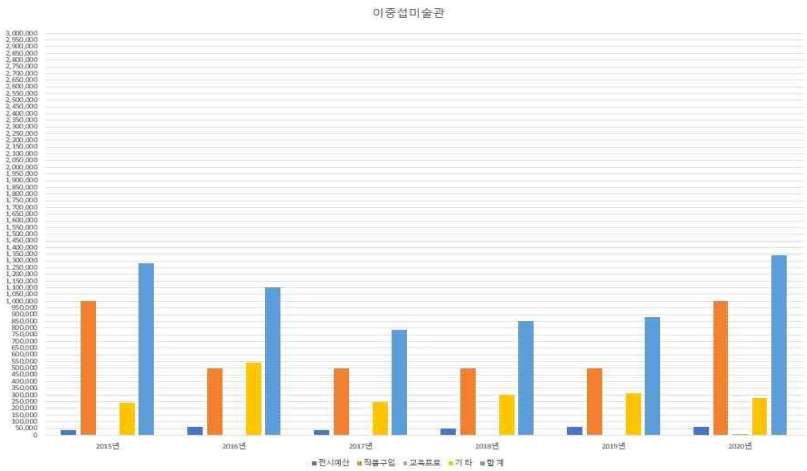
나. 제주도 6개 공립미술관 예산 편성 분석(2015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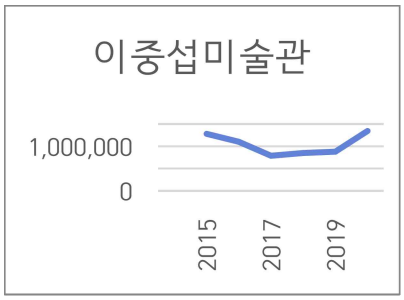
<그림8-1> 제주도 6개 공립미술관 예산 편성 분석(2015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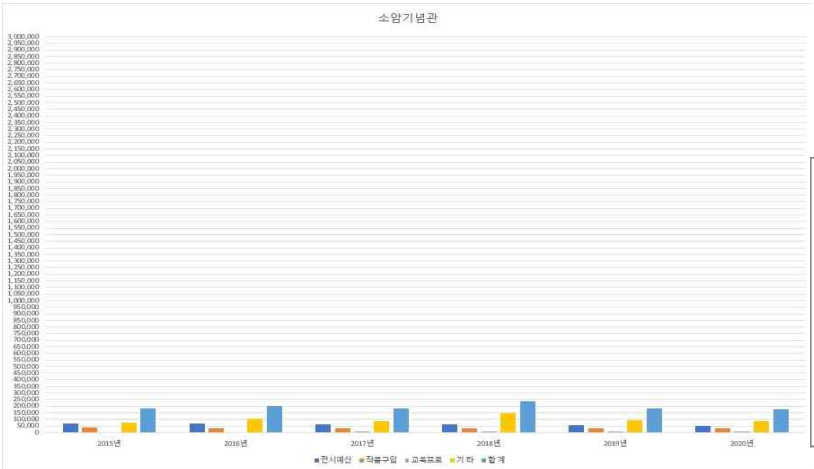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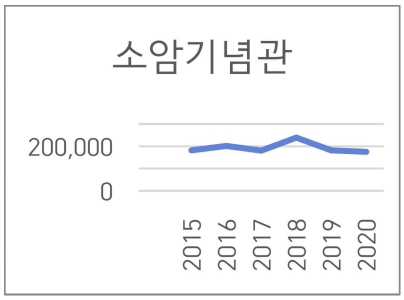

기당미술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작품구입
교육프로
기 타
합 계


기당미술관
200,000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중섭미술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작품구입
교육프로
기 타
합 계


이중섭미술관
1,000,000
0
2015
2017
2019


소암기념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예산
작품구입
교육프로
기 타
합 계


소암기념관
200,000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다. 제주도 공립미술관 예산 편성 분석

<표8-20> 2019년 제주 6개 공립미술관 관람객 대비 예산 편성

(2019년 기준)

구 분		관람객(명)	예산 편성(단위: 천원)
서귀포시 (미술관운영팀)		**248,516** **(1+2+3)**	**1,288,338** **(1+2+3)**
1	기당미술관	26,312	225,706 *152,469(2015년 최저액)
2	이중섭미술관	208,837	879,682 *1,345,171(2020년 최고액)
3	소암기념관	13,367	182,950 *240,156(2018년 최고액)
제주도립미술관		112,195	1,774,041 *2,902,272(2018년 최고액)
제주현대미술관		79,242	1,255,946 *655,063(2015년 최저액)
김창열 미술관		32,975	3,586,019 1,040,307(2020년 최저액)

○ 2019년 기준 제주도립미술관 예산 약 17억원(총 관람객 수 약 112,195명), 제주 현대미술관 예산 약 12억원(총 관람객 수 79,242명), 김창렬미술관 약 35억원(2019년만 해당. 그 외 5년간 평균 예산은 약 11억, 총 관람객 수 32,975명)임.

○ 반면에 2019년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 예산 약 12억(총 관람객 수 248,516명)임. 예산 규모로는 제주 현대미술관과 동일하지만, 관람객 수는 3배 많음.

○ 이중섭미술관 예산 약 8억 7천만원(총 관람객 수 208,837명) 기준으로 볼 때, 김창열미술관 예산은 최대 35억~최소 11억원임. 반면에 관람객 수는 이중섭미술관보다 6배 적은 32,975명임.

○ 종합하면, 향후 제주도 내 공립미술관 예산 및 인력은 미술관 환경변화 및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 확보되어야 함.

○ 미술관 자체적으로도 매년 기존 예산 기준에 맞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술관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람객이 재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 확보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예산 편성 분석

○ 기당미술관

전시예산과 작품구입비가 지난 6년간 큰 변동 없이 4,500만원~5,500만원 선에 머물러 있음. 다양한 실험과 기획, 작품 발굴을 통한 미술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이중섭미술관

전시예산이 지난 6년간 큰 변동 없이 4,000만원~6,500만원 선에 머물러 있음. 작품구입비는 2009년 10억 예산 확보된 이후 평균 5억원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과 2020년 10억원 편성. 이중섭미술관 자체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 않음. 다만 부속시설인 창작스튜디오 지역연계프로그램 예산이 이를 대체하고 있음. 지역의 거점 미술관으로서 시민예술강좌와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미술관 자체 교육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소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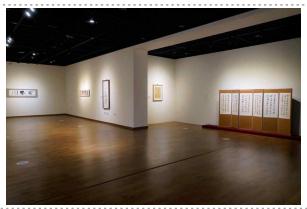
전체 예산 편성이 지난 6년간 큰 변동 없이 1억8천만원 선에 머물러 있음. 2018년에는 소암기념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총예산 2억 4천만원이 예외적으로 편성된 바 있음. 전시예산이 점점 감소 추세이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4백~5백만대. 서예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기획, 작품 발굴을 통한 미술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3. 공간활용 효율화 방안

가. 미술관 3관 공간 현황과 개선점

각 미술관	현황 / 종합의견
종합	① (동선) 공간 협소 및 건물 구조로 인한 공간활용(동선)의 문제 ② (디자인) 미술관은 시각적 디자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장소임. 미술관 특성에 부합한 조형물 및 통일된 디자인 도입의 부재. ③ (전시관리) 조명 조절 제약, 벽면 마감재(작품과 부조화), 전시기법의 획일화 ④ (수장고) 수장고 시설 환경 개선 및 가용 한계. 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미도입(현재 수기대장과 엑셀 파일로 작품 관리). ⑤ (교육공간) 미술관의 사회교육적 기능 및 지역연대 연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공간, 미팅공간 등 협소 또는 부재. ⑥ (편의시설) 휴게공간, 수유시설 미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미비. 물품보관소(Locker) 부족. 관내 Wifi 가능. ⑦ (주차공간) 방문객 수 대비 부족
	① (동선)이용객의 출입구가 동일하고, 출입구에 매표소, 아트숍이 있고, 바로 전시관으로 연결된 구조라 작품감상 몰입도가 떨어짐. 관내 시설 안내도를 포함한 작품감상 동선(방향)을 제시하여 미술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 ② (디자인) '기당미술관' 의 정체성을 알리는 전시관 주변 안내판과 인지도를 높이는 디자인 개발 필요. ③ (전시물 관리) 미술관 입구 설치조형물(조성묵 작 communication) 의 전시관리가 미흡하고, 노후화도 가속화되면서 관람객의 관심 유도 저하. 미술관 특성에 맞게 이 공간에 대한 전시컨셉 및 활용계획을 재정립할 필요. ④ (수장고) 현재 약 90%로 포화상태. 수납 형식만 갖춘 수장고 시스템. 작품보관 랙(회화랙, 모빌랙 등) 부재. 거대한 크기의 조각 설치작품 수집이 어려움. ⑤ (다목적공간) 2017년(개관 30주년) 출범한 관내 아트라운지 시설을 통한 어린이 이용, 세미나 및 미술살롱 등 보다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동 공간에서 다양한 아트랩(실험예술 및 영상제작 등) 활성화.

각 미술관	현황 / 종합의견
	① (동선) 건물 구조로 인해 전시 관람 동선이 효율적이지 않음. 입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들어서자마자 매표소·아트숍·전시관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함. 특히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수용에 공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관내 시설 배치(특히 아트숍 공간)를 과감히 하여 미술관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 ② (디자인) 매표소 및 안내데스크, 아트숍 등 통일된 디자인이 부재하여 산만하고, 이중섭미술관의 상징과 운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 ③ (전시관리) 전시장이 협소하고 남녀노소가 찾는 곳이라 조명 조절(색감·채도 극대화)에 제약이 따름. 상설전시관 전시 벽면 시공이 작품과 조화롭지 못함. 쇼케이스 내 제습기 및 벽면 못자국 등 거슬림. 한편, 전시 작품들이 유리 쇼케이스에 있어 작품(오리지널)과 대면하여 감상을 극대화하기에는 산만하고 집중도가 떨어짐. 공간 협소라는 제약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전시기법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제시가 필요함. ④ (수장고) 수장고 및 작품 반·출입로가 일반 이용객 출입구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 현재 소장품은 286점이고 그 가운데 47점이 이중섭 원화작품. 현재 수장고 가용한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중섭미술관 명성에 부합한 대표 작품, 관련 작품 및 자료의 수집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장고 시설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⑤ (다목적공간) 없음. 이중섭미술관 내 소규모 세미나실(자료실 겸용) 정도는 마련할 필요.
	① (동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해 있어, 주차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짐. 동일한 이유로 미술관 파사드(미술관의 얼굴)로서의 브랜드 가치 부각에 한계가 있음. 또 관내 분산된 출입구로 동선의 혼선 야기. ② (디자인) 본관 입장 초입에 매표소와 안쪽에 마련된 아트숍, 사무실 등이 혼재하고, 각종 시설 비품들이 노출되어 있음. ③ (전시관리) 전시장 내 벽면, 바닥재, 조명, 검정 색 천정 등이 서예작품과 부조화. 벽면 마감재가 색이 바래서 평면 작품의 고유한 가치를 부각하는 데에 한계. ④ (수장고) 소장품 관리 및 복원(표구, 배접) 문제. 향후 수집 계획에 따른 수장고 관리 및 확보 방안 모색. ⑤ (다목적공간) 교육시설이 있으나 협소함. 한국화 실기반과 간헐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음. 소암 폰트 디자인 연구 등을 위한 상설연구공간과 서예대중화 교육공간을 마련할 필요.

각 미술관	현안/종합의견에 대한 사진 자료(발췌)		
	미술관 특성을 살린 미술관 입구 조성	야외조형물 관리미흡	로비+아트숍+전시장 경계 모호
	로비+아트숍+전시장 경계 모호	매표안내판+별도 인쇄물	못자국 노풀 전시벽면처리
			
	도로변 기념관 입구_파사드 기능 약화	매표소+아트숍+비품 혼재	전시벽면 활용도 낮음

나. 시설확충(보수) 및 공간의 재구성

각 미술관	종합 의견	
종합	○ 미술관 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13)] ○ 미술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리모델링 또는 환경 개선 ○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거한 리모델링・신축 ○ 미술관별 공간 특성에 따른 전시시설 확보 ○ 매표데스크, 편의시설, 아트숍, 사무공간 확보 (전시 기능에 집중된 환경 조성)	
	- 미술관 파사드(미술관의 얼굴) 재정비(변화 시도) - 주변 삼매봉, 도서관, 예술의 전당과 어우러진 야외예술디자인공원 조성	- 주 출입구 매표 데스크, 편의시설(아트샵, 물품보관소), 사인물, 작품 가이드라인 또는 차단봉의 통일된 디자인 도입. - 수장고 시스템 정비 및 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 소장품 증가로 인한 미래의 수장고 공간 부족 대책 마련. - (편의시설) 커뮤니티룸, 수유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물품보관소 확보.
	- 전시실 마감재, 조명, 쇼케이스를 통한 전시기법 등 재검토. - 공간 협소로 말미암아 별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	
	- 주 현관 전면(계단) 리모델링을 통한 휴식과 환담공간 조성 - 자연경관 조망과 어우러진 편의쉼터 및 카페테리아를 조성 - 전시 컨셉에 맞게 전시물 설명을 포함한 전시 벽면 100% 활용 방안 모색 - 차 없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기념관 홍보	

13) 미술관 건립비 지원제도 내에서 '신규건립'과 '노후화 개선관'을 별도 구분하여 노후화 개선 비율을 일정 수준 높여 지자체 관심을 높임 .

①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 : 박물관 46%, 미술관 40%
② 내진 미설계 비율 : 박물관 64.7%, 미술관 64.8%
자료: 2017년 전국 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 미술관 3관 전시 특성화 방안

가. 전시 운영방향

(1) 자체기획전시

○ 각 미술관 학예사를 중심으로 근·현대미술의 다양성, 가변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획

○ 미술연구모임 연구 성과 및 소장품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이에 근거한 전시 기획

(2) 공동기획전시

○ 3관의 학예사 또는 내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리서치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전시기획

○ 국내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기획된 전시

○ 국내외 미술관 연계 순회전시 기획

(3)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양극화 해소

○ 지역 주민의 현대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시의 지속적인 개발 및 추진

○ 시대의 흐름 속 우리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고 신진 미술가를 발굴하는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

○ 노인, 장애인 등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 중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문화 소외 지역에 이동 전시를 마련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장애인의 미술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의 촉각교재 및 수화 동영상 전시 설명 제작 및 보급

나. 전시방법

전시 유형	전시 방법
상설전	○ 소장계획과 연계된 상설전시관의 중장기 운영시스템 구축 ○ 신규 수집한 작품의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부각 ○ 소장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다양한 형식의 주제전을 활발하게 기획하여 소장품의 활용 및 재해석 ○ 고전적 전시방식에서 탈피한 세련되고 이해하기 쉬운 전시 디자인 고안
기획전	○ 소장품전과 차별된 주제 중심의 기획 전시. ○ 각 미술관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전시 ○ 작가, 디자이너, 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통섭문화 전시 개발 ○ 가족 및 청소년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추진 ○ 건축 내외부의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 전시
특별전	○ 국공립 미술관 및 유관기관 기획 순회전시 ○ 오랜 시간과 큰 예산이 요구되는 거대한 규모의 기획전에 대해 중장기 계획 수립
디지털전시실	○ VR, AR,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하여 관람형태의 다변화. ○ 디지털 미술관 운영: 누구나 함께 보는 전시영상 제작 및 보급(외국어 자막).

다. 미술관별 전시방향

각 미술관의 차별화된 방향에 부합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를 기획하여 관람객이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함.

각 미술관	종합 의견
종합	○ 미술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원화된 전시 ○ 단체 관람객의 신청에 의한 작품해설 감상법 안내 상설화 ○ 디지털미술관 운영: 누구나 함께 보는 전시영상 제작 및 보급(한국어・외국어 자막). ○ ‘찾아오는’ 미술관에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 미술관 3관 국내순회전시 기획 -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양극화 해소 ○ 장애인 대상 촉각 교재 및 수화 동영상 전시기법 개발 ○ 작품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품 활용
	서귀포의 색채와 동시대 다양한 이슈를 발신하는 창의·실험형 미술관!!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소재의 평면, 설치 및 미디어 작품 전시(원형의 전시실 속 둥근 벽면을 고려할 필요)

각 미술관	종합 의견
	국민화가 이중섭과 동시대 작가, 제주 작가가 함께하는 서귀포 힐링 미술관 작은 사이즈의 모던클래식 평면과 조각 및 자료 전시(좁은 원형의 전시실 속 둥근 벽면을 고려할 필요)
	서예와 타이포그래피(폰트디자인)를 아우른 '읽는 서예'&'보는 서예' 미술관! 읽는 서예(전통서예)와 보는 서예(현대서예)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마련. 서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와 소암기념관 홍보를 위해, 예를 들어 겸재정선展, 한석봉展, 탐라순력도展, 훈민정음展 등 전시기획 수립.

다. 전시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1) 기당미술관

⇨ 서귀포의 색채와 동시대 다양한 이슈를 발신하는 창의·실험형 미술관!

○ 추진방향

- 주로 변시지 위주의 상설전과 지역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던 기존 전시에서 그 방향을 유지하되, 이를 보완 발전시켜 서귀포 미술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한 동시대 미술의 경향을 소개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관광객보다 주민 위주의 방문객 수가 많으므로 가족과 어린이 및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현대미술 전시가 적합함.
- 전시장 중앙 홀의 높은 층고와 노출 콘크리트형 바닥 등, 거대한 설치 또는 영상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

○ 추진내용

- 서귀포 미술의 정체성 확보와 세계화를 위한 전시 : 서귀포 내 지역미술사를 정리하며 지역작가 연계 전시를 기획
- 현대미술 동시대 경향을 보여주는 작가중심 전시 및 현대미술의 대중화 : 새로운 미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전시를 기획함과 동시에 동시대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대중의 문화 욕구를 충족
- 글로벌시대 다양한 이슈를 제시하는 창의·실험형 전시 : 예술과 기술, 공연, 퍼포먼스 이벤트 등 장르 간에 융합한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업들을 미술관에서 대중과 공유 (참여 놀이형 또는 융복합 전시)

(2) 이중섭미술관

⇨ 국민화가 이중섭과 동시대 작가, 제주 작가가 함께하는 서귀포 힐링 미술관

○ 추진방향

- 이중섭 전문미술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대표작 수집(구입)과 동시에 관련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콘텐츠에 충실한 미술관으로 도약.
- 국민화가 이중섭의 작품세계와 더불어 동시대 작가 및 제주 작가 조명을 통한 전시 장르 확장.
- 공간 협소로 인한 대형 설치작업이 주를 이루는 컨템포러리 아트보다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의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화이트 큐브(백색 공간) 컨셉을 도입하여 소형 모던 아트 기획 전시 제안.

○ 추진내용

- 이중섭 시대의 재조명: 박수근, 김환기, 박고석, 한묵, 황염수 등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 기획전 유치.
- 전시 콘텐츠 다양화(시와 그림의 만남): 이중섭과 문인들(김광균, 구상 등) 주제로 그림 영역 밖 예술 장르를 통한 전시 콘텐츠 다양화 모색
- 한국전쟁기 서귀포를 무대로 활약한 피난민 예술가, 군예대 소속 예술가,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초대한 전시회 기획

(3) 소암기념관

⇨ 서예와 타이포그래피(폰트디자인)를 아우른 '읽는 서예' & '보는 서예' 미술관!

○ 추진방향

- 소암 현중화는 제주도 내 칭송받는 서예가지만, 서귀포 시민들을 비롯한 국내 일반 관람객에게도 인지도가 낮아 관심을 불러올 다양한 장치가 필요한 상황
- 한글 작업 보다 '행초서' 에 편중된 작업이 많아 소암의 작품만으로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불가함
- 비인기 예술인 서예라는 장르적 한계로 인해 관람객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장르의 확장을 통한 서예의 현대적 재해석이 요구됨
- 근거리에 있는 이중섭미술과는 차별화 되며 소암기념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어울리는 순수미술 장르를 탈피한 전시가 필요

○ 추진내용

· 국내외 및 아시아권 명망있는 서예 관련 작품 및 기록물 전시

· 서예 관련 현대미술 기획 전시 : 수묵 드로잉, 한국화(詩·書·畵 겸비 문인화), 동양 '선' 사상과 서예에 영향을 받은 서구 추상미술 등 기획 전시

· 문자 디자인(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및 관련 출판물 전시

· 웹상의 아이콘 등 동시대 시각디자인 기획 전시

5.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향

(1) 미술관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

○ 미술관 교육 전담 에듀케이터 팀 신설

○ 미술관 3관의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각 미술관 학예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수립.

○ 관외 교육 강사에게 아웃 소싱하는 방식으로 미술관 운영의 인력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 미술 인력의 동반 성장 효과 창출.

○ 기획 및 특별전 연구에 수반되는 학술행사를 기획하여 각 미술관의 위상을 높임.

(2)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 맞춤형 프로그램 교재 개발과 운영.

○ 단순한 관람의 수동적 수용방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대상별 맞춤형 미술 감상의 방식 확장.

· 주민, 관광객,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상설전, 기획전,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작가와의 만남, 지역 예술 기행) 기행

· 전시 기간과 별도로 미술관 자체 연차별 장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3) 찾아가는 미술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 미술관 에듀케이터와 외부 교육 강사의 협업을 통합 소외 지역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개발.

나. 미술관별 프로그램

각 미술관의 특성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전시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1) 기당미술관

○ 변시지 예술세계와 제주도 자연 풍광을 주제로 한 연속 강좌 개설

○ 전시 주제와 부합하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 및 현대 사회의 예술 담론 주제 강좌

○ 작가와의 만남 : 전시에 참여한 작가에게 작업 의도와 제작방법을 직접 들어보는 장을 마련하여 작가와의 친근감 조성.

○ 기획 및 특별전 관련 학술행사를 기획하여 이를 기록·아카이빙하여 동시대 미술관 이미지 제고

○ 관내 아트라운지를 무대로 미술 주제 외 다양한 주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2)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근·현대미술사, 서귀포문화사 프로그램 기획

○ 이중섭의 은지화 작품을 매개로 자유로운 드로잉 표현법 등을 체험하는 교육자료(워크시트) 개발.

○ 정적인 것을 기피하는 어린이나 성인에게 미술관을 경험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 기획

○ 미술에 소질이 있는 취약 계층 어린이와 작가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창작스튜디오 작가들과 연계)

○ 이중섭이 남긴 그림 속 섶섬, 자구리포구 등 생태예술탐방 프로그램

(3) 소암기념관

○ 소암 현중화 선생의 예술과 자연을 주제로 연속 강좌 개설

○ 제주서예사 : 조선시대 제주도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청백리 제주목사 및 유배객, 지방관료와 시인묵객 등이 남긴 詩·書·畵의 세계와 제주도 자연경관을 주제로 연속 기획강좌를 통해 서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와 친근감 증진.

○ 문자의 발명과 역사 맥락에서 타이포그라피 디자인론 등 전시와 연계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서예의 대중화를 꾀함.

○ 전통 서예교실 범주를 확장한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디자인 등 다양한 워크시트 개발 및 수업 상설화.

○ 소암 선생과 인연이 깊은 서귀포 산책. 詩·書·畵에 기록된 서귀포시 명소·명승 탐방 겸한 백일장 개최. 옛 비석 및 마애명 현장 탐방. 석각(夕刻) 탁본 체험 등.

6. 작품 수집 방향 및 소장품 확대 방안

가. 미술관 3관 소장품 현황

(1) 소장품 현황 및 규모

○ 기당미술관의 소장품은 총 680점(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수장고 면적은 107.8㎡임.

○ 이중섭미술관의 소장품은 총 286점(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수장고 면적은 41㎡임.

○ 소암기념관의 소장품은 총 686점(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수장고 면적은 62㎡임.

(2) 소장품 수집의 문제점

○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수준 높은 작품 수집의 어려움이 있음.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의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표작이나 수준 높은 작품 구입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각 미술관 '대표작' 보유 여부
미술관 3관 중 이중섭미술관의 '대표작품' 보유 여부가 논의의 중심에 있음.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총 286점 중 이중섭 원화는 47점임. 다만, 이중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소' 작품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2018년 이중섭의 '소' 작품이 경매로 나와 47억원에 낙찰된 바 있음. 이는 8년 전 2010년 낙찰가(35억6000만원)와 비교하면 11억원 상승했으며, 이중섭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가격은 상승할 전망. 또 이중섭 '소' 유작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매도 정보가 있을 경우는 서귀포시와 이중섭미술관 측의 과감한 구입 결단이 필요함.

○ 소암기념관의 경우, 매해 공모를 통해 소암 작품 수집을 진행 중에 있음. 다만, 공모 기간 외에는 그렇지 않음. 공모 기간 외에도 상시 소암 작품 소장처(개인 또는 기관) 전수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소암 작품 이외에도 한국화 등 소암 작품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장품 수집의 다각화 모색 필요.

○ 소장품 구성의 획일성

· 미술관 3관 소장품은 주로 과거 제작된 회화 및 서예 위주의 평면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미술관 내 전문가 조직의 약화

· 소장품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이 부재함으로써 소장품 확대와 활성화 측면이 정체되어 있음. 또한 소장품 구입을 심의하는 각 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유동적이고, 의견 일치가 어려워 소장품 수집 방향이 해마다 변동되고 있음.

나. 작품 수집 방향 및 개선방안

(1) 각 미술관의 '대표작' 보유를 통한 미술관 경쟁력 강화

○ 미술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는 '대표작품' 보유 여부에 달려 있음.

○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작품 구입은 미술관 예산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임. 고가의 작품을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민 공감대와 더불어 대대적인 이슈 선점과 여론형성이 필요함.

○ '대표작' 및 필요한 작품 수집(구입)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책임 관장제 하 미술관 운영위원회 작품 수집의 중장기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작품을 구입·수집할 필요.

○ '대표작'을 예산의 문제나 희귀성 때문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복제품 제작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기증 제도를 통한 작품 수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장품 구성의 획일성 극복

미술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집 작품의 범위, 기증 제도를 통한 작품 수집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장품 수집, 관리, 수립, 보존처리를 위한 전담 인력 투입

○ 첨단 작품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작품관리

☞ 소장품 분류 체계 수립 및 상세카드 제작, 검색 시스템 개발 등)

(2) 소장품 활용의 다각화

○ 디지털미술관 운영을 통한 소장품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활용 가능성 제시

○ on/off라인 통한 작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작품감상 기법을 개발할 필요.

○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통해 소장품을 활용한 주민 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7. 수장고 가용한계 및 확대 방안

가. 수장고 시설 및 공간의 가용 상황

(1) 미술관 3관 수장고 규모

○ 기당미술관 수장고 면적은 107.8㎡임.

○ 이중섭미술관 수장고 면적은 41㎡임.

○ 소암기념관 수장고 면적은 62㎡임.

(2) 미술관 3관 수장고 관리 현황

○ 단순한 항온항습 기능은 보유되어 있으나, 작품관리랙과 같은 작품보관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이중섭미술관 수장고는 3관 미술관 중 가장 협소함. 현재 수장고의 가용한계에 다다르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예를 들어, 매년 창작스튜디오 기증작품의 증가 등을 예측해 볼 때) 수장고 증설이 불가피함.

○ 기당미술관은 수장고의 90퍼센트 정도 소장품이 차 있는 상태이고, 큰 규모의 조각 및 설치작품 등은 사실상 수집·보관하기에 한계가 있음.

나. 수장고 확대방안

(1) 소장품 수집·관리 정책 수립에 의거한 공간 활용 계획

○ 첨단 수장고 시스템 시설(작품보관랙 등)을 확충하여 소장품을 정리하고, 기존 수장고 공간을 더욱 규모 있게 활용

○ 전시형(개방형) 수장고, 즉 상설수장전시장 운영을 통한 공간 확보. 소장품의 양적·질적 증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장품을 수장·관리하면서 동시에 전시 가능한 방안

○ 소장품 수집 과정에서 미술관 방향과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게 분류된 작품은 도립공공수장고를 임대하여 보관하고, 해당 작품은 디지털미술관 소장품 코너에서 소개 및 전시

(2) 장기적 계획 수립에 의거한 각 미술관 수장고 증설

○ 수장고 가용 한계를 예측하여 미술관 별 수장고 증설 계획 수립

○ 과학적이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수장고 건립

○ 소장품 분야 전담 인력, 즉 등록담당원(registrar), 보존처리사(consevator), 소장품 관리자(collection manager), 소장품 등록관(archivist) 업무 부서 신설.

8. 미술관 대외교류 활성화 방안

가. 미술관 3관 대외교류 수립 방향

(1) 작품 대여를 통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수립 및 현황 기록 공개

○ 미술관 3관 대외 교류 경쟁력은 수준 높은 작품 보유 여부에 달려 있음. 상호 작품 대여를 통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미술관 홍보 방안 모색.

(2) 공동기획순회전

○ 각 미술관 성격에 부합하는 인물, 지역, 미술관 및 서귀포 자매도시 및 유사한 문화비전을 표방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공동기획 순회전 추진.

○ 인근 지역 사립미술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계 미술행사 및 공동기획전시 개최.

(3) 미술관 정보 교환 및 연구 모임 네트워크 구축

○ 전국 국공립미술관 협력 네트워크를 상설화하여 학예업무 필요시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소장품 교류는 물론, 인턴 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연수프로그램, 학술행사 참여 및 공동 전시기획과 순회전 등을 추진함.

○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전시 연계 강연회, 정기 학술대회, 좌담회, 세미나, 국제 심포지움 등을 유치 및 개최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4) 협회 가입 및 미술 관련 국제행사 유치

○ 전국 미술관장회의 및 큐레이터 협회 참여 및 개최를 통해 국내 국・공・사립미술관들의 협력체제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 박물관・미술관의 국제적 흐름과 역할에 발맞추어 미술 관련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총회, CIMAM(국제현대미술관위원회) 등 주요 국제회의・행사 공동 참가 및 서귀포시 유치 노력.

나. 미술관 별 대외교류 방향

(1) 기당미술관

○ 지역의 현대미술 작가들과 교류전 및 소장품 작가 초대전 기획 정례화(1회/년)하여 소장품 포함 해당 작가의 최신작 발표 및 해당 작가 기획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 참여 유도.

○ 근현대미술을 다루는 국내외 미술 작품 컬렉터 미술관과 네트워크 구축: 컬렉션(수집) 동향 파악, 기증, 대여 및 경매 작품 정보 교류, 이를 통해 미술관 취지에 맞는 작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

(2) 이중섭미술관

○ 환기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장욱진미술관 등 국내 근현대작가미술관과 교류하여 소장품 교류전 및 공동연구 기획, 전국미술 투어 등 추진

○ 제주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 국민화가 이중섭 작품과 예술세계 조명 교육 프로그램 추진.

(3) 소암기념관

○ 서귀소옹과 사람들(연속사업) 기획전시 콘텐츠 강화. 작품 전시 차원을 넘어서 초대작가와의 대화, 작가의 소장자료 및 유물 등도 소개하여 서예의 대중화를 꾀함.

○ 소암과 인연이 깊은 지역/장소 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탐방 프로그램 실시하여(최소 1회/년) 해당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 동아시아권 서예미술관, SOMA미술관(드로잉 미술관) 교류

○ 지역 출판 및 디자인센터 등과 협력망 구축하여 폰트와 디자인의 조화로 미술관 3관 발행 출판물의 선진화 꾀함.

9. 홍보 마케팅 방안

가. 미술관 3관 홍보 채널 현황

○ 현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공식 온라인 채널은 서귀포시 공립 문화예술기관 통합 사이트인 '서귀포문화예술포털' (총 12개 메뉴)임.

○ 총 12개 메뉴 중 3개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에 해당. 각 기관의 홈페이지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전반을 다루는 포털이기 때문에 미술관 별 접근성·집중도·독자성이 떨어지며, 원하는 정보 습득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안) 제안

○ 2020년 전세계를 위협하는 Covid-19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 및 문화생활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on라인 전환과 독자적인 홈페이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on/off라인을 넘나들며 지역 미술관으로서의 운영과 홍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오프라인 홍보 채널로는 각 미술관이 제작·배포하는 리플릿이 있음. 다만, 현행 리플릿은 미술관 관점에서 작가와 미술관 소개 위주로 제작되어 공감력이 떨어지고 시각적 파급효과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리플릿 제작은 이용자 관점에서 콘텐츠를 구성하고, 온라인 홍보와 병행할 필요가 있음. 미술관 자체 소개는 비교적 간결하게하는 한편, 관내 시설물 소개, 관람시간, 층별 시설배치도, 층별 시설물 내용 소개, 주요 작품 소개, 주변 문화시설 소개 등 이용자 관점의 정보와 콘텐츠를 담는 한편, 시각적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리플릿 제작(안)

○ 현재 각 미술관 1인 학예사의 업무가 가중되어 홍보 업무 효율이 떨어짐.

○ 미술관 3관을 아우른 공립미술관 전담 홍보 마케터 인력 충원이 시급함.

☞ 업무 분야: 홈페이지 관리, 디지털미술관, 온라인 아트숍, CRM(고객 관계 마케팅) 시스템 운영 등.

나. 홍보 전략

○ 미술관의 전문성·공공성·다원성을 아우른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 각 미술관을 상징하는 브랜드 MI(Museum Identity) 도입과 더불어 on/off 라인 미술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강할 필요

○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의 특색, 전시장 구성, 이용정보, 주변 환경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보급

○ 전문 홍보 마케터 중심으로 홍보 발신처의 일원화: 보도자료 배포 및 고객 서비스, 홍보 마케팅 계획 및 관리.

다. 홍보 채널의 다각화

○ 각 미술관 리플릿 홍보

○ 연보(年報, Annual Report) 발간 및 pdf 파일 온라인 공개

- 1년 단위 미술관의 전반적인 사업운영 보고와 평가, 작품 수집 현황, 방문객 수, 매출 실적 등 관련 사진들과 함께 실어 제작. 홈페이지에 Annual Report를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함.

○ 미술관 3관 통합티켓 판매

- 미술관의 경쟁력 확보 및 컨텐츠를 풍부하게 하여 입장료 인상 검토

- 미술관 통합권을 판매하여 이중섭미술관에 집중된 관람객을 소암기념관과 기당미술관으로 유도함으로써 관람객 확보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순환버스 운행(코스 개발)
- 서귀포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관내 미술관·박물관을 순회하는 '서귀포시 뮤지엄 투어버스' 도입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미술관도시로서의 이미지 선점
- 미술관 3관을 방문하는 이동 경로에 관한 설명이 담긴 리플릿 또는 안내문 배치

○ 지역연계 홍보
- 인근 사립미술관 또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마케팅
- 미술관 3관 주변 타 박물관·미술관과 협업한 릴레이 지역 홍보
- 주변 문화·관광정보를 담은 문화지도(아트맵) 구축

○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관리하여 미술관을 알리고 애호하는데, 이용자들이 직접 기여하고 참여하는 장을 마련

라. 홍보 채널의 선진화

○ 지역예술가 DB 구축.

○ 지역 문화시설, 국공립미술관, 학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 DB 구축 및 최신 정보 교류.

○ 홈페이지 접속 및 이용 패턴, 관람객의 관람 및 상품/서비스 구매 패턴, 입장권 구매 및 사용 패턴 등, 미술관의 실제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수행

○ 인플루언서(Influencer)마케팅 확대/이용자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지향
-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미술관 홍보가 이용자 층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

○ 미술관 3관 통합 멤버쉽(서포터즈) 제도 운영:
- 다양한 연령/계층별 대상으로 미술관 핵심 고객 확보
- 다양한 혜택, 서비스,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멤버쉽(서포터즈) 가입 동기를 유발
- 미술관의 주요 전시 문화 행사 시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
- on/off 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회원 관리(오프라인 상에서는 관람자의 행동과 의견, 대화 등을 다양한 조사기법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CRM에 반영)

마. 미술관 3관 별 리플릿 제작(안)

각 미술관	홍보 리플릿(미술관 별) 제작 전략
종합	**각 미술관의 차별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합된 브랜드가 존재할 때 그 가치를 발함.**
기 당 미술관	⇑ 각 미술관 홍보물(인터넷+리플릿)의 전문화된 안내(독자적인 판형과 색채+미술적 용어사용+쉬운 문장+완성된 디자인) 예) 작가미술관 자체 소개는 비교적 간단하게, 시설물 공공안내그림으로 관내 소개, 관람시간, 층별 시설배치도, 층별 내용 간략 소개, 주변 문화시설 소개 등 시각적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섬세하게!
이중섭 미술관	
소 암 기념관	좌: 나오시마 베네세하우스 리플릿 내 관내시설배치도(부분) 우: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리플릿 내 공공안내그림(부분)

바. 통합 홈페이지 제작(안)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단독 문화플랫폼으로서 콘텐츠 구성과 운영체계를 밀도 있게 구축하여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전문성・공공성・다원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을 제안함.

☞ 공식사이트: www.서귀포시 공립미술관.kr 운영(안) 체계 수립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안)		
공식사이트: www.서귀포시 공립미술관.kr 각 미술관 로고 ○ ○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당미술관 미술관명 (영문)	이중섭미술관 미술관명 (영문)	소암기념관 미술관명 (영문)
관장 인사말/조직도/공지사항		
각 미술관 소개 시설물 이용 안내(관내도 포함) 현행 프로그램/행사 소개 미술관 소식(아트 Talk, 워크샵, 교육, 세미나 등 미술관 행사) 연보Annual Report 각종 언론매체 기사 모음(미술관 관련) 소장품 카드 디지털미술관(작가·작품·전시 관련 영상 제작 및 정기 업로드, 소장품 소개) 온라인 아트숍 (아트상품: 아이디어-제작-판매-피드백) 미술관 통합티켓 예매 문화플랫폼 운영 미술관도시 네트워크 주변 미술관 및 문화기반시설 서귀포시 관광지 서귀포시 공공기관 링크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이용자의 상호소통 커뮤니케이션&인플루언서(Influencer)마케팅 지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디지털 문화플랫폼 조성 및 소통과 광고보다 SNS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추세에 따른 대응 전략.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 특성과 장점에 맞추어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 중심의 미술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피드백 되는 소통 마케팅 지향.		

10. 수익창출 방안

가. 미술관 3관 판매 아트상품 현황

○ 기당미술관

<표8-21> 기당미술관 아트상품 종류 및 판매액

(2020년 11월 30일 기준)

합계	작품판화	문구류	기타	도록	비고
31종	6종	7종	17종	1종	변시지 작품판화 및 기당미술관 이미지를 활용한 자체 로고상품

※ 기타: 손수건, 시계, 우산, 램프, 열쇠고리, 엽서 등

(단위: 천원)

기당미술관	2016	2017	2018	2019
아트상품 판매		10,563	10,122	9,684(▽438)

○ 이중섭미술관

<표8-22>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종류 및 판매액

(2020년 11월 30일 기준)

합계	작품판화	문구류	기타	비고
71종	22종	14종	35종	이중섭 판화 및 이중섭 작품 활용한 아트 상품 제작

※ 기타: 그림, 도록, 마그네틱, 명함, 섬유, 소품가전, 손거울, 시계, 액자, 엽서, 장신구, 퍼즐, 잡화

(단위: 천원)

이중섭미술관	2016	2017	2018	2019
아트상품 판매	236,826	239,058원	247,828원	214,622(▽32,777)

○ 소암기념관

<표8-23> 소암기념관 아트상품 종류 및 판매액

(2020년 11월 30일 기준)

합계	도자기류	문구류	섬유	서적	잡화
32종	6종	6종	9종	7종	4종

(단위: 천원)

소암기념관	2016	2017	2018	2019
아트상품 판매	2,478	5,353	3,817	4,699(852▲)

나. 각 미술관 아트상품 현황 분석

○ 기당미술관 31종, 이중섭71종, 소암 32종 아트상품이 개발되어 모두 관내 아트숍에서 관람객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음.

○ 기당미술관 아트상품은 문구류(5천원 내외), 램프(2~3만원대), 작품판화(40만원대) 등이 있음. 2016년~2019년 동안 연간 매출액은 최소 9,684천원(2019년)에서 최대 10,563천원(2017년)으로 평균 1천만원 선.

○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은 문구류(2천원~3만원대), 크리스탈 액자(2만원 내외), 섬유 포스터(3만원대), 작품판화(15만원~35만) 등이 있음. 2016년~2019년 동안 연간 매출액은 최소 214,622천원(2019년)에서 최대 247,828천원(2018년)으로 평균 2억3천만원 선.

○ 소암기념관 아트상품은 문구류(5천원 내외), 넥타이(2만원대), 다기 세트(4만원) 등이 있음. 2016년~2019년 동안 연간 매출액은 최소 2,478천원(2016년)에서 최대 5,353천원(2017년)으로 평균 4백만원 선.

다. 시사점: 아트상품 개발 및 판매처의 다각화 필요

○ 아트상품은 현재 관내 off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미술관 3관 대표적인 아트상품 및 신상품은 3관에서 동시 홍보 및 판매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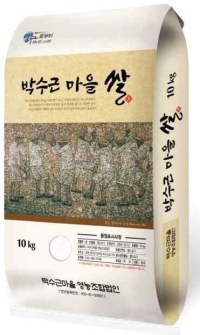
○ 아트상품 판매 공간 확보, 부스 디자인 엄선, 추천 상품 코너 마련 및 정기적 교체 등

○ 미술관 3관 통합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브랜드로 지역성을 반영한 아트상품 및 디자인 개발

○ 파손 우려가 없고 수요가 높은 아트상품들은 on라인(미술관 홈페이지)을 통한 적극적 홍보 및 다양한 판매 채널 구축·운영
○ 시대의 흐름, 이용자 중심의 아트상품 개발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재료비 예산 확보
○ 제주관광기념품과 아트상품이 결합된 판매 구조와 방식 개발
○ 미술관 전시 도록, 소장품 카탈로그, 연보 등 책자는 도내 공립미술관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 확대

다. 지역기업 및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미술관 홍보 및 지역활성화

○ 서귀포 지역 사업체(수협, 농협, 은행 등)와 연계한 미술관 홍보
○ 서귀포공립미술관 소장 아트 디자인 활용을 통한 서귀포 지역특산품출시
○ 사례: ‘박수근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출시한 ‘박수근마을 쌀’. 양주군립 박수근미술관 소장 작품 활용한 지역특산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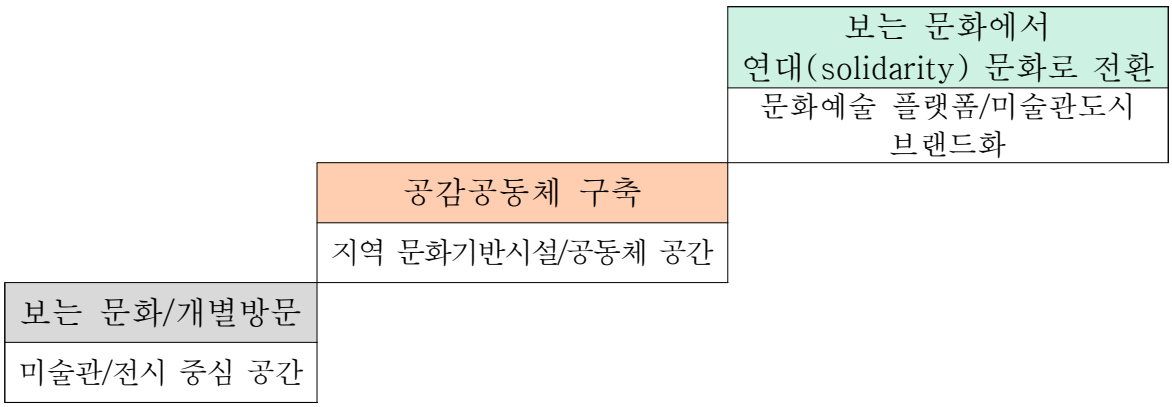
<그림8-2> 박수근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출시한 ‘박수근마을 쌀’

라. 관내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수익 효과 창출

○ 통합 미술관 코스 개발과 함께 미술관 야외 공간을 활용한 카페테리아 운영
○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미술관 벤치 및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공간의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
○ 전시 외에 영화 상영, 퍼포먼스 아트, 공연 및 강연 등의 문화예술 활동
○ 이중섭미술관 거리 주변 연계 페스티벌 개최
○ 소액기부 캠페인 등 사회 구호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제2절 공립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각 미술관 특성화 전략

1. 지역연계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그림8-3> 지역연계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 기존의 미술관은 관 주도 전시 중심 공간으로 물리적 관람 경험에 집중한 '보는 문화/개별방문' 위주로 운영되었음. 미술문화 향유가 예술가와 비평가, 예술기관 등의 '미술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폐쇄적 구조(블록block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비전(국정기조)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가 강조됨에 따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 미술관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조(그물망web 시스템)의 공동체 공간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 미술관은 보는 문화에서 연대(solidarity) 문화로 전환되며, 지역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관광·여가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2.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특성화 로드맵

○ 미술관도시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특성화 로드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정책 목표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운영체계 정립 ○ 전문 역량 강화 및 우수 콘텐츠 생산 ○ 통합(3관) 디지털미술관 운영 ○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슬로건	**서귀포의 색채와 동시대 다양한 이슈를 발신하는 창의·실험형 미술관!**	**국민화가 이중섭과 동시대 작가, 제주 작가가 함께하는 서귀포 힐링 미술관**	**서예와 타이포그래피(폰트디자인)를 아우른 '읽는 서예'&'보는 서예' 미술관!**
전문성 (수집·보존·조사·연구·기획)	•서귀포 시각문화콘텐츠 연구 •변시지 재조명 연구논문 공모 •미술시장과 미술품 수집문화의 변화 양상 연구	•이중섭 대표 작품 구입 수립 계획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이중섭 자료수집 및 연구 기능 확대.	•<제주서예의 맥> 관련 자료수집·보존·조사·연구 및 전시. •서예전문미술관으로서 운영 기틀 마련. •폰트디자인 연구소 •현대서예 프로젝트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역미술 연구모임 활성화 •신매체 융복합 디지털전시실 운영		
공공성 (전시·교육·나눔·홍보·교류)	•전국 단위 동시대(현대) 미술 초대기획전 •소장가 작품 위탁 전시 •소장품 전시 •청년작가 실험예술제	•이중섭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미술의 재발견 기획전 •이중섭 작품과 자료 분석을 통한 신기술 전시 기획(예술과 기술의 만남으로 원작에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통한 기획전)	•'소옹과 사람들' 기획전(연속 전시테마)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제주서예의 맥'전시 •한국화 순회전 •소암 서예를 주제로한 미디어아트 기획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온라인 병행전시) •서귀포시 주제로 '미디어아트 분야' 작품 공모전 및 시사회		
다원성 (관광·체험·힐링)	•아트라운지 문화행사(가족 대상 프로그램 강화) •삼매봉도서관 연계 지역 예술문화 기증 작품 및 자료 전시	•이중섭거주지는 행사장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명상 쉼터로 절대 보호 •이중섭과 서귀포 풍광을 테마로 발견과 힐링의 생태예술제 특화	•서예·한국화·탁본·전각 아카데미 •탐라순력도 중 서귀포시 자연경관 탐방
	지역메세나기업과 매칭 프로그램_지역 문화관광산업_미술관도시 브랜드 창출		
시설관리	**고품격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매뉴얼 수립**		

제3절 ‘미술관도시’ 구축 타당성 검토 및 도시 브랜드화 전략

1.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가. 서귀포시 이미지에 대한 주민 의견

○ 서귀포시 이미지에 대해 제주도민(1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위권(1위~3위) 이미지로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3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문관광단지가 22.0%,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가 17.6%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서귀포시 이미지에 대해 전문가(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위권(1위~3위) 이미지로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이 3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문관광단지가 17.8%, 오름, 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가 16.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반면에 서귀포시 이미지로 ‘독특한 미술관·박물관·갤러리’를 선택한 경우는 제주도민 3.8%(7위/8개 항목), 전문가 9.4%(5위/8개 항목)로 상대적으로 하위권 이미지로 머물고 있음.

○ 한편, 동일 조사에서 서귀포시를 ‘미술관도시’로 육성하려는 발상에 대한 제주도민/전문가의 응답은 시도해 볼만은 하다가 42.3%/4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가 35.8%/35.0%를 보여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민의 경우,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우선 순위는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축제 등)가 50.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이 19.8%,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이 17.2%로 그 뒤를 잇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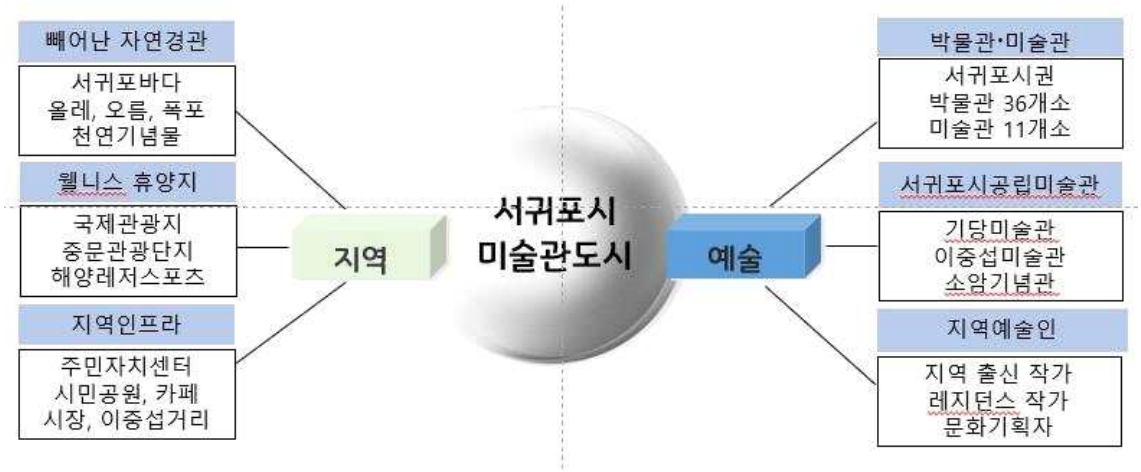
○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축제 등)
○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
○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 예술교육기관 유치(예술가 양성)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제주도민 의견) –

○ 전문가의 경우,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활발한 예술도시가 23.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예술시장의 메카 16.1%, 예술 향유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도시 16.1%, 다수의 공·사립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도시 16.1%로 공동 2위, 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이 남다른 예술도시가 14.3%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활발한 예술도시
○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예술시장의 메카
○ 예술 향유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도시
○ 다수의 공·사립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도시
○ 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이 남다른 예술도시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전문가 의견) –

○ 이를 종합하면, 서귀포시는 빼어난 자연경관, 중문관광단지, 오름·휴양지 등 최적의 웰리스 관광지 이미지가 매우 강한 한편, '미술관·박물관·갤러리' 도시 이미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추진에 대한 발상은 시도해 볼만은 하고,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서귀포시의 자연풍광을 무대로 색다른 문화향유 플랫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임.



<그림8-4> 서귀포시 지역과 예술이 어우러진 미술관도시 기본 구상

나.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구상과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기본 구상은 본 사업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단순히 랜드마크격인 조형물로서 거창한 미술관 보유 도시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예술이 어우러진 생활 속 네트워크 '미술관도시'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가 주력할 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등을 연결한 프로젝트가 3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전시, 체험, 교육, 예술 올레길 탐방) 30.4%, 뮤지엄 부대시설의 상설 문화공간화(카페, 아트숍, 쉼터) 12.5%,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8.9%, 국제적인 예술(가)의 거리 조성 (INFO센터, 예술지도, SNS 등) 5.4%, 유명 예술인 초청 및 예술축제(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유치 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등을 연결한 프로젝트
○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전시, 체험, 교육, 예술 올레길 탐방)
○ 뮤지엄 부대시설의 상설 문화공간화(카페, 아트숍, 쉼터)
○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 국제적인 예술(가)의 거리 조성 (INFO센터, 예술지도, SNS 등)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가 주력할 점(전문가 의견) –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이 42.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 26.8%,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 19.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
○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
○ 지역민 자긍심(지역 주민 예술역량 강화)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추진 방향(전문가 의견) –

○ 지속가능한 ‘미술관도시’는 어떤 주체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해서는 제주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가 3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 참여형 민관협동 문화예술위원회 30.4%, 관광객~관람객~SNS 12.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 주민 참여형 민관협동 문화예술위원회
○ 관광객~관람객~SNS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추진 주체(전문가 의견) –

다.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 도시의 이미지는 곧 그 도시의 브랜드이자 국가의 경쟁력임. 기업이나 제품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브랜드로 통하고 있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유럽 문화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술의 도시’ 등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 브랜드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을 위해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UCCN은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더 나아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0월 ‘문화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된 도시 네크워크임. 매년 문학, 공예, 디자인, 영화, 음식, 미디어아트, 음악 등 7개 분야로 나눠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을 선정하고 있음.

○ 한편,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2019년 12월) 되어 시민주도성, 문화다양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3가지 가치에 기반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문화x문화생태도시' 로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는 '문화도시 서귀포'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예술생태계를 기반으로 국제적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개념임.

○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는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 이라는 비전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미술관, 자연을 무대로 한 발견과 힐링 미술관, 제주 미래비전(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그 위상을 검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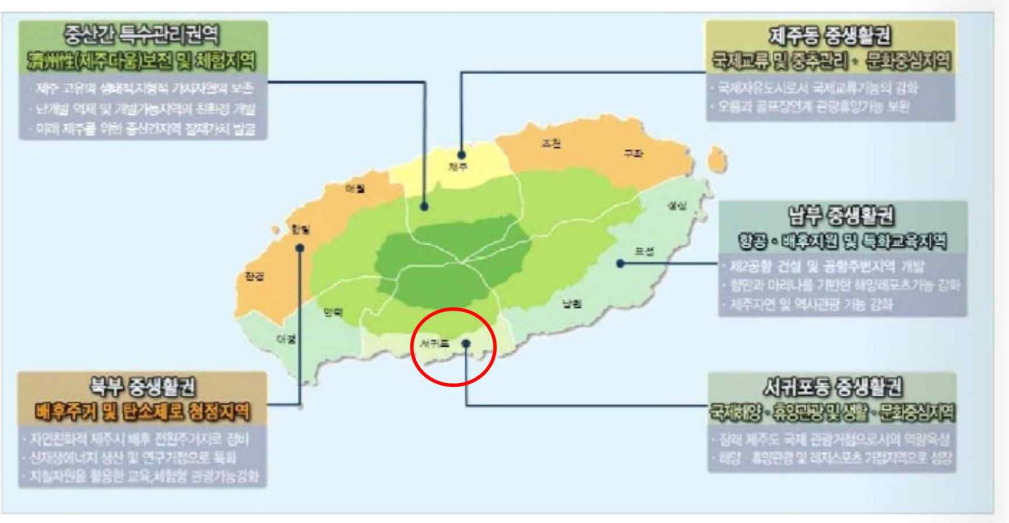
2. 추진 근거 · 타당성 검토

가. 추진근거1: 제주미래비전(청정과 공존)의 문화관광정책 정책

○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 개선

나. 추진근거2: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그림8-5> 생활권별 개발 전략



자료: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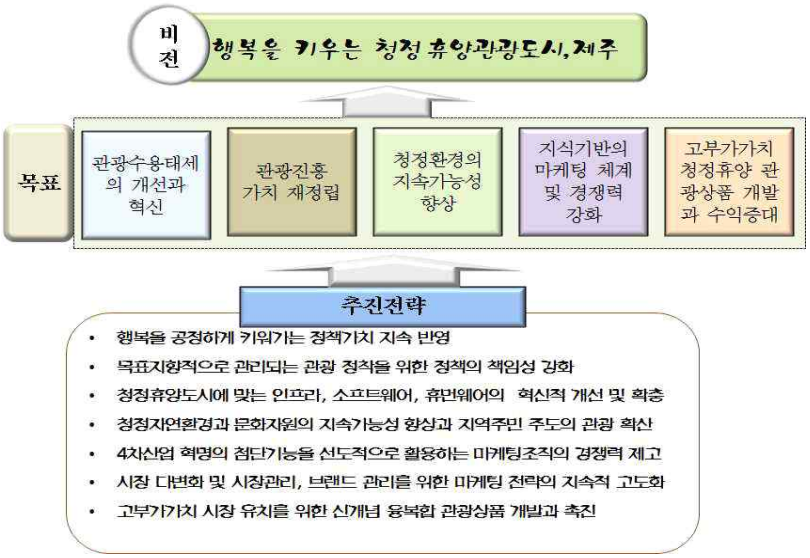
○ 서귀포동 중생활권: 국제해양·휴양관광 및 생활·문화중심지역

·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국제교류도시 조성
·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도시 기능 강화

다. 추진근거3: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 목표: 고부가가치 청정휴양 관광상품 개발과 수익 증대
·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시장 유치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과 촉진

<그림8-6> 제주관광의 비전과 목표



자료: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2019.

3.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방향

가.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미술관 운영

○ 공립미술관 제도의 혁신: 기존의 전시 중심 공간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나아가 지역의 자연·인문·관광자원과 매칭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미술관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미술관이 갖추어야 할 콘텐츠 발굴과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과 문화기획자 양성은 선결 조건임.

○ '미술관도시' 전담 담당 부서 신설(네트워킹&스토리텔링 전담)

○ 온라인 '서귀포시=미술관도시' 운영으로 생태예술관광 플랫폼 구축

나. 지역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경우, 찾아가는 미술관, 열린 미술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

○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예술교육과 힐링 공간 확충
(ex. 예술의 거리, 예술 카페, 예술 서점, 예술 시장 등)

○ 지역 주민·청소년 도슨트 교육: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 비전 속에 각 미술관 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 마련.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술관을 홍보하는 주역이 되어야 함.
- 미술관 기획전시/상설전시 관련 소식 동영상 업로드 및 피드백
- 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탐방·촬영·홍보
- 어린이 홍보팀 모집과 육성

○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다.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확충(지역 문화생태계 구축)

○ 미술관과 명승·명소 매칭 캠페인
(자연을 무대로 한 발견과 힐링 미술관)

○ 기술과 자연이 결합된 미디어아트 미래형 미술관 선도
(실험과 공유의 미래형 미술관)

○ 국내외 작가들의 체류와 교류 인프라 확충

○ on/off라인 생태예술축제/자연과 기술의 융복합 예술전시 개최

○ '미술관도시' 아트상품 개발과 판매망 확보

라.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 21세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일환으로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여 서귀포시를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로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여 대외 선언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관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한편, 지역주민·아티스트·관광객 주도의 서귀포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생태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함.

마.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추진 체계

구 분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비 전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
목 표	생태자연과 융합한 문화예술의 선진화 문화향유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21세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대상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일원
주 체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미술관도시' 전담부서(신설) + 지역주민 및 국내외 아티스트, 문화기획자
추진방향	자연을 무대로 한 발견과 힐링 미술관 실험과 공유의 미래형 미술관
추진기간	2021년~2030년(10년)
추진예산	'미술관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예산 책정
추진내용	**○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운영** - 미술관도시' 전담 담당 부서 신설 - 온라인 '서귀포시=미술관도시'운영으로 - 생태예술관광 플랫폼 구축 **○ 지역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 찾아가는 미술관, 열린 미술관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 주민/관광객을 위한 예술교육과 힐링 공간 확충 - 지역 주민·청소년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미술관 홍보팀 구성 -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확충(지역 문화생태계 구축)** - 미술관과 명승·명소 매칭 캠페인 - 기술과 자연이 결합된 미디어아트 미래형 미술관 선도 - 국내외 작가들의 체류와 교류 인프라 확충 - on/off라인 생태예술축제 - 자연과 기술의 융복합 예술전시 개최 - '미술관도시' 아트상품 개발과 판매망 확보 **○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 '미술관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조례제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서귀포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생태예술제 추진 - UNWTO, UCLG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교류 - 다양한 국제문화기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참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 2004년 10월 출범.

· UCCN은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더 나아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0월 '문화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된 도시 네크워크임. 매년 문학, 공예, 디자인, 영화, 음식, 미디어아트, 음악 등 7개 분야로 나눠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을 선정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총 84개국 246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10개 도시 7개 분야가 지정되어 참여하고 있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국내 가입 도시 현황(2020 기준)

도시명	분야	가입연도
서울	디자인	2010
이천	공예와 민속예술	2010
전주	음식	2012
광주	미디어아트	2014
부산	영화	2014
통영	음악	2015
부천	문학	2017
대구	음악	2017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	2019
원주	문학	2019

· UCCN (예비)회원 도시는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를 쓸 수 있으며 해당 도시 공식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 도시인 통영과 광주 로고 디자인

참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map.unesco.or.kr/creativecities/

제4절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2021년~2025년)

1.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가. 전략계획(strategic plan)

일반적으로 5개년 계획을 말하며 분야별 계획을 종합한 상위계획(정책목표)임.

○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수립

○ 관련 내용 연계 사업 발굴과 추진 계획

○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 <(가칭)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 미술관 진흥 시책, 설립・운영・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임.

나. 분야별 계획(departmental plans)

추진과제에 따른 분야별 계획임.

○ [조직] 추진업무 파악 및 전담인력 충원

○ [전문성 강화] 전시・연구・출판, 예비전문인력양성

○ [디지털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운영

○ [지역사회]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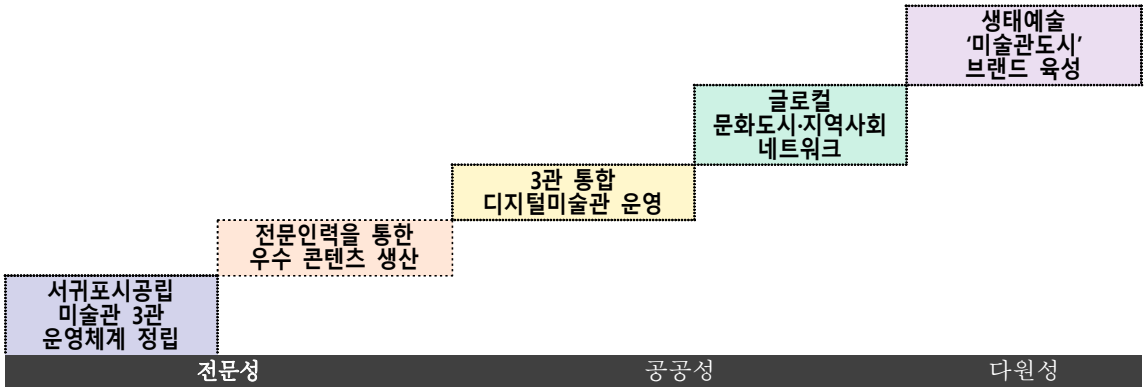
○ [문화관광] 미술관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다. 업무계획(performance plan)

매년 세우는 계획으로 예산이 승인된 것임. 실행 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가 미리 설정됨.

2. 5개년 단계별 추진 목표

<그림8-7> 단계별 정책목표



운영체계 정립 정책목표❶	**[조직 정비] 공립미술관의 비전 도출** • 공립미술관의 비전 도출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미술관 조직·운영 체계 확립 • 미술관 소장품 수집과 관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전문인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생산 정책목표❷	**[전문성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미술관 전문성 강화** •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서귀포 독자적인 시각문화 이미지 구축 • 도내 미술관 네트워크 연구 강화(조사·연구·전시·출판) •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술관 시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3관 통합 디지털미술관 운영 정책목표❸	**[디지털미술관] 3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디지털미술관 운영** • on/off라인 신매체 융복합 전시기법 개발 •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 디지털미술관 운영 • 미술관 3관 MI 및 아트상품 개발 • 연보(年報)발간
글로컬 문화도시·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목표❹	**[지역사회]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 빅데이터형 관람객 전수 조사 • 아웃리치(Outreach)[14]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 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공공성 강화)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정책목표❺	**[문화관광] 미술관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미술관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지역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확충 •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14) Outreach: 영어로 손을 뻗는다는 의미.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원조/지원] 활동. 공공기관의 현장출장 서비스.

3.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총괄)

가. 공통분야

추진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공통분야							
조직	조직개편(관장제 도입) 및 인력확보	○	○	○	○	○	○
운영	미술관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	○	○	○	○
	미술관 3관 MI 개발	○	○				
	연보(年報, Annual Report) 발간		○	○	○	○	○
	미술관 3관 리플릿 디자인 및 제작 (이용자 관점에서 콘텐츠 구성)	○	○				
	장애인 대상 촉각교재 및 수화 동영상 전시 설명 매체 제작 및 보급	○	○				
	디지털미술관(온라인미술관) 운영		○	○	○	○	○
	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공공성 강화)					○	○
아카이브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소장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	○	○	○
전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중장기 전시계획 수립(지역·예술·관광·힐링 주제)		○				
	•on/off 라인 신매체 융복합 전시기법 개발(미술관 연계 전시 영상 제작 및 보급, 외국어 자막 병행)			○	○	○	○
	장애인 대상 촉각교재 및 수화 동영상 전시물 제작 및 보급			○			
교육·지역·체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지역주민 프로그램 - 어린이/학생 프로그램 - 관광객 프로그램	○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지역 체험·탐방 프로그램)	○	○	○	○	○	○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				
홍보·마케팅	미술관 3관 통합 티켓 제작 및 전산화	○	○	○	○	○	○
	CRM(고객 관계 마케팅) 시스템 구축	○	○				
	빅데이터형 관람객 전수 조사 (시민/관광객 문화향유실태조사)		○		○		○

추진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미술관도시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 기본계획 수립 - 조례제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서귀포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생태예술제 추진 - UNWTO, UCLG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교류 - 다양한 국제문화기구 소통 플랫폼 참가		○	○	○	○	○

나. 3개 공립미술관 별

추진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미술관 별						
가. 기당미술관						
	미술관 파사드 재정비(독자적 디자인 도입 미술관 안내판 및 포토존 등 문화 쉼터 조성)		○			
	야외예술디자인 공원 조성(야외 조형물 관리)			○		
	관내 편의시설 확중 (커뮤니티 룸,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시설 등)			○		
	관내 아트라운지 시설 활용 아트랩 (실험예술, 영상제작 등) 활성화		○			
	수장고 확보/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	○		
	물품보관소 확대		○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도입		○			
	아트상품 개발	○		○		○
	기획전/특별전(- 서귀포 내 지역미술사를 정리하며 지역 작가 연계 전시 기획 -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대중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 - 미술관에서 대중과 공유(참여 놀이형 또는 융복합 전시)할 수 있는 전시	○	○	○	○	○
	작품구입	○	○	○	○	○
	교육운영(체험 및 초청강연회 포함) - 인문학 강좌 : 전문가 초청 강의 - 작가와의 만남 - 학술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 주민 현장 워크숍	○	○	○	○	○

추진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외교류 협력망 확대 - 중장기 대외교류 활성화 방안수립 - 소장품 작가 초대전 기획 정례화(1회/년) - 근현대미술을 다루는 국내외 미술작품 컬렉터 미술관과 네트워크 구축	○	○	○	○	○
나.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 야외공원 이용 문화 쉼터 조성 (독자적 디자인 도입 미술관 안내판 및 포토존 등 편의 쉼터 조성)		○			
	관내 로비 공간 리모델링 (매표소, 안내데스트, 아트샵, 사무실 등)	○				
	관내 편의시설 확중 (커뮤니티 룸,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시설 등)			○		
	미술관 디자인 개념도입 작품전시관 리모델링		○	○		
	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	○		
	미술관 내 디지털 영상실(교육실 겸용)마련			○	○	
	물품보관소 확대		○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도입		○			
	아트상품 개발	○		○		○
	이중섭미술관 거리 주변 연계 페스티벌					
	기획전/특별전 - 건축 내외부 공간 활용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 전시 - 친분나눈 박고석(朴古石), 한묵(韓默), 황염수(黃廉秀) 등 함께 전시 - 서구의 모던미술을 함께 연구, 전시 - 김광균(金光均), 구상(具常) 등 문인과의 연계한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으로 확장 전시 - 전쟁·피난·가족 등 사회사 및 문화사적 맥락에서 이중섭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	○	○	○	○
	작품구입	○	○	○	○	○
	교육운영(세미나 및 초청강연회 포함) - 이론강좌 : 인문학 강좌, 학술행사 - 실기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	○	○	○	○
	대회교류 협력망 확대 - 근현대 미술관련 국내외 미술관과 교류 - 소장품 교류전 및 학술회, 전국미술투어 등 추진 - 국제 레지던스 협력망 구축 -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운영	○	○	○	○	○

추진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다. 소암기념관						
	미술관 파사드 재정비(독자적 디자인을 도입한 미술관 안내판 및 포토존 등 문화 쉼터 조성. 미술관 입구 계단 이용)			○		
	관내 로비 공간 리모델링 (매표소, 안내데스트, 아트샵, 사무실 등)		○			
	관내 편의시설 확중 (커뮤니티 룸,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시설 등)			○		
	전시관 리모델링 (소암연대기 소개 안내벽 및 조명 등 교체)		○			
	전시 작품 설명문 현대화	○				
	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	○		
	서예/폰트 연구·교육공간 마련 (상설연구공간, 서예대중화 교육의 장 등)				○	
	물품보관소 비치		○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도입		○			
	소암 폰트 디자인 개발		○	○	○	○
	기획전/특별전 - 국내외 및 아시아권 명망 있는 서예 관련 작품 및 기록물 전시 - 수묵 드로잉, 한국화, 동양'선사상과 서예에 영향을 받은 서구 추상미술 등 기획 전시 - 문자디자인(타이포그라피) 및 관련 출판물 전시 - 웹상의 아이콘 등 동시대 시각디자인 기획 전시	○	○	○	○	○
	작품구입	○	○	○	○	○
	교육·체험 - 전시연계된 강좌개설, 서예 대중화 - 실기강좌 : 서예교실 범주 확장 - 체험프로그램 : 백일장개최, 현장탐방	○	○	○	○	○
	대외교류 협력망 확대 - 소암과 인연이 깊은 장소 탐방 코스 개발 : 탐방 프로그램 실시(최소 1회/년) - 동아시아권 서예미물관, SOMA미술관(드로잉 미술관) 교류 - 지역출판 및 디자인센터 등과 협력망 구축	○	○	○	○	○

4. 연도별 투자 계획

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추진사업(공통)

○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사업내용: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공통) 추진사업 및 투자 계획

○ 소요예산: 1,770(백만원)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통분야					**합계: 1,770(백만원)**
소 계	**426**	**456**	**346**	**296**	**246**
미술관 3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100	30	30	30	30
미술관 3관 MI 개발	100	20			
연보(年報, Annual Report) 발간		10	10	10	10
미술관3관 리플릿 디자인 및 제작	50	50			
디지털미술관(온라인미술관) 운영	100	50	50	50	50
소장품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50	30	30	30
전시(기획전)·교육·체험 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수립		50			
•on/off라인 신매체 융복합 전시기법 개발			100	50	50
장애인 대상 촉각교재 및 수화 동영상 전시물 제작 및 보급			50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30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6	6	6	6	6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지도 제작		50			
미술관 3관 통합 티켓 제작 및 전산화	20	20	20	20	20
CRM(고객 관계 마케팅) 시스템 구축	20	20			
빅데이터형 관람객 전수 조사 (시민/관광객 문화향유실태조사)		50		50	
'미술관도시' 브랜드 대외 선언 추진		50	50	50	50

나. 각 미술관 추진사업

○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사업내용: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별 추진사업 및 투자 계획

○ 소요예산: 기당미술관 1,680(백만원)
이중섭미술관 7,020(백만원)
소암기념관: 1,870(백만원)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립미술관 3관 별					
가. 기당미술관					**합계: 1,680(백만원)**
소 계	**220**	**390**	**530**	**260**	**280**
미술관 피사드 재정비 미술관 안내판 및 포토존 등 문화 쉼터 조성)		50			
야외예술디자인 공원 조성 (야외 조형물 관리 미흡)			100		
편의시설 확중 (커뮤니티 룸,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시설 등)			100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도입		10			
물품보관소 확대		20			
수장고 확보/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10	50		
아트상품 개발	20		20		20
기획전/특별전(전시 작품 구매 포함)	70	70	70	70	70
작품구입	100	100	100	100	100
교육운영(체험 및 초청강연회 포함)	20	20	30	30	30
관내 아트라운지 시설 활용 아트랩(실험예술, 영상제작 등) 활성화		50			
대외교류 협력망 확대	10	10	10	10	10
삼매봉+도서관+미술관 연계 아트 축제 (3관 공동 참여)		50	50	50	50
나. 이중섭 미술관					**합계: 7,020(백만원)**
소 계	**750**	**1,490**	**1,590**	**1,330**	**1,860**
전시공간 확충 방안 마련(수용력 한계)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기본계획>(2020.6) 참조				
이중섭 야외공원 이용 문화 쉼터 조성		50			
관내 로비 공간 리모델링 (매표소, 안내데스트, 아트샵, 사무실 등)	50				
미술관 디자인 개념 도입 작품전시관 리모델링		100	100		
편의시설 확중 (커뮤니티 룸,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시설 등)			100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도입		10			

추진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품보관소 확대		20			
	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20	10		
	아트상품 개발	100		50		50
	기획전/특별전(전시 작품 구매 포함)	70	150	70	70	150
	작품구입	500	1,000	1,000	1,000	1,500
	교육운영(세미나 및 초청강연회 포함)	20	30	50	50	50
	미술관 내 디지털 영상실(교육실 겸용)마련			100	100	
	대회교류 협력망 확대	10	10	10	10	10
	이중섭거리 예술축제 개최(3관 공동 참여)		100	100	100	100
다. 소암기념관						**합계:** 1,870(백만원)
	소 계	**190**	**420**	**620**	**360**	**280**
	미술관 피사드 재정비 (미술관 안내판 및 공간 정비)			100		
	관내 로비 공간 리모델링 (매표소, 안내데스트, 아트샵, 사무실 등)		50			
	자연경관 조망과 어우러진 편의쉼터 및 카페테리아 조성			200		
	전시관 리모델링 (소암연대기 소개 안내벽 및 조명 등 교체)		100			
	전시 작품 설명문 현대화	20				
	편의시설 확중 (커뮤니티 룸,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시설 등)			50		
	시설물 공공안내그림 도입		10			
	물품보관소 확대		20			
	소장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20	10		
	아트상품 개발	20		20		20
	기획전/특별전(전시 작품 구매 포함)	70	70	70	70	70
	작품구입	50	50	50	50	50
	교육운영(세미나 및 초청강연회 포함)	20	20	30	30	30
	서예/폰트 연구·교육공간 마련 (상설연구공간, 서예대중화 교육의 장 등)				100	
	서귀포시 폰트 디자인 개발(공모전 등)		20	30	50	50
	대외교류 협력망 확대	10	10	10	10	10
	서귀포시 '명승·명소' 주제 서예 축제 (3관 공동 참여)		50	50	50	50

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종합 의견

○ “문화예술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와 관련한 물적·인적 자본 및 정신의 교류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음.

○ 제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다문화 가족 증가 등 문화환경의 변화로 문화적 혼성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음.

○ 바쁜 도시인들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고품격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지역의 순수예술 전문미술관으로서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로서의 지역 미술관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했음.

■ 미래 박물관·미술관 위상과 역할

○ 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변화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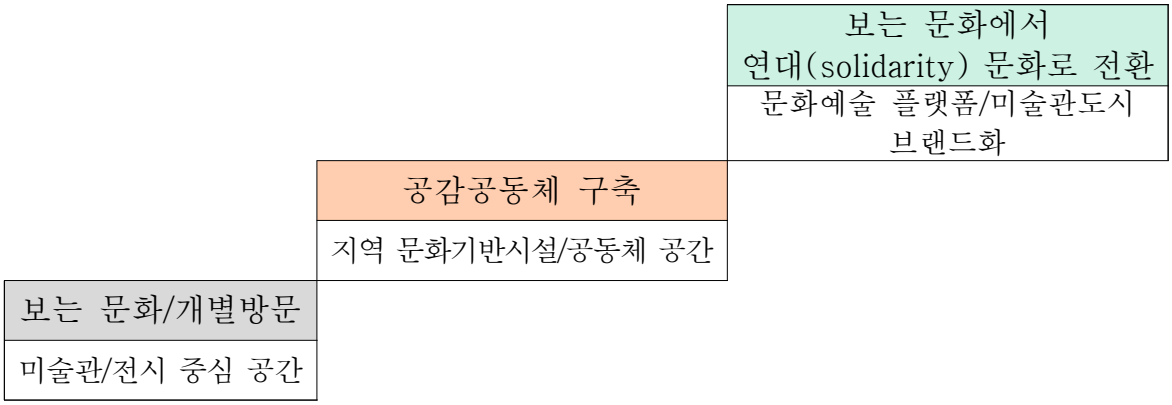
○ 중장기적인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지역 공동체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인류문화유산과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담은 박물관·미술관은 우리 사회 문화적 성과의 총체이자, 문화국가 창달의 핵심임. 과거로부터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문화발전을 모색하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임.

○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체육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됨.

○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전국 미술관을 개방형 문화향유시설로 운영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균등한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이 필요함. 하지만 박물관·미술관의 도시 집중현상으로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미술관의 개별적 정책을 일원화하여,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림 9-1> 지역연계 공립미술관 운영방향 ⓒ자치경제연구원2020

○ 또한「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 근로 시간 단축의 효과로 여가와 문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박물관의 서비스를 확대에 대한 필요가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권역별 특색 있는 거점 여행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 또한 이에 대응한 미술관 서비스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련

■ 전문 인력 역량 강화

○ 조직 재편성 과정에서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관장, 학예사, 교육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장 직제 도입이 시급함.

○ 제주도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미술관의 전문 인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도외에서 전문인력 수급과 더불어 자체적인 예비 전문인력 교육과 확보 또한 동시에 병행해야 함.

○ 학예사 자격증 취득과 기관 채용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학예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따라서 자격증의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관 채용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연구·출판 활동은 자료의 수집, 전시, 교육, 보존 기능의 기초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므로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관련 자료 등 발굴·수집·아카이빙하는 전담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미술관의 정체성 및 전문성 강화

○ 작품 수집: 미술관의 최고 경쟁력은 원화 소장에 있음. 미술관 특성에 맞는 작품 발굴 및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원화 확보 필요

○ 미술관 독자적인 우수콘텐츠(전시 및 프로그램 등) 제작·기획·공개

○ 미술관 공간 디자인: 일상에서 벗어난 발견과 힐링의 공간 디자인 창출

○ 미술관의 브랜드로서 ‘로고’와 ‘아트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

■ 홈페이지 구축 및 디지털미술관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리적 공간’과 방문을 전제로 하는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 디지털미술관 운영의 상설화. 일, 주, 월 단위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 계획 수립 및 실행.

○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미디어아트를 통한 평면예술의 가치 부각 등 미술관 소장 작품 활용을 극대화.

○ 각종 영상 제작 시 외국어 자막(국제도시 서귀포시 위상 정립)

■ 미술관 이용자 실태조사 및 CRM(고객 관계 마케팅) 실시

○ 미술관 이용자들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단순한 관람객 수와 아트상품 판매 현황 파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연령, 직업, 프로그램 선호도, 의견 등을 말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통계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관람객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 가동할 것을 제안.

○ 미술관의 콘텐츠별, 시기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고도화된 고객 관리 필요.
예: 멤버쉽 회원 및 잠재적 수요층을 발굴·확대

■ 대외 협력 방안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을 활성화하여 박물관·미술관 간 공동전시 기획, 소장품 보존 처리 지원, 전문인력 워크숍 개최, 교구·재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추진이 필요함.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관 전시 운영에 있어서도, 외부 미술관 전시회에 작품 대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이 직접 전국 순회전을 기획하는 방안, 다른 한편으로는 타시도 주최 전시회를 서귀포시 미술관에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

○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연구 과제에 주목하고, 여기서 도출된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과학 기술 연구소, 유수 국제기관 등과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형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

○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역사문화, 문화관광 활성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미술관의 국제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CIMAM(국제현대미술관위원회) 등 주요 국제회의·행사 공동 참가 및 유치를 확대할 필요.

■ <미술관도시> 브랜드 육성

○ ‘도시의 이미지가 곧 도시의 브랜드이자 국가의 경쟁력임. 기업이나 제품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브랜드로 통하는 사회임. ‘유럽 문화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술의 도시’ 등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의 타이틀을 앞세워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이 주도하는 생태예술 ‘미술관도시’ 라는 도시 브랜드 육성을 제안함.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

○ 21세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일환으로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여 서귀포시를 ‘생태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술관도시’로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여 대외 선언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관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한편, 지역주민·아티스트·관광객 주도의 서귀포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생태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함.

■ 참고문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제주지역통계(보고서)(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2020 주요행정통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총람(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현황(2010년~2020년)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백서(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곶자왈 환경자원조사(2013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17년 4월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종합계획(2016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019~2023)(2019년 1월 수립)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련 자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자료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홈페이지)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리플릿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기본계획>(2020.06),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제주연구원(2020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2012-04-0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2018-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2020-01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자료]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2018년 발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2018년 수립)
2017년 전국 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2013년)
장욱진화백문화브랜드육성연구용역보고서(2017년, 대전세종연구원)

[해외 자료]
일본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年報 2018年度」(,2019년 12월 발행)
일본 나오시마 베네세하우스 리플릿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리플릿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Annual Report 2018
Jane R, Glaser&Artemis A, Zenetou,『Museum:A Place to Work Plan』
2020년 UNWTO 보고서(2000년~2020년 세계관광객 추이)

[각 기관 홈페이지]
KOSIS(국가통계포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202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제주특별자치도청(문화역사/문화예술)
제주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세계자연유산본부
곶자왈 공유화 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플랫폼

국립현대미술관 ARTZONE 미술가게 MMCA SHOP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포항시립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홈페이지
가나가와현립 근대미술관(일본 가나가와현)
무라카미산토기념관(일본 시코쿠 에히메현)
이콘갤러리(영국 버밍엄)
반 고흐 미술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스미소니언 뮤지엄<접근성 프로그램(Accessibility Program)>
미국 뉴욕 뉴뮤지엄
스위스 샤울라거 미술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Touching the Prado>
세계신박물관학운동(MINOM-ICOM)

[신문기사]
〔서귀포시 공공문화시설 휴관 연장...12일 운영 재개〕(제주의소리 2020년 10월 6일)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 지난해보다 65% 급락...〕(서울신문 2020년 9월 21일)
〔세계 미술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 한국 온다〕(한겨레신문 2020년 9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360° VR로 생생하게 보세요"〕(뉴시스 2020년 8월 10일)
〔전시로 만나는 미술품 보존과학,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자 C의 하루'〕
(아시아경제 2020년 6월 3일)
〔다시 문 연 공립미술관 '소장품 열전'〕(서울경제, 2020년 05월 11일)
〔박수근미술관 기사 '이 작품, 꼭 사야 한다... 1년 예산 올인한 시골미술관〕
(조선일보 2020년 3월 30일)
〔박물관·미술관 2023년까지 186개 늘린다〕(서울경제, 2019년 6월 24일)
〔지방도 젠트리피케이션① 대구 김광석길 예술가도 밀려났다〕(연합뉴스 2017. 7. 29)

■ 부 록

1. 연구보고회 개최 결과
2. 설문조사표
3.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인터뷰(요약)

1. 연구보고회 개최 결과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

Ⅰ. 개요

2020. 8. 6(목). 14:00
장 소 : 이중섭거리 창작스튜디오 5층 세미나실
참 석(18명)
서귀포시청(6명) : 양승열과장, 김경미팀장, 호영아·전은자·고현아·고준휘 학예연구사
자문위원(7명) : 강만생, 김유정, 이경은, 박천남, 정도연, 변종필, 신지영
연구원(5명) : 김학모 이사장, 문순영 책임연구원, 고영자 박사, 고영진 연구위원, 오현미
회의진행 : 개회, 착수보고 발표, 논의, 폐회

Ⅱ. 회의결과 주요내용

□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용역발주 취지는 3개 미술관이 미술관별 단독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작년부터 연계방안 마련 추진하고 있음.
최근 여행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서귀포시 문화예술도시이면서 미술관도시로 만들기 위함.
개관한지 2~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및 전시공간 부족 해결방안 및 3개 공립미술관 연계방안 마련키 위함.

□ 김유정 자문위원
3개 공립미술관이 있는데 3개 미술관이 성격이 틀려서 사람들이 잘 모름.
소암은 서예관인데 미술관임 이를 소암 서예관으로 하면 어떨는지 고민이 필요함.
이번 용역에서 성격을 파악하고 명칭을 정립해야 함.
용역을 하고 나서 반영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큼.
너무 노후한 덕판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빨라 결정해야 함.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임 자금이 없으면 전시도 할 수 없음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강만생 자문위원

서귀포시 미술관도시는 굉장히 큰 사업임 지사의 공약으로 해야지 실천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

이번 용역에서 미술관도시라는 개념을 정확히 확립해야 하고 인력, 재정 뒷받침이 잘 되어야 할 것임.

간송미술관도 질적으로 뛰어난데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 활성화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 바람.

미술관 방문객들이 뭔가 한 개라도 사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바람.

위작이 아닌 모작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도록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김병종미술관 방문 건의 드림.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재원이 없으면 참여율을 높이지 못하고 컨텐츠 다양화도 이루지 못함.

다음 중간보고 때 도의원 참여시켜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변종필 자문위원

사업은 실행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함.

발전방안 만들 때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 다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미술관별 개별성 특화가 가장 중요함. 통합 한다고 해서 발전하지 않음.

이중섭이 국민적 대표성이 있다면 기당·소암은 제주도의 대표성이 있으므로 특성화를 살려야 함.

공립미술관의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넓은 것보다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함.

□ 이경은 자문위원

용역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함.

미술관 활성화를 관광하고 연계도 필요하지만 서귀포 시민들의 이용율 제고 방안이 더 중요함.

발전방안은 시민들에게서 나와야 함.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끌어 들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미술관별 적정 관람객수 마련 필요하고 시민들이 몇%나 미술관을 방문했을까? 미술관에서는 무슨일을 할까? 하는 조사도 필요함.

□ 신지영 자문위원
용역과제에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할 것인지? 미술관도시로 할 것인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함.
시민들이 안 찾는 이유・방문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정도연 자문위원
내용적 범위 너무 광범위함. 시급한 것을 먼저하는 것으로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설문조사, 의견(서귀포 시민 포함) 수렴도 필요함.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중요도는 조직, 운영방법, 실태파악, 재원마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 먼저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박천남 자문위원
이중섭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이 일부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왔다가 찾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재방문 비율이 얼마인지 조사가 필요함.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미술관도시는 반대임.
따라서 외부에 공표는 안했으면 함.
조직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은 학예사를 충원하는 것이고 관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학예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예실을 꾸려줘야 함.
도의원 참여시켜서 예산 확보 인력충원 공동노력 필요함.
3개 미술관 통합방안은 반대임. 미술관별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통합하게 되면 특화성이 없어지므로 각각 개별적인 관장제도를 마련해야지 통합관장제도는 반대함.
해외사례는 서귀포시와 비슷한 곳을 발굴하였으면 함.

□ 김학모 이사장
사업비는 적지만 지역업체로서 예능기부차원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음.
3개 미술관 특성을 살리면서 연계성 방안을 마련하겠음.

□ 고영자 박사
참여 연구진으로서 〈미술관도시〉 이미지와 문화적・제도적 확장성을 생각하게 됨.
시민의 주도와 행정의 지원 속에 〈미술관도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고 모색하게 됨. 물론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 없으나 그 실현 가능성과 제반 여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 문순영 책임연구원 : 폐회 선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

Ⅰ. 개요

2020. 11. 17(화). 14:00

장 소 : 이중섭거리 창작스튜디오 5층 세미나실
참 석(16명)
서귀포시청(6명) : 양승열과장, 김경미팀장, 호영아·전은자·고현아·고준휘 학예연구사
자문위원(7명) : 강만생, 김유정, 이경은, 박천남, 정도연, 변종필, 신지영
연구원(3명) : 문순영 책임연구원, 고영자 박사, 고영진 연구위원
회의진행 : 개회, 중간보고 발표, 논의, 폐회

Ⅱ. 회의결과 주요내용

□ 김유정 자문위원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별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함.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명예관장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해야 할 것임.
3개 미술관의 특성을 살려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당미술관에 대해 명칭변경 등 검토가 필요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 예약제, 비대면 전시 등 방안 제시 필요.

□ 변종필 자문위원
기당 미술관의 변시지 화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모든 일은 인력이 필요함. 실현이 가능한 조직개편이 필요함. 전문가 의견에서도 나타났드시 각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이 필요함.
조직개편 운영방안에서 한꺼번에 통합관장제가 안되면 이중섭미술관을 우선 관장제를 도입한 후 단계별로 2개 미술관에 대해서도 관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강만생 자문위원
기당미술관의 경우 변시지화백과의 관계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임.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예관장제 시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직 개편에 있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각 미술관 별 관장제를 도입할 것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다름 패턴 변화에 대응할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미술 영역에서도 치유 및 세계자연유산과의 연계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기념품 하나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기념할 만한 기념품 개발도 필요함.

□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여러 차례 3개 미술관별 관장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않아서 통합관장제를 거론하고 있음.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미술관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 필요함.

□ 신지영 자문위원
본 연구용역에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면서 3개의 미술관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정도연 자문위원
포스트코로나 이후 제주도에도 자연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임. 따라서 향후 미술관이라는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브랜드화 하면 관광자원이 될 것임.
각 미술관의 정체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
조직개편에 있어 조금 더 정리했으면 함.
미술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보강이 필요함.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

Ⅰ. 개요

2020. 12. 8.(화) 14:00

장 소 : 이중섭거리 창작스튜디오 5층 세미나실
참 석(13명)
서귀포시청(4명) : 양승열과장, 김경미팀장, 호영아·전은자 학예연구사
자문위원(6명) : 강만생, 김유정, 정도연, 강명언, 이경은, 박천남
연구원(3명) : 문순영 책임연구원, 고영자 박사, 고영진 연구위원
회의진행 : 개회, 최종보고 발표, 논의, 폐회

Ⅱ. 회의결과 주요내용

□ 강만생 자문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3안인 공립미술관 독립부서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현재 운영되는 명예관장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인 경우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 등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작품소유 및 실질적인 관리 책임 등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음. 역할 분담 등 책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문화예술과 6급으로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5급으로의 별도 조직을 해야 예산확보가 수월할 것임.
서귀포시 미술관도시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는 쉽지 않지만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함. 서귀포도시의 예술사적 가치를 추가 했으면 함.

□ 박천남 자문위원
명예관장제 없애고 직급과 관계없이 각 미술관별 관장제를 도입해야 함
수원시나 경기문화재단 등 타시도에서 통합 관장제를 실시하다가 다시 환원하고 있음. 따라서 계획안은 개별관장제로 가되 이중섭미술관 하나만이라도 먼저 5급 관장제를 시행해야 함.
3개 미술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
생태예술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를 삭제했으면 함. 미디어 아트는 제주와 매치가

안됨. 차라리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나온 단어를 풀어서 인력,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작성 바람.
단계별 추진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로드맵을 작성해서 제시 바람.

□ 김유정 자문위원
제3안 공립미술관 총괄운영 독립부서 신설안은 낙후된 안이며, 시대에 맞지 않은 안임. 독립성 훼손이 너무 큼. 통합관장제는 반대함. 각 미술관별 관장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서귀포시만이 할 수 있는 미술관도시 대안으로 지붕 없는 미술관 도입방안 검토 바람. 바다, 올레란 표현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표현했으면 함.
홍익대에 소장하고 있는 이중섭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을 모작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어떨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이경은 자문위원
미술관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부서를 만들어야 함. 관장은 적어도 5급은 되어야 예산 확보 등 수월할 것임.
미디어와 미술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SWOT분석에서 서귀포시 지역의 약점인 예술가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시스템을 보고서에 넣어야 할 것임.

□ 정도연 자문위원
조직 분야를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적어 주기 바람.
미디어아트 분야를 딱 찍어서 표현해야 할 것인지 고민 바람.
특성화 로드맵에서 슬로건이 맞는 것인지 고민바라며, 슬로건을 방향 또는 미션으로 변경 검토 바람.

□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미술관 3관 관장제 도입은 직급 상향과 인력 증원이 어렵고, 이중섭미술관 관장제를 도입할 경우 나머지 미술관은 이중섭미술관에 속해야 함.
문화예술과에서 독립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예산이나 인원증원이 수월하기 때문에 공립미술관 총괄 운영 독립부서 신설 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 김경미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장
학예사 인력 몇 명이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해서 추가하는데 미술관 별로 필요인원을 제시 바람.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 해 주셨으면 함.

2. 설문조사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를 위한 「기당 미술관 관람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일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미술관도시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일

주관기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사수행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영
문의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89
	E-mail : msy0039@hanmail.net
	연락처 : 핸드폰 010-4691-0039

☞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귀포시 동지역 ② 서귀포시 읍 · 면지역 ③ 제주시
④ 도외( )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직장인(급여생활자)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문화예술계 종사자 ⑦ 은퇴인 ⑧ 전업주부
⑨ 기타( )

5. 귀하께서 생각하는 서귀포시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중 상위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② 중문관광단지
③ 독특한 미술관 · 박물관 · 갤러리 ④ 해양 레저 스포츠
⑤ 매력적인 카페 · 펜션 ⑥ 국제회의도시(서미트, 제주포럼 등)
⑦ 오름, 휴양지 등 건강과 휴식 등 최적의 웰니스 관광지
⑧ 기타( )

■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 대한 인지도

6. 서귀포시에 기당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7. 기당미술관은 기당 강구범 선생님이 기부체납으로 건립한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입니다. 기당미술관에는 제주출신작가 '폭풍의 화가 변시지와 수암 강용범' 의 작품을 비롯한 근현대 거장들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7-1. 알고 계셨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되셨습니까?

① 미술관 관계자, 지인 등을 통해 ② TV · 신문 ③ 인터넷
④ 시정소식지 ⑤ 타 미술관(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등)
⑥ 기타( )

8. 기당미술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서귀포에 있는 변시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
② 다양한 동시대미술 전시와 근 - 현대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
④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고 미술관 성격을 모르겠다
⑤ 기타 ( )

9. 기당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10번으로 이동) ② 없다(11번으로 이동)

10. 방문한 적이 있다면, 총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① 1회 ② 2~5회 ③ 6~9회 ④ 10회 이상

11.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첫 방문자만 응답)

① 기당미술관이 있는지 몰라서

②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③ “기당” 이라는 미술관 이름이 생소하고 어떤 미술관인지 알 수가 없어서

④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⑤ 기타( )

12. 기당미술관에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변시지의 그림 등 상설전시 ② 미술관 기획전시

③ 기당미술관의 주변경치 ④ 미술관 건축물과 휴게공간

⑤ 시내와 가까운 미술관의 위치 ⑥ 아트상품의 다양성

⑦ 미술관 직원의 친절도 ⑧ 기타

13. 앞으로 기당미술관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기당 미술관 전시관람에 대한 만족도

14. 기당미술관에서 관람하신 전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기당미술관 홈페이지 ② 미술관 관계자

③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 ④ 옥외 광고물(현수막, 포스터 등)

⑤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 ⑥ 팩스공문 및 안내장

⑦ 지인의 소개 ⑧ 타 블로그 및 카페후기

⑨ 기타

15. 기당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① 변시지 작품을 보기 위해서

② 기당미술관 기획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② 아트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현재 코로나19로 폐쇄중)

③ 지인이 추천했기 때문 ④ 학교·동호회 등 단체관람

⑤ 인근 관광지 또는 목적지와 연계해서 ⑥ 교육 및 체험 목적

⑦ 기당미술관이 유명한 관광지라서 ⑧ 기타

16. 기당미술관의 시설 및 전시 등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경험 없음	불만족한 이유
16-1. 티켓구매방법	⑤	④	③	②	①	□	
16-2. 로비, 직원 친절도	⑤	④	③	②	①	□	
16-3. 브로슈어 등 전시안내자료	⑤	④	③	②	①	□	
16-4. 전시내용(전시, 소장 논의)	⑤	④	③	②	①	□	
16-5. 전시구성(동선,조명,배치)	⑤	④	③	②	①	□	
16-6. 화장실	⑤	④	③	②	①	□	
16-7. 주차시설	⑤	④	③	②	①	□	
16-8. 휴게시설(아트라운지)	⑤	④	③	②	①	□	
16-9. 뮤지엄 숍(문화상품)	⑤	④	③	②	①	□	

17. 오늘 기당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귀하가 생각하기에 미술관의 입장료가 어떠합니까?

① 매우 비싸다 ② 조금 비싸다 ③ 적당하다
④ 그리 비싸지 않다 ⑤ 전혀 비싸지 않다

18.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1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③ 있는지 몰랐다

18-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이 미술관 재방문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기당미술관의 기획전시를 보기 위해 재방문 의사가 있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⑤	④	③	②	①

20. 기당미술관의 전시를 다른 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추천한다	추천한다	보통	추천하고 싶지않다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21. 기당미술관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당미술관에서 감상하시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신다면?

① 변시지 작품
② 제주지역 작가작품
③ 국내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작품
④ 설치,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작품
⑤ 기타( )

22. 서귀포시를 '미술관도시'로 구축하여 서귀포시 예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그저그렇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⑤	④	③	②	①

23. 기당미술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일 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를 위한 「이중섭 미술관 관람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일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미술관도시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일

주관기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사수행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영
문의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89
	E-mail : msy0039@hanmail.net
	연락처 : 핸드폰 010-4691-0039

☞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귀포시 동지역 ② 서귀포시 읍·면지역 ③ 제주시
   ④ 도외( )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직장인(급여생활자)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문화예술계 종사자 ⑦ 은퇴인 ⑧ 전업주부
   ⑨ 기타( )

5. 귀하께서 생각하는 서귀포시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중 상위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② 중문관광단지
   ③ 독특한 미술관·박물관·갤러리 ④ 해양 레저 스포츠
   ⑤ 매력적인 카페·펜션 ⑥ 국제회의도시(서미트, 제주포럼 등)
   ⑦ 오름, 휴양지 등 건강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웰니스 관광지
   ⑧ 기타( )

■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인지도

6.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① 이중섭미술관 ② TV · 신문 ③ 인터넷 ④ 시정소식지

⑤ 타 미술관(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등) ⑥ 기타( )

8. 서귀포시에 이중섭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9. 이중섭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9번으로 이동) ② 없다(12번으로 이동)

10. 방문한 적이 있다면, 총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① 1회 ② 2~5회 ③ 6~9회 ④ 10회 이상

11. 이중섭미술관에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이중섭의 그림 등 전시작품 ② 이중섭거주지와 이중섭거리가 있는 점

③ 미술관 건축물 ④ 이중섭 공원

⑤ 시내와 가까운 미술관의 위치 ⑥ 아트상품의 다양성

⑦ 미술관 직원의 친절도 ⑧ 미술관 기획전

⑨ 기타

12.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첫 방문자만 응답)

① 이중섭미술관이 있는지 몰라서 ② 이중섭 화가에 대해 잘 몰라서

③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④ 기타( )

13. 앞으로 이중섭미술관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이중섭 미술관 전시관람에 대한 만족도

14. 이중섭미술관에서 본 전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 ② 미술관 관계자
③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 ④ 옥외 광고물(현수막, 포스터 등)
⑤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 ⑥ 팩스공문 및 안내장
⑦ 지인의 소개 ⑧ 타 블로그 및 카페후기
⑨ 기타

15. 이중섭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① 이중섭이 국민화가로 유명해서 ② 이중섭 미술관이 유명한 관광지라서
③ 지인의 추천했기 때문 ④ 학교·동호회 등 단체관람
⑤ 인근 관광지 또는 목적지와 연계해서 ⑥ 교육 및 체험 목적
⑦ 기타

16. 이중섭미술관의 시설 및 전시 등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경험 없음	불만족한 이유
16-1. 티켓구매방법	⑤	④	③	②	①	□	
16-2. 로비, 직원 친절도	⑤	④	③	②	①	□	
16-3. 브로슈어 등 전시안내자료	⑤	④	③	②	①	□	
16-4. 전시내용(전시, 소장 논의)	⑤	④	③	②	①	□	
16-5. 전시구성(동선,조명,배치)	⑤	④	③	②	①	□	
16-6. 화장실	⑤	④	③	②	①	□	
16-7. 주차시설	⑤	④	③	②	①	□	
16-8. 휴게시설(아트라운지)	⑤	④	③	②	①	□	
16-9. 뮤지엄 숍(문화상품)	⑤	④	③	②	①	□	

17. 오늘 이중섭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귀하가 생각하기에 미술관의 입장료가 어떠합니까?

① 매우 비싸다 ② 조금 비싸다 ③ 적당하다
④ 그리 비싸지 않다 ⑤ 전혀 비싸지 않다

18.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17-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③ 있는지 몰랐다

18-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이 미술관 재방문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이중섭미술관의 기획전시를 보기 위해 재방문 의사가 있으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⑤	④	③	②	①

20. 이중섭미술관의 전시를 다른 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추천한다	추천한다	보통	추천하고 싶지않다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21. 이중섭미술관은 현재 은지화, 유화 등 이중섭 작품 47점을 포함하여 286점의 작품과 다수의 이중섭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섭미술관 위상을 위하여 이중섭 작품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22. 서귀포시를 ‘미술관도시’로 구축하여 서귀포시 예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보통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⑤	④	③	②	①

23. 이중섭미술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일 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를 위한 「소암 미술관 관람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일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미술관도시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일

주관기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사수행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영
문의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89
	E-mail : msy0039@hanmail.net
	연락처 : 핸드폰 010-4691-0039

☞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귀포시 동지역 ② 서귀포시 읍·면지역 ③ 제주시
   ④ 도외( )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직장인(급여생활자)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문화예술계 종사자 ⑦ 은퇴인 ⑧ 전업주부
   ⑨ 기타( )

5. 귀하께서 생각하는 서귀포시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중 상위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② 중문관광단지
   ③ 독특한 미술관·박물관·갤러리 ④ 해양 레저 스포츠
   ⑤ 매력적인 카페·펜션 ⑥ 국제회의도시(서미트, 제주포럼 등)
   ⑦ 오름, 휴양지 등 건강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웰니스 관광지
   ⑧ 기타( )

■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에 대한 인지도

6. 소암 현중화 선생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소암 현중화 선생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① 소암기념관 ② TV · 신문 ③ 인터넷 ④ 시정소식지
⑤ 타 미술관(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등) ⑥ 기타( )

8. 서귀포시에 소암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몰랐다

9. 소암기념관에서는 소암선생의 작품 전시 뿐만 아니라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전통미술을 기획전시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았다 ② 몰랐다

10. 소암기념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11번으로 이동) ② 없다(12번으로 이동)

11. 방문한 적이 있다면, 총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① 1회 ② 2~5회 ③ 6~9회 ④ 10회 이상

12.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첫 방문자만 응답)
① 소암기념관이 있는지 몰라서 ② 서예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③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④ 소암기념관이라는 명칭이 생소하고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⑤ 기타( )

13. 소암기념관에서 흥미롭거나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소암의 서예작품 등 전시작품 ② 소암기념관의 주변 경치
③ 기념관 건축물 ④ 시내와 가까운 미술관의 위치
⑤ 아트상품의 다양성 ⑥ 미술관 직원의 친절도
⑦ 미술관 기획전 ⑧ 기타

14. 앞으로 소암기념관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소암 기념관 전시관람에 대한 만족도

15. 소암기념관에서 관람하신 전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소암기념관 홈페이지 ② 미술관 관계자
③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 ④ 옥외 광고물(현수막, 포스터 등)
⑤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매체 ⑥ 팩스공문 및 안내장
⑦ 지인의 소개 ⑧ 타 블로그 및 카페후기
⑨ 기타

16. 소암기념관에서 전시를 관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① 소암이 국민화가로 유명해서 ② 소암기념관이 유명한 관광지라서
③ 지인의 추천했기 때문 ④ 학교·동호회 등 단체관람
⑤ 인근 관광지 또는 목적지와 연계해서 ⑥ 교육 및 체험 목적
⑦ 우연히 길을 가다가

17. 소암기념관의 시설 및 전시 등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경험 없음	불만족한 이유
17-1. 티켓구매방법	⑤	④	③	②	①	□	
17-2. 로비, 직원 친절도	⑤	④	③	②	①	□	
17-3. 브로슈어 등 전시안내자료	⑤	④	③	②	①	□	
17-4. 전시내용(전시, 소장 논의)	⑤	④	③	②	①	□	
17-5. 전시구성(동선,조명,배치)	⑤	④	③	②	①	□	
17-6. 화장실	⑤	④	③	②	①	□	
17-7. 주차시설	⑤	④	③	②	①	□	
17-8. 휴게시설(아트라운지)	⑤	④	③	②	①	□	
17-9. 뮤지엄 숍(문화상품)	⑤	④	③	②	①	□	

18.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1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③ 있는지 몰랐다

18-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이 미술관 재방문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소암기념관에서 어떤 전시를 보고 싶습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소암 현중화 관련 전시 ② 국내외 서예 관련 전시
③ 제주의 서예사 관련 전시 ④ 동양화, 민화 등 고미술 관련 전시
⑤ 현대 서예 등, 현대미술 관련 전시

20. 소암기념관의 기획전시를 보기 위해 재방문 의사가 있으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⑤	④	③	②	①

21. 소암기념관의 전시를 다른 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추천한다	추천한다	보통	추천하고 싶지않다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22. 소암기념관은 현재 686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암기념관의 위상을 위하여 소암 작품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22-1 소암 작품 확보가 더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내외 유명하고 수준높은 서예작품 수집 필요

② 동시대 교류작가, 문인화, 민화 등 다양한 한국미술작품 수집 필요

③ 전통미술분야의 제주지역작가 작품수집 필요

④ 기타( )

23. 서귀포시를 '미술관도시'로 구축하여 서귀포시 예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보통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⑤	④	③	②	①

24. 소암기념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일 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를 위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일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미술관도시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일

주관기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사수행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영
문의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89
	E-mail : msy0039@hanmail.net
	연락처 : 핸드폰 010-4691-0039

☞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귀포시 동지역 ② 서귀포시 읍 · 면지역 ③ 제주시
④ 도외( )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직장인(급여생활자)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문화예술계 종사자 ⑦ 은퇴인 ⑧ 전업주부
⑨ 기타( )

5. 귀하께서 생각하는 서귀포시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중 상위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② 중문관광단지
③ 독특한 미술관 · 박물관 · 갤러리 ④ 해양 레저 스포츠
⑤ 매력적인 카페 · 펜션 ⑥ 국제회의도시(서미트, 제주포럼 등)
⑦ 오름, 휴양지 등 건강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웰니스 관광지
⑧ 기타( )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인지도

6.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 분	안다	모른다
기당미술관	①	②
이중섭미술관	①	②
소암기념관	①	②

7.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기당미술관	①	②
이중섭미술관	①	②
소암기념관	①	②

8.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중 가장 익숙하고 친근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미술관을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① 기당미술관 ② 이중섭미술관 ③ 소암기념관 ④ 없음

(우선순위: → → →)

9.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의 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전시(공연)하는 작가 ② 아는 사람, 친구, 동료
③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를 우연히 접함
④ 미술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SNS)을 통한 해당 미술관 소식
⑤ 본인이 직접 체크
⑥ 미술관 관계자
⑦ 관심 없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심도

10.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방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작가의 작품 및 전시 작품 감상(새로운 작품을 접하기 위해)
②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관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③ 뮤지엄 샵 문화상품 구매
④ 관내 편의시설 이용
⑤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미술관 방문 자체가 좋아서)
⑥ 인근 관광지 또는 목적지와 연계해서

구 분	(복수 선택 가능.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11. 2018년~2020년 최근 2년 간 서귀포시 내에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11-1. 기당미술관

□ 전시

구분	전 시 명	있다	없다
상설전시	변시지 및 강용범 상설전시(연중)	□	□
기획전시	기당미술관 기증특별전 : 나눔과 공유<향연> (2019.2.27 ~ 4. 24)	□	□
	생태미술특별전 : 바다가 보이는 기당 정원('19.5.4 ~ 7.28)	□	□
	기획초대전 : 에꼴 드 제주 - 세 개의 서정('19.9.20 ~ 11.14)	□	□
	신소장품전 : DECADE-지금까지, 그리고 모색('19.11.29 ~ '20.2.23)	□	□
	기획초대전 : 수상하고 이상한 기당 원더랜드('20.6.18 ~ 8.13)	□	□
	소장품전 : 너의 녹턴, 나의 세레나데('20.8.20 ~ 10.2)	□	□

□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구분	전 시 명	있다	없다
행사	제주문화중개소 Festival 1 - 발광(發光)(‘19.11)	□	□
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어린이미술학교(매년 7~8월)	□	□
	기당미술관 수채화 살롱 및 서양화 살롱(매년 상 · 하반기)	□	□

11-2. 이중섭 미술관

□ 전시

구분	전 시 명	있다	없다
상설전시	이중섭 그림, 편지 등 원화 및 자료 상설전시(연중)	□	□
기획전시	신년기획전 :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19.2.13~4.21)	□	□
	기증작품전 : 나눔의 행복 아름다운 동행(‘19.4.24~6.30)	□	□
	특별기획전 :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19.7.4~9.1)	□	□
	기획 초대전 : 색(色)다른 섬 풍경(‘19.11.14~ ‘20.2.23.)	□	□
	기획초대전 : 자화상 - 나를 찾다(‘20.6.18 ~ 8.30)	□	□
	소장품전 : 그림의 온기: 위로가 필요한 순간(‘20.9.9 ~ 11.8)	□	□

□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구분	전 시 명	있다	없다
행사	2019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쓰기 행사 개최 및 그림편지책 발간	□	□
세미나	이중섭문화브랜드 강화를 위한 이중섭미술관 세미나(('19. 5. 30.)	□	□
	제22회 이중섭세미나('19. 9. 23.)	□	□
프로그램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지역연계프로그램 ('19. 3~6 / 8~11)	□	□
	2019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도예 아카데미(13기) (매년 상 · 하반기)	□	□

11-3. 소암기념관

	구 분	있다	없다
상설전시	소암 현중화 서예작품 및 자료 상설전시(연중)	□	□
기획전시	소장품전 : 故청원 변성근 기증작품 전시(‘19.3.6 ~ 5.5)	□	□
	기획초대전 : 천병근, 제주 40년만의 재회전(‘19.6.22~8.11)	□	□
	풍류, 즐기다 : 소장품전(‘19.8.14~9.25)	□	□
	기획초대전 : 금봉 박행보 한국화전(‘19.10.1~12.1)	□	□
	소장품전 : 다시 - 봄(‘19.12.5. ~ ‘20.8.31.)	□	□
	소장품전 : 한시(漢詩)의 여운(‘20.9.4. ~11.8.)	□	□

□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구분	전 시 명	있다	없다
행사	2019 소암기념관 작가와의 대화(김훈)(‘19.3.16)	□	□
	2019 소암기념관 인문학 강좌(손철주)(‘19.4.27/5.18)	□	□
	2019 소암기념관 인문학 강좌(윤철규)(‘19.6.15/7.13)	□	□
	2019 소암기념관 개관 11주년 기념 야외 체험(휘호 행사)(‘19.10.5)	□	□
프로그램	소암기념관 실기(서예 · 한국화) 강좌 (매년 상 · 하반기)	□	□

12.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원하는 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13.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에 바라는 개선사항 또는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연계 '미술관도시' 구상

14.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은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지 우선순위 별로 적어주십시오

① 전시공간 ② 연구 및 교육공간
③ 체험공간 ④ 만남의 공간
⑤ 마을주민들이 애용하는 문화공간
⑥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하고 편안한 산책 및 휴식 공간
⑦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명소

(우선순위: → → → → → → 서귀포시 미술관)

15. 서귀포시를 문화예술의 허브인 '미술관도시'로 구축하려는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 ② 시도해 볼만은 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회의적이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①과 ②를 선택하신 분 또는 이 분야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 ☞

15-1.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우선순위 별로 적어 주십시오

① 랜드마크격인 조형물로서 미술관 보유 도시
②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활발한 예술도시
③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예술시장의 메카
④ 예술 향유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도시
⑤ 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이 남다른 예술도시
⑥ 다양한 예술정보의 발신과 네트워크 도시
⑦ 다수의 공·사립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도시
⑧ 기타( )

(우선순위: → → → → → → → 미술관도시)

15-2.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우선 순위 별로 적어주십시오

①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

②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

③ 예술교육기관 유치(예술가 양성)

④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

⑤ 관광객 유치(예술 힐링 여행 등)

⑥ 기타(　　)

(우선순위:　→　→　→　→　→　미술관도시)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0년　월　일　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일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총체적인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미술관도시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사수행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영
문의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89
	E-mail : msy0039@hanmail.net
	연락처 : 핸드폰 010-4691-0039

☞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귀포시 동지역 ② 서귀포시 읍·면지역 ③ 제주시
   ④ 도외( )

4. 귀하의 예술 활동 영역은? (중복 선택 가능)
   ① 회화 ② 설치 및 조각 ③ 서예 ④사진
   ⑤ 미디어아트 ⑥ 디자인 ⑦ 미술평론가·연구자·학예사
   ⑧ 컬렉터 ⑨ 문화기획자·갤러리스트 ⑩ 기타( )

5. 귀하께서 생각하는 서귀포시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중 상위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빼어난 자연경관(제주올레 등) ② 중문관광단지
   ③ 독특한 미술관·박물관·갤러리 ④ 해양 레저 스포츠
   ⑤ 매력적인 카페·펜션 ⑥ 국제회의도시(서미트, 제주포럼 등)
   ⑦ 오름, 휴양지 등 건강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웰니스 관광지
   ⑧ 기타( )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심도

6. 서귀포시 내에 공립미술관 중에서 귀하께서 관심을 갖고 전시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거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미술관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① 기당미술관 ② 이중섭미술관 ③ 소암기념관 ④ 없음
   ⑤ 이유( )

7. 서귀포시 내에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에서 2019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기당미술관

구분	2019년 운영 프로그램
전시	변시지 및 강용범 상설전시(연중)
	기당미술관 기증특별전 : 나눔과 공유<향연> (2019.2.27 ~ 4. 24)
	생태미술특별전 : 바다가 보이는 기당 정원('19.5.4~7.28)
	기획초대전 : 에꼴 드 제주-세 개의 서정('19.9.20 ~ 11.14)
	신소장품전 : DECADE-지금까지, 그리고 모색(11.29~ '20.2.23)
	기획초대전 : 수상하고 이상한 기당 원더랜드('20.6.18 ~ 8.13)
	소장품전 : 너의 녹턴, 나의 세레나데('20.8.20 ~ 10.2)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주문화중개소 Festival 1 - 발광(發光)('19.11)
	기당미술관 어린이미술학교(매년 7~8월)
	기당미술관 수채화 살롱 및 서양화 살롱(매년 상 · 하반기)

7-1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7-2로 이동) ② 없다

7-2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불충분 ⑤ 매우 불충분

7-3 기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발전방향 등)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이중섭 미술관

구분	2019년 운영 프로그램
전시	이중섭 그림, 편지 등 원화 및 자료 상설전시(연중)
	신년기획전 :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19.2.13~4.21)
	기증작품전 : 나눔의 행복 아름다운 동행(‘19.4.24~6.30)
	특별기획전 :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19.7.4~9.1)
	기획 초대전 : 색(色)다른 섬 풍경(‘19.11.14~ ‘20.2.23.)
	기획초대전 : 자화상 - 나를 찾다(‘20.6.18 ~ 8.30)
	소장품전 : 그림의 온기: 위로가 필요한 순간(‘20.9.9 ~ 11.8)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2019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쓰기 행사 개최 및 그림편지책 발간
	이중섭문화브랜드 강화를 위한 이중섭미술관 세미나(('19. 5. 30.)
	제22회 이중섭세미나('19. 9. 23.)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지역연계프로그램 ('19. 3~6 / 8~11)
	2019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도예 아카데미(13기) (매년 상 · 하반기)

7-4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7-5로 이동) ② 없다

7-5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불충분 ⑤ 매우 불충분

7-6 이중섭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발전방향 등)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소암기념관

구분	2019년 운영 프로그램
전시	소암 현중화 서예작품 상설전시(연중)
	소장품전 : 故청원 변성근 기증작품 전시(‘19.3.6 ~ 5.5)
	기획초대전 : 천병근, 제주 40년만의 재회전(‘19.6.22~8.11)
	풍류, 즐기다 : 소장품전(‘19.8.14~9.25)
	기획초대전 : 금봉 박행보 한국화전(‘19.10.1~12.1)
	소장품전 : 다시 - 봄(‘19.12.5. ~ ‘20.8.31.)
	소장품전 : 한시(漢詩)의 여운(‘20.9.4. ~11.8.)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2019 소암기념관 작가와의 대화(김훈)(‘19.3.16)
	2019 소암기념관 인문학 강좌(손철주)(‘19.4.27/5.18)
	2019 소암기념관 인문학 강좌(윤철규)(‘19.6.15/7.13)
	2019 소암기념관 개관 11주년 기념 야외 체험(휘호 행사)(‘19.10.5)
	소암기념관 실기(서예 · 한국화) 강좌 (매년 상 · 하반기)

7-7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7-8로 이동) ② 없다

7-8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불충분 ⑤ 매우 불충분

7-9 소암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발전방향 등)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8.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각 미술관별 공간활용 만족도	기당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이중섭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소암기념관	⑤	④	③	②	①
각 미술관별 전시기획의 적정성 만족도	기당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이중섭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소암기념관	⑤	④	③	②	①
각 미술관별 교육운영 만족도	기당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이중섭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소암기념관	⑤	④	③	②	①
각 미술관별 홍보 및 마케팅 만족도	기당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이중섭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소암기념관	⑤	④	③	②	①
각 미술관별 작품수집 및 소장품 확대 만족도	기당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이중섭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소암기념관	⑤	④	③	②	①
각 미술관별 대외교류 만족도	기당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이중섭미술관	⑤	④	③	②	①
	소암기념관	⑤	④	③	②	①

* **매우 만족과 만족**은 해당 항목이 해당 미술관의 강점이며, 주력 분야임을 의미.
*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해당 항목이 해당 미술관에 있어서 미흡함을 의미.

8-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에 대하여 얼마나 불만족 하셨다면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히 제시바랍니다.

구 분		개선방안
각 미술관별 공간활용 만족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각 미술관별 전시기획의 적정성 만족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각 미술관별 교육운영 만족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각 미술관별 홍보 및 마케팅 만족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각 미술관별 작품수집 및 소장품 확대 만족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각 미술관별 대외교류 만족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발전방안

9.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별 특성화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9-1. 기당미술관

구 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하다	모르겠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시기획(정기전 · 소장품전) 특성화	⑤	④	③	②	①
맞춤형 교육 ·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⑤	④	③	②	①
레지던시(작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⑤	④	③	②	①
연구 · 아카이브 · 워크샵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주민 예술역량 강화	⑤	④	③	②	①
대외교류 및 관광문화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9-2. 이중섭 미술관

구 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하다	모르겠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시기획(정기전 · 소장품전) 특성화	⑤	④	③	②	①
맞춤형 교육 ·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⑤	④	③	②	①
레지던시(작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⑤	④	③	②	①
연구 · 아카이브 · 워크샵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주민 예술역량 강화	⑤	④	③	②	①
대외교류 및 관광문화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9-3. 소암기념관

구 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하다	모르겠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시기획(정기전 · 소장품전) 특성화	⑤	④	③	②	①
맞춤형 교육 ·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⑤	④	③	②	①
레지던시(작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⑤	④	③	②	①
연구 · 아카이브 · 워크샵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주민 예술역량 강화	⑤	④	③	②	①
대외교류 및 관광문화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10.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②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③ 현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④ 기타( )

10-1. 관장제를 도입한다면 →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3개 미술관을 통합한 관장제 ② 3개 미술관별 관장제
③ 관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④ 기타( )

11.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은 독자적인 성격을 띠지만, 조직을 재편하여 3자 연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텐츠의 다양성, 대외홍보, 관람객 유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매우 비효과적

■ 덕판배 운영 관련

12. 서귀포칠십리시공원에 설치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덕판배' 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동(1동 규격 : 길이 51m×폭 3m×상고 6m.하고 3m), 2012년 제작**
- 창작공간 1동 : 4개소(각 30㎡/ 가로10m × 세로3m)
- 전시·교육공간 1동 : 전시공간(70㎡), 교육공간(30㎡), 창고(20㎡)
- 위탁 : 4인의 전문 예술가(2018.7월~2020.12.31.)

☞ **2012년 탐라대전(51회 탐라문화제 병행)시 제작, 서귀포시로 이관**
- 고증자료 미흡으로 탐라선 복원대신 배(船) 모양의 아트컨테이너 형식으로 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로 제작, 축제기간 중 주제전시관으로 사용
▸ **덕판배 : 문헌에는 없으나 제주배를 일컫는 명칭으로 구전되고 있음**

①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해야한다
② 현재의 덕판배를 수리해서 활용해야한다
③ 새로운 덕판배를 새로 제작해야 한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12-1 현재 덕판배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① 현행대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서귀포시에서 직접 운영해야한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연계 '미술관도시' 구상

13. 서귀포시를 문화예술의 허브인 '미술관도시'로 구축하려는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참신하고 기대된다 ② 시도해 볼만은 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회의적이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①과 ②를 선택하신 분 또는 이 분야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 ☞

13-1.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적어 주십시오

① 랜드마크격인 조형물로서 미술관 보유 도시
②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활발한 예술도시
③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예술시장의 메카
④ 예술 향유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도시
⑤ 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이 남다른 예술도시
⑥ 다양한 예술정보의 발신과 네트워크 도시
⑦ 다수의 공·사립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도시
⑧ 기타( )

(우선순위: → → → → → → → 미술관도시)

13-2. 서귀포시 '미술관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 별로 적어주십시오

① 지역활성화(예술의 거리, 예술 축제 등)
② 지역민 자긍심(지역주민 예술역량 강화)
③ 예술교육기관 유치(예술가 양성)
④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전시-연구-마케팅) 양성
⑤ 관광객 유치(예술 힐링 여행 등)
⑥ 기타( )

(우선순위: → → → → → 미술관도시)

13-3. 서귀포시 '미술관도시' 가 주력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내 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등을 연결한 프로젝트
② 유명 예술인 초청 및 예술축제(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유치
③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④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전시, 체험, 교육, 예술 올레길 탐방)
⑤ 국제적인 예술(가)의 거리 조성 (INFO센터, 예술지도, SNS 등)
⑥ 뮤지엄 부대시설의 상설 문화공간화(카페, 아트숍, 쉼터)
⑦ 기타(　　)

(우선순위:　→　→　→　→　→　→　**서귀포시 미술관)**

13-4. 지속가능한 '미술관도시' 는 <u>어떤 주체들과 함께</u>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선순위 별로 적어주십시오.

① 제주도내 공 · 사립 미술관, 갤러리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② 서귀포시 및 도내 입주작가 네트워크
③ 예술 후원회(기업)~작가 상생 네트워크
④ 주민 참여형 민관협동 문화예술위원회
⑤ 국제 이벤트(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경험이 풍부한 조직
⑥ 관광객~관람객~SNS
⑦ 기타(　　)

(우선순위:　→　→　→　→　→　→　**서귀포시 미술관)**

14. 서귀포시 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0년　월　일　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3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인터뷰(요약)

아래 내용은 창작스튜디오 향후 운영을 위하여 역대 입주 작가 4명(3기 1명, 10기 1명, 11기 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2020년 9월)

○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 신청을 하게 된 동기는?

이중섭 단편 영화를 찍을 계획이 있는데, 이중섭이 살았던 생가와 이중섭이 거닐던 길들을 거닐면 그의 삶을 상상해보고, 그의 삶의 발자취를 찾고자.

제주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장기체류 하면서 색다른 자연환경과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하고자.

대학·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접고,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진입하는 기로에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입주형 레지던시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제주도민이지만 늘 낯선 세계였던 서귀포에서 생활하며 작업환경을 바꿔보고자.

○ 창작스튜디오 입주하면서 좋았던 점은?

서귀포는 주변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사람들의 삶도 여유로워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이러한 서귀포의 환경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점. 또한 행정에서도 크게 개입하지 않아 자유로운 분위기.

제주도에 내려와 독립된 작업공간에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점. 전 입주작가들에 비해 지원체계(시설, 재료비, 지역연계프로그램 등)가 개선된 점.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화순, 비자림, 교래, 선흘 등 곶자왈을 본격적으로 탐방하며 제주도의 숨겨진 풍경과 조우할 수 있는 점.

주변 환경이나 실내가 쾌적하고, 입주하는 동안 동경하던 바다 풍경과 자연이 날마다 눈 앞에 펼쳐졌던 점.

날씨와 주변 환경이 좋았고, 사회관계망을 일시 중지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작업에만 몰입했던 특별한 경험. 출신이 다양한 입주작가들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작업 스타일도 알고, 미술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던 점.

○ 창작스튜디오 입주 생활의 단점(애로사항)?

· 스튜디오 운영자 측의 관여가 별로 없다는 것은 자유롭지만, 한편으로는 입주작가~운영진~시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한 점. 다른 지자체의 레지던시 운영에 비해 이곳은 작가들의 활동(작가소개, 작품 활동, 프로그램) 관련 홍보가 부족. 때문에 방문객은 물론 이웃 시민들도 스튜디오에 어떤 작가들이 살고,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함.
·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의 경우, 건물 구조상 벽 분할이나 공간분할이 어렵고 딱 떨어지지 않아서 작가들이 개인전을 열 때마다 애로가 있음. 보다 짜임새 있는 전시를 위해서는 리모델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작가들 사이에 있었음. 리모델링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 작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함.

· 창작 레지던시라면 작가들 개개인의 작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작가들 간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음. 그런 점에서는 생각보다 이곳은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음.
· 전시회를 앞두고 작업 과정에서 입주 작가나 큐레이터와의 교류가 부족해서 피드백을 얻을 기회가 부족해서 아쉬움.

· 미술관 주변 이중섭거리가 미술관 이미지와 동떨어진 관광상품 가게, 시장, 식당 등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정돈되지 않은 점.
·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의 경우 천정이 낮고 체계적인 물품들을 갖추기에 스튜디오 내 물품창고가 협소함. 조명의 경우도 수명에 따라 새것과 오래된 것 분류해서 관리해 준다면 전시 때 혼란을 피할 수 있음.

· 스튜디오가 막 출범하면서 입주 3기 시절이라 한꺼번에 다 갖출 수 없었겠으나, 레시던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과 교류의 기회가 주어졌었다면하는 바램.
· 창작스튜디오-미술관의 부속시설이지만 이중섭거리에 노출되어서 다른 미술관들보다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편. 그럼에도 이중섭미술관 방문객들이 반드시 창작스튜디오 전시장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미술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 또는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기존의 홍보방안을 개선했으면. 외부로 홍보를 하되 기존의 서귀포시 공식 홈페이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매체(포털, 유튜브 영상, 페이스북, 블로그, SNS 등)를 활용하여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작가들의 활동을 알리는 노력이 꾸준히 했으면 함.
· 입주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술관~작가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으면.
· 입주 작가 선정에서 기존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벗어나 현대예술의 큰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선정했으면. 기존에는 회화 작가에 치중한 면이 있지만(물론 회화의 대표성을 띤 이중섭미술관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선정하여 각 장르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함.
· 생각의 다름, 매체의 다름을 바탕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도 얻고, 자극도 받으며 창작열을 높일 수 있음. 이런 분위기가 알려진다면 이중섭미술관과 더불어 창작 스튜디오의 위상도 높아질 것임.

· 작가들이 체류하는 동안 제주도와 여러 마을에 대해 알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및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 또 입주 기간 개인전을 준비는 과정과 전시 후에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심층적으로 피드백도 해 주고 활동도 조율하는 독립 큐레이터가 있었으면 함.
·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있어서 입주 작가들과 제주도 거주 작가들의 교류도 있고 오픈 스튜디오, 아티스트 토크 및 비평 등이 있었으면 함.

· 지역연계프로그램의 확장성 필요함. 지역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회화의 경우 대개 초등학생들 대상 미술수업이 위주이고, 고학년의 신청 빈도수는 낮은 편. 다양한 연령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굳이 미술교육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작가~지역주민들이 함께 서귀포의 자연과 문화를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확장된 지역프로그램(예, 라운드테이블)도 있었으면 함. 시민들과 작가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 콘텐츠라면 더욱 의미 있을 것.
· 입주 당시 3층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곳이 최근에 '서귀포문화원'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소식에 매우 놀랐음. 스튜디오 입구나 건물 벽면 등에 '서귀포문화원' 현판과 안내판이 붙어 있어서 창작스튜디오 본연의 위상을 상실한 인상.
· 이중섭미술관 전시공간 관련-전시공간이 협소하다는 제약이 있는 만큼 공간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이 필요(관람 동선 및 관람 거리 확보 등). 이중섭미술관이라 해서 이중섭 작품만 다루는 것보다 이중섭과 동시대 예술, 작가들을 조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면 함.

· 창작스튜디오라는 매우 좋은 환경과 훌륭한 시설에 비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작가~지역주민의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함.
· 또 제주 작가 입장에서 제주 작가들의 경우 외부의 작가들에 비해 스튜디오 입주 경험이라든가 외부 작가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창작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작가들을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려면 스튜디오 전담 큐레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향' 광주라고 알려진 데에는 그 이름에 어울리듯 예술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 전문적 기획(작가 섭외에서 운반까지), 작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서로 맞물려서 작품 출시 때 작가로서 매우 인상적이고 만족도가 높았음. 그렇듯 서귀포 공립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면서 품격있고 자연스럽게 작가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등 자체 진단과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여 연구진 명단

직 위	성 명	비 고
책임연구원	김학모	환경공학석사/토목공학박사수료
연 구 원	문순영	행정학박사
연 구 원	고영자	문학박사(예술학)
연 구 원	박종오	문학박사/학예사
연 구 원	이철호	경영학박사
연 구 원	이기문	행정학박사 수료
연 구 원	강승진	경제학박사/관광학석사
연 구 원	김 구	관광개발학박사수료
연 구 원	김지택	문학석사
연 구 원	김병희	미술학사/공간디자인
연 구 원	유원희	관광경영학박사수료
연 구 원	고영진	토목공학사/사회환경시스템학
연구보조원	양다래	경영학석사/사회조사분석사
연구보조원	윤연희	관광경영학석사
연구보조원	홍기택	미술학사/전시디자인
연구보조원	진유라	관광경영학박사수료
연구보조원	김보근	경영학석사/퍼실리테이터수료
연구보조원	강태원	해양공학석사/농어촌퍼실리테이터
연구보조원	오현미	문학석사(미학미술사학)/아트랩티 대표
연구보조원	황성림	문학박사(미학미술사학)/아트랩티 이사